

영어권문화연구

9권 3호, 2016년 12월

영어권문화연구소

Contents

Ⅰ 강민건 Ⅰ

되받아 쓰는 탈식민주의: 파농, 잔모하메드, 스피박 7

Ⅰ 김가희 Ⅰ

해석과 창의적 다시쓰기로서의 문학번역
: Vegetarian을 중심으로 29

Ⅰ 김성규 Ⅰ

죽음의 경건함과 인간적 구원
: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우베르트 파솔리니의
《스틸 라이프》 비교연구 45

Ⅰ 김종갑 Ⅰ

알렉시의 『탈주』: 경계의 사유 71

Ⅰ 박효진 Ⅰ

번역의 지향점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 ‘잔여태(Remainder)’를 중심으로 97

Ⅰ 손윤희 Ⅰ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들에 드러난 하이데거의
“세상 사람들”(Das Man) 117

Ⅱ 이 유 혁 Ⅱ

토마스 킹의 경제적 사유와 북미 원주민의
트랜스로컬리티의 문제 141

Ⅱ 이 정 일 Ⅱ

폴 비릴리오의 ‘시간, 공간, 속도’ 개념을 통해 본 성경 담론 분석
: ‘다윗과 골리앗’, ‘아브라함과 롯’의 서사를 중심으로 175

Ⅱ 이형민 · 조희정 Ⅱ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고독과 자기 긍정 201

Ⅱ 정 윤 길 Ⅱ

포스트 9·11 시대와 이스트우드주의
: <그랜 토리노>와 <아메리칸 스나이퍼>에 나타난 서부영화의
신화 내면화하기 연구 227

Ⅱ 조의연 · 조숙희 Ⅱ

『소년이 온다』 이탤릭체의 담화적 특성
: 한강과 데버러 스미스 257

Ⅱ Choi, Chang-Young Ⅱ

Male Characters in *The Great Gatsby* from Perspective
on Postcolonialism 275

Ⅱ Choi, Cho-A Ⅱ

Self-Reflective Individual and Disciplinary Power
in J. M. Coetzee’s *Disgrace* 293

<p> ┃ Han, Hak-Sun ┃ Psychological Approach to Somerset Maugham's "Rain" : Focusing on Personality Typology and the Unconscious </p>	325
<p> ┃ Ashley Harbers ┃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i>A Gesture Life</i> </p>	357
<p> ┃ Kim, Dae-Joong ┃ Race Out of Joint: (Im)possibility of Post-raciality </p>	379
<p> ┃ Kim, Jong-Wan ┃ A Reading of the Film <i>Today And The Other Days</i> Based on the Analysis of Narrative </p>	397
<p> ┃ Park, Koung-Im ┃ Research on Judaism shown in Saul Bellow's <i>Seize the Day</i> </p>	425
<p> ┃ Seo, Ju-Hyun ┃ Crossing the Wilderness: The Meaning of Toil in Hemingway's "Big Two Hearted River" and McCarthy's <i>All the Pretty Horses</i> </p>	445

-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규정 467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469
-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 474
- 『영어권문화연구』 투고 규정 481
-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482
- 원고작성 세부 지침 485
- 영어권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488

되받아 쓰는 탈식민주의*

: 파농, 잔모하메드, 스피박

강민건

I.

탈식민주의 이론은 서구지식의 전 지구적 지배에 대하여 비서구의 저항담론을 실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복적 지식 체계에 기여하고 있다. 탈식민주의 이론이 형성되기 이전의 비서구세계의 저항 담론은 단지 본질적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 서구의 지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서구 식민지배의 비윤리성을 서구적 휴머니즘에 근거하여 비판함으로써 서구의 지적 헤게모니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탈식민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주요 주제는 피식민지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제 1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 3세계 지식인에 의해 형성되고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문제는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탈식민주의 이론이 저항적 이론의 틀을 제공하는 하지만, 피식민 세계에 위치한 집단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집단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¹⁾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민족과 소수집단에

* 이 논문은 2015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탈식민 운동이 파농(Frantz Fanon)을 중심으로 알제리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실

초점을 맞추어 그 상관관계와 갈등관계를 분석해보는 것은 탈식민주의 이론이 지속하는 한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글쓰기 주체와 관련하여 현재 식민경험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정체성과 위치를 추적하는 데에도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영문학의 범주 안에서 글쓰기 주체를 설정할 경우, 대영제국의 식민 지배 하에 놓여 있었던 아일랜드는 식민내전을 경험하면서 아일랜드내의 토착 작가들과 영국의 전통 안에 포함되었던 아일랜드 작가를 설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작가들은 특수한 지형학적(topographic) 상황 하에서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기 다른 역사적 인식과 개인적 삶에 대한 이질적인 글쓰기 소재와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유한 아일랜드성(Irishness)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한 각자의 방식이다.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경우는 분면 유럽 중심주의의 틀 안에서 상상되어진 조국 아일랜드를 발견하였으며, 히니(Seamus Heaney)는 개인적 주제의식에 영향을 끼친 아일랜드 내에서 탈영토화를 글쓰기 내에서 유희한다. 그는 고유 언어와 문화의 재영토화를 통해서 개인적이며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을 글쓰기 주체로 드러낸다.

특히 아일랜드의 탈식민 운동은 단순히 아일랜드의 고립된 현상이 아

천적 운동으로 발생하여, 그 이론적 틀거지가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맞물려 재생산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이론의 주체는 서구지식 주체이거나 아니면 그 혜택을 받은 제 3세계 출신 제 1세계 지식인인 경우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의식의 개혁을 외치면서 이론의 실천성을 정당화 하지는 하지만, 결국 아카데미즘이라고 하는 학문 공간 즉 대학의 새로운 커리큘럼 생성과 관련하여 다문화적인 관점으로만 보고자 하는 경향을 띤다. 이런 경우, 이론적 발전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나, 그 이론이 피식민 토착 공간 안에서의 탈식민화 과정으로써 실질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결국 지식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지식노동자로 자처하면서 피식민자인 특히 하위주체(subaltern)를 대변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러한 태도는 서구에서 바라보는 식민공간의 모습일 뿐 실제 그 공간 안에서 어떠한 억압과 경험이 있었는지는 외면하거나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나라 분명 영국이라고 하는 식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Deane 7). 이러한 지적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체험을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의 민족주의가 지니는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아일랜드와 영국과의 관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관계, 표준 영어와 아일랜드 영어를 주축으로 하는 분파성은 보편적 자유를 대립 향으로 놓고 거기서 아일랜드의 특수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민 상황의 산물인 아일랜드의 민족주의는 특수성을 창조해 나가는 역설적인 힘이 있다(Eagleton 27)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민사회 내에서의 글쓰기 해방은 자기 주체화 과정 및 세계를 역사적 과정의 열린 체계로 재구성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조건이 된다. 이러한 필연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탈식민주주의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탈식민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 식민체계를 벗어난 이후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식민주의의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공간에서, 식민주의의 비판과 극복을 위한 담론적 실천이라고 가정 한다면, 우선 영어식 표기인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이라는 말의 의미와 범주를 규정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포스트(post-)라는 접사가 가지는 중첩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우선 그 용어의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슬리몬(Stephen Slemon)은 그의 저서 『제국 묘사하기: 탈식민주의와 텍스트성』(*Describing Empire: Post-Colonialism and Textuality*)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식민주의 이후’ 혹은 식민체계로부터 독립한 후의 상황인 ‘신식민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이 용어를 독립 후에 이루어진 민족 집단에서 토착민의 열망에 대한 명칭(45)을 의미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가 단지 공간적 의미에서 탈식민주의를 정의 내렸다면, 듀링(Simon During)은 그 의미를 더욱 실천적 의미로 확대하여, 제국주의를 경험한 민족 혹은 집단들이, 유럽 보편주의자 혹은 서구 개념과 이미지에 오염되지 않고,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욕구(27)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듀링은 오히려 탈식민주의의 표현이 가지는 과정성에 의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 전략으로써 글쓰기와 글읽기에 나타난 방법으로 용어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티핀(Helen Tiffin)의 주장은 더욱 그 의미에 명확성을 더해준다.

탈식민주의는 과정의 단계이지 완료형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사이의 지속적인 변증법의 관계를 가진다. 그 변증법속에서 제국의 지배하에 놓였던 식민주의의 후유증을 드러내 보임(dis-mantling)으로써 탈식민주의는 과정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유럽의 식민적 지배 체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형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식민주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두 세계 안 혹은 그 사이에서 유럽의 담론을 해체하고 담론적 전략을 창출한다. (95)

결국 탈식민주의 담론이 문학 내에서 하나의 탈식민화 과정으로써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완료되거나 현상적 의미에서의 탈식민주의 개념을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식민주의가 서구 제국주의가 기획했던 억압, 차이, 인종, 성 등의 문제를 전복하는 의미로써 말하기, 글읽기, 글쓰기 과정에서 일종의 실천적 담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식민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역사적 흐름을 설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식민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인 탈식민화과정으로 인식해야한다. 즉, 식민주의 상태와 탈식민주의 상태 사이의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을 지칭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탈식민주의는 현재 정신적인 식민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식민주의의 고통스런 잔해들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탈식민주의 담론의 정의를 개별성과 집단성 전략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탈식민주의자들인 파농, 잔모하메드(Aubdul JanMohamed), 그리고 스피박과 제임슨(Fredric Jameson)의 각각의 논의를 통해서 탈식민주의 담론이 과연 글쓰기 혹은 글읽기 과정에서 실천적인 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것이다.

II.

잔모하메드의 글 「소수 담론 이론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Toward a Theory of Minority Discourse: What is to be done?”)에서 주장하듯이 제 3세계에서의 집단성의 특성을 제1세계와 대비되는 제3세계 모든 사회들의 공통적이며 본질적인 특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긍정적인 표현이든 그렇지 않든 이론적 단순화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질론적 민족주의나,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주의 전략으로써 집단성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물론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기치로 삼는 제 3세계 민족주의가 탈식민주의 배태에 영향을 주었고, 유용한 참조점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탈식민 담론의 본질적인 민족주의와 구별됨으로써 가질 수 있는 효과와, 그 담론이 본질적 민족주의와 혼동됨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성²⁾이라고 하는 것은 제 3세계인들에

2) 집단성은 두 가지 측면 즉, 민족공동체적 집단성,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전지구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제 3세계의 집단성에 대한 언급은 ‘민족주의’적 집단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자의 집단성이 후자 즉 국제주의적 집단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논의에서 진행될 것이다. 민족주의라는 표현이 포함하는 특성들을 고려할 때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 제시하는 민족주의란 식민해방이후의 국가 주도적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탈식민 투쟁의 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화된 집단성을 의미하기로 한다.

게서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임을 전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탈식민주의의 집단성과 개별성을 밝히는 작업은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제3세계의 집단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탈식민 담론은 그것을 어떻게 전유해야 하는가? 그리고 탈식민 담론의 집단성이 소수자 담론들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집단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가? 탈식민 담론을 포함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소수자 담론들 간의 집단적 연대는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집단성이 탈식민 담론에 유효한 전략이 된다면 개별적 전략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의 해결점들을 본고에서 집단적 전략과 개별적 전략이 갈등관계인지 아니면 내부적 긴장관계인지를 밝혀보고 그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것이다.

탈식민담론에서 집단성의 문제는 그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 즉, 본질론으로써 민족·민족성·공동체·집단성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구성물로서의 그 개념들이 현실적으로 폐기해야 할 만큼 효과를 상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파농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1) 토착민 지식인들은 식민지에서 사실상 충분한 존재이유를 획득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탈식민화의 과정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되게 된다. …… 그들은 개인주의의 이념을 본국으로부터 배웠으나 이것은 사라져야 할 가치이며, 이미 토착민들은 그러한 가치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있다. …… 원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취급된 적이 없고, 그들은 항상 함께 고통당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식민지 지식인들이 그들의 악습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탈식민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들은 토착민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 시키며 그들의 개인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 하려 한다. (WE 47)

2) 식민주의는 구조상 다름 아닌 분리주의이며 지역주의이다. …… 이에 반해 폭력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중을 통합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주의와 종족주의를 청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폭력은 정화작업을 수행한다. 폭력은 토착민들을 열등감, 절망과 무기력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존심을 회복시켜준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맺은 열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폭력은 그들의 의식을 일깨우며 원주민들은 어떠한 화해도 거부하게 된다. 폭력을 통해 그들은 단결된 투쟁 속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법을 배운다. 이제 신비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BW94-95)

즉, 파농은 식민지 원주민들의 집단적·공동체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식민지 지식인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수입된 것으로 전제하고는 있으면서 그런 성격의 원인을 전적으로 지식인들의 이론적 실천적 제3세계로의 동화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개인적 성향에 반해 본국 토착민들은 개인으로 언급된 적이 없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으며, 그들은 함께 고통당하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에게 개인적 정체성은 부여되지 않는다. 사이드(Edward Said)가 주장하고 있듯이 유럽이 그 이외의 사회를 항상 집단적으로 취급하면서 ‘비서구’라는 이질적인 동시에 전체적인 거대한 하나의 관념으로 규정하고 있다(13)는 주장은 이러한 파농의 논지를 더욱 견고히 해주고 있다.

파농에 의하면 서구사회에 의해 강요된 식민지의 집단적·공동체적 성격은 그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파농은 그렇게 강요된 집단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화(appropriation)하여 탈식민주의, 반제국주의 해방운동의 전략으로 제시한다. 파농은 그러한 탈식민주의적 실천 운동이 지식인들이 개화되고 개인적이며 분석적인 전략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잔모하메드 또한 집단성이 제3세계를 타자로 대상화하는 이분법적 사

고에 의해 발생했음을 인식하는 동시에 제3세계가 공유하는 독특한 체험의 재현을 인정하고 있다.

소수문화에 가해진 피해로부터-이러한 피해가 개인적이고 인종적인 정체성의 서구적인 모델에 따른 제3세계 문화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파농의 지적은 유효적절하다 인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 집단주체성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소수자담론의 집단적 성격은 재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다. ……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소수자담론의 집단적 성격은 소수문화의 개인들이 항상 총체적으로 이해되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부정적이고 총칭적인 종속민의 위치를 강요당했기 때문에 억압당하는 개인들은 그러한 위치를 집단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9)

여기서 그가 말하는 소수자 담론이란 구체적으로 탈식민 담론을 지칭하는 것으로³⁾, 특히 제3세계의 소수자 담론의 집단성은 두 가지 발생 동기를 가진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집단성은 서구가 제3세계에 가한 역사적이고도 경제적인 피해의 결과이며, 동시에 인식적인 차원에서 집단성은 단순화, 대상화, 타자화의 결과인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제임슨에게서 차용한 ‘민족적 알레고리’(national allegory) 개념이다. 제임슨에 의하면, 제1세계와 제3세계 문학 작품은 리비도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에 대한 서술이 민족공동체의 문화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69). 정치적이고 공적인 경험이 특히 민족 공동체의 범주 안에서 설명되는 이유

3) 잔모하메드가 염두하고 있는 것은 탈식민 담론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하는 여성주의, 생태운동, 동성애자 운동 등을 포함하는 소수자담론의 연대 가능성이지만 그러한 다양한 층위의 담론들 중 그가 구체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탈식민 담론이다. 바로 그의 정치적 입장이 탈식민 담론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는 제3세계의 경우 자본주의로 전환이 제국주의에 의해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과정⁴⁾은 식민지에 의한 철저한 파괴와 분열의 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반자본주의적 투쟁은 반제국주의적 투쟁, 즉 민족주의적 투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없다.

제3세계의 집단성에 대한 논의는 본질론적 민족주의의 옹호와는 구분되어져야한다. 파농과 제임슨이 주장하듯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파괴한 것은 바로 제3세계의 집단성이었고 따라서 그에 대항하는 방식은 그 집단성을 회복함으로써 자본주의적 획일화에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3세계 민족주의가 소수자담론의 연대를 보장할 것인지 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전략에서 소수자담론의 연대가 탈식민주의담론에 어떤 영향을 가할 것인지는 흥미로운 일이다.

III.

탈식민주의론과 소수자담론의 연대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잔 모하메드의 주장은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

1) 여기서 바로 소수자들의 융합의 근거가 있다. 계속 지켜야 할 그들의 엄청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구 헤게모니와의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억압받고 있으며 열등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주체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4) 식민지배화 과정과 일치하는 제 3세계의 수동적 자본주의화는 노동자 주체가 생산되면서도 중심의 국민국가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주변부의 노동계급이 잉여가치의 실현으로 부터나 소비자로서 받는 “인간다운” 훈련으로부터 더욱 축출되는 현상, 주변부 노동의 이질적인 구조적 지위 뿐 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노동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현상을 다루지 못한다. 이는 주체적 타자를 철저히 부정하는 결과로부터 발생한다.

들의 차이를 무화 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그들의 공통의 정치적 기반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순응의(affirmative) 가장 근본적인 형태이다. (6)

2) 물론 그들의 작업 사이에 공유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서구적 전통의 차이에 있으며, 그것의 정체성 해체란 내부에서 시작되는 자기반성이지만, 소수자담론의 경우 그들의 작업은 서구를 마주하면서 형성된 그들의 경제적, 문화적 주변화에 뿌리를 둔 객관적인 비정체성(non-identity)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담론적으로 (재)생산해내려는 비정체성이란 소수자들에게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일 뿐이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들이 주어진 것이 결코 탈구조주의가 그 자체로, 그리고 실질적인 투쟁의 과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제공할 수 있는 해방-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조차의 징표는 될 수 없다. (15)

즉, 소수자들, 구체적으로 탈식민주의자들에게는 해체될만한 주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혹 그에 비견될 만한 정체성 따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외부 즉 서구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따라서 구조주의자들의 자기반성적인 주체해체 전략은 애초에 그들과는 문제의 시작이나 성격이 다른 제3세계 탈식민주의자들에게 해방의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피박 또한 그녀의 글에서 유사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오늘날 서구에서 가장 진보적인 비평의 일부는 서구의 주체, 혹은 주체로서의 서구(subject of the West or the West as Subject)로서의 서구를 보전하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다. 주체효과(subject-effect) 이론은 주체의 권위를 손상시킨다는 환상을 주지만 이런 인식 주체를 은폐하는 덮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15)

근대적 의미의 주체를 해체하는 반휴머니즘의 대표주자인 탈구조주의

의 주체효과이론이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탈구조주의 이론가라는 또 하나의 선명한 주체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주체 역시 근대적 주체만큼이나 억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스피박은 그들이 권력과 욕망을 재정의 하는 과정에서 권력과 욕망의 주체와 대상간의 구분을 철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러한 모호함이 권력과 욕망의 과정에서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탈구조주의자들을 탈식민 담론에 끼어 들이는 것이 단지 그들이 서구인이라는 이유로 배재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그녀의 말을 빌자면 “음흉한 의도가 깔린”(tendentious) 오독일 뿐이다. 물론 헤게모니가 부여한 특권의 위치에 있는 지식인들이 제3세계, 혹은 그의 주변부의 하층민들에 대한 언급을 삼간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지식인들의 주변부에 대한 발화가 스스로 특권적 위치를 은폐하면서 동시에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주변부에 대한 전지구적인 경제적인 착취를 은폐하면서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부의 피억압적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회피하면서 그러한 구조를 고착화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주변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며 그러한 위험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피박이나 잔모하메드도 부분적으로 탈구조적 이론의 사유화를 생산하면서 탈식민담론에 유용한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사이드가 푸코(Michael Foucault)의 담론 이론에 근거하여 서구가 동양을 타자화, 단순화, 대상화하는 작업을 비판하는 논의를 펼치면서도 그러한 서구적 담론의 의도성을 강조하고 비판한 것은 바로 탈구조주의 담론을 효율적으로 전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⁵⁾

5) 스피박의 경우, 마르크스 이론이 다루는 지구적 자본주의(경제적 착취)와 민족 국가연합(지형학적 지배)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거대해서 권력의 미세한 결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그러한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이론들, 거대구조를 응결시키는 이해관계들을 미세하게 작동시키는 ‘주체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소수자들의 연대가능성을 타진하는 푸코의 논리를 추적해보면 스피박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에 우리가 연계하는 것은 마르크스적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것은 뜻한다. 그러나 우리가 투쟁하는 대상이 권력자체라면 권력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곳마다 투쟁을 시작할 수 있고 그들 자신의 행위이기도 한 그런 투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혁명적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확실히 프롤레타리아 연합전선으로서 말이다. 권력은 자본주의적 착취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사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억압받는 곳에서 싸움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명분에 복무하고 있다. 여자들, 죄수들, 용병들, 환자들, 동성성연애자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행사되는 권력의 특정한 형식, 제약과 통제에 맞서는 구체적인 투쟁을 시작하였다. (85)

스피박의 말하는 푸코의 이러한 연대 프로그램은 착취와 지배를 구분하면서 지배 쪽이 연대정치에 기반을 둔 저항의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피박은 이러한 논지에 대해 제3세계의 하층계급에게 연대프로그램이란 역시 적절한 사태의 돌파구가 아니라고 말을 한다(83). 제3세계는 푸코가 언급하는 연대 정치(coalition politics)를 통해 모든 곤란에 맞서서 저항의 토대를 준비하도록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피박은 푸코의 연대 프로그램이 지역화된 연대프로그램으로써는 유효하고, 마르크스 전선을 따르는 거대 투쟁에 대한 대안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내리지만 이러한 지역적 프로그램이 보편화된다면 주체의 특권화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하는 셈이며, 이데올로기

형성' 이론들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반면 사이드는 푸코에 의존하면서도 푸코가 우회하고자 했던 '주체의 의도성'(intentionality of subject)을 강조함으로써 논리성을 상실했다고 본국 이론가들은 그를 비판하기도 한다.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위험한 유토피아로 귀결될 수가 있다.

IV.

이제 집단성의 문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관념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에 있어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관념적·이론적 차원에서 서구는 주체 형성 과정을 통해 필연적으로 피서구에 대한 타자의 위치를 강요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서구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를 통해 비서구가 영위하고 있는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세계에 부과된 집단성 즉 민족 국가적 전략은 제3세계가 넘어진 자리인 동시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땅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제3세계의 집단성은 민족주의⁶⁾ 이므로 제국주의에 맞서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자본주의에 맞서는 모든 진보적 담론들과 소수자 담론들의 연대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성의 확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제1세계의 진보적 소수자담론은 제3세계 하위 계층과 중심적 주체에 대항하는 협력자

6) 여기서 민족주의(nationalism)는 파농의 민족주의적 관점을 따르기로 한다. 그에 의하면 “민족주의적 현상은 ... 국가 영토를 분명히 하거나 구 식민세력의 지위를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국가로서의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 이외에, 국민생활의 전영 역에 걸친 결정력의 재탈환을 목적으로 삼는다. 역사적으로, 근본적으로 투쟁이란 민족해방을 위한 것이며,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정체성의 탈환을 위한 도구이다”(WE 13)라고 민족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파농의 정체성 문제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흑인 정체성을 간직한 순수 흑인 사회를 회복하자는 흑인 본질주의(Negritude)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흑인 본질론이 오히려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음을 파농은 역설하고 있다. 파농이 말하는 식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식민자들에게서 주입된 흑과 백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에 의거한 민족적 차별성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 식민 상황의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파생된 구조적 현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면서도, 제3세계의 피해에 관념적, 현실적 차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관념적으로는, 제1세계 진보적 담론의 주체해체 전략은 제3세계에 강요된 타자성, 타자화의 부당함을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무화시키거나 은폐할 수 있고,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식민지적 피해에 의한 열악하고도 극단적인 제3세계의 경제적 상황을 제1세계의 상황과 동일한 것으로 축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1세계의 연합전선과 탈식민주의의 무비판적 연대는 유용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한 쪽에 가깝다.

이러한 집단성의 오류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저항 전략이 제시되어질 수가 있다. 고이치 이와부치(Koichi Iwabuchi)는 그의 글 「공모된 이국성: 일본과 그것의 타자」(“Complicit Exoticism: Japan and its Other”)에서 반오리엔탈리즘적 세속화(anti-orientalistic secularization)의 개념을 도입해 개별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민족주의적 탈식민주의 전략이 종종 국가적 폭력을 은폐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세계 입장에서 서구가 비서구에 가한 관념적인 피해에 의해 형성된 집단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왜곡된 오리엔탈리즘이며, 오리엔탈리즘의 단순화된 본질주의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국가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열망을 잠재우고 계급간의 사회적 갈등을 서구의 근대화의 질병으로 왜곡한다.

정체성의 논리가 자아와 타자라는 이항대립에 기초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세계를 지배적인 문화 지형도(dominant cultural map)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 서구는 이제 타자를 단지 서구라는 자기의 화석화 혹은 그에 대한 대립적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타자로서 인식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 이제 서구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적 공모는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파편화되고 다중적이며 유동적인 모든 개체성들을 주시해야 한다. 반오리엔탈리즘적 속성을 통해 우리는 탈 지역적으로 모든 다원화된 목소리들의 특수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어

면 정체성도 고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완고한 국가적 시각의 문화 경계를 허물고 국가대 국가로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자아와 타자사이의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서로 돕고 말하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그러한 다양성들에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서로 다른 특정한 경험으로부터 서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변화 되거나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7-9)

서구의 주체형성 과정은 다양한 제3세계를 단순화하여 거대하고 절대 불변의 타자로 대상화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그래서 고이치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따라서 주체해체 전략의 비판이 또 다른 주체를 세우는 작업, 또 다른 타자를 만들어 내는 작업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주체 형성에 대한 개별화된 세속적인 전략으로 인해 우리는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단적 전략을 택함으로써 빠질 수 있는 관념화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개별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나와 연관지어 발화할 수 있는 태도, 즉 연구의 대상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므로 오히려 문제의식의 구체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성찰적인 논의를 보장해줄 것이다.

결국, 푸코식의 전지구적 연대는 더 큰 단위의 집단성을 말하고는 있지만 각 개인들이 민족적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개별화, 파편화 되는 것을 상정하므로 지금 제3세계의 민족 단위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든 제국주의의 피해라는 이슈에 대항하는 집단적 전략의 폐기를 말하고 모두가 하나 된다는 전략은 제3세계에서만 적용되는 피해를 망각하라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집단적으로 가해진 피해, 상처가 외면되거나 다른 종류의 문제 속으로 파묻혀 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성을 불가피한 전략으로 삼는 이들은 반본질론적 민족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너무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성찰적이어야 한다는 충고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 탈식민주의 담론에 대한 가능성 논의는 집단적 전략이나 개별적 전략의 이론적 한계가 아니라 각각의 전략이 식민지배의 상처가 아직도 보상되지 않았다는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집단성이나 개별성이라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탈식민 담론의 생산이 이론에 그치는 작업이 아닌 이상, 이러한 탈식민 담론의 공통된 실천적 입장을 밝히려는 시도는 유효하다.

제임슨은 제3세계 문학을 알레고리(allegory)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알레고리가 상징이나 리얼리즘과는 달리 일대일 대응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사이의 다차원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탈식민론과 여타의 소수담론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데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탈식민 논쟁에서 제3세계의 민족적 알레고리는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집단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알레고리는 세계가 모순적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 최종심급에서의 결정(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과 다른 한편으로 중첩된, 상호 침투하는 역사성 사이의 긴장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3세계의 집단성, 민족주의는 반본질론적인 것이며, 반본질론적 민족주의란 민족이라는 집단성을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어떤 것으로 상정하지는 않는다. 전략으로서의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로 민족주의를 극복하자는 것이며, 민족차원의 상처가 보상되는 순간, 즉 그것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순간 민족주의를 폐기하고 또 다른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적 지도그리기(cognitive mapping)를 포기한 집단성의 추구는 그 토대를 잃어버릴 것이고, 집단성의 추구를 전제하지 않는 개별적 전략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공허한 이론에 머물 것이며, 결국 개별적 전략과 집단적 전략은 탈식민주의 담론에 서로 상호 침투하는 상보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아직 유효한 그리고 불가피한 민족·국가단위의

집단성 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집단적 전략이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관념적 도덕론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때 개별적 전략은 끊임없이 구체적인 개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인식적 지도 그리기’의 작업을 통해 성찰과 실천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탈식민주의의 집단성과 개별성 전략은 문학적 글쓰기에서 식민문학에 반동으로 발생한 탈식민 문학을 탄생시켰으며, 탈식민 문학은 곧 탈식민주의가 글쓰기 안으로 들어와 작가의 집단적 민족주의와, 개별적 글쓰기의 자율성을 획득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대구대학교)

■ 주제어

아일랜드성, 민족주의, 히니, 소수자 담론, 오리엔탈리즘

■ 인용문헌

- 이경덕.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제3세계」. 『실천문학』. (1994년 여름) : 78-103. Print.
- Deane, Seamus. *Celtic Revivals*. London: Faber & Faber, 1985.
- During, Simon. “Postmodernism and Post-colonialism Today.” *Textual Practice* 1: 1, 1987. Print.
- Eagleton, Terry. “Nationalism: Irony and Commitment.”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Eds. Fredric Jameson and Edward Sai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Print.
-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1963(WE로 표기함)Print.
- _____. *Black Skin and White Mask*. London: Grove, 1967.(BW로 표기함)Print.
- Heaney, Seamus. *Preoccupations: Selected Prose 1968-1978*. London: Faber and Faber, 1980. Print.
- _____. *Selected Poem 1965-1975*.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85.(SP로 표기함)Print.
- Iwabuchi, Koichi. “Complicit Exoticism: Japan and its Other.” *The Australian Journal of Media and Culture*. Vol. 8 No. 2, 1994.
- Jameson, Frederic. “Third 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15, 1986. Print.
- JanMohamed, Abdul. *Manichean Aesthe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rint.
- Lloyd, David. *Anomalous States: Irish Writing and Post-colonial Moment*.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Print.

- Molino, Michael. *Questioning Tradition, Language, and Myth*. Washington D. 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94. Print.
- Porter, Dennis. "Orientalism and its After." *The Politics of Theory*. Colchester: University of Essex Press, 1983. Print.
- Said, Edwar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8. Print.
- Slemon, Stephan. *Describing Empire: Post-Colonialism and Textuality*. Eds. Cris Tiffin and Alan Lawson. London: Routledge, 1994. Print.
- Spivak, Gayatri. "Can the Subaltern Speak?," Eds. C. Nelson and L. Grossberg.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Basingstoke: Macmillan, 1988. Print.
- Tiffin, Helen. *The Post-colonial Reader*. Eds. Bill Ashcroft and Gareth Griffiths. New York: Routledge, 1997. Print.

■ Abstract

**Postcolonialism Writing Back:
F. Fanon, A. JanMohamed and G. Spivak**

Kang, Min-Gun (Daegu Univ.)

The essay examines these interrelated questions in terms of what I would redefine as “postcolonialism writing back.” Rewriting postcolonialism involves demarcating cultural territories as self and other, center and margin, and indigenous intellectuals in the third world and minority intellectuals in the first world. In relation to this definition, Fredric Jameson demonstrates that third-world texts, even those which are seemingly private and invested with a properly libidinal dynamic necessarily project a political dimension in the form of “national allegory.” Meanwhile, Aubdul JanMohamed argues that the minority discourse should be located in non-identity—that is, not in shared identity such as race, nation, and gender, but rather in the shared experience of economic and cultural marginalization. At this juncture, the writing subject should be in the cultural and political thinking which is able to dialectically encompass both the collective tactics in third world and the individual one in First World. By doing this, the postcolonial writer can achieve the autonomy of his/her poetics of identity.

■ Key Words

Irish-ness, nationalism, Seamus Heaney, minority discourse, orientalism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해석과 창의적 다시쓰기로서의 문학번역*

: *Vegetarian*을 중심으로

김 가 희

I. 서론

“어떤 번역가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원전의 정확성에 과도하게 얽매어서 자국민의 언어나 그 특성을 손상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자국민의 고유성에 지나치게 얽매어서 번역해야 할 원작품을 훼손하는 것이다.”¹⁾ 이는 번역이 원천언어로부터 목표언어로의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번역가의 딜레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베르만(Berman)은 이 딜레마가 절대적이 아니며 번역가가 독자를 자신의 지평으로 삼기 때문에 번역의 가독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²⁾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독성을 살린 유창한 번역은 문학번역과 관련한 오역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가독성은 충실성과 대립되는

* 본 논문은 2016년 10월 22일 한국번역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1) Antoine Berman, 윤성우·이향 역,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9), 7.

2) Antoine Berman, 윤성우·이향 역,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1), 101-104.

개념으로, 전통적으로 가독성은 의역론과, 충실성은 직역론으로 짝을 지어 연결된다.³⁾ 이는 더 나아가 자국화와 이국화의 논의⁴⁾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히기 위한 윤문 및 상이한 문화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번역가의 융통성이 원문의 자구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 즉 오역으로 치부되기 다반사였다. 2016년 맨 부커 인터내셔널(Man Booker International) 수상작인 『채식주의자』의 번역본도 예외는 아니다.

『채식주의자』의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는 맨 북커 상 심사위원장인 보이드 톤킨(Boyd Tonkin)으로부터 ‘번역 곳곳에서 아름다움과 공포를 놀랍도록 잘 섞어 완벽하리만큼 적절하게 번역했다’⁵⁾는 평을 받으며 이 상의 수상에 번역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받은 것과는 별개로 원문을 무시하고 너무 자의적으로 번역한 곳이 많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받았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오역의 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오역 논쟁의 중심에 선 『채식주의자』의 영역본 *The Vegetarian*의 번역 텍스트 분석을 통해 문학번역이 원문 해석을 토대로 한 창의적인 다시 쓰기임을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번역 사례를 발췌하여 오역 논의가 아닌 해석학(hermeneutics)적 관점에서 번역가의 적극적 개입과 그에 따른 효과를 조명해 본다.

3) 정혜용, 『번역논쟁』(파주: 열린책들, 2012), 97.

4) 이상원,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I review』 제1권 (2011.01), 118.

5) “Deborah Smith’s perfectly judged translation matches its uncanny blend of beauty and horror at every turn.” (Korea JoongAng Daily, 2016.08.01.)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 {cited 2016.09.20}.

II. 해석과 창의적 다시쓰기로서의 번역

“번역은 겸손한 작업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문학작품을 번역 한다는 것은 다른 언어로 그 작품을 창의적으로 다시쓰기 하는 것이며, 번역의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과 편집상의 결정이 이루어진다.”(“translation is a humble service, not self-promotion,” Smith, who appeared jetlagged and shy, stressed translating a work of literature equaled to” creatively rewriting it in another language, a process that involves varying degrees of interpretation and editorial decision. Yonhap News, 2016.06.15.)⁶⁾고 한 맨 부커상 공동 수상자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인터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누군가의 생각이 혹은 발화가 글로 옮겨지는 순간 그 글은 원 발화자의 의도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는 리코르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굳어진 텍스트, 즉 원천 텍스트를 읽는 텍스트 수용자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은 하나의 해석이다. 번역가가 생산한 번역 텍스트는 번역가가 원천 텍스트에 대해 내리는 최종적 결과물이며, 이렇게 생산된 번역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의도한 의미로 부터의 독립, 즉 의미론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⁷⁾ 그렇다면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이론적으로 수용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수용이론은 작가와 작품으로부터 텍스트와 독자에게로 관심이 전이된 문하이론⁸⁾으로 문학 텍스트를 완결된 유기체로 보지 않고 수많은 여백(blanks)이나 틈

6) <http://english.yonhapnews.co.kr/culturesports/2016/06/15/0701000000AEN20160615009000315.html> {cited 2016.09.23.}.

7) 윤성우 · 이향, 『번역학과 번역철학』(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37-39.

8) R. Holub, *Reception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 Newyork: Methuen, 1984), xii.

(gaps)이 있는 미결정체로 규정한다. 이서(Iser)는 이 여백과 틈을 독자들이 ‘독서 행위’를 통해서 메우고 채워 문학작품을 완성하는 공동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이를 번역에 대입해 보면 번역과 번역가의 목적 및 관점 그리고 시기 및 상황에 따라 텍스트의 여백과 틈이 달리 메워지므로 다양한 해석이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가다머(Gadamer)의 해석학적 개념 중 하나인 이해의 지평(the horizontal of understanding)을 발전시킨 기대지평¹⁰⁾(horizon of expectation)의 개념을 적용하여 원전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텍스트를 독자의 기대지평에 맞게 해석하여 문학작품을 재탄생시키는 것(김가희·박윤희, 2014: 11)으로 번역가를 저자와 동등한 지위로까지 부상시킬 수 있다. 이는 데보라 스미스가 한 인터뷰에서 “훌륭한 한국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면 그 번역서가 훌륭한 영문학이 되어야 한다.”(If you’re translating a great work of Korean literature, then your translation has to be a great work of English literature. Interview with Allie Park, 2014.06.15.)¹¹⁾라고 말한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비영어권 작품을 대상으로 맨 부커 인터내셔널 수상작을 결정할 때 작가와 번역가를 공동수상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원문 중심의 번역에서 그 축이 독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번역현실에서, 발휘되는 독자의 기대지평을 고려한 번역가의 해석이 오역으로 비취질 수 있는 번역사례를 발췌하여 번역가의 해석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9) Ibid, 95.

10) 기대지평은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시대적 기준으로 시대에 따라 변하는 시대적 가치 지평 속에서 움직이므로 텍스트의 의미는 기대의 역사적 지평에 의해 언제나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가능한 ‘열린 지평’이 된다. (신용철, 「수용미학과 그것의 성서 해석학적 의의」, 180)

11) <http://www.ktlit.com/allie-park-interviews-translator-deborah-smith-the-vegetarian/>

사례들을 어휘차원, 문맥차원, 타문화 수용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본다.

1. 어휘차원의 해석

<사례 1>

ST: 무엇보다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교묘한 집에 있고 싶지 않았고, 필경 어두운 아내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지 않았다. (113)

TT: But in any case, he simply couldn't face the thought of sitting there in that brightly lit apartment, waiting for his wife to come home, only to be confronted with the darkness in her face. (93)

사례 1에서 밑줄 친 ‘교묘한’은 형용사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그 뜻이 첫째 달이 썩 맑고 밝다, 둘째 썩 희고 깨끗하다. 셋째 매우 조용하다로 정의되어 있다. TT에서는 ‘that brightly lit(그렇게 환히 밝은)’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번역가는 ‘불이 환하게 켜진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고 싶지 않았고’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의도가 아이가 잠들고 아내가 오지 않아 조용한 아파트인지, 잠든 아이를 위해 깨면 놀랄까봐 불을 켜놓은 상태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번역가의 해석은 작가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

<사례 2>

ST: 짧고 민승민승했던 연애시절, 우연히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가 스웨터 아래로 브래지어 끈이 만져지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조금 흥분했었다. (11)

TT: When I was a young man barely out of adolescence, and my wife and I were dating, I happened to put my hand on her back only to find that I couldn't feel a bra under her sweater, and when I realized what this meant I

became quite aroused. (5)

사례 2에서 밑줄 친 형용사 민숭민숭¹²⁾은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평범한’의 의미로 사용되는 ‘밋밋하다’의 유의어로 ‘민숭민숭’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별다른 특징이 없는 무미건조한 연애’를 의미한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스미스가 “당연히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원문을 번역문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고 적합한 문장 구조와 어휘를 찾기 위해 공을 들였다¹³⁾”고 피력한 그 이면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도 연애 시절을 수식할 의미로 사전에 정의된 1과 2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청소년기를 갓 벗어난 어린(young)’의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 진다.

2. 문맥 차원의 해석

<사례 1>

ST: “그래줄래요? 우리집엔 암만 오래도 오지 않고, 그래도 당신이 만나자면 어려워서라도... 하긴, 개가 그런 어려운 거 알 앤 아니지만.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는지.”(80)

TT: “Would you? We haven’t had her round in such a long time, and if you were to go to see her, even if it’s a bit awkward... but you know, it’s not as

12) 「형용사」

「1」 몸에 털이 있어야 할 곳에 털이 없어 번번하다.

「2」 산에 나무나 풀이 우거지지 않아 번번하다.

「3」 술을 마시고도 취하지 않아 정신이 멀쩡하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13) 오기·오역도 새로운 시도의 번역... “외국 문화 중심의 해석 필요”(머니투데이, 2016.06.01.)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6053010024867>.

though she doesn't understand the difficulty. She knows that's just how things turned out.'(64-65)

이혼을 하려는 동생을 걱정하는 언니가 오라해도 오지 않는 동생을 만나보겠다는 남편에게 고마우면서도 동생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형부가 처제를 만나 이혼을 만류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동생이 알고 만나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다. TT에서는 오랫동안 동생이 찾아오지 않았고 형부에 대한 어려움을 동생이 모르지 않을 것이므로 남편이 어색하더라도 찾아가서 만나준다면 좋겠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원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원문을 모르는 영어권 독자에게 큰 문제없이 자연스러운 수용이 가능해 보인다.

<사례 2>

ST: 어두운 숲이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헤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봐. 무서웠어. 추웠어.(18)

TT: *Dark woods. No people. The sharp-pointed leaves on the trees, my torn feet. This place, almost remembered, but I'm lost now. Frightened. Cold.*(12)

사례 2는 소설의 특징인 시적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혜의 독백의 일부분으로 번역가의 적극적 개입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동사를 생략하고 명사를 반복하여 간결한 표현과 시적 어조를 구현하는 식의 구문 변화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ST에서 길을 잃어 헤매면서 나무에 긁힌 얼굴과 팔의 상처를 TT에서는 나무에 달린 뾰족한 나뭇잎들과 상처 난 발로 대구구조를 살려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번역하고 있다. 이는

한강의 시적인 문체를 영어권 독자들이 한국 독자들과 최대한 근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¹⁴⁾ 원작의 효과를 재연하기 위해 채택한 번역가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사례 3>

ST: “저녁은 먹었어요?”

“대충”

“제대로 먹어야지, 왜 대충 먹어요.”(78)

TT: ‘Have you had dinner?’

‘Yeah, I grabbed something on the way.’

‘you have to eat properly, why do you always just grab something on the go?’(63)

모든 번역은 원문보다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례 3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번역하려는 것으로 ST에서 대충 먹었다는 것이 TT에서는 오는 중에 뭘 좀 먹었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베르만은 텍스트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은 텍스트의 총량을 증가시킬 뿐 텍스트의 말하는 힘이나 의미의 작용을 증가시키지 못하며 번역하기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경향으로 설명한다.¹⁵⁾ 그러나 이러한 변형이 번역가의 창의적인 해석의 결과로 빛을 발할 수도 있다.

14) 절묘한 개입... 한강을 빛낸 번역은 달랐다: 맨부커상 ‘채식주의자’ 테버러 스피스 번역의 차별점(한국일보, 2016.05.19.)

<http://www.hankookilbo.com/m/v/6516f738653e415a8f3dc612f71b6757>.

15) Antoine Berman, 윤성우·이향 역,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서울: 철학과 현실사, 2011), 79-81.

3. 타문화 수용차원에서의 해석

<사례 1>

ST: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52)

TT: While Father ties the dog to the tree and scorches it with a lamp, he says it isn't to be flogged. He says he heard somewhere that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er punishment. (41)

사례 1은 기르던 개를 아홉 살 난 딸아이를 물어뜯은 벌로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여 다 같이 나누어 먹는 대목이다. 달리다 죽은 개가 육질이 더 부드럽다는 원문은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한 영어권 독자들의 혐오감을 고려하여 영어권에서 수용 가능한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하는 것이 더 가벼운 벌’이라는 번역을 생산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천 텍스트의 메시지는 상이한 가치관에 따라 항상 새로이 구축되고 다른 언어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투리(Toury)는 번역과 원문 사이의 등가관계 추구를 지양하고 목표 문화에 있어서 번역의 수용성을 지향하였다. (Venuti, 2013: 12-13) 사례 1에서의 번역가의 해석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례 2>

ST: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온 밤이면 나는 술기운에 기대어 아내를 덮쳐보기도 했다. 저항하는 팔을 누르고 바지를 벗길 때는 뜻밖의 흥분을 느꼈다. (39-40)

TT: So yes, one night when I returned home late and somewhat inebriated after a meal with colleagues, I grabbed hold of my wife and pushed her to the

floor. Pinning down her struggling arms and tugging off her trousers, I became unexpectedly aroused. (30)

사례 2에서 ST의 ‘회식’이 TT에서는 ‘동료들과의 식사’로 번역되었다. 이는 한국의 회식문화가 낯선 영어권 독자를 위한 번역으로 번역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빈약화를 불러오는 번역손실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ST에 사용된 ‘딛치다’는 사전적의미로 1) 좋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닥쳐오다, 2) 들이닥쳐 위에서 내리누르다, 3) 무엇을 잡아내려고 휩싸서 들이닥치다로 사용되는 단어이나 한국어에서 관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성행위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번역가는 ‘아내를 붙들고 바닥에 밀어 붙였다’로 시각화 시켜 그 해석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유려함을 더하고 있다.

<사례 3>

ST: 사장 부인이 화사한 사교적 톤으로 아내를 염려했다. 아내는 웃지도, 얼굴을 붉히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은 채 대답 없이 그 여자의 우아한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 응시가 좌중의 기분을 끔찍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을까. (p.33)

TT: There was something flamboyant about the friendly, sociable tone in which my boss's wife expressed her concern. But the demure, apologetic smile which was the only reasonable response never came, and without even having the grace to look embarrassed, my wife simply stared baldly at my boss's wife. That stare appalled everyone present. Did she not even recognize the situation for what it was?(25)

사례 3은 사장과 간부들의 부부동반 모임에 과장으로 처음 참석하게 된

남편을 따라 간 영혜가 거의 식사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사장 부인의 질문에 대답 대신 보이는 영혜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ST에서 영혜의 무신경하고 태연한 태도를 TT에서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당연한 듯 ‘차분하면서도 미안한 미소를 짓지 않았고 체면치레로라도 난처해하는 표정을 보이지 않고’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번역가가 아래 직원의 부인이 상사 부인에게 보여야 할 태도, 즉 조직 사회의 위계가 부인들 사이에서도 작용하는 한국 문화를 해석해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분석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 분석에 관한 논의를 위해선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에 관한 조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불과 28세에 불과한 스미스는 한국어를 독학한지 3년 만에 처음으로 *The Vegetarian*을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한국문화는커녕 한국인도 만난 적이 없었던 스미스는 한국어가 영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다¹⁶⁾고 한다. 번역은 작가와의 협업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었고 거의 모든 것을 사전에 의지했다고 밝히고 있다.¹⁷⁾ 이로써 어휘차원의 해석에서 살펴본 어휘의 해석이 사전적 의미만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스미스는 한 인터뷰¹⁸⁾에서 한국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번

16) Man Booker International 2016: Han Kang and British translator share £50,000 prize for *The Vegetarian* (INDEPENDENT, 2016.05.17)

<http://www.independent.co.uk/arts-entertainment/books/news/man-booker-international-2016-han-kang-and-british-translator-win-prize-for-the-vegetarian-a7032911.html>. {cited 2016.09.29.}

17) Han Kang's *The Vegetarian* wins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BBC News, 2016.05.17)

<http://www.bbc.com/news/entertainment-arts-36303604> {cited 2016.09.29.}

18) Allie Park interviews translator Deborah Smith (*The Vegetarian*) (Korean

역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한국인이 아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수정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번역하는 것이 문화적 예외주의(cultural exceptionalism)를 방조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타문화 수용차원에서의 해석에서 살펴본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관한 내용을 달리 번역한 것은 한국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문화 자체를 전달하려는 것 보다 영어권 독자들의 수용가능성에 무게를 둔 해석적 차원의 번역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문맥차원에서의 해석의 사례 2의 경우 한강의 시적인 문체를 살리기 위해 간결한 표현과 어조에서 번역가의 개입이 드러나 있다. 스미스는 문학번역의 성패가 원천언어에 대한 지식보다 출중한 목표언어에 달려있으며 Vegetarian 번역의 핵심도 번역자의 모국어인 영어로 작품의 스타일과 목소리를 재연하는 방법이었다고 설명한다.¹⁹⁾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가의 개입이 드러나는 창의적인 다시쓰기가 문학번역의 성패와 관련이 있다 하겠다.

III. 결론

원작이나 작가가 아닌 독자 중심으로 번역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견해는 더 이상 낫설지 않다. 그러나 맨 부커상이라는 해외 우수 문학상을 국내 작가가 수상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그 일등 공신이 영어권 문

Literature in translation, 2014.06.15.)

<http://www.ktlit.com/allie-park-interviews-translator-deborah-smith-the-vegetarian/> {cited 2016.09.30.}

19) How a self-taught translator created a literary masterpiece one word at a time (PRI's The World, 2016.05.18.)

<http://www.pri.org/stories/2016-05-18/how-self-taught-translator-created-literary-masterpiece-one-word-time> {cited 2016.10.03.}

화에 맞는 문체와 원문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 탁월한 번역이라는 평은 놀라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채식주의자』의 영역본 *The Vegetarian*의 번역 텍스트 분석을 통해 문학번역이 원문 해석을 토대로 한 창의적인 다시쓰기임을 해석학(hermeneutics)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텍스트 층위의 해석은 수용이론으로, 타문화 수용차원에서의 해석은 독자의 기대지평으로 설명 가능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번역가의 번역관과 문학적 감각, 그리고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번역을 원문의 그림자가 아닌 창의적 다시쓰기로, 번역가를 저자와 동등한 지위로까지 격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대학교)

■ 주제어

문학번역, 해석학, 기대지평, 채식주의자, 다시쓰기

■ 인용문헌

- 김가희·박윤희. 『『위대한 개츠비』번역평가와 수용이론』. 『통역과 번역』, 16. 2 (2014), 1-29. Print.
- 신응철. 「수용미학과 그것의 성서 해석학적 의의」. 『철학논총』23 (2001): 169-190. Print.
- 양트완, 베르만.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윤성우·이향 역.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9. Print.
- _____. 『번역과 문자: 먼 것의 거처』. 윤성우·이향 역. 서울: 철학과현실사, 2011. Print.
- 윤성우·이향, 『번역학과 번역철학』.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Print.
- 이상원.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I review』, 1 (2011), 113-125. Print.
- 정혜용. 『번역논쟁』. 파주: 열린책들, 2012. Print.
- Holub, R., *Reception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 Newyork: Methuen, 1984. Print.
- Venuti, L.,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2013. Print.

분석작품

- 한강, 『채식주의자』, 파주:창비, 2007. Print.
- Han Kang, Smith, D.(Trans.), *The Vegetarian*, London: Portobello, 2015. Print.

■ Abstract

**Literature Translation as
interpretative–creative rewriting:
Focused on *The Vegetarian***

Kim, Ga-Hee (Incheon Univ.)

The Vegetarian by Han Kang won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Award this year, which gives equal acknowledgement to both the writer and Deborah Smith, the English translator. Notwithstanding being favorably reviewed in the media including Boyd Tokin, chair of the Man Booker Prize recent panel of judges, the translation has been the center of controversy over its translating style in recent weeks. The translator has been accused of “overtranslating,” or adding too much to make the work accessible to foreign reader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discusses translating a work of literature equals to creatively rewriting it in another language based on interpretation of the source text. To do so, some of the translated text showing additional explanations necessary to deliver the original’s messages and the translator’s judgment and decision as regards Korean cultural things, practice, and language are selected and examined closely from the perspective of hermeneutics. This allows us to consider a translator as a creative writer, judging from his or her translational perspectives, a sense of literature, and language proficiency. Translation may be seen as the creative rewriting which is

equal with an original text.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hermeneutics, horizon of expectation, The Vegetarian, rewriting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죽음의 경건함과 인간적 구원

: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우베르트 파솔리니의 《스틸 라이프》 비교연구

김 성 규

I

모든 생명의 종착역인 죽음은 지난 수천년 동안 인간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영역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생명체 중 최고의 생명력을 가진 ‘완보동물’(tardigrada)¹⁾조차도 시간의 파도에 떠밀려서 결국 최후를 맞이한다. 죽음을 맞이한 생명체는 그 어떤 존재라도 삶 속에 남겨진 자들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황훈성은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에서 죽음은 철저히 “일인칭으로 체험이 불가능하며 대체 또한 불가능한 고유 개별적 체험”(15)이기에, 죽음으로 인한 자아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죽음은 그야말로 완전한 무지가 가져오는 절대적인 공포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오래 전부터 인간은 저마다 죽음에 관련한 갖가지 ‘의식’(ritual)을 만들거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신의 존재, 문학 등으로 이와 같은 공포를 현실에서 부정

1) 영하 273℃, 영상 151℃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며, 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10년을 버틸 수 있고, 진공상태에서조차도 생존한다. 심지어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농도의 방사성 물질 1,000배에 달하는 양에 노출되어도 죽지 않는다. 평균 수명은 150년이다. -출처: 『두산백과』

하며 불멸하는 무엇이 되려고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이룩한 과학 지성의 발달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의식을 지탱해온 절대자로서 신이 지닌 위신을 급격히 추락시켰고, 죽음에 관련한 의식들을 간소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자본이 그 관련 의식들마저 잠식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혹은 죽기도 전에)은 하나의 상품처럼 상조회사에 팔려나간다. 자본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위를 점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달라졌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들마저도 혈육의 죽음을 모른척하는 세태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학 지성이 짓밟아버린 ‘근대 이전의 신’ 위에 자본이라는 새로운 신을 맞이하였고, 이 새로운 신은 인간의 존엄성 위에 군림한다.

레프 톨스토이(Lev Tolstoi)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The Death of Ivan Ilych*)과 우베르토 파솔리니(Uberto Pasolini)의 《스틸 라이프》(*Still Life*)는 바로 이러한 피상적 인간관계가 강화된 차가운 자본의 시대에 그려지는 죽음의 초상과 그 의식, 새로운 형태의 장례문화에 대해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다. 먼저 톨스토이의 작품에서는 주인공 이반 일리치(Ivan Ilych)가 어느 날 갑작스레 맞이하는 죽음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나 주변 인물들이 그의 죽음을 그저 타인에게 일어나는 고통 정도로 대하는 일상 등이 그려진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깊은 병폐와도 같은 자기안일주의나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이반 일리치라는 인물 자체가 일으키는 각종 태세 변환 등은 죽음을 보다 깊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소재가 됐다. 정막래와 김용일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죽음이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시키는지 알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죽음의 공포가 종극에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국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Elizabeth Kubler-Ross)가 『죽음과 죽어감』(*On Death and Dying*)에서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태

도를 ‘부정과 고립’부터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5단계로 정립한 이론에 부위훈이 수정을 가한 것을 토대로 이반 일리치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여 개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일으키는 반응에 대해 연구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필자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파솔리니의 《스틸 라이프》와 비교를 통해, 현대사회에 들어 급격하게 추락하는 죽음의 경건함과 인간을 구원하는 진정한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비교연구를 위해 채택한 파솔리니의 《스틸 라이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작품은 장례하나 치러줄 이 없이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채 죽은 이들에게 국가가 대리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중심 소재로 다룬다. 사실 이러한 일조차도 도심 곳곳에 알게 모르게 쌓여만 가는 시체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가적 행정인데, 그 일을 떠맡고 있는 작품의 주인공 존 메이(John May)는 잊혀진 채 죽은 그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고 자 열과 성을 다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여러 인물들은 죽은 이들을 처리하는 일을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만큼이나 저열하고 가볍게 여긴다. 존보다 강력한 기득권을 쥐고 있는 다른 인물들이 조성하는 냉혹한 현대사회의 분위기에 의해서, 작품 속 망자들은 한 때는 인간이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저속한 취급을 받고, 그들의 죽음이 가진 경건함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한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적 행정에 홀로 맞서는 이가 바로 존이고, 그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반 일리치가 겪는 신에 의한 구원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인간에 의한 구원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죽음과 관련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온 톨스토이의 작품과, 그와는 달리 작품명조차 생소한 파솔리니의 《스틸 라이프》의 비교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와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죽음의 경건함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구원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새롭고 인간적인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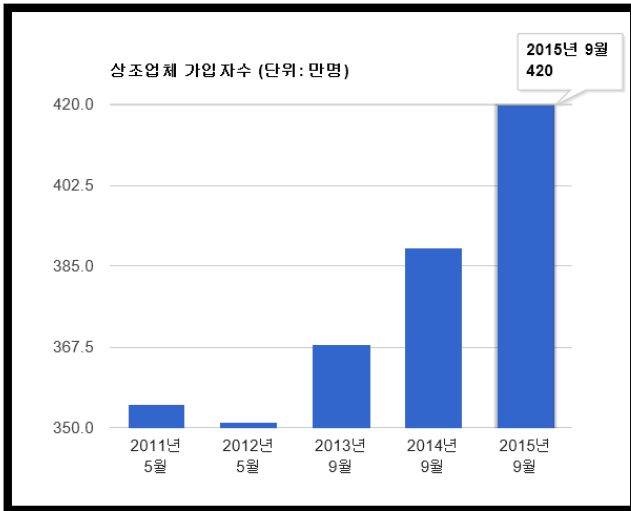
II

II.1. 자본화되는 죽음

인간은 고도의 지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집단을 구축하여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 인간은 수천년 동안 지속변모해온 수많은 의식과 문화를 토대로 구축한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다층적으로 서로가 연대한 무수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간다. 만약 그 관계망 속 누군가가 어느 날 죽음이란 사건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와 연관된 이들은 저마다 슬픔이나 절망 혹은 기쁨 등의 갖은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 죽음에 각각의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와 같은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을 어네스트 베커(Ernest Becker)는 『죽음의 부정』(*The Denial of Death*)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동물은 다른 동물들이 옆에서 쓰러져 죽어도 한가로이 풀을 뜯는다. 죽음에 대한 얇은 성찰적이며 개념적인 것이기에 동물은 죽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80). 베커는 이처럼 죽음을 관념화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는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과 연관된 이들의 죽음에 의식을 치르거나 감정을 표현하고, 그 죽음에 복잡한 의미를 산정할 수 있다. 동물에게 있어 죽음은 그저 “무신경함으로 더불어 살아가다 사라지는”(80) 육체의 멈춤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의식이 결여된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꿈과 상징의 세계에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42)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의 자의식과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우주와 자신과의 관계를 추적해나가며 살아간다. 그렇기에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과 관계하는 또 다른 인간의 죽음에 경악하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죽음이 주변인들에게 ‘공유되는 감정적 상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점점 더 사적인 사건의 영역으로

분리 되고 있다. 파울 페르하에허(Paul Verhaeghe)는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Identeit*)에서 인간의 “가장 오래된 공포가 분리의 공포”이며, “타인이 궁지에 빠진 우리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둘지도 모른다는 공포”(19)라고 말한다. 이처럼 현대사회 자본의 힘 앞에 가속도를 더하는 죽음의 개인화는 페르하에허가 말한 분리의 공포를 더욱 강화한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득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안에서는 “윤리와 사회가 ‘시장’에 복종”(130)하기 때문에, 죽음의 의식을 치루는 것은 인본주의적 유대감에 기반 하는 것이 아닌 자본의 흐름에 자연스레 편입된다.



<그림 1> 상조업체 가입자 수 증감 현황²⁾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장례를 위한 자본을 미리 축적해두어, 현세와의 이별을 스스로 준비하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2) <<http://www.fnnews.com/news/201605041401095049>>

죽음이 얼마나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환원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 죽음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가는 현 추세 속에, 산자는 망자에게 정형화된 양식과 금액에 맞춰진 장례를 치러주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마저도 포기한다. 거대하고 막강한 자본의 힘에 의해 죽음이 상품화되고 있는 것이다. 페르하에허의 말처럼 “사회진화론의 최신 버전인 신자유주의³⁾는 자연 대신 ‘시장’을 보존”하려고, “숫자와 도표로 중무장”(89)을 한 뒤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힘으로 무참히 짓밟는다. 죽음도 그 같은 자본의 칼바람에 예외일 수는 없다.

II.2. 죽음의 경건함

파솔리니의 《스틸 라이프》에서는 상품화마저 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의 ‘고독한 장례식’이 그려진다. 거리의 부랑아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연이 끊긴 자들이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영국에서 아무런 연고를 발견할 수 없는 외국인들 등은 사후에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의한 장례를 치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해주는 장례는 사실상 그들의 시체를 대량으로 폐기처분하는 작업이다. 고독사 등으로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찾아올 이 하나 없는 시체들은 국가 입장에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이 여겨지고, 그들의 처분을 도맡아하는 공무원이 있다. 그가 바로 《스틸 라이프》의 주인공 존이다. 존은 앞서 언급한 국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이고, 그 속에서 죽음의 경건함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존은 비록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이들이 시체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애와 인간관계, 종교관 등을 조사하여 망자에게 적합한 장례를 치러주려 최선을 다한다. 이처럼 각각의 케이스를 세세히

3) 페르하에허는 자유주의를 정통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로 구분한다. 여기서 정통 자유주의는 국가와 사회를 개별적으로 보지만,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시장에 종속시키는 형태의 자유주의를 말한다. 즉, 거대해진 자본의 힘이 국가를 쥐락펴락하는 형태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조사하는 그의 일처리 방식은 더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윗선의 미움을 사 해고를 당하게 된다. 윗선에서 보는 존의 일처리 방식은 시간과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림 2, 3〉 홀로 망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존(좌)과 화장한 이들의 유골을 한 무덤에 모조리 쏟아 부는 필저(우)

존과 그의 대체자인 필저(Pilger)가 앞서 언급한 찾아올 이 없는 망자들의 마지막을 대하는 방식은 <그림 2, 3>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확연히 다르다. 필저에게 그들은 그저 빨리 처리해야 할 일감에 불과하기에, 그녀는 존처럼 망자들에게 적합한 장례는 치러주지 않는다. 쓰레기를 매립하듯이 화장한 각각의 분골 수습통을 그저 하나의 무덤에 모조리 쏟아 부어 매립할 뿐이다. 일처리가 더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존과 달리 필저는 빠른 일처리로 상사의 호감을 산다. 한 때는 존엄했던 인간들이 분골이 되어 필저의 손에서 제멋대로 뒤엎히고 섞여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참혹해지듯이, 존이 담당부서를 떠난 이후 죽음의 경건함은 비참함의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만다.

파솔리니의 《스틸 라이프》가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망자의 경건함이 추락하는 세태를 묘사하고 있다면,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아직 살아서 죽어가는 과정에 직면한 인간의 경건함 추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 나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딱히 실패라 불릴만한 것도, 대단한 성공이랄 것도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던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과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모

습을 그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황훈성은 “현대적 죽음의 정수를 보여 주기에 수많은 문학 비평가와 죽음학자, 임종 상담 치료사들의 바이블”(348)이라 칭한다. 그는 또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죽음의 바이블에 빗댄 만큼 훌륭하다고 보는 이유를 “이반 일리치가 죽음에 관한 한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만인’(Everyman)이기 때문”(349)이라 덧붙인다. 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앞서 언급한 한 개인의 죽음과 연관된 자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이 유발하는 극심한 고통과 추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품에서는 죽음을 의학용어의 규격 안에서 재단하려고만 애쓰는 의사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치밀하게 일반화되는 죽음의 현대적 초상이 지닌 부조리함을 보여준다.

이반 일리치에게 있어 중요한 질문은 딱 하나였다: 그의 상태가 심각한가 아닌가? 그러나 의사는 그런 부적절한 질문 따윈 무시해버렸다. 의사의 관점에서 그런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신하수증과 만성 대장염, 맹장염 중에서 하나를 판단해 내는 일이었다.

To Ivan Ilych only one question was important: was his case serious or not? But the doctor ignored that inappropriate question. From his point of view it was not the one under consideration, the real question was to decide between a floating kidney, chronic catarrh, or appendicitis. (Tolstoi 29)

한 때 이반 일리치의 몸이 가졌던, 인간의 몸으로서의 존재가치는 희미해졌다. 의사는 그의 몸뚱이가 나타내는 화학적 현상을 파악해, 의학적 매뉴얼에서 익힌 절차를 따르기만 할 뿐이다.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이반 일리치의 병인(病因)을 파악하여, 어떤 병명이 어울리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범주화하는 것뿐이다.

익숙한 기다림과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의사는 이반 일리치에게 있어 매우 친근한 것이었다(그가 법정에서 만드는 분위기와 닮아있었다) [. . .] 그 모든 것이 법정과 다를 바 없었다. 의사는 그가 법정에서 피고를 대할 때와 똑같은 태도로 그를 대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반 일리치가 그 스스로 멋들어지게 피고인들을 대하면서 수천번이나 행했던 것이었다. 의사 역시 엄숙하게, 심지어 즐겁게 자신의 피고를 안경너머로 바라보며 그저 멋들어지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There was the usual waiting and the important air assumed by the doctor, with which [Ivan Ilych] was so familiar (resembling that which he himself assumed in court) [. . .] It was all just as it was in the law courts. The doctor put on just the same air towards him as he himself put on towards an accused person. All this was just what Ivan Ilych had himself brilliantly accomplished a thousand times in dealing with men on trial. The doctor summed up just as brilliantly, looking over his spectacles triumphantly and even gaily at the accused. (Tolstoi 29)

죽음이란 것을 의식조차 못하던 때에는 법원에서 다른 이들이 저지른 죄목들을 범주화하던 이반 일리치가, 이제는 죽음의 병이라는 죄목 아래 피고의 신분이 되어 의사의 판결과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범주’(kategory)라는 말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카테고레인(kategorei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놀랍게도 이 말은 ‘공개적으로 죄를 씌우다’라는 뜻이다”(페르하에허 218). 다시 말해, 이반 일리치는 죽음에 이르는 어떠한 병으로 인해 죄인 취급을 당하고, 미땅히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의사에게는 인용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반 일리치에게 어떠한 인간적 공감이나 연민 따위는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마치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의 추종자들이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고통을 느낄 줄 안다며, 길거리에서 동물들을 산채로 해부

하던 현상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데카르트를 추종했던 자들에게 있어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은 그저 화학적 현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즉, 이반 일리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이성이 무시당한 채 존재하는 껍데기뿐인 인간이며, 정해진 기한의 용도가 다해 곧 폐기처분해야만 하는 몸통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태에 대해 페르히에허는 “환자는 의료 활동의 목표가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하며, 병원은 속칭 “건강 기업”(146)이 되어 오직 이윤추구 행위만을 일삼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생명을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 사명인 집단이 오히려 인간의 몸을 이용한 이윤만을 추구하기에 인간의 생명은 경시되고, 인간의 최후를 장식하는 죽음 또한 자연히 그 경건함을 현격하게 잃어간다.

II .3. 인간에 의한 구원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 불멸과 구원을 관념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에 동물이나 사물을 숭상하던 토테미즘의 신앙부터 기독교, 불교 등 갖은 종교들이 인간에게 제시하는 가장 큰 비전은 바로 사후세계에 관한 것이다. 지상에서 행하는 선과 믿음 혹은 악행과 불신으로 인해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등의 종교적 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그렇기에 생의 절멸 후 현세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리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구원에 관한 고찰은 인간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먼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방식은 요한 괴테(Johann Goethe)의 『파우스트』(*Faustus*)에서 실현되는 구원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는 신적인 존재가 빚어놓은 빛나는 사후세계가 있어, 현세에서의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초월적 존재의 품 안으로 들

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명료해지며 지금까지 그를 압박하며 떠나지 않고 있던 것이 일순간 두 방향, 열 방향, 온갖 방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일었고,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행동해야만 했다: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줘야만 했고 그 자신 스스로도 자유로워져야 했다. [. . .] 그는 예의 익숙한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은 어디에 있지? 죽음이 뭐야?”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공포도 없었다.

죽음이 자리하던 곳엔 빛이 있었다.

“그래, 이게 그것이구나!”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이 얼마나 즐거운가!”

And suddenly [all] grew clear to him that what had been oppressing him and would not leave him was all dropping away at once from two sides, from ten sides, and from all sides. He was sorry for [his family], he must act so as not to hurt them: release them and free himself from these sufferings. [. . .] He sought his former accustomed fear of death and did not find it. “Where is it? What death?” There was no fear because there was no death,

In place of death there was light,

“So that's what it is!” he suddenly exclaimed aloud. “What joy!” (Tolstoi 65)

이처럼 이반 일리치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바라보게 되는 빛은 『파우스트』에서 지독한 고통을 맞본 뒤 감옥에 갇혀 죽어가던 그레트헨 (Gretchen)이 신의 명에 의해 천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에 의해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은 뒤 역시 신에 의한 구원을 받는 파우스트 박사(Dr. Faustus)와 같은 층위의 구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질병이 가져오는 극한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안락을 얻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이반 일리치가 생의 모든 번뇌

로부터 벗어나 초월적 존재에게 구원을 받음이다. 이러한 육체적 병과 초월적 존재를 쇠렌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육체는 육체의 병에 의해 삼켜져 버리는 일이 있어도 영혼은 영혼의 병(죄)에 의해 삼켜져 버리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불사(不死)를 증명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망이 인간의 자아를 삼켜 버릴 수 없고 바로 거기에 절망의 자기 모순적인 고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 안에 영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인간 안에 영원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절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절망이 인간의 자아를 삼켜 버릴 수 있다면 인간은 절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4)

키에르케고르는 영원자의 존재적 당위성을 역설하며, 인간의 영혼은 그 존재를 통해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톨스토이 역시 이러한 구원관을 이반 일리치에게 투영했고, 이와 같은 구원관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dualism)의 관점에서 가능하다.

셸리 케이건(Shelly Kagan)은 『죽음이란 무엇인가』(Death)에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분리론적 관점인 이원론이고, 둘째는 ‘물리주의’(physicalism)의 관점에서 오직 인간에게는 육체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일원론’(monism)이다. 일원론적 관점에서 보는 인간은 오직 육체에 불과하기에,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특정 물체이고 단지 동물보다 조금 더 독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체일 뿐이라는 시각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오직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리적 일체는 실체가 없는 환상 혹은 착각이라고 보는 관점인 ‘유심론’(idealism)이 있다. 케이건은 “영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30)에 영혼의 존재를 믿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그 스스로는 영혼

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 이후 영생을 기대하는 인간의 갈망에 대한 실체 없는 보답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일원론적 입장에 더 큰 지지를 보인다. 특히, 그는 영혼보다는 육체를 기능하도록 하는 ‘정신’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말한다.

정신이란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획을 세우는 육체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하나의 개념적인 도구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주의자들이 인간이란 정신이라고 하는 환상을 지닌 육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육체는 실제로 사랑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즉, 정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 생각과 인격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정신을 갖고 있다. (케이건 30-31)

하지만, 톨스토이와 파솔리니 모두 케이건의 물리주의적 일원론에는 반대하는 성격의 작품을 보여준다. 먼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할 수 없이 망가져버리고 고통으로만 가득한 육체를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구원을 보여준다. 여기서 구원의 프로세스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철저히 이원론의 관점에서 수명이 다한 육체를 영혼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파솔리니의 《스틸 라이프》 역시 톨스토이처럼 이원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처럼 《스틸 라이프》는 영혼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그려낸다. 그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줄기가 되는 사건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존은 해고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맡은 장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독사한 빌리 스토크(Billy Stoke)의 흔적을 추적해나간다. 빌리의 과거와 혈족을 추적해나가면서 존은 마치 자신의 마지막 장례업무에 대한 ‘피날레’(finale)라도 하듯이, 가장 좋은 못 자리를 고르고 가장 좋은 관을 맞춘다. 뿐만 아니라, 빌리가 알고 지냈던

모든 이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장례일정을 알리는 등 생애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 빌리의 장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한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완료된 빌리의 장례식 전날, 존은 빌리의 딸 켈리 스토크(Kelly Stoke)를 만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만다.



<그림 4, 5> 빌리의 장례식에 모인 가족 및 친구들(좌)과 아무도 없는 존의 묘지(우)

<그림 4, 5>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과의 연도 끊고 거리의 부랑아로 살다 죽은 빌리의 장례식에는 그의 마지막을 축복해 주러 온 이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정작 수많은 이들의 장례를 치러준 존의 무덤가에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다. 매우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장면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곧이어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파솔리니가 의도적으로 이 같은 씬들을 극적인 감동을 끌어내기 위해 연쇄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을 보면, 빌리를 포함해서 존이 마지막을 함께해주고 돌보아 주었던 모든 이들의 영혼들이 묘지에서 솟아올라 존의 무덤가에 모여든다. 비록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지만, 존이 임종을 지켜준 이들의 영혼들이 그의 묘지 주변을 가득 채우는 장면을 통해서 파솔리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것이다. 존은 생전에 다른 망자들을 위해 행했던 장례식들을 통해서 죽음의 경건함을 사수했고, 그들의 영혼들은 존의 묘지 곁을 가득히 채우면서 그의 죽음을 가장 숭고한 것으로 만든다.



〈그림 6〉 존의 묘지에 모여든 영혼들

즉, 파솔리니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구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존이 치러준 수많은 장례식들은 바로 산자가 망자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존은 필자의 방식처럼 죽은 자들의 몸을 폐기처분해야 할 쓰레기 정도로 처리하지 않았고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둘째는 망자가 또 다른 망자를 구원하는 방식이다. 존의 장례식에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고, 오직 산역꾼 두 명만이 그를 묻어주는 업무를 행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하지만, 산자들이 떠나간 공간을 수많은 망자들의 영혼들이 가득 채운다. 이것은 케이건이 지지하는 일원론적 입장이 아닌, 영혼과 육신의 분리의 이원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파솔리니의 이러한 구원 방식은 앞서 언급했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보이는 괴테식 구원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두 작품이 모두 현대사회의 피상적인 인간관계와 물질주의로 인한 폐해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톨스토이는 초월적 존재를 통해 구원을 현현하고 있는데 반해, 파솔리니는 오직 인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 자신에 의해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했을 때조차 그를 위로하며 그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회복될 수 있다. 인간은 인생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개인의 고유함과 유일함으로부터 오는 소중한 가치를 자각하는 것이다. (김수정 120)

존이 망자들을 위해서 행했던 작업에 김수정의 주장을 반영하자면, 그는 단순히 망자들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주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을 수습해준 것이다. 그들의 혈족을 찾고 종교나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 생전에 무엇을 좋아했었는지 등 존은 단순히 시신을 쓰레기 처리하듯 하는 필져와는 달리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졌다 여겨지던 이들의 정체성과 연고를 찾아준 것이다. 능동적으로 ‘인생 이야기하기’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미 죽어간 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려했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해준 사람이 바로 존이다. 물론 이반 일리치 곁에도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던 게라심(Gerasim)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반 일리치의 시중을 들고 허드렛일을 하는 시중에 불과했고, 이반 일리치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간소한 휴식만이 될 뿐이었다.

그 후로 이반 일리치는 종종 게라심을 불렀고, 그의 어깨에 다리를 올려놓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게라심은 그 모든 것을 좋은 성품을 내보이며 기꺼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었고, 이는 이반 일리치를 감동시켰다. 다른 이들의 건강과 힘, 활력은 그의 화를 돋웠지만, 게라심의 힘과 활력은 그에게 굴욕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다. [...] 그를 가여워하는 이 하나 없다는 것을 이반 일리치는 알고 있었는데,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게라심만이 그의 상태를 이해하고 측은히 여겼다.

After that Ivan Ilych would sometimes call Gerasim and get him to hold his

legs on his shoulders, and he liked talking to him, Gerasim did it all easily, willingly, simply, and with a good nature that touched Ivan Ilych. Health, strength, and vitality in other people were offensive to him, but Gerasim's strength and vitality did not mortify but soothed him, [. . .] [Ivan Ilych] saw that no one felt for him, because no one even wished to grasp his position. Only Gerasim recognized it and pitied him, (Tolstoi 45-46)

계라심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이반 일리치가 죽고 난 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나 걱정 혹은 일말의 기대 정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기에 이반 일리치가 주변인들에게 인생 이야기하기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체성은, 존이 망자들의 흔적을 헌신적으로 추적해서 찾아주는 정체성보다 더 왜소한 것이다. 따라서 이반 일리치는 더욱이 최후의 순간에 유일한 탈출구로서 신의 존재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신의 존재를 지각하는 종교적 차원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존재마저 초월하여 무한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반 일리치의 모습은 키에르케고르가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에서 개념 지은 ‘신앙의 기사’(the Knight of Faith)에 부합한다.

반면에 신앙의 기사는 우주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우주적 존재로 변모시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일인지를 알고 있다. 그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를 순수하고 우아하게 만들 수 있다. 그가 우주 속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신성한 일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는 모든 개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The knight of faith knows, on the other hand, that it is glorious to belong to the universal. He knows that it is beautiful and salutary to be the individual who translates himself into the universal, who edits as it were a pure and

elegant edition of himself, as free from errors as possible and which everyone can read. He knows that it is refreshing to become intelligible to oneself in the universal so that he understands it and so that every individual. (38)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이반 일리치는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공포도 없었다. 죽음이 자리하던 곳엔 빛이 있었다”(Tolstoi 65)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그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독백을 하고 있고,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하는 것처럼 삶에서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존재가 되어 완전한 해방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삶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였지만, 이반 일리치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 넣음으로써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적인 구원을 형상화하는 톨스토이와 달리 파솔리니는 《스틸 라이프》에서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재시킨 채, 오직 인간에 의한 구원을 그려냈다. 이는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에서 인간자아의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초인’(Urbemensch)이 되어야함을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기를 원한다.” [...]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고자 한다. 신은 가상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가상이 그대들의 창조적 의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 창조, 그것은 고뇌로부터의 위대한 구제이며, 삶의 위로이다. (106-14)

키에르케고르의 신앙의 기사와는 달리, 인간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설정한 신이라는 허상의 존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니체의 사상은 존을 통해 실현된다. 작품에서 오직 존만이 살아서 이와 같이 허상으로 존재하는 신의 존재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 구원을 창조한다. 또한, 존은 그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추락해 버린 죽음의 경건함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존의 헌신을 통해 버려진 망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역으로 존을 구원할 수 있음은, 죽음의 경건함을 회복함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구원이 되도록 해주었다. 육체가 기능을 멈추자마자 사회로부터 폐기처분해야 할 쓰레기와도 같은 취급을 받았던 망자들은 존에 의해 다시금 인간다웠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존은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로써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비로소 실현된 것이다.

III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기억하다’(remember)의 뜻을 가진 ‘메멘토’(memento)와 ‘죽다’(to die)를 뜻하는 ‘모리’(mori)의 합성어로서,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메멘토 모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됐던 시기는 로마 공화정 시절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개선식으로 보는데, 개선장군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에 대해 우쭐해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풍습의 일환으로 마차에 함께 동승한 노예가 개선식 내내 그의 꺾기에 속삭여주었던 것이 그 시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개선장군에게는 승전에 대한 포상으로 관(冠)이 주어졌고, 그 관에는 다음과 같은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Memento mori!

Memento te hominem esse!

Respice post te, hominem te esse memento! (분덜리히 18)

메멘토 모리는 인간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생의 유한성을 상기시켜, 생의 절대적 파멸이란 섬뜩한 공포를 내재하고 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동시에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 우리 인간은 수많은 매체들에 의해 죽음의 이미지에 너무도 빈번하고 쉽게 노출된 탓인지, 죽음을 갈수록 가벼이 여기거나 자신이 결국에는 죽는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기라도 하려는 듯이 죽음을 망각하며 살아간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서 우리 주위에서 죽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건 아니다. 오히려 미디어의 눈부신 진화로 우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체들을 생생하게 접하고 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나 영화 속의 시체이미지를 통해 죽음은 오히려 더욱더 섬찍지근한 모습을 드러낸다. 다만 우리는 점층하는 강도로 반복된 죽음의 출현에 심드렁해지고 마비되어 우리는 잠시 결눈질할 뿐 이내 눈을 돌리고 우리의 쾌락에 몸과 마음을 맡길 따름이다. (황훈성 431)

우리는 정말 황훈성의 주장처럼 마치 축적되는 자극에 의해 감각의 역치가 올라가버린 것처럼, 죽음에 끊임없이 무감각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일까? 그 결과로 베커가 말한 것처럼 주변에서 죽음이 일어나도 자신에게 닥친 것이 아니라면 평화로이 풀을 뜯는 동물들처럼 죽음에 완전히 무감각해져버려,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경건함마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한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죽음의 경건함이 추락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문제로는 죽음의 개인화가 점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타인의 죽음, 심지어 가

족의 죽음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호메로스(Homeros)의 『일리아드』(*Iliad*)를 각색한 볼프강 피터슨(Wolfgang Petersen)의 영화 <<트로이>>(*Troy*)에서 아킬레스(Achilles)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들 헥토르(Hector)의 시신을 찾으러 홀로 적진에 숨어든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Priamos)는 아들의 원수인 적장 아킬레스의 손등에 예를 갖추어 키스를 하며, 아들에게 합당한 장례를 치러줄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한다. 그는 아들에게 합당한 장례의식을 치러주기 위해 그를 죽인 원수 앞에서 조차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토록 우리 인간이 귀하게 여기던 죽음에 대한 의식은 지난 세월 동안 본디 가졌었던 경건함을 잃어가고 있다. 오히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타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질 일들에 대해 득실을 따지는 것에 더욱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파솔리니의 <<스틸 라이프>>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추락하는 죽음의 경건함에 대한 분석과 두 작품이 상이하게 보여주는 구원관을 연구했다. 무엇이 다시금 죽음의 경건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와,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가능성은 전능한 신으로부터가 아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생성할 수 있다는 논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죽음은 여전히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과 무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보다 선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을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구가 문학 및 영화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동국대학교)

■ 주제어

죽음학, 구원, 스틸 라이프, 이반 일리치의 죽음

■ 인용문헌

- 김수정. 「문학을 통해 다가간 죽음」. 『인격주의 생명윤리』. 카톨릭생명윤리연구소 2권 2호 (2012): 117-39. Print.
- 니체, F. W. 사순옥 옮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 홍신문화사, 2008. Print.
- 리프킨, 제러미. 이경남 옮김. 『공감의 시대』. 서울: (주)민음사, 2010. Print.
- 분덜리히, 올리. 김종수 옮김. 『메멘토 모리의 세계: ‘죽음의 춤’을 통해 본 인간의 삶과 죽음』.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Print.
- 서상국.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슬라브학보』.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19(1) (2004): 112-29. Print.
- 정막래와 김용일.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타난 일상적 삶의 분석」. 『철학연구』. 대한철학회 79집 (2001): 285-306. Print.
- 케이건, 셸리. 박세연 옮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주)웅진씽크빅, 2012. Print.
- 퀴블러로스, 엘리자베스. 이진 옮김. 『죽음과 죽어감』. 파주: 도서출판 이레, 2008. Print.
- 키에르케고르, 쇠렌. 박병덕 옮김. 『죽음에 이르는 병』. 고양: 비전북, 2012. Print.
- 페르하에허, 파울. 장혜영 옮김.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서울: (주)사이언스북스, 2015. Print.
- 황훈성. 『서양문학에 나타난 죽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rint.
- Becker, Ernest. *The Birth and Death of Mean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on the Problem of Man*. Second Edition.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1971. Print.

_____.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1973. Print.

Kierkegaard, Søren, and Walter Lowrie Transl. *Fear and Trembling*. USA: Dragan Nikolic, 2012. Print.

Still Life. Dir. Uberto Pasolini. Perf. Eddie Marsan, Joanne Froggatt and Karen Drury. Redwave Films. 2013. Film.

Tolstoy, Lev Nikolayevich, and Lousie and Aylmer Maude Transl. *The Death of Ivan Ilych*. USA: Feedbooks, 1886. Print.

Troy. Dir. Wolfgang Petersen. Perf. Brad Pitt, Eric Bana and Orlando Bloom. Warner Bros, 2004. Film.

■ Abstract

**The Reverence of Death and Human Salvation:
Comparative Study in Lev Tolstoi's *The Death of Ivan Ilych*
and Uberto Pasolini's *Still Life***

Kim, Seong-Gyu (Dongguk Univ.)

The chief aim of my paper is to reveal the levels of the reverence of death in this neo-liberal capitalism era and possibilities of human salvation. In order to reveal these two subjects, I would like to study Lev Tolstoi's *The Death of Ivan Ilych* and Uberto Pasolini's *Still Life* in comparative way. People who live in this era are regarding deaths as vulgar and lower things due to the advancement of neo-liberal capitalism. Capitalism makes ritual of death and death itself being sold on the market, so death becomes very much personal and expensive burdens in the present. As the result of all these, people ignore the others' deaths, so the reverence of death is getting lower and more miserable. In order to solve this sort of problems, people must save their souls by restoring their altruistic humanity. People used to believe that the solemn God can only save their souls, but by comparing those two texts, I can suggest that people might save their souls without the God but themselves. So I would like to call this as human salvation and this paper is revealing its possibilities.

■ Key Words

Thanatology, Salvation, Still Life, The Death of Ivan Ilych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알렉시의 『탈주』*: 경계의 사유

김 종 갑

I

서만 알렉시(Sherman Alexie)는 1980년대 미국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한 아메리카 인디언 출신 작가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작가들 중의 한명이다. 그가 많은 비평가들과 언론의 주목과 조명을 받는 이유는 기존의 인디언 출신의 작가들에게 찾아 볼 수 없는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인디언 작가들이 인디언 보호구역 내 또는 외부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인디언들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디언의 역사, 전통, 그리고 문화와 같은 특수성에 기반해서 인디언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모색했다면, 알렉시는 이러한 특수성을 벗어나 인디언과 주류 백인의 공존의 가능성을 지향했다.

알렉시가 이런 인디언 근본주의에서 벗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9/11 사건”(What changed me was September 11th)(Daniel Grassian 5)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근본주의적 선택이 도덕과 윤리적 선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 그리고 전통에 근거한 한 것이고 그 결론은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7732)

폭력임을 인식했다. 인디언 문화와 역사에 뿌리를 둔 인디언 근본주의의 또한 이슬람 근본주의와 유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이후 알렉시는 초기 작품에서 나타났던 상실한 인디언의 전통을 정치적 또는 문학적 의미에서 회복시키려는 태도에 벗어나 새로운 탈 인디성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런 작품들 중의 하나가 『탈주』이다.

알렉시의 작품의 주요 공간은 그가 태어나서 성장한 ‘스포케인 인디언 보호구역’(Spokane Indian Reservation)이다.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처럼 작은 서사적 공간에 초점을 두었지만, 포크너의 공간도 실제 남부의 작은 마을을 기반으로 형상화되었지만 상상에 의해 가공된 공간이라면, 알렉시의 공간은 실제의 인디언 보호구역이란 지리적 지역이고, 또한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인디언의 사건들을 다루며 안과 밖을 아우르고 있다. 그에게 인디언 보호구역이란 이 안에 수용되어 강요된 삶을 살아가는 인디언들이 벌이는 사건의 공간이지만, 또한 “햄릿의 사건이 매일 발생하고, 리어왕의 사건들이 매일 발생하는”(Hamlet takes place on my reservation. King Lear takes place on my reservation daily.)(Grassian 6) 공간이기도 하다. 알렉시의 언급은 인디언 보호구역이 인디언들만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햄릿과 리어왕처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와 가치가 공존하는 지역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알렉시의 작품은 보호구역이라는 로컬리즘과 글로벌리즘이 공존하는 “글로벌리즘(glocalism)” (노현균 164)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탈주』(*Flight*)의 주인공인 지츠(Zits)는 보호구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서 백인 지역의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백인의 문화와 교육을 받은 알렉시 자신처럼 “두 세계에 걸쳐”(straddle two (more) worlds)(Vogel 116) 공존하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인디언들의 존재 방식과 삶의 당위성에 문제 제기를 있다. 두 세계란 보호구역/도시라는 공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디언/백인의 세계를 지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알렉시는 공간과 인종적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백인 어머니의 혼혈의 몸인 지츠를 통해서 표상되듯이 하나의 몸 안에 내재된 두 영역, 그리고 이 두 영역 사이의 대립이 아닌 통섭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런 점에서 알렉시의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디언 보호구역과 인디언들이란 특수성이 작품 내에서 표상된 현상을 살펴보고, 인디언들의 특수성을 보편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분석해야 알렉시가 제시하고자 했던 공존의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작품에 나타난 인디언의 실상들을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 즉 벌거벗은 생명(bare life)(Giorgio Agamben)(4)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다음 “지츠라고 불러주세요”(Call me Zits)(1)로 시작해서 “제 실제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로 불러주세요”(My real name is Michael. Please, call me Michael)(181)로의 변신 과정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1.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인디언

『탈주』는 지츠라고 불리우는 인디언 소년이 시간여행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과거의 인물들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벌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인디언과 백인 사이의 문화적, 역사적 경계를 넘나들며 마이클(Michael)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지기를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 총 21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지츠가 갖든 몸의 주인공에 따라서 7개의 섹션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이 작품은 현재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과거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인디언적인 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츠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시간 순서는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몸에 깃들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인디언/백인의 관계에 대한 깊숙한 성찰의 과정을 보여준다. 작품의 1~3장은 서사적 현재인 2007년에 지츠가 입양된 가정(foster family)에서의 일화를 다루고, 4~6장은 지츠가 FBI 요원인 헝크 스톰(Hank Storm)의 몸으로 들어가 인디언 보호그룹인 아이론(IRON)과 햄머(HAMMER)의 갈등을 이용하여 법을 수호하는 FBI 요원인 아트가 인디언 소년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7~9장은 1876년 리틀 빅혼 전투(Little Bighorn Battle)에서 커스터(Custer) 장군을 격퇴시킨 인디언 추장 크레이지 호스(Crazy Horse)의 어린 아들의 몸으로 들어가서 백인 중심의 역사의 한계를 파악한다. 10~12장은 백인 마을을 몰살시킨 인디언을 추적하는 추적병 거스(Gus)의 몸으로 들어가 백인과 인디언 사이의 참혹한 살육의 현장을 체험하며, 인디언 소년을 구하고자 인디언을 살해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군법을 위반한 어린 백인 병사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와 생명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13~15장에서는 이디오피아 출신의 테러리스트 아바디(Abbade)에게 비행기 조종술을 가르치는 지미(Jimmy)의 몸으로 이동한다. 16~18장은 다시 2007년으로 돌아와 거리의 주정뱅이 인디언의 몸으로 여행을 한다. 지츠는 처음에 이 인디언의 신분을 몰랐지만, 그가 지니고 있던 수첩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사진이 발견하고, 자신이 깃든 몸의 주인이 그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나던 순간에 병원에 도망을 친 이유를 파악한다. 그리고 마지막 19~21장은 데이브(Dave)라는 경찰을 통해서 자신의 은행에서 살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실제로 살인 행위를 벌이지 않아서 무죄로 판명되고, 데이브의 남동생이자 소방관인 로버트(Robert)와 마리(Mary) 부부의 양자로 입양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츠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겪는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

하는 참혹한 장면은 FBI 요원인 행크의 몸을 통해서 체험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 행크의 몸으로 변신을 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츠는 행크의 동료 아트(Art)를 통해 자신이 행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지츠(여드름)라며 자신의 못생긴 외모를 스스로 비하했던 지츠는 잘생긴 백인의 모습으로 변신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해하면서 동료인 아트(Art)와 함께 아이다호의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출동을 한다.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츠는 아트를 통해서 백인들이 인디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한 면을 보게 된다.

나를 여기로 보낼 때까지 인디언들을 몰랐어. 그리고 이곳에서 인디언들을 만났지. 내말을 믿어도 좋아. 아이들 몇몇을 제외하면, 인디언들 중에 가치 있는 놈들이 없어. 아이들 일부는 아직까지만 곧 타락할 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인디언들 마음속에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구석이 있어.

“I didn't know any Indians until they sent me to work here. And I met Indians. And trust me, none of them is worth much. Well, maybe some of the kids. Some of the kids are still okay. But they're going to go bad, too. Just you watch. There's something bad inside these Indians. They can't help themselves.”(44)

아트의 표현은 개인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백인들이 인디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역사적으로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백인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조약들과 정책들을 맺고 제시했지만 인디언들을 완전히 동화시키지 못했다. 백인들에게 인디언은 한마디로 해결하기 어려운 골칫거리였다. 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인디언을 동화시키기 가장 큰 어려운 요소 중의 하나는 전통에 토대를 둔 인디언의 세계관이다. 일반적으로 백인들은 과거-현재-미래라는 기독교적인 선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인디언들은 과거-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원적인 세계관을 유지한다. 또한 백인의 세계가 선/악, 백/흑, 문화/자연 등이 서로 구분된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라면, 인디언들의 순환적 세계에서는 이분법적 요인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선이 악이 될 가능성이 내포된 가변적인 세계이다. 이런 세계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트는 백인과 다른 인디언들의 특징을 “무언가 기분 나쁘게 하는 것”(something bad)으로 압축한다. 아트가 불쾌하게 간주한 것은 아트 자신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듯이 백인의 의식 구조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감각의 세계이다. 오히려 이 영역은 아트를 비롯한 백인들에게는 동물의 소리에서나 느낄 수 있는 ‘말’(logos)의 영역이 아니라 ‘목소리’(voice)의 영역으로 감정으로는 감지할 수 있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에서 말과 목소리를 구분한다. 아감벤의 분류에 따르면 목소리란 “모든 생명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통과 기쁨의 표시”(the sign of pain and pleasure, and this is why it belongs to other living beings)(Agamben 7)인 반면에 말은 “옳은 것과 그른 것, 또는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드러낸다”(manifesting the fitting and the unfitting and the just and the unjust).(Agamben 8)¹⁾ 아감벤에게 말과 목소리의 관계는 조에(zoe)와 비오스(bios)와 같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공동체에 거주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적이다. 즉 인간은 조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말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비오스적인 삶을 사는 존재이다. 아감벤에게 조에는 살아있는 생명,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을 지시하는 것인 반면에, 비오스는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한다. 조에는 “살해할 수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the life of *homo sacer* (sacred man), who

1) 아감벤의 *Homo Sacer*는 영역본과 한역본을 비교해서 참고했다. 아감벤의 저서의 영역본과 한역본은 언어적 차이와 두 번역가의 이해의 차이 때문에 표현과 의미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글 표현의 경우에 한역본의 표현의 의존했고, 영역본의 표현도 함께 병기했다.

may be killed and yet not sacrificed)(Agamben 8)으로서 폴리스 내부에서 예외 상태로 배제됨으로써 폴리스에 거주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감벤의 이런 구분은 서구 정치의 형이상학의 근본적인 구조²⁾를 밝히는 작업이다. 아감벤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자신에게서 벌거벗은 생명을 배제시키며, 배제된 벌거벗은 생명을 배제를 통한 포합적 배제 관계 속에서 유지하는 존재”(man is the living being who, in language, separates and opposes himself to his own bare life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s himself in relation to that of bare life in an inclusive exclusion)(Agamben 8)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조예와 비오스를 구분해서 간략하게 표현하면, 조예는 모든 생명체를 지시하는 표현이고 비오스는 언어를 통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목소리와 말, 즉 조예와 비오스가 공존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권력의 지배 양상에 의해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지배 문화의 입장에서 소통 불가능한, 즉 비오스적인 삶이 될 수 없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벌거벗은 생명을 살해한 자는 면책 특권을 받아서 그 죄를 묻지 않는다. 고대 정치가 비오스에 가치를 두고 조예를 배제시키는 구조였다면, 근대 정치의 출발은 푸코의 생명정치(biopolitics)라는 표현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조예 자체가 주권자가 되는 정치구조이다.(the State assumes and integrates the care of the natural life of individuals into its very center)(Agamben 5) 표면적으로 근대정치는 모든 인간 몸 그 자체를 권력으로 주체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조예는 주권자의 역할을 하지만, 국가권력은 예외상태(the state of the exception)(Agamben 17)를 통해서 조예를 보호하는 법적인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런 예외상태에서 조예는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됨으로써

2) 조예와 비오스는 아감벤이 서구 정치의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구조를 밝히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것이라 했지만, 아감벤의 관점에서 정치의 근본적인 이항 구조는 “bare life/political existence, zoé/bios, exclusion/inclusion”(아감벤 8)의 형태이다.

고대 정치의 벌거벗은 생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즉 근대정치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조에는 평상시에는 법의 보호망 안에 존재하지만 나치의 비상계엄법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의 작동에 의해 예외 상태로 규정되면 벌거벗은 생명 그 자체인 살해 가능한 존재가 전락하게 되는 포함적 배제 관계에 놓인다. 조에와 비오스의 이런 관계는 행크(Hank)의 몸으로 변신한 지츠의 경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행크는 아트와 함께 호스(Horse)와 엘크(Elk)를 만난다. 이들은 아이론(Iron)이란 단체 소속이다. 아이론은 변절해서 역으로 인디언을 핍박하는 또 다른 인디언 단체인 햄머(Hammer)와 맞서 인디언을 보호하는 단체이다. 하지만 엘크와 호스는 이중 첩자(double agents)로 아이론을 배신한 배반자들이다. 지츠의 기억에 의하면 엘크와 호스는 인디언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한 전사로 기록(these guys are still heroes)(49)되었지만, 행크의 몸을 통해서 지츠가 목격한 이들은 오히려 FBI와 내통을 해서 인디언을 동화시키려는 백인의 정책에 저항하는 인디언들을 백인 수사관들에게 밀고하고 넘겨주는 첩자일 뿐이다.

나는 그들[엘크와 호스]가 자유를 수호하는 전사가 아님을 알았다. 그들은 가난하고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인디언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들은 사람을 해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아트 눈에 어린 기묘한 눈빛을 보았다. 그는 법의 집행관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나라를 수호하기보다, 사람을 해하기를 좋아할 뿐이었다.

I realize they[Elk and Horse] aren't freedom fighters or anything like that. They don't care about protecting the poor and defenseless. No, man, these guys just like to hurt people. And I look at the weird light in Art's eyes. He isn't lawman. He doesn't protect our country. He just likes to hurt people, too. (50-51)

지츠의 눈에 비친 연방 수사관인 아트와 인디언들의 배신자인 엘크와

호스는 그들이 잡아 온 주니어(Junior)를 총으로 살해한다. 특히 법을 수호하는 수사관으로서 손가락이 절단되고 이빨이 모두 빠진 상태로 잡혀 온 주니어를 총으로 직접 살해하고 동료인 행크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확인 사살을 요구한다. 아트와 인디언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헌법을 수호하는 집행관이지만, 그의 법에서 인디언은 살해할 수 있지만 죄 값을 묻지 않는 벌거벗은 생명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주니어의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매장하지 말고 살해한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자 엘크는 주니어는 전통주의자이기 때문에 인디언 방식으로 매장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He's a traditionalist ... His soul won't get to Heaven if we don't bury him the Indian way)(52) 라고 말한다. 주니어는 백인과 인디언에 의해서 이중으로 배제된 경계선 상에서 차가운 죽임을 당한다.

행크, 즉 지츠는 아트와 인디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작품 초반부에 등장한 백인 소년 저스티스(Justice)를 연상한다. 확인 사살을 요구하는 아트와 인디언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기절한 행크를 아트와 인디언이 병원에 입원시킨다. 병원에서 아트와 인디언은 행크에게 우리는 전쟁 중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짓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아트와 인디언의 말을 지츠는 자신에게 고스트 댄스를 추면서 은행에서 사람들을 살해하도록 지시를 내린 저스티스와 말과 비교한다. 행크는 침대에 누워 아트와 인디언의 얼굴을 쳐다보며 “아트와 저스티스는 전쟁의 반대 진영에 서서 싸우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한다. 그들이 같은 일을 할 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Art and Justice fight on opposite sides of the war but they sound exactly like each other. How can you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od guys and the bad guys when they say the same things?)(56)라고 생각하며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혼재된 상황에 혼란스러워 한다. 지츠에게 현실 자체가 전쟁이고 아트와 인디언의 편에서 인디언을 학살하지만, 저스티스는 인디언의 편에서 오히려

백인이 인디언을 학살했고, 미국이란 국가가 악마이며, 이런 백인들을 상대로 투쟁할 수 있는 민족은 인디언뿐이다(I'm sorry that my people nearly destroyed your people. This country, the so-called United States, is evil. And you Indians were the only people who fought against that white evil)(250)라며 백인이 악의 화신임을 주장한다. 저스티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 수호국인 백인 중심의 미국은 실제로는 인디언을 학살했지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악마와 같은 모습이다. 이들에게 인디언의 살해는 그들이 모피를 얻기 위해 대량으로 학살한 버펄로 무리처럼 말을 상실한 목소리만 가진 벌거벗은 생명의 제거에 불과하다. 지츠는 아트와 저스티스의 정치적 가치판단이란 비오스적인 말의 한계를 직시한다.

사실 지츠도 인디언인 아버지와 아일랜드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지만, 자신을 인디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츠는 인디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인디언이 아닌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 전부이다. 이런 상태의 지츠가 인디언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헝크의 몸에서 벗어난 지츠는 1876년에 살았던 한 인디언 소년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미국 역사에서 인디언과 백인의 최후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현장에서 지츠는 인디언 추장 크레이지 호스의 아들로 변했다. 아직 자신의 누구의 몸에 깃들지 모르는 지츠에게 비친 인디언 부락의 모습은 인디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듯이 원형들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They're grouped in little circles inside bigger circles inside the biggest circles.)(60) 단일 부족이 아니라 서로 언어가 다른 여러 부족(a bunch of different language, a lot of different tribes)(60)이 모여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기 위해 결성된 연합 부락이다.

이런 인디언 부족들의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츠는 아버지와 가족이 생겼다는 행복감(I am happy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65)을 느끼

지만, 곧 그는 이들 인디언이 처할 죽음과 강제 이주의 운명(All these old-time Indians are doomed. They're going to die of disease. And they'll be slaughtered by U.S. Cavalry. They'll be packed into train cars and shipped off to reservations.)(66)을 알고 있다. 이들은 짐짝처럼 기차에 실려 보호구역으로 끌려갈 것이고, 또한 아이들도 기숙학교로 강제로 보내지고, 인디언식 긴 머리로 짧게 잘리고, 인디언 언어를 사용하고 인디언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매도 맞을 것이다. 인디언의 과거 사건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지츠에게 리틀 빅혼 전투(Little Bighorn Battle)라는 인디언 최후의 항전에서 패배한 인디언은 미국의 국민이 아닌 포로일 뿐이고 백인의 동화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제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에 가두고 교육을 포함해서 백인들이 제시한 여러 동화정책들이 결국은 인디언의 전통을 근절시키는 것이고, 이들의 정책이 동화되지 못한 인디언들은 알콜중독(All of them are going to start drinking booze. And their children will drink booze. And their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 will drink booze.)(67)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 인디언의 순환론적 세계관이 알콜중독의 순환이라는 운명의 굴레로 치환된다. 지츠는 이러한 악순환이 인디언인 자신에게 닥칠 운명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다. 미래에서 온 지츠에게 인디언 부락과 인디언들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파괴되었다.(Old-time Indians were so beautiful, and they were destroyed.)(67) 과거의 인디언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디언의 삶이 백인들의 말에 의해서 파괴된다.

1830년 미국의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된 인디언 이주 법안(Removal Act)은 인디언들에 대한 강제 이주가 법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실행되었음을 선포한다. 미국 지도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은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점선은 주의 경계선과 같이 영토를 구분하는 실선이 아니라 인디언들의 존재와 거주 공간을 인정하지만 실제적인 가치

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의미를 전달한다. 오히려 인디언 보호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점선은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인디언 보호구역은 미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지만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법의 중지를 보여주는 ‘예외상태’로 규정하는 것이고, 예외 상태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인디언이 미국의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배제’되었다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상태를 통한 배제의 구조는 아감벤의 맥락에서 ‘추방’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감벤은 추방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외관계는 추방령의 관계이다. 실제로 추방령을 받은 자는 단순히 법의 외부로 밀려나가거나 법과 무관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며*, 생명과 법,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계선상에 노출되어 위협에 처해진 것이다. 추방된 사람이 법질서의 외부에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The relation of exception is a relation of ban. He who has been banned is not, in fact, simply set outside the law and made indifferent to it but rather *abandoned by it*, that is, exposed and threatened on the threshold in which life and law, outside and inside, become indistinguishable. It is literally not possible to say whether the one who has been banned is outside or inside the juridical order. (Agamben 28-29)

아감벤의 추방령과 예외상태의 구조에서 보면, 인디언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점선은 ‘포함적 배제’(inclusive exclusion)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디언 보호구역이란 미국의 실정법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를 지시하며, 법의 보호 안인지 아니면 바깥인지를 구분 불가능하게 하는 영역의 표시이다. 그곳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은 생명과 법, 외부와 내부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계라는 위험 지대에 위치해 있다. 아트가

아이다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인디언 소년 주니어를 잔혹하게 살해해서 시체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나 지츠의 인식은 백인에 의한 인디언의 배제라는 인식을 넘어선다. 지츠는 백인 역사가들에 의해 커스 장군의 최후의 항전으로 기록된 리틀 빅혼 전투를 인디언의 관점에 “인디언들의 최후의 항전”(Indians' last stand)(70)라고 칭하며 커스터 장군의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죽음을 당했지만, 인디언들은 자기 보호(self-defense)(73)를 위해서 벌인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에 인디언 여성들과 아이들이 죽은 백인 병사들의 시체를 난도질하는 참혹한 장면을 보면서 지츠는 복수란 인디언들의 세계관처럼 끊임없는 원(Is revenge a circle inside of c circle of circle?)(77)의 구조처럼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한다. 지츠에게 복수란 행위는 인디언과 백인의 비오스적인 삶의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결국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잔혹한 집단 학살에 불과하다..

2. 지츠의 비오스 되기의 의미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의 결과는 생명의 무참한 살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리틀 빅혼 전투에서 경험한 지츠는 이번에 늙은 병사인 거스(Gus)의 몸으로 이동한다. 거스는 인디언의 추적하는 추적병으로서 백인들 25명을 몰살시킨 인디언을 추적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는 인디언을 추적하면서 인디언들이 살해한 어린 백인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면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 거스의 감정은 지츠에게도 전달된다. 거스는 백인 병사들이 인디언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광기를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부모의 복수를 위해 5살짜리 어린 인디언이 화살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거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지만, 백인 소년 군인이 인디언 소년을 낚아채서

탈영을 시도한다.

광기와 살인이 난무하는 가운데 용기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소년의 병사의 행동은 거스의 몸에 들어간 지츠에게 거스의 몸을 극복하고 지츠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는다. 백인 장군에게 쫓기는 백인 병사와 인디언 소년을 구하기 위해 지츠는 백인 장군의 얼굴을 총으로 가격하고 소년 병사와 인디언 소년을 구할 결심을 한다.(But I can defeat Gus now. I am doing the right thing. I am trying to save the soldier who is trying to save Bow Boy)(95) 거스의 이런 행동도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린 두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지만, 백인 소년 병사 또한 군에 입대한 이유를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to defend people) (103)라고 이야기 한다. 소년 병사의 이야기를 듣고 거스는 자신의 행위가 옳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군인이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고, 인디언들의 저항 또한 가족과 부족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 하지만 백인 군인의 인디언과의 전투 그리고 인디언의 저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지만 역으로 무수히 많은 인디언과 백인의 생명을 살해하는 혼란스런 상황을 야기한다. 전쟁의 명분은 정치적인 생명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존재들을 예외상태로 규정해서 배제시키는 연표와 같다.

지츠는 리틀 빅혼 전투에 본 인디언의 복수, 그리고 거스의 몸을 통해서 본 백인의 복수를 체험한다. 하지만 이런 복수는 벌거벗은 생명들에 대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정치적 존재인 비오스와 살아 있는 생명인 조에가 각각 존재하는 영역을 벗어나면 서로의 입장이 바뀌어 생명을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과 만물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모든 존재들의 존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일 것이다. 지츠는 이런 관계성을 지미(Jimmy)를 통해서 인식한다. 비행기 조종사인 지미의 몸으로 이동한 지츠는 비행기를 수면으로 곤두박질시키는 비행을 하면서 만물이 모두 아름다우며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느낀

다.(It is my plane, the clouds, the ocean, and me. All of it is beautiful and interchangeable. All of it is equally important and unimportant. All of it is connected.)(107)

지미를 통한 지츠 이런 인식은 조예와 비오스의 관계가 포함과 배제의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듯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미가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한 사람은 아내 린다(Linda), 이디오피아 출신으로 그에게 비행기 조종술을 배운 아바디(Abbad), 그리고 비행기였다. 아내인 린다는 가족을, 아바디는 사회적 관계를, 그리고 비행기는 지미의 삶의 가치를 구성하는 대상이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사랑에 대한 감정이 메마른 지미는 아내보다 비행기를 더 믿고 의지(My airplane is more dependable.)(113)하며 생활을 한다. 그의 이런 생활도 헬다(Helda)와의 밀회를 아내에게 목격당한 후 파탄이 난다. 그리고 유일한 친구라 할 수 있는 아바디 또한 미국에서 15년 동안 살았지만 미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기 테러 사건을 저지르고 지미의 곁을 떠난다. 사랑의 감정도 없이 헬다와 밀회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인보다 비행기를 더 믿는 지미란 인물은 지츠의 표현처럼 자기를 버린 아버지처럼 거짓말쟁이 사기꾼(a dirty liar and a cheat)(118)이자 미국적 자본주의에 함몰된 감성이 메마른 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지츠는 인간은 모두 같은 사람일 뿐이고,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추락하는 있는 사람들(We're all the same people, and we are all falling)(130)일 수도 있다 것을 인식한다.

추락하는 것이 지미 자신의 자살을 암시뿐만 아니라, 한 개인, 민족, 또는 국가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미국적 자본주의로 표상되는 현대적 국가 시스템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의 경계선이 정치 영역을 넘어서 각 개인들의 직업들처럼 더 긴밀한 공생관계를 맺어나가는 사회적 삶의 영역들로 파고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현대 자본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주권자인 각각의 개별적인 인간의 몸을 수용소와 같은 구조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아감벤은 수용소를 초월할 수 없는 생명정치적 공간이자 근대성의 정치적 공간의 숨겨진 패러다임”(the camp—as it is pure, absolute, and impassable biopolitical space (insofar as it is founded solely on the state of exception)—will appear as the hidden paradigm of the political space of modernity)(Agamben 123)이라고 규정한다. 민주주의란 봉건의 절대 권력에 맞서서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 비오스가 아니라 “주권적 추방령”(sovereign ban)(Agamben 124)에 포획된 생명, 즉 조예를 전제로 등장한 정치시스템이다. 하지만 조예를 내세워 등장한 민주주의란 정치시스템은 개개인의 존재를 포함적 배제 상태인 예외상태로 몰아넣을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의 포함적 배제관계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 이런 예외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란 명칭으로 인디언을 보호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지만, 인간 생명을 격리된 상태로 보호한다는 것은 동물원에 전시된 동물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대표적인 예로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를 전형적인 예로 제시했지만, 아감벤에게 수용소가 배제를 통한 포함이란 예외상태에 근거한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인디언 보호구역 또한 동일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의 패권을 갖기를 원하는 미국적 자본주의를 나타내는 지미는 지츠뿐만 아니라 아바디에게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지츠와 아바디에게 지미의 거짓말은 조예의 영역인 자연적 본능 때문에 헨다와 밀회를 갖지만, 정치적 행위로서 아내 린다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오스의 가치판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목소리를 배제하면 말을 사용하듯이 지미의 거짓말은 조예를 배제시키는 포함적 배제라는 이중 구조를 갖는다.

또한 아바디가 자행한 비행기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도 그의 고국 이디

오피아가 파괴되어서 그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예외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아바디는 비행조종술을 배우려 하지만, 9/11 테러 사건의 여파로 백인들로부터 십여 차례 거절을 당한다. 난민이란 신분 자체가 국가로부터 배제된 예외 상태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아감벤은 근대 이후에 발생한 난민과 수용소를 벌거벗은 생명과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아감벤이 수용소를 “출생(벌거벗은 생명)과 국민 국가가 점점 더 분리”(The growing dissociation of birth (bare life) and the nation-state)(Agamben 175)시키는 곳이라고 규정했다면, 이는 지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벌거벗은 생명의 내적 공간에도 해당될 수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국이란 명분으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 인디언을 보호구역에 감금시킴으로써 변형된 수용소를 만들었듯이, 세계 곳곳에서 각국의 사람들을 국가와 점점 분리시키며 아바디와 같은 난민,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의 포로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벌거벗은 생명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감벤은 또한 수용소를 예외 상태로서 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에 대응하는 “영구적인 예외공간”(permanent space of exception)(Agamben 175)이고, 또한 수용소는 특정한 공간 내에서 그 공간을 규정한 체계를 넘어서는 “탈영토적 위치 확정”(dislocation localization)(Agamben 175)이라고 규정한다. 수용소는 전통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주권-국민-영토라는 세 요소에 추가된 근대적 공간이지만, 세 요소를 해체시켜버린 “제4의 분리할 수 없는 요소”(the fourth, inseparable element)(Agamben 175)이기도 하다. 아감벤이 규정한 수용소는 어떤 특정한 지리학적 공간을 넘어서 모든 인류가 벌거벗은 생명이 될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지시라 할 수 있다. 즉 현대 민주주의라는 정치구조 속에서 인간은 언제든지 조예와 비오스의 경계선상에서 식별 불가능한 위치로 내몰릴 수 있는 위상학적 좌표에 위치해있다는 의미이다. 알렉시는 보호구역

의 인디언들의 세계를 “제 4세계”(The Fourth World)라고 지칭했다. 그의 이런 표현은 보호구역이란 공간이 전통적으로 분류되는 제1, 2, 3세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디언들에게 해당되는 특수성을 지시한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조예와 비오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위치에 놓여있는 별거벗은 생명으로서 인디언과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한 표현으로 읽혀진다.

조예와 비오스의 차이와 현대 정치에서 이 둘 사이에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과정을 지츠의 이름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분석해 보자. 이 작품은 “나를 지츠로 불러주세요. 모든 사람이 저를 지츠라고 불러요. 그것이 물론 제 실제 이름은 아니죠. 제 실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Call me Zits. Everybody calls me Zits. That’s not my real name, of course. My real name isn’t important)(1)로 시작한다. 지츠는 여드름이다. 자신을 여드름과 동일시하는 지츠의 말은 비오스의 영역이지만, ‘여드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자존감을 상실한 지츠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별거벗은 생명 그 자체인 몸을 지시하는 말이다. 이런 상태의 지츠가 백인 소년 저스티스의 꼬임에 넘어가 은행에서 죽은 인디언들을 불러오고 백인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고스트 댄스”(Ghost Dance)를 추며 춤을 난사하면서 시간 여행을 시작한다.

시간 여행을 통해 행크, 거스, 지미와 같은 백인들의 몸, 그리고 목소리를 잃은 인디언 소년, 그리고 인디언 아버지의 몸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시대와 상황을 체험한다. 지츠의 의식이 전이된 이들은 인디언과 백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조예와 비오스의 경계가 모호한 위치에 놓인 나약한 별거벗은 생명의 존재들이었다. 특히 16-18장에서 지츠는 자신의 출생한 직후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거리의 주정뱅이 인디언의 몸으로 이동한 후, 이 인디언이 자신이 출생하던 시간에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친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분노에 사로잡히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다. 지츠의 아버지는 인디언 소년의 몸에서 체험한 크레이지 호스와

같은 강인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냥에 실패한 것을 “용서받고 사랑받고 싶어”(to be forgiven, to be loved)(155)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츠가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증오했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관계에서 배제된 존재였고, 이런 관계가 자신과 지츠의 관계를 통해서 되풀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츠를 떠났다.

다시 현실로 돌아 온 지츠는 경찰관 데이브의 남동생인 로버츠와 부인 마리의 양자로 입양된다. 이들 부부에게 믿음의 생김 지츠는 “마이클,”이라고 말했다. “제 실제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마이클로 불러주세요.” (“Michael,” I say. “My real name is Michael. Please, call me Michael.”) (181)라고 요청한다. ‘지츠=여드름’이 ‘마이클’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츠는 별거벗은 생명, 즉 목소리에 해당한다. 이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조에 그 자체이며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지츠를 마이클로 불러달라는 행위는 지츠가 조에/목소리/인디언을, 그리고 마이클이 비오스/말/백인을 표상한다면, 구조적으로 조에로부터 벗어나 비오스로 향한 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에의 비오스는 “별거벗은 생명 그 자체를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변형”(transform its own bare life into a way of life)(Agamben 9)시키려는 조에의 권리이다. ‘지츠-마이클’의 변형은 많은 비평가들이 비판하듯이 알렉시가 인디언의 전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인디언의 전통을 유지하지만, 과거에 전통 또는 인디언 근본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하는 시도할 수 있다. 지츠의 이런 변화는 알렉시가 “자아의 주권”(sovereignty of self)(Jeff Berglund xxviii)이라고 언급한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대부분의 인디언 출신 작가들과 인디언들은 주권이란 개념을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독립을 얻기 위한 집단적인 부족의 욕망의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알렉시는 ‘주권’을 독특한 예술가 되고 싶은 한명의 인디언

작가로서의 “기본적인 권리”(the individual Indian artist’s basic right to be an eccentric bastard.”(Breglund xxviii)로 규정했다. 알렉시가 생각하는 주권이 전통, 역사, 문화를 공유하지만 다른 민족 또는 인종과 교류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본다면, 『탈주』는 지츠-마이클의 구조에 내재된 목소리/인디언/조에로부터 말/백인/비오스로의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가능성을 탐색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인디언이라는 특수성에서 출발했지만, 인류의 보편적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감벤의 관점에서 언급했듯이, 현대의 정치구조에서 지츠의 유쾌한 긍정인 ‘조에의 비오스 되기’는 이들 사이의 경계를 식별하기 힘든 지대로 내몰릴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알렉시의 『탈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주인공인 지츠의 마이클 되기, 즉 조에의 비오스 되기는 정체성 추구에 형식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 알렉시는 인디언들의 정체성을 고통과 동일시한다.(The fact is you cannot separate our identity form our pain.)(Ase Nygren 157) 알렉시가 고통과 정체성을 동일시한 이유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만 적용되는 특화된 개념인 “영혼의 상처”(soul wound)(Jan Johnson 226)란 개념에 근거한다. 영혼의 상처란 백인들에 의한 강제 이주와 동화정책과 같은 식민화 과정의 결과, 인디언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절망감, 높은 자살률, 가정 폭력, 아동 학대, 그리고 알콜 중독과 같은 표면적인 현상들과 그런 현상들을 근원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백인에 의한 인종차별과 억압에 기인한다.

차별과 억압에서 기인한 패배감에 젖어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상

실한 인디언들은 자신들을 “인간 이하 존재”(subhuman)(Johnson 226)로 규정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알렉시 또한 인디언들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기에 인디언 문학의 특징을 “치욕과 수치의 문학”(the literature of humiliation and shame)(Nygren 149)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알렉시의 이런 인식이 지츠라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신을 몸에 생긴 여드름이라고 불러달라는 주인공의 행위는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국민이 아닌 예외상태로 내몰린 자존감을 상실한 인디언을 압축한 표현이다.

하지만 알렉시는 지츠의 정체성 추구 과정에서 나타난 ‘조에의 비오스 되기’를 통해서 백인과 인디언, 안과 밖, 그리고 중심과 주변 사이에 실선으로 경계선을 설정해서 인디언 근본주의로 환원하지 않았다. 지츠를 통한 조에의 비오스 되기는 지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지만, 현대의 정치구조에서 알렉시는 목소리와 말, 조에와 비오스, 백인과 인디언을 식별할 수 없는 경계선상에 지츠를 위치시킴으로써 지츠의 겪은 과정 자체가 인디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문제라는 보편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지츠의 이런 성장과정을 통해서 알렉시는 인디언들과 백인의 관계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인종의 벽 내부에 존재하는 식별 불가능한 영역에 위치한 인간 실존의 보편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 주제어

서만 알렉시, 조르조 아감벤, 조에, 비오스, 『탈주』, 별거벗은 생명, 아메리카 인디언, 인디언 보호구역

■ 인용문헌

- 노현균. “셔만 알렉시의 『고독한 보안관과 톤토가 천국에서 싸우다』와, 스모크 시그널즈>: 아 메리카 인디언 보호구역 리얼리즘과 신세기 인디언주의.” 『영미문화』 제9권 1호,(2009): 163-184. Print.
- _____. “셔만 알렉시의 『어느 파트타임 인디언의 진짜 일기』: 현대 미국 사회에서 인디언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력으로서의 트랜스내셔널리즘.” 『미국소설』 제21권 1호,(2014) : 5-26. Print.
-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서울: 새물결출판사. 2008. Print.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Daniel Heller-Poazen. Tran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5. Print.
- Alexie, Sherman. *Flight*. New York: Black Cat, 2007. Print.
- Berglund, Jeff & Roush, Jan. Eds. *Sherman Alexi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Salt Lake City: The Univ. of Utah Press, 2010. Print.
- Grassian, Daniel. *Understanding Sherman Alexie*. Columbia: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2005. Print.
- Heldrich, Philip. “Survival = Anger × Imagination: Sherman Alexie’s Dark Humor, *Sherman Alexi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Berglund, Jeff & Roush, Jan. Eds(2010): 25-43. Print.
- Johnson, Jan. “Healing the Soul Wound in *Flight* and *The Absolutely True Diary of a Part-Time Indian*, *Sherman Alexi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Berglund, Jeff & Roush, Jan. Eds. (2010): 224-240. Print.

- Nygren, Ase. "A World of Story-Smoke: A Conversation with Sherman Alexie," *Conversations with Sherman Alexie*. Peterson Nancy J. Ed. Jackson: UP. of Mississippi, (2009): 141-156. Print.
- Vogel, Mark. "Half Child/Half Adult: Sherman Alexie's Hybrid Young Adult Fiction," *Critical Insights: Sherman Alexie*. Leon Lewis, Ed. Pasadena: salem Press. (2012): 106-125. Print.

■ Abstract

**Sherman Alexie's *Flight*:
Thinking of the Boundary**

Kim, Jong-Gahp (Dongguk Univ.)

This paper aims to analyze Alexie's *Flight* in terms of zoe/bios and bare life in Agamben's *Homo Sacer*. For Agamben, zoe is a natural life common with an animal, a plant, and an insect, whereas bios refers to a politically valuable life. In ancient Greek, zoe is defined as a man who may be killed and yet not sacrificed, and has a relation of inclusive exclusion with sovereignty. Based on this relationship, politics in Greek is regarded as tanatopolitics which is continuously excluding zoe into a state of exception. In modern times, zoe itself becomes a subject of sovereign power. In this context, Zits in Alexie's *Flight* identifies himself with an acne as his identity. And in the end of text, Zits wants to be called Michael. In short, Zits becomes Michael. This process of name revision means that Zits as a subhuman, who defines the American Indians, not only searches for identity through time travel, but implies the general plight of human beings in modern political system. Because human beings as a bare life are thrown into a undistinguishable zone between zoe and bios shown in camps and refugees. Thus, Alexie searches for the boundary between zoe and bios, Indian and Whites through Zits, and beyond it, may recognize the universality of human beings hidden in the structure of modern

politics.

■ Key Words

Sherman Alexie, Giorgio Agamben, zoe, bios, *Flight*, bare life, American Indian, Indian Reservation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번역의 지향점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 ‘잔여태(Remainder)’를 중심으로

박 효 진

The limits of my language stand for the limits of my world.

(Wittgenstein 1961:49c)

I. 서론

‘번역’ 행위 및 ‘번역(translated text)’이라는 결과물과 관련해 늘 제기 되는 화두 가운데 하나는 ‘좋은 번역’일 것이다. 영미문학연구회 평가사업단이 2005년 출판한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좋은 번역’은 번역을 둘러싼 불변의 지향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 좋은 번역에 대한 전제로 베르만(Antoine Berman)은 ‘나쁜 번역’을 정의한다.

나쁜 번역에 대한 이론을 전제해야만 한다. 나쁜 번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달 가능성이라는 미명 아래 이국 작품이 담고 있는 낯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번역을 말한다. (Berman 2009:20)

“좋은 번역은 그것의 언어 자체를 통하여 외국 텍스트의 외국성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번역”(Berman 1985: 89; Venuti 2006:27 재인용)인 것이다. 베르만은 더 나아가 번역 텍스트에서 외국성(foreignness)을 인식함으로써 번역의 윤리(translation ethics)가 정해지며, 번역에 있어 본질적 윤리는 외국성이 목표 언어 및 문화에 도달했을 때 그 외국성을 환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Berman 1984; Gouanvic 2001: 204 재인용). “번역에서 원문의 외국성을 드러냄으로써 문화적 타자성을 존중”(Venuti 2013: 2)하는 것이 번역윤리라고 베르만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베르만의 주장을 바탕으로, 베누티(Lawrence Venuti)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좋은 번역은 소수화하는 번역이다. 즉 좋은 번역은 혼질적인 담화를 양성하여 잔여태를 해방함으로써, 표준어와 문학 정전을 외국적인 것, 비표준적인 것,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 열리게 하는 번역인 것이다. (Venuti 2006: 27)

번역가는 본질적으로 자민족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번역의 방향을 다소 틀어서, 번역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하는 자국적 용어들을 탈(脫)중심화시킬 수 있는 번역이 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자국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차이의 윤리인 것이다. (145)

차이의 윤리를 지향하는 번역이라면 [...] 번역을 통한 문화적 저항 프로그램은 특별히 문화적인 형태들을 취해야 하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규범적이고도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에게서 벗어나는 텍스트들과 번역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149)

베누티가 일컫는 혼질성은 번역에 있어 르세르클(Jean-Jacques Lecercle 1990)이 개념화한 잔여태(remainder)를 전체적으로 이해 가능하면서도 몇몇 중요한 부분에서 표출시키는 것(Venuti 2006: 28)이며, 이를 “주류언어에 대항하는 탈중심화하는 언어를 만들어 냄으로써 차이를

만들고, 차이를 가능케 하는 차이의 윤리를 만들어가는 번역윤리”(윤성우 2015: 112)로 정리한다. “윤리적 배려의 대상인 타언어에서 그 낯섬의 요체가 문자인 만큼, 바로 이 문자에 충실한 번역을 수행하는 것이 윤리적인 번역”(윤성우 2015: 110)이라는 베르만의 주장과 잔여태를 드러냄으로써 (release) 번역윤리를 완성시킨다는 베누티의 주장은 일면 동일한 지평에 있다 하겠다.

본 논문은 베르만과 베누티가 주장하는 ‘좋은 번역’과 이러한 번역이 지향하는 ‘번역윤리’에 대해 베누티가 전용한 르세르클의 ‘잔여태’ 개념을 이용하여, 잔여태가 드러나는 번역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번역(자)의 윤리에 따라 산출된 번역 역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곳은 (번역)독자이기 때문이다. 설문을 통한 독자의 반응을 확인 하면서, 베르만과 베누티가 지향하는 ‘윤리적 번역’과 번역 독자의 그것이 과연 상응하는지 고찰하는 것 또한 본 논문의 목적임을 밝혀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잔여태(Remainder)

언어학자 르세르클(Jean-Jacques Lecercle)은 *The Violence of Language*(1990)를 통해, 언어는 단순한 매개체가 아닌, 자체적인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상정하고, 소쉬르의 ‘랑그(langue)-파롤(parole)’이라는 언어학의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언어학자들이 주목하지 않는 언어의 ‘어두운 면(dark side)’을 언어학 및 사회학적으로 접근한다(Lecercle 1990:5-6). 르세르클은 이러한 언어의 어두운 면을 이른바 ‘잔여태(remainder)’라 명명하고 그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르세르클의 연구를 바탕으로 베누티(1996: 91; 2006: 24; 2013:

37-41)는 잔여태의 개념을 정리하며 번역에 도입한다. 번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loss)과 획득(gain)은 결과적으로 번역하는 언어와 문화의 관점에서 사전적 등가어 정립을 넘어서는 텍스트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효과를 번역에 있어 ‘잔여태’라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잔여태는 현대 표준어에 대한 다양한 음운론적, 어휘적, 통사적 변이로서, 여기에는 지역 및 사회적 방언, 표어 및 상투어, 기술 용어 및 속어, 고어 및 신조어, 은유와 언어유희 같은 문학적 수사, 문체적 변화, 외래 차용어가 속한다. 표준어는 사실상 다양한 형태의 변이 가운데 하나이고, 잔여태는 표준어 혹은 표준어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의미로부터 남겨진 것이 아니라, 표준어와 소통되는 의미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라 설명한다. 또한 번역에서, 잔여태는 번역하는 언어의 현대 표준어와 원천 텍스트의 형식 및 의미 차원 모두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언어학적 형식과 텍스트 효과를 구성한다 하겠다.

베누티는 또한 원천 텍스트를 수용 문화의 독자가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동화(assimilation)시키는 번역에서 항상 작동하는 자국화 과정(domesticating process)의 가장 가시적인 신호로서 잔여태를 설명한다. 동시에 잔여태는 독자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집자가 번역자에게 빈번하게 강요하는 번역 언어의 형태, 즉 현대 표준어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이국적 효과(foreignizing effects)의 주요 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잔여태의 효과를 시험할 목적으로 베누티는 19세기 이탈리아 작가 I.U. 타르게티(I. U. Tarchetti)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밝힌다 (Venuti 2006: 32-43). 이탈리아 텍스트를 원문에 가깝도록 직역하고, 영어 번역문을 적절히 의고적 형태로 꾸미면서 “미국적 잔여태”(Venuti 2006: 39)를 방출했다고 설명한다. 일종의 시험이자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해당 번역에 대한 반응이 독자층에 따라 다양했다고 베누티는 밝히고

있는데, 영문학 교수 등의 엘리트 독자층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대중 독자층과 서평가 등의 반응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독자의 반응은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고찰할 사항이므로,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베누티는 자신의 “번역 기획의 목적은 소수화”에 있었고, 해당 번역이 “다양한 독자층에게 접근할 수”(Venuti 2006: 42)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족하는 인상을 남겼다.

베누티는 또한 일본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¹⁾을 가독성은 높으면서도 번역 텍스트를 낮설어 보이게 만드는 외국성을 부여하는 전략을 사용한 미건 베커스(Megan Backus)의 영역본을 소수화 지향의 성공적 번역 사례로 제시한다. 베커스의 『키친』 영역본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은, “미국의 보다 젊고도 광범위한 독자층에 접근할 수 있었다”(Venuti 2006: 154)는데 있다.

베누티는 잔여태를 드러내는 소수화 지향 번역이 좋은 번역이며, 윤리적 번역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베누티의 이탈리아 텍스트 번역과 요시모토 바나나의 영역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베누티는 독자층이 ‘좋은 번역’이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다양한 독자층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잔여태가 드러나는 번역이 실질적 최종 소비자인 (번역) 독자들로부터 “환영”받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으로 사료된다.

1)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ばなな)는 1987년 11월 『키친 キッチン』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키친』은 “가족을 잃고 상실의 고통 속에 홀로 남겨진 여주인공이 타인으로부터 부엌이 상징하는 사랑, 즉 개인의 생명과 존재 그리고 그 본연적 삶의 영위를 조건 없이 긍정하고 성원하는 사랑을 받아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희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최정아 2015: 415)

2. 분석텍스트: 『리멤버 미-렉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Remember Me?*)

본 논문의 분석 텍스트인 『리멤버 미-렉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Remember Me?*)²⁾는 영국의 대표 칙릿(Chick-lit)³⁾ 작가 소피 킨셀라(Shophie Kinsella)의 2008년 작품으로, 한국어 번역본은 2009년 출판되었다. 그녀의 대표작 『쇼퍼홀릭』(*Shoperholic*) 시리즈가 뉴욕타임즈 및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소피 킨셀라는 일약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2009년에는 『쇼퍼홀릭』이 영화화되어 개봉되기도 했다.

『리멤버 미』의 주인공 렉시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지난 3년간의 삶이 기억나지 않는 렉시는 어쩐지 새로운 모습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날들의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렉시의 직장 생활, 연애와 결혼, 친구들과와의 관계를 가볍게 풀어가는 1인칭 시점의 소설이라 하겠다.

『리멤버 미』를 분석 텍스트로 선택한 주된 이유는 한국 문학의 “정전들을 벗어나는 형태와 주제를 지닌 텍스트”(Venuti 2006: 27)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문학은 본질적으로 잔여태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꾸며진 글”(Venuti 2006: 25)로서, 잔여태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적합한 텍스트라 판단된다.

2) 이하 『리멤버 미』로 표기

3) 칙릿(chick-lit)이라는 용어는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속어 “chick”과 문학(literature)을 축약시킨 “lit”에서 유래했다. 칙릿은 대부분 연애, 직업, 쇼핑을 중시하는 현대적이고, 도시에 사는 미혼 여성의 삶을 다룬다. 1998년 미국에서 출판된 헬렌 필딩(Helen Fielding)의 『브리짓 존스의 일기(Bridget Jones Diary)』를 시작으로, 칙릿이라 명명된 이러한 여성 대중소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다국어로 번역되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Baykan 2015: 27-28).

Ⅲ. 잔여태 번역에 대한 독자 반응 분석

설문을 위해 선택한 예문은 『리멤버 미』의 도입 부분에서 원문(source text; 이하 ST)에 잔여태가 드러난 문장과 ST의 잔여태가 번역문(target text; 이하 TT)의 잔여태로 드러난 총 8가지의 문장이다. 설문지는 해당 8개의 예문에 대한 ST와 TT를 모두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번역문이 잘 된 번역인지, 잘못된 번역인지 평가하고 간략한 평가이유를 묻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설문 조사의 대상은 2016년도 1학기 서울 소재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와 전공과목인 ‘통·번역 연습’을 수강한 34명의 학생들이었다. 해당 설문을 시행하기 전에 학생들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Remember Me?*의 첫 페이지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를 수행한 후, 34명의 학생들은 해당 작품의 원제와 간략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설문지에 ‘잔여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거나, 잔여태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 표시하지 않고, 번역문에 대한 평가만을 요청했다. 설문 대상자들은 직접 번역을 수행한 번역자인 동시에 대학교 2-3학년의 젊은 대중 독자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 조사의 목적은 잔여태를 드러내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는 베누티의 주장이 실제 독자에게도 ‘좋은 번역’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외국성을 드러내도록 잔여태를 이용하여 번역해야 한다는 번역(자) 윤리가 이론으로만 그칠 것인지, (번역) 독자가 환영할 실천적 번역 행위로 연결되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표1>은 8개의 예문과 그에 대한 설문대상자들의 응답이다. <표1>의 밑줄은 잔여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본 논문에서 표시한 것이며, <부록>으로 첨부한 설문지와 같이 설문 당시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표1> 설문 결과4)

(단위: 명)

		예문	잘된 번역	판단 어려움	잘못된 번역
1	ST	Of all the <u>crap, crap, crappy</u> nights I've ever had in the whole of my <u>crap</u> life. (1)	23	5	6
	TT	구려 티진 내 인생에서도 오늘 밤처럼 <u>구리다 못해 폭탄인</u> 날은 처음이다. (9)			
2	ST	If only Loser Dave had turned up like he promised. After all those <u>luv u Lexi</u> texts; after vowing faithfully to be here at ten. (2)	22	7	5
	TT	찌질이 데이브가 약속한 대로 나타나기만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렉시 자기 <u>알라뷰</u> ' 같은 문자질이나 해대며 저녁 10시까지의 꼭 오겠다고 단단히 맹세하더니만. (11)			
3	ST	<u>Oh God</u> . Was I mugged? That has to be it. (15)	15	14	5
	TT	<u>히익</u> , 내가 <u>픽치기</u> 를 당했나? 그런 모양이다. (25)			
4	ST	"You were a little slurred, but you kept asking if something was <u>'baggy.'</u> " She frowns, looking perplexed. "Or <u>'scaggy'?</u> " (16)	11	10	13
	TT	"혀가 좀 풀려 있었지만 뭘 계속 묻더라고요. 뭐가 ' <u>걸렸다</u> ' 던가..... 아니면 ' <u>결레</u> 라고 한 것도 같고요." (27)			
5	ST	Surely all my love cells should be waking up? But I feel totally blank and <u>nothing-y</u> . (48)	5	11	18
	TT	사랑을 주관하는 세포가 왕창 깨어나야 하는데. 하지만 느낌이 오기는커녕 먹통에다 <u>무감각틱</u> . (64)			
6	ST	For God's sake. How can you not even notice when your daughter turns from a <u>manky</u> , overweight Snaggletooth into a thin, tanned, groomed person? (52)	14	13	7
	TT	내가 미처. <u>빠드렁니인</u> 데다 살까지 출렁거리 폭탄이던 엄마 딸이 날씬 <u>쌌쌌</u> 세련ner가 됐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으시냐고요. (69)			
7	ST	As she sees me, she grimaces. "Your face still looks <u>fucked up</u> ." (55)	22	9	3
	TT	여자애는 날 보더니 인상을 팍 쓴다. "얼굴이 아직도 <u>졸라 구리네</u> ." (71)			

4) ST와 TT 예문을 각각 발췌한 *Remember Me?*와 『리멤버 미』의 페이지를 병기했다.

8	ST	Hi! Back Home—give me a call! <u>Can't wait to c u!!!</u> Lxxxx (98)	6	17	11
	TT	안녕! 집에 왔삼. 전화해! 빨랑 보고 시포!!! L♡♡♡♡ (121)			

먼저 ‘잘된 번역’이라는 평가를 더 많이 받은 예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문1>과 <예문7>의 ST에는 각각 ‘crap’과 ‘fucked up’이라는 속어가 드러나는데, 이를 TT에서는 모두 ‘구리다’라는 비속어로 나타내고 있다. ‘crap’은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을 의미하는 속어이고, ‘fucked up’ 역시 ‘엉망인, 몹시 혼란한’을 의미하는 속어이다. 이러한 영어 잔여태를 한국어의 ‘구리다’로 번역한 것이다. ‘구리다’라는 표현은 ‘똥이나 방귀 냄새와 같다’는 의미의 표준어로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여기서 쓰인 의미는 ‘맘에 안 드는’ 혹은 ‘촌스럽거나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속어(권희린 2013: 44)인 것이다. 두 예문의 번역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부분 ‘잘된 번역’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crap’이라는 단어의 반복을 ‘구리다’와 ‘폭탄’이라는 단어로 증폭시킴으로써, 독자들이 해당 예문을 통해 표현되는 기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예문7>에 대해서는 비속어인 ‘fucked up’을 실감나게 잘 표현했다는 이유가 지배적이었다.

<예문6>의 TT에도 ‘폭탄’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ST의 ‘더러운, 지저분한’을 뜻하는 영국식 속어 ‘manky’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의 ‘폭탄’은 “얼굴이 못생기거나 몸이 똥똥한 사람을 지칭”⁵⁾하는 은어로, ST의 잔여태를 TT의 잔여태로 옮긴 것이라 하겠다. 또한 TT에 ‘산뜻하다’는 의미의 전라도 방언에서 유래한 ‘멋지다, 괜찮다’의 속어 ‘쌈빡’이 ST의 ‘tanned(햇빛에 그을린, 피부를 태운)’를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번역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으로 ‘잘된 번역’과 ‘판단하기 어

5) 네이버 지식인 오픈사전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3592>) 참조.

려운 번역'의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문장 전체가 자연스럽게, 화자의 감정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잘된 번역'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이 있는 반면, ST의 'tanned'를 '쌘빱'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 "너무 옛날 표현이다", "비속어를 사용했다", "표현이 너무 저렴하다" 등의 이유를 근거로 '잘못된 번역'이라고 응답한 평가자들도 있었다. '폭탄'이라는 비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예문2>는 'love you'를 축약해서 쓴 'luv u'의 번역 양태를 보여준다. 통신망과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 등으로 온라인 채팅이 활발해지면서 신조어라고 지칭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축약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축약형의 'luv u'를 한국어에서는 '렉시 자기 알라뷰'라고 번역하고 있다. '알라뷰'라는 표현은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인기를 끈 일종의 유행어로, '사랑한다'라는 표준어 대신 유행어의 잔여태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번역에 대해 '잘된 번역'이라고 답한 이유로 '소설이라는 장르에 맞게 자연스럽게 번역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알라뷰'라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판단하기 어렵다'와 '잘못된 번역'이라는 응답에서는 '알라뷰'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제 '판단하기 어렵다'와 '잘못된 번역'이라는 평가를 더 많이 받은 예문을 살펴보겠다. <예문3>은 놀라거나 당황스러울 때 쓰는 비격식적 표현 'Oh God'에 대한 번역 예이다. 한국어에서는 이를 '몹시 놀라거나 숨이 차서 숨을 순간적으로 멈추거나 들이마시는 소리. 또는 그 모양.'⁶⁾을 뜻하는 '헉'을 길게 늘려 표현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다수의 응답자들은 '허역'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 부자연스럽다고 비판하며, 대신 '헉'과 같은 유행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은 잔여태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행하는 신조어는 잔여태로 분류되고, '헉'이라는 감탄사는 본 논

6) 국립국어원 제공,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문의 분석 텍스트인 『리멤버 미』가 번역된 2009년 당시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한 유행어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적인 표현으로 제안하고 있는 ‘헐’은 현재 젊은 층이 많이 쓰는 유행어로서, 신조어인 잔여태인 것이다.

<예문8>에 대한 독자의 반응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TT에 나타난 ‘집에 왔삼’과 ‘보고 시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수 있었다. <예문3>에 대한 비판처럼 ‘거의 쓰지 않는 표현’, ‘촌스러운 표현’, ‘속어의 빈번한 사용’, ‘맞춤법 파괴’ 등의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예문3>과 <예문8>의 경우는 베누티의 주장과 달리, 유행어나 신조어로의 번역은 ‘시대성’이라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시해 준다 하겠다.

‘잘못된 번역’이라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예문5>에 대해 살펴보자. ST의 ‘nothing-y’는 ‘nothing’에 ‘...의 성질을 가진’, ‘...인 것 같은’, ‘...에 찬’, ‘...으로 이루어진’을 의미하는 접미사 ‘-y’를 붙여 만든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소한’을 뜻하는 신조어이다.⁷⁾ 이러한 신조어를 ‘무감각탁’으로 TT에서 번역했는데, 해당 번역에 대해 “무감각탁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감각탁은 평소에 쓰는 말도 아니고 재미도 없다”, “인터넷 소설 같은 말투는 지양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많았다. <예문3>과 <예문8>이 제시하는 문제처럼, 유행어나 신조어를 이용한 잔여태 번역에 있어 시대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독자의 반응이라 하겠다.

<예문4>의 ST에는 ‘헐렁한, 불룩한’의 뜻을 지닌 ‘baggy’와 ‘역겨운, 지저분한’을 뜻하는 속어 ‘scaggy’⁸⁾라는 단어의 유사한 발음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 TT의 번역을 살펴보면, ST의 언어유희적 측면을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헐렁’하다는 뜻의 ‘baggy’를 ‘걸렸다’로, ‘scaggy’를 ‘걸레’로 전혀 무관한 의미로 번역하면서, 음성적 언어유희만

7) Wiktionary에서 “Having very little impact, trivial”로 설명하고 있다.

8) Urban Dictionary에서 “Used as an adjective to describe something as nasty or disgusting”으로 설명하고 있다.

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번역에 대해 ‘잘된 번역’이라 평가한 이유는 대부분 ST의 ‘baggy’와 ‘scaggy’처럼 음성적 언어유희가 TT에도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잘못된 번역’ 및 ‘판단하기 어려운 번역’이라 선택한 근거 이유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잔여태의 번역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설문조사 대상과 설문에서 사용된 예문의 수에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베누티가 주장하는 ‘잔여태를 드러내는 소수화 번역=좋은 번역’이라는 공식이 실제 독자가 생각하는 ‘좋은 번역’과는 정확하게 등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인 칙릿 작가 소피 킨셀라의 *Remember Me*?와 한국어 번역본 『리멤버 미』에 나타난 ‘잔여태’를 중심으로, 베르만과 베누티가 지향하는 ‘좋은 번역’과 ‘번역(자) 윤리’가 실제 독자에게도 적용되는 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베누티가 번역에서 외국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으로 잔여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ST와 TT에서 잔여태가 나타나는 문장을 선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번역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잔여태가 드러남으로써 독자들은 외국 텍스트를 읽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베누티의 주장에 근거하여, 설문에서는 잔여태에 대한 개념을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누티의 주장과 달리, TT에 나타난 잔여태에 대해 독자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촌스러운 표현’이라든가, ‘빈번한 속어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칙릿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ST와 TT에 나타난 잔여태 형태가 대부분 신조어와 비속어라는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독자의 반응은 베누티가 정

의하는 ‘좋은 번역’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응답을 통해 유행어 등의 잔여태가 ‘시대적 한계’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에 이용된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 설문조사 대상의 수가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매우 제한적임을 인정하지만, 베누티와 베르만에게 있어 번역(자)가 마땅히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좋은 번역’으로서의 ‘윤리’는 일면 자족적일 뿐, 번역의 최종 소비자인 ‘독자’에게는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겠다. 본 논문을 계기로 ‘좋은 번역’과 ‘번역윤리’는 오롯이 번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번역에 있어 실제 최종 소비자인 독자에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인천대학교)

■ 주제어

잔여태, 좋은 번역, 소수화 번역, 번역(자) 윤리, 베누티, 베르만

■ 인용문헌

- 권희린. 『B급 언어』. 서울. 네시간. 2013. Print.
- 베누티, 로렌스. 임호경 역. 『번역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서울: 열린 책들. 2006. Print.
- 베르만. 앙트완. 윤성우, 이향 역. 『낮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9. Print.
- 이미경. 「베누티의 “차이의 윤리”와 이국화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베르망의 관점으로」. 『번역학연구』 10.2 (2009): 83-104. Print.
- 윤성우. 「‘윤리’ 개념과 ‘도덕’ 개념의 구분을 통해서 본 번역윤리」. 『통역과 번역』. 17.3 (2015): 101-118. Print.
- 최정아. 「요시모토 바나나 『키친』론」. 『외국문학연구』 59 (2015): 415-440. Print.
- 킨셀라, 소피. 이지수 역. 『리멤버 미-렉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Remember Me?)』. 서울: 황금부엉이. 2009. Print.
- Baykan, Burcu. ‘Women’s Reading and Writing Practices: Chick-lit as a Site of Struggle in Popular Culture and Literature’. *IJASOS*. 1(1) 2015: 27-33. Print.
- Gouanvic, Jean-Marc. ‘Ethos, Ethics and Translation’. *The Translator*. 7.2 (2001): 203-212. Print.
- Kinsela, Sophie. *Remember Me?*. New York: Bantam Dell, 2008. Print.
- Lecerle, Jean-Jacques. *The Violence of Language*. New York: Routledge. 1990. Print.
- Venuti, Lawrence. ‘Translation, Heterogeneity, Linguistics’. *TTR*. 9.1 (1996): 91-115. Print.
- _____.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New York:

Routledge, 2013, Print.

Wittgenstein, Ludwig. *Notebooks 1914-1916*. Oxford: Basil Blackwell, 1961, Print.

■ Abstract

A Survey Research on Orientation of Translation: Based on the ‘Remainder’

Park, Hyo-Jin (Incheon National Univ.)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Venuti’s “good translation” and Berman’s “translation ethics” are equally valued by general readers. According to Venuti’s notion of good translation, the remainder which is theorized by Lecerle is used as a core concept for the study. The remainder includes regional and social dialects, slogans and clichés, technical terms and slang, archaisms and neologisms, metaphors and puns, stylistic innovations, and foreign loan words. A brief survey was also conducted on 34 college students with eight extracted sentences including remainders from Sophie Kinsella’s *Remember Me?* and its Korean translated one.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evaluate whether those eight translations are good or not.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on good translation between translation theorists or translators and readers. General readers rarely recognize the foreignness through the remainder unlike Venuti’s theory that the foreignness in a translated text can be recognized by releasing the remainder. Given the results, new questions may arise. For whom is good translation, and what should translation be oriented?

■ Key Words

remainder, good translation, minoritizing translation, translation ethics, Venuti, Berman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부록>

다음 예문은 영어 원작 *Remember Me?*와 한국어 번역본 『리멤버 미-렉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에서 각각 발췌한 것입니다. ST와 TT를 비교하면서, 각 ST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평가하고 평가의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1. ST: Of all the crap, crap, crappy nights I've ever had in the whole of my crap life.

TT: 구려 터진 내 인생에서도 오늘 밤처럼 구리다 못해 폭탄인 날은 처음이다.

(1) 잘된 번역이다. (2) 판단하기 어렵다. (3) 잘못된 번역이다.

이유:

2. ST: If only Loser Dave had turned up like he promised. After all those luv u Lexi texts; after vowing faithfully to be here at ten.

TT: 찌질이 데이브가 약속한 대로 나타나기만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렉시 자기 알라뷰' 같은 문자질이나 해대며 저녁 10시까지는 꼭 오겠다고 단단히 맹세하더니만.

(1) 잘된 번역이다. (2) 판단하기 어렵다. (3) 잘못된 번역이다.

이유:

3. ST: Oh God. Was I mugged? That has to be it.

TT: 허억, 내가 픽치기를 당했나? 그런 모양이다.

(1) 잘된 번역이다. (2) 판단하기 어렵다. (3) 잘못된 번역이다.

이유:

4. ST: “You were a little slurred, but you kept asking if something was ‘baggy.’” She frowns, looking perplexed. “Or ‘scaggy’?”

TT: “혀가 좀 풀려 있었지만 뭘 계속 묻더라고요. 뭐가 ‘걸렸다’던가…… 아니면 ‘걸레’라고 한 것도 같고요.”

(1) 잘된 번역이다. (2) 판단하기 어렵다. (3) 잘못된 번역이다.

이유:

5. ST: Surely all my love cells should be waking up? But I feel totally blank and nothing-y.

TT: 사랑을 주관하는 세포가 왕창 깨어나야 하는데. 하지만 느낌이 오기는커녕 먹통에다 무감각틱.

(1) 잘된 번역이다. (2) 판단하기 어렵다. (3) 잘못된 번역이다.

이유:

6. ST: For God’s sake. How can you not even notice when your daughter turns from a manky, overweight Snaggletooth into a thin, tanned, groomed person?

TT: 내가 미쳐. 빠드렁니인 데다 살까지 출렁거려 폭탄이던 엄마 딸이 날씬 쌘빡 세련녀가 됐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으시냐고요.

(1) 잘된 번역이다. (2) 판단하기 어렵다. (3) 잘못된 번역이다.

이유:

7. ST: As she sees me, she grimaces.

“Your face still looks fucked up.”

TT: 여자애는 날 보더니 인상을 팍 쓴다. “얼굴이 아직도 즐라 구리네.”

(1) 잘된 번역이다. (2) 판단하기 어렵다. (3) 잘못된 번역이다.

이유:

8. ST: Hi! Back Home—give me a call! Can't wait to c u!!! Lxxxx

TT: 안녕! 집에 왔삼. 전화해! 빨랑 보고 시포!!! L♡♡♡♡

(1) 잘된 번역이다. (2) 판단하기 어렵다. (3) 잘못된 번역이다.

이유: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들에 드러난 하이데거의 “세상 사람들”(Das Man)

손 윤 희

I. 서론

오늘날 사회전역에 퍼져 있는 「카르페디엄」(*carpe diem*: ‘현재의 삶을 즐기라’)의 경구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일상이 주는 안락함에 젖어 자신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 후기 자본주의와 과학적 유물론이 주는 경제적·문화적 풍요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이해를 상실한 채 익명의, 즉 불특정한 다수의 한명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우리는 현세가 주는 달콤한 부,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취해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에 근본존재론¹⁾자인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일상세계에 몰입하여 세속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인간을 “세상 사람들”(Das Man, They)²⁾이라고 부른다. 그들[세상 사람들]은 “이 존재재현존재³⁾가 그의

1) 근본존재론(fundamental ontology)은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existential analytic of Dasein)*에서 찾아져야한다”(Heidegger 34). 현존재의 존재론적 분석 자체가 근본존재론을 형성한다(35). 여기서, 실존론적 분석은 현존재를 그 실존범주(existentialia)에 입각해서 분석한다. 실존범주는 현존재의 존재성격이다(70).

2) “Das Man[They]”을 소광희는 “세인”으로, 이기상은 “그들”로, 홍윤기는 “세상 사람들”로 번역하였다. “세인”은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다. 필자는 독일원어의 뜻을 가장 살린 홍윤기의 번역 “세상 사람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

일상성에서 자신을 상실”(Heidegger 223)했을 때 나타난다. 그리하여 자기의 존재를 상실한 ‘세상 사람들’은 현세적 가치들이 주는 즐거움에 젖어 자기의 존재에 대한 반성이 없이 살아간다.

세속적 가치들에 매몰되어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의 극작품들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극중 인물들은 혼돈과 절망의 실존 속에서 고유한 자신의 존재가 아닌, 익명의 사람들로 살아간다. 이유인즉, 절망적인 실존에서 베케트의 주인공은 습관적인 놀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존재의 고통을 맞닥뜨리기보다 회피하여 자신의 실존을 지속하고자 한다. 여기서, 베케트의 인물들은 두 부류의 ‘세상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한편으로, 그들이 처한 실존에 대한 자기의 존재이해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혼돈의 실존에서 자기의 존재이해를 가진 현존재가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익명의 ‘세상 사람들’로 살아간다.

존재론의 차원에서 베케트와 하이데거 간의 국내연구 분석은 불모지 수준이다. 국외적으로 베케트와 하이데거 간의 학제연구는 되고 있지만 단편적으로만 연구되어 미흡한 실정이다. 이 둘 간의 국외연구에서 버틀러(Lance St. John Butler)는 “그들은 공통적으로 존재론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7)고 말한다. 특히, 버틀러는 「무언극Ⅱ」(*Act Without Words II*)에서 등장하는 “막대기”(a goad)와 『행복한 나날들』(*Happy Days*)에서 “위니의 자명종”(Winnie's alarm clock)을 ‘세상 사람들’로 간주한다(40).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기존재로 살아가게 하기보다 판에

어, 이 번역어휘를 빌려왔음을 밝혀둔다.

- 3) 현존재는 자신을 존재자로서 규정하면서 각기 그때마다, 현존재가 그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있으며 그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가능성에서부터 규정한다(Heidegger 60). 한 마디로, 현존재는 자기존재의 이해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인간’을 의미한다. 이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이해를 상실한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는 되는 존재자이다.

박한 일상의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예로, 웹(Eucene Webb)은 「무언극 I, II」에서의 ‘후루라기’(whistle)와 ‘막대기’를 “강박적인 힘”(a compulsive force)(89)으로 묘사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로 표상되는 후루라기와 막대기는 현존재에게 무효한 일상을 반복하도록 촉구하며, 현존재를 억압하고 지배하려 든다.

본 연구는 베케트의 작품들에서 드러난 하이데거의 ‘세상 사람들’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선, 하이데거의 ‘세상 사람들’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베케트 작품들에 드러난 두 부류의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들이 처한 실존에 대한 자기의 존재이해를 갖지 않는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끝으로, 비록 자기의 존재이해를 갖고 있는 존재자일지라도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실존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연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익명의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는 존재자를 조명하고자한다.

II.

일상에서 우리는 타자와 더불어 주변세계에 관심을 쏟고 공동의 세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우리와 더불어 세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존재자들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현존재의 공동존재이다. 그러나 현존재의 공동존재는 ‘세상 사람들’의 존재양식 속으로 해체되고 그들과의 차별성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 ‘누구’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자신도 아니며, 몇몇 사람들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총계도 아니다. 그 ‘누구’는 중성자[the neuter, 불특정한 다수], ‘세상 사람들’이다”(Heidegger 164). 한마디로, 그들 모두는 타자이고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이 아닌 셈이다.

익명의 타자들은 각각의 고유한 현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현존

재가 짊어진 존재부담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되며, 그들의 존재양태에서 고유한 현존재는 자기상실을 경험한다. 이 ‘세상 사람들’의 존재방식들인 “격차성, 평균성, 그리고 평준화”(distantiality, averageness, and levelling down) (165)은 “공공성”(publicness)을 구성하는데, 이 공공성은 현존재와 생활세계의 해석에서 드러나는 진실을 은폐시켜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먼저, 격차성에서 사람들은 “고유한 현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대신 수행될 수 있는 특정한 사회적 기능의 수행자나 다른 사람들과 항상 비교되면서 가치 매겨지는 존재로”(박찬국 178) 나타난다. 평균성은 모든 근원적인 것, 비밀스러운 것, 예외적인 것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평균성의 지배 아래 존재하기 때문에 현존재가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존재가능성들을 하향평준화(Einebnug)된다”(1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실존범주⁴⁾의 하나이며 근원적 현상으로서 그것은 현존재의 실재적인 구성에 속한다”(Heidegger 167).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현존재적으로 다양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상이한 가능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사실상, 진정한 현존재는 ‘세상 사람들’에서부터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실존적인 변양태의 하나로 그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III.

우선,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고고-디디와 포조-럭키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실존상황 속에서 각자 자신만의 존재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포조

4) 현존재의 존재성격은 실존성(existentiality)에서부터 규정되고 있기에 우리는 현존재의 존재성격을 실존범주(existentialia)라고 이른다(Heidegger 70). 실존범주는 현존재의 모든 행동의 존재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은 현존재의 실존에서부터 그의 존재의미를 도출한다.

는 익명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을 쫓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한다. 평균적 일상성 속에서 포조는 주변세계에 몰입하며 살아가기에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다. 코미어와 팔리스터(Ramona Cormier and Jans L. Pallister)에 의하면, “포조의 풍요와 압제의 증거는 그가 잘 먹고 마신다는 사실에서 발견 될 수 있고 뼈만 렉키에 던지는 것에서 드러난다”(11). 포조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포조는 *계걸스럽게 닭고기를 먹어치운 뒤에 뼈다귀를 빨아먹고 나서 내던진다*”(17)라는 그의 대사 지문에서 드러난다. 주변세계의 평균적 일상성에 몰입하며 살아가기에 포조는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기보다 자신의 소유물인 담뱃대, 시계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며 자신의 존재이해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 필립스(Herman Philipse)에 의하면 “사람들은 특정한 현존재로부터 그의 [존재]책임을 박탈시키고, 개별적 현존재는 세상 사람들로 흩어진다”(26). 그리하여 포조는 현존재가 짊어진 존재책임을 회피하여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

자연스레, 포조는 타자와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자와 진정한 존재관계도 맺지 못한다. “포조는 렉키에게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학대를 가한다”(Cormier and Pallister 11). 예컨대, 포조는 렉키에게 “돼지”(16), “늪은 개”(21), “인간(새끼) 혹은 돼지”(22), “인간쓰레기!”(30)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다. 포조는 “세상 사람들’에 몰입[하는 삶]에 의해서 그의 세계에 대한 진정한 관심 쏟음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배려로부터 뿌리가 뽑혀져 있다”(Mulhall 107). 포조는 렉키를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인식하기보다 짐승과 같이 대우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렉키를 동료로서 생각하는 이해와 배려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늪고 병약한 렉키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디디의 질문에 포조는 병약한 렉키에게 동료애를 보여주기보다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최선책이라 말한다.

블라디미르: 그를 내쫓을 셈이요?

포조: 그렇소, 그를 내쫓아도 되겠지만 그 대신에, 그러니깐 궁둥이를 걷어차서 단순히 내쫓는 대신 내 신의에 의해서 시장에 데려가서 좋은 값으로 팔아 버릴 생각이요. 사실대로 말하면 저놈을 내쫓을 수도 없고 하니, 죽여 버리는 것이 상책이요. *럭키는 운다.*

에스트라공: 울고 있어요!

포조: 늙은 개가 (이놈보다) 더 위엄이 있을 거요.

(그는 손수건을 에스트라공에게 건넨다.) 저놈을 불쌍히 여기는 모양이니 위로해 주시오.

VLADIMIR: You want to get rid of him?

POZZO: I do. But instead of driving him away as I might have done, I mean instead of simply kicking him out on his arse, in the goodness of my heart I am bringing him to the fair, where I hope to get a good price for him. The truth is you can't drive such creatures away. The best thing would be to kill them. Lucky weeps.

ESTRAGON: He's crying!

POZZO: Old dogs have more dignity. (*He proffers his handkerchief to Estragon.*) Comfort him, since you pity him. (*Waiting for Godot 21*)

포조는 럭키가 노예의 운명을 타고 났으며 노쇠해진 그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에 시장에 내다 팔거나 죽이는 것이 최선책이라 말한다. 충실한 하인 럭키를 포조는 늙은 개만도 못하다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압제를 가한다. 잭 앤더슨(Jack Anderson)에 의하면, “채찍 소리에 럭키는 포조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말없이 움직인다”(44). 포조는 ‘세상 사람들’로서 현존재인 럭키의 존재 잠재성을 빼앗아버리고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둔다. 하이데거도 말하듯이 “현존재는 일상에서 서로 함께 있음으로서 타자의 통치 안에 있다. 타자들이 임의로 현존재의 일상적인 존재가능성을 좌

우한다. 여기서 타자들은 **특정한 타자가 아니다**”(Heidegger 164). 달리 표현해, 불특정한 타자들은 ‘세상 사람들’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부지불식간에 현존재의 지배를 공고히 한다. 이전에 렉키는 현존재로서 무지몽매한 포조에게 아름다운 생각들, 즉 “최상의 아름다움, 최상의 숭고함, 최상의 진리”(22)를 가르쳐주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이해를 갖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포조는 렉키의 힘이 다하자 그가 귀찮아져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한다. 세속적인 가치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포조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렉키를 지배하고자 한다. 가령, 주종의 관계에서 포조는 렉키에게 “춤을 추게 하거나 노래를 시키거나, 아니면 낭독을 시키거나, 생각하도록”(26)명령을 한다. 이는 포조가 렉키와 자신이 다르다는 존재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격차성을 하이데거는 “현존재는 이미 타자들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타자들이 억압받도록 설정한다”(Dasein already has some priority over them and sets out to keep them suppressed)(Heidegger 164)고 말한다. 그리하여 렉키는 일상에서 포조와 함께 존재하면서 그의 통치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사물로도 형상화된다. 「무언극 I」의 막대기는 ‘세상 사람들’로서 극중 한 남자에게 동일한 패턴을 반복도록 촉구한다. 그 남자는 무대 위로 내던져졌고 천정에서 내려오는 작은 물병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지만 계속 실패한다. 그 남자는 『유희의 끝』(Endgame)의 클롭(Clov)처럼 ‘세상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받기에 자기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 무대 한가운데 널브러진 남자는 호각소리만 나면, 이전의 반복된 행동들의 패턴을 따른다. 웹은 “이미 그[남자]는 자신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도록 강요받은 세계는 그의 통제를 초월하고 그를 괴롭히기 좋아하는 [외부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87)고 지적한다. 가령, 호각 소리만 나면, “남자는 내던져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먼지를 털며, 돌아서, 생각에 잠기기”(203)를 반복한다. 호각은 남자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여 살도록 하기보다 일상의 반복된 행동

을 하도록 강요한다. 권순홍에 의하면 “세인[세상 사람들]은 어떤 현존재 이든지 간에 무차별적으로 그를 자신이 설정한 존재방식대로 존재하게끔 부지불식간에 강요하는 일상적인 세계의 가장 큰 세력으로서 그들[현존재] 위에서 굴림하고 있다”(56). 호각은 ‘세상 사람들’로서 남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외부적 힘으로 상정되며 남자는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실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에, 남자는 천정에서 내려 오는 온갖 물품들[상자, 밧줄, 가위]을 이용해 물병을 얻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바닥에 널브러진다.

「무언극 II」에서도 막대기는 ‘세상 사람들’로서 현존재인 두 남자(A’와 B’)를 압제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루 안에 있는 두 사람을 찌르는 막대기로 표상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두 남자는 현존재이다. 막대기가 그 둘을 자극함으로써 그들에게 기대되는 행위는 그[막대기]에 대한 절대적 순응이다. 버틀러도 말하듯이 그 둘은 막대기에 의해 재현되는 마지막 존재, 즉 ‘세상 사람들’의 폭정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40). 즉, ‘세상 사람들’의 폭정은 막대기가 자루 안에 든 각각의 존재자(A’와 B’)를 찌르자, 그들이 일제히 “옷을 입는다”, “(당근을) 한입 베어 문다”, “옷을 벗다” (49)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각 존재자는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선택하여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그리하여 “현존재는 그들-자신으로서 공공성의 상식적 애매함에 의해서 ‘살고’있는데, 그 안에서는 아무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 (Heidegger 345). 각 존재자는 자기 자신이 선택한 존재가능성으로 살기보다 막대기에 의해서 옷을 입고 벗는, 그리고 당근을 먹는 일상의 판에 박힌 행동들을 반복한다.

미찬가지로 『행복한 나날들』의 벨소리도 ‘세상 사람들’로서 위니로 하여금 “낡은 방식”(the old style)(141)의 삶을 고수하도록 강요한다. 벨소리는 그녀로 하여금 종말 없는 세계에 대해 기도를 하게하고 양치질, 노래 부르기, 칫솔자루와 약병에 쓰인 글귀를 읽기, 약을 마시고, 화장을 하며

머리를 빗고, 손톱 손질을 하는 등의 습관적인 일상을 하도록 촉구한다. 이 습관적 일상을 위니는 입버릇처럼 “낡은 방식”이라고 말한다. 콘(Ruby Cohn)에 의하면, “위니의 구절, 즉 “낡은 방식”은 무한한 지금의 관점에서 습관적 인간의 시간을 묘사한다”(Just Play 50). 즉 끝없이 되풀이되는 실존 속에서 그녀는 고유한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 벨소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반복된 행동들을 한다. 콘은 베케트의 표현을 빌리어 “가방은 위니의 친구이지만 벨소리는 그녀의 적이다”(the bag is her friend, the bell her enemy)(254)고 말한다. 벨소리는 외부적인 힘으로서 반복된 행동을 하도록 위니에게 강요하며,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외에도 “그것[벨소리]은 위니의 휴식과 자유의지를 부인하도록 하는 악의적인 신으로 제시될 수 있다”(Fletcher and Fletcher 154). 벨소리는 위니를 타인들의 존재양식 속으로 해체시키며, 그로 인해 그녀는 타인과의 차별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서 불특정한 다수의 하나가 된다.

마찬가지로, 위니의 남편 윌리(Willie)도 ‘세상 사람들’로서 고유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윌리는 삶의 아무런 열정도, 흥미도 없기에 위니의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 가령, 위니는 “당신은 지구가 대기를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윌리. [휴지.] 그렇게 생각해요? 윌리. [휴지.]당신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음 당신다워요, 당신은 어떤 일에 대해 어떤 견해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휴지.] 이해할만 해요”(Happy Days 161)라고 말한다. 윌리는 익명의 ‘세상 사람들’로서 진정한 자기로서 삶을 살지 못하여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윌리는 일방적으로 위니의 이야기만을 들을 뿐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나 거기에 함께 있기는 하지만 현존재가 결단을 촉구할 때마다 언제나 이미 몰래 그 자리를 빠져나가버린다”(Heidegger 165)고 주장한다. 위니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그의 견해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때마다 윌리는 그녀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회피한다.

IV.

대부분의 베케트의 인물들은 자기의 존재이해를 가진 현존재로서 그들이 처한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실존세계를 이해하고자 ‘스스로’ 혹은 ‘서로’에게 물음을 던진다. 혼돈의 실존에서 현존재는 선택의 여지없이 자기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해 불특정한 ‘세상 사람들’로 살아간다. 고고와 디디는 고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그의 존재를 의심하고 질문하며 그들이 처한 실존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기다림의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들은 포조-럭키와 한바탕 놀이를 벌이지만 변화가 없는 그들의 실존을 인식한다. 즉, 고고와 디디는 “정체가 그들의 운명”(Stasis is their lot)(Cormier and Pallister 15)이라고 생각한다. 에슬린(Martin Esslin)도 말하듯이, “이 극의 주제는 고도가 아니라 기다림, 즉 인간조건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측면으로 기다림의 행위이다”(31). 고도가 오지 않는 무료한 기다림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고도의 부재를 지각한다. 한편 놀고도 변화하지 않는 실존을 향해 고고는 “그러는 동안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군”(26)이라고 말한다. 고르너(Paul Gerner)도 지적하듯이 “현존재는 그 자신의 존재, 실존으로서 존재를 이해한다”(78). 한바탕 놀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도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 고도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다. 그러나 그들은 고도의 부재를 직면하기보다 의미 없는 역할 놀이들로 그 사실을 회피하는데 여념이 없다.

블라디미르: 우린 포조와 럭키 놀이를 할 수 있어.

에스트라공: 그런 놀이는 들어 본적이 없어.

블라디미르: 내가 럭키 역할을 할게, 네가 포조를 해. (그는 짐의 무게에 눌러 몸이
흰 럭키 흉내를 낸다. 에스트라공은 멍하게 그를 쳐다본다.) 시작해.

에스트라공: 내가 뭘 해야 해?

블라디미르: 나를 저주해 봐!

에스트라공: (심사숙고한 후에) 나쁜 놈!

블라디미르: 더 심하게!

에스트라공: 임질! 매독!

블라디미르는 몸을 반쯤 구부린 채 앞뒤로 흔든다.

블라디미르: 나에게 생각하라고 말해 봐.

에스트라공: 뭐라고?

블라디미르: 돼지 같은 놈아, 생각해! 라고 말해봐.

에스트라공: 돼지 같은 놈아, 생각해!

침묵.

블라디미르: 난 생각할 수가 없어!

에스트라공: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해!

VIADIMIR: We could play at Pozzo and Lucky.

ESTRAGON: Never heard of it.

VIADIMIR: I'll do Lucky, you do Pozzo. (*He imitates Lucky sagging under the weight of his baggage. Estragon looks at him with stupefaction.*) Go on.

ESTRAGON: What am I to do?

VIADIMIR: Curse me!

ESTRAGON: (*after reflection*). Naughty!

VIADIMIR: Stronger!

ESTRAGON: Gonococcus! Spirochete!

Vladimir sways back and forth, doubled in two.

VIADIMIR: Tell me to think.

ESTRAGON: What?

VIADIMIR: Say, Think, pig!

ESTRAGON: Think!, pig!

Silence.

VIADIMIR: I can't!

ESTRAGON: That's enough of that, (47)

고도를 기다리는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디디는 고고에게 포조와 럭키의 역할놀이를 제안한다. 디디는 고고에게 포조가 럭키에게 하듯이 자신을 저주하며 온갖 욕설을 하도록 한다. 역할 놀이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단지 무기력한 일상을 달래기 위한 습관적인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공포로 가득 찬 인간조건의 습관적 기다림의 행위를 디디는 “습관은 굉장한 마약이야”(habit is a great deadener)(58)라고 말한다. 에슬린도 말하듯이 “고도에 대한 기다림의 일상은 습관을 나타내고, 습관은 우리에게 존재의 온전한 실재에 대해 충실히 인식하게 하지만 고통에 이르는 것을 막는다”(37). 그러므로 그들에게 습관적 놀이는 그들이 처한 실존의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아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든다. 그리하여 고고와 디디는 “나 자신의 의미에서 ‘나’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즉 타인으로 존재한다”(Heidegger 167). 불특정한 다수의 한 명으로 살아갈 때, 고고와 디디는 그들의 존재의 고통을 망각하고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고와 디디는 그들의 존재의 의미와 신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믿음으로 삶을 연명하지만, “『유희의 끝』[의 햄과 클롭에게] [존재]의 의미와 구원의 가능성은 무자비하게 차단된 것처럼 보인다”(Richard Dutton 88). 햄과 클롭이 머무르는 실존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화된 세계, 즉 “파국”(catastrophe)(Kenner 121)으로 치달고 있다. 비록 햄은 자기의 존재이해를 갖고 있는 현존재일지라도, 절망적 실존에서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없이 타자를 압제하는 ‘세상 사람들’로 나타난다. 가령, 햄(Hamm)은 그 피난처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위로 클롭을 좌지우지한다. 라이온스(Charles Lyons)도 말하듯이

“연극의 과정에서 주인[햄]은 그의 노예[클롭]와 쓰레기통에 갇혀 있는 다리 없는 몸통을 가진 그의 부모에 대해 그의 압제를 나타낸다”(52).

가족의 압제의 수단으로 햄은 먹을 것을 이용한다. 햄은 클롭에게 “난 네놈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을] 주겠어. 네 놈은 항상 배고프겠지”(5)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웹도 지적하듯이, “넉과 넬처럼, 햄은 클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물질적 소유물들을 이용한다”(56). 햄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그의 가족에게 으름장을 놓거나 그들의 언행을 통제한다. 이외에도, 종말로 치닫고 있는 그 실존 공간을 클롭이 떠나려고 하면, 햄은 그를 막무가내로 불러 세워 자신의 장난감 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클롭은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러면 난 그것을 해. 난 결코 거절하지 않아. 왜?”(43)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클롭은 햄의 명령에 순응하며 살기에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며 언제나 그에게 예속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우선 대개, 현존재는 ‘세상 사람들’ 속에 몰입하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for the most part Dasein is absorbed in the “they” and is mastered by it)(Heidegger 210). 일상에서 클롭은 햄에 의해서 통제되기에 그의 고유한 삶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클롭과 햄의 부모도 현존재로서 절망적인 실존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존재가 처한 비참한 상태를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은 고통스러운 실존에서 자신들을 건져 줄 신께 기도하자라는 햄의 제안을 거절한다. 예컨대, 쥐의 등장으로 한바탕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햄은 가족에게 “우리 신에게 기도를 올리자”(54)라고 말한다. 그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난 클롭은 “또 기도를 하자 구요!”(54)라는 반응을 보이고, 넉(Nagg)은 “내 눈깔사탕!”(54)이라고 외친다. 나아가, 넉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신이 없다고 생각하여 “기도할 것이 없어!”(55)라고 단호히 말한다. 그러나 넉과 넬(Nell)은 모든 것이 고갈되고 황폐화된 실존 속에서 그들이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망각

하려고 한다. 맥도널드(Ronan Mcdonald)도 말하듯이 『고도를 기다리며』보다 훨씬 더 강렬할 정도로 [『유희의 끝』의] 인물들은 그들이 이미 어떤 것을 상실하였는지를 의식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가 가능성과 경험을 제공하였던 과거를 그리워한다. ‘아 어제!’라고 넬은 서글프게 한숨을 쉰다”(46). 넬은 과거의 행복한 시절을 회상함으로써 지금 그녀가 처한 절망적인 실존을 회피하여 진정한 자기의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이데거도 말하듯이, “일상적 현존재의 자기는 우리가 *본래적* 자기, 즉 자신의 방식에서 장악된 자기와 구별하고 있는 그들-자기이다”(Heidegger 167). 백과 넬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고자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에 젖어 현재의 진정한 자신의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참가지로 위니도 『유희의 끝』의 햄과 클럽처럼 현존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녀는 모든 존재가능성이 좌절된 실존 속에서 자발적으로 “세상 사람들”로 살아간다. 반복된 일상은 위니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녀를 불특정한 다수의 한명으로 살아가게 한다. 가령, 허리가 땅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위니는 “천상의 또 하루가 시작 되었어”(Another heavenly day)(138)라고 말하며 그녀의 절망적인 실존을 직면하기보다 자기의 기만적인 환상으로 도피한다. 필링(Jon Pilling)에 의하면 “그녀[위니]는 고통스러운 육체적 상황을 의식하지만 그것의 부조리성을 의식하지 못한다”(94). 바꿔 말해서 종말론적인 우주에서 위니는 자신이 처해 있는 부조리한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녀는 불확실한 실존을 극복하기위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안정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베케트는 위니의 역할을 한 빌리 화이트로우(Billie Whitelaw)에게 “그 연극의 단서들 중 하나는 중단이다”(One of the clues of the play is interruption)(Pilling 96)고 말한다. 극중 위니는 과거의 행복한 날들을 기억함으로써 안정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단절되거나 불확실하게 나타난다. 첫 키스의 행복한 기억들마저도 불확실하여 위니

는 자신의 정체성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가령, 위니는 “내 첫 번째 무도회! [긴 휴지.]나의 두 번째 무도회! [긴 휴지. 눈을 감는다.]내 첫 키스! 존슨씨던가, 존스턴씨, 아니면 존슨토운씨라고 해야 할지 될지도 모르겠어”(142-143)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영문학의 고전적 시를 읊조리면서도 위니는 “그 멋진 시의 뜻이 뭐더라? [입술을 바른다.]아, 덧없이 사라진 기쁨이여-[입술을 바른다.]아, 영원한 비통함이여” (*Happy Days* 141)라고 말한다. 그녀의 기억은 끊임없이 중단되고 불확실하기까지 하다. 그 시 구절을 반만 기억하는 위니는 그 의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녀는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는 “중단된 존재”(an interrupted being) (Pilling 96)로 나타난다. 과거의 단편적이고 불확실한 기억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게 한다. 곤타르스키(S.E. Gontarski)에 의하면, “위니는 그녀가 반만 기억하는 무수히 많은 틀린 인용문과 서구의 인본주의 문화의 파편을 불러일으킨다”(Winnie evokes shards of a Western humanist culture with the myriad misquotations she half remembers)(173). 불확실한 기억은 그녀로 하여금 절망적 실존을 망각하게 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그녀의 가방 안의 물품들도 그녀가 처한 고통스러운 실존을 잊게 하는 도구로 이용된다. 위니는 그녀의 존재의 고통을 망각하게 만드는 가방 안의 물품들이 무한히 계속될 것이라 믿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산은 내일 다시 생길거야, 이 언덕 위 내 곁에, 내가 하루 종일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기위해서. [휴지. 거울을 집어 든다.]나는 이 작은 거울 집어들어, 돌에다 깨 버리고- [그렇게 한다.]- 나는 그것을 집어던져 버린다. -[할 수 있는 한 그녀 뒤편쪽으로 멀리 내던진다.]- 내일이면 다시 가방 속에 들어가 있을 거야, 내가 하루를 지내는데 도와주기 위해, 흠집하나 없이.

The sunshade will be there again tomorrow, beside me on this mound, to help me through the day. [Pause. She takes up mirror.] I take up this little glass,

I shiver it on a stone-*[does so]*-I throw it away-*[does so far behind her]*- it will
be in the bag again tomorrow, without a scratch, to help me through the day.
(*Happy Days* 154)

작열하는 태양열을 온종일 그녀의 몸으로 받아내면서 위니는 곁에 있는 그 물건들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견뎌나간다. 필링(Jon Pilling)도 말하듯이 “위니의 생존을 위한 자원들은 두 가지이다, 즉 말들과 그녀의 가방이다”(94). 즉, 절망적인 실존을 견디게 해주는 그 물건들을 향해 그녀는 “멋진 선물”(Wonderful gift)(141)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가방은 그녀 곁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니는 가방 안에서 칫솔, 치약, 거울, 안경, 약병, 립스틱, 모자, 돋보기, 빗과 브러시, 뮤즈박스, 손톱 다듬는 줄, 권총을 찾을 수 있다(Cohn, *Back to* 179). 앞서 언급한 물건들은 위니가 처한 절망적 실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이용된다. 노애경도 말하듯, “대부분 과거 로맨스의 일부 기념품들과 일용 필수품들, 즉 이러한 물건들은 그녀의 현재 끝나가는 젊음의 고통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301). 그 물건들은 매일같이 그녀로 하여금 존재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심지어 그 물건들이 하나 둘씩 고갈되어 가고, 그녀가 가장 아끼던 양산마저 불타버린 상황 속에서도 위니는 내일이면 다시 그 물건이 다시 자신의 가방 안에 들어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다. 악화와 쇠퇴의 지배적 압박에서 불구하고 위니는 “구제 불가능의 낙관주의자”(an incurable optimist)(Knowlson and Pilling 93)로 나타난다. 매일같이 가방 안의 물건들에 집착하는 그녀는 림보와도 같은 실존상황을 맞닥뜨리기보다 물질적 안락함에 젖어 자신의 고유한 삶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특정한 현존재는 그의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존재부담]이 떨어진다”(Heidegger 165). 그리하여 위니는 가방 안의 물건들에 집착하다 보니 자신이 짊어진 존재부담을 떨어버리게 되고 자기존재의 이해를 상실한다. 케너(Hugh Kenner)도 말하듯이, “그녀는

습관을 깨트릴 수 없지만, 부조화를 반드시 준수한다”(She cannot break the habit, but never fails to observe its incongruity) (148). 위니는 습관적인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이 처한 실존에 대해 무지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실존세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자신의 존재의 잠재성을 상실하게 된다. 존슨에 따르면, “우리는 그 세계에 얽히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평균성에 빠져든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능성을 은폐시킨다”(23). 습관적인 일상은 위니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빠져 들게 하고 그녀가 처한 절망적 실존상황 보지 못하게 한다. 곤타르스키도 지적하듯이, “『유희의 끝』에서 험은 “종말의 불가능성”(the impossibility of ending)을 이해하고 있지만 위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73). 왜냐하면 낯은 방식들은 그녀로 하여금 절망적인 현실을 망각하게 하고 진정한 자신의 존재로 결단하며 살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매쿼리(John Macquarrie)는 “개개인은 집단 무리의 지배의 영향을 받는다. 그의 기준과 그의 삶의 전체방식은 그의 사회의 관습에 의해 정해진다”(18)고 말한다. 위니는 ‘세상 사람들’로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로 살기보다 낯은 방식을 고수하며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간다. 이에 권혜경은 “베케트는 물질적이고 낮익은 일상에 젖어 삶과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할뿐더러, 제대로 보기조차 거부하는 현대인의 삶을 위니의 모습을 통해 희화적으로 나타내고 있다”(61)고 지적한다.

『행복한 나날들』에서 땡벌아래 매장된 위니의 모습은 관객에게 즉각적으로 감금된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그 잔혹함은 서서히 관객의 의식 속에 역력히 드러난다. 해는 결코 지지 않고 위니는 그녀의 무덤으로 침잠되어 가고 있다. 언덕의 중앙에 허리까지 몸이 매장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위니는 “천상의 또 하루의 날이 시작 되었어”(Another heavenly day) (138)라고 외친다. 이에 곤타르스키는 “베케트는 일반적으로 천상의 섬뜩함의 주제에 끌렸다”(72)고 말한다. 극의 종착점에 이르러서도 극의 초반부와 동일하게 위니는 “오늘은 행복한 또 하루가 되려나 봐요!”라고 말하며 늘 하

던 식의 노래를 부른다. 그녀의 엔딩 대사는 그녀의 오프닝 대사처럼 그녀가 처한 곤경과 그것에 대한 그녀의 태도간의 갈등, 즉 극적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위니: 위니! [휴지.] 오, 오늘은 행복한 하루예요, 오늘은 행복한 또 하루가 되려나
봐요! [휴지.] 결국에. [휴지.] 지금까지. [휴지.] 그녀는 시험 삼아 노래를 흥
얼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드럽게 부른다, 뮤직 박스 곡 처
럼.]

WINNE: Win! [Pause.] Oh this is a happy day, this will have been another
happy day! [Pause.] After all, [Pause.] So far, [Pause. She hums
tentatively beginning of song, then sings softly, musical-box tune.]
(Happy Days 168)

매일 아침마다 위니는 일어나 또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외치고 종말 없는 세계에 대해 잠깐 기도한 후, 양치질을 하며 수다를 떨다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한다. 사실상, 베키트는 그녀의 오프닝 독백인 “영광스러운”(glorious)을 “천상의”(heavenly)로 수정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변화 속에서 위니가 근본적인 정체상태에 처해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위니의 곤경은 “전통적인 천상의 축복의 개념과 그것의 잠재적 공포, 즉 무변화, 영원성, 단조로움 간의 갈등”(Gontarski 72)이다. 지옥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위니는 천상의 기도를 올리지만 실제로 그녀의 삶은 무료하고 변화 없는 고통의 연속이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로 결단하며 살기보다 과거의 낡은 습관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고르너(Paul Gerner)도 말하듯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가능성을 선택한다는 것이다”(106). 그러나 위니는 변화가 없는 정체된 실존에 맞서 자신의 가능성을 선택하기보다 그 실존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한다.

V. 결론

오늘날 현대인은 자본주의가 주는 부의 풍요에 빠져 자신의 존재이해를 상실한 채 익명의 사람들로 살아간다. 그들은 현세적 가치들이 주는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어 자신의 존재를 반성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자기존재의 몰이해로 살아가는 인간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명명한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각성하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자이다. 그들은 “각자의 현존재를 대신하여 모든 판단과 결단을 미리 제시해 주기 때문에 각자의 현존재에게서 책임을 면제해 준다”(박찬국 181). 이 ‘세상 사람들’은 타자들이 짊어진 존재부담을 면제시켜줄 뿐만 아니라, 타자의 지배도 공고히 한다. 그로 인해 현존재는 부지불식간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베케트 극작품에서도 하이데거의 ‘세상 사람들’이 명백히 드러난다. 필자는 베케트 극에서 드러난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자기존재의 몰이해로 고유한 자신의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들에 몰입하여 살아가는 존재자이다. 이 존재자는 하이데거의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기는커녕 세속적 가치들에 몰입하여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아간다. 그런가하면, 자기의 존재이해를 가진 현존재가 절망적 실존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익명의 ‘세상 사람들’로 살아간다. 달리 말해, ‘세상 사람들’로 살아갈 때 그들은 자신이 처한 존재의 고통과 맞닥뜨리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 그들은 절망적인 실존에서 일상의 습관적인 유희들을 고수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나간다.

(동국대학교)

■ 주제어

사무엘 베케트, 마틴 하이데거, 세상 사람들, 현존재, 존재

■ 인용문헌

- 권순홍, 「하이데거와 타인의 문제」. 『철학논총』 29권(2002): 45-93. Print.
- 권혜경. 『침묵과 소리의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 서울: 동인. 2004. Print.
-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서울: 그린비, 2015. Print.
- Anderson, Jack. “Mink-Clad Audience Disappointed: Miami”. *Samuel Beckett: Waiting for Godot: a casebook*. Ed. Ruby Cohn. Basingstoke: Macmillan Education, 1987. 43-44. Print.
- Beckett, Samuel. *Waiting for Godot: tragicomedy in 2 acts*. New York: Grove 1954.
- _____. *Collected Shorter Plays of Samuel Beckett*. London: Faber and Faber, 1984. Print.
- _____. *The Complete Dramatic Works*. London: & Boston: Faber and Faber, 1986. Print.
- Cohn, Ruby. *Back to Beckett*. Princeton: Princeton UP. 1973. Print.
- _____. *Just Play: Beckett's Theater*. Prince & New Hersey: Princeton UP, 1980. Print.
- Cormier, Ramona, and Jans L. Pallister, eds. *Waiting for Death*.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7. Print.
- Dutton, Richard. *Modern tragicomedy and the British tradition*.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86. Print.
- Esslin, Martin. “The Search for the Self”. *Samuel Beckett's Waiting for Godot*.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23-40. Print.
- Fletcher, Beryl S. et als. *A student's Guide to the Plays of Samuel Beckett*. London: Faber and Faber, 1987. Print.

- Gontarski, S. E. *The intent of undoing in Samuel Beckett's dramatic texts*. Bloomington: Indiana UP, 1985c. Print.
- Gorner, Paul. *Heidegger's being and time: an introduction*. New York: Cambridge UP, 2007. Print.
-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New York: Harper & Row, 1962. Print.
- John Butler, Lance St. *Samuel Beckett and The Meaning of Being*.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84. Print.
- Johnson, Patricia Altenbernd. *On Heidegger*. Australia: Belmont, &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0. Print.
- Kenner, Hugh. *A Reader's Guide to Samuel Becket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3c. Print.
- Lyons, Charles R. *Samuel Beckett*. New York: Grove Press, Inc., 1983. Print.
- Macquarrie, John. *Martin Heidegger*. Richmond: John Knox Press & London: Lutterworth P., 1973. Print.
- McDonald, Rónán.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Samuel Beckett*. New York: Cambridge UP, 2006. Print.
- Mulhall, Stephen. *Routledge philosophy guidebook to Heidegger and Being and time*.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0. Print.
- Noh Aegyung. “A Cultural Geography of “the Sweet Old Style””. *Modern British & American Drama Society of Korea*. 26.1 (2013): 293–312. Print.
- Philipse, Herman. *Heidegger's philosophy of being: a critical interpret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P, 1998c. Print.
- Pilling, John. *The Cambridge companion to Beckett*. New Work: Cambridge UP, 1994. Print.

Webb, Eugene. *The plays of Samuel Becket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2. Print.

■ Abstract

Heidegger's “Das Man” manifested in Samuel Beckett's works

Sohn, Yoon-Hee (Dongguk Univ.)

This paper aims to explore Martin Heidegger's “Das Man” manifested in Samuel Beckett's works. In order to do that, first of all, I will define the concept of Heidegger's ‘Das Man’. According to Heidegger, ‘Das Man’ is in its everydayness lost in the collective inauthentic mass. So, this entity doesn't seek to understand the possibilities of its existence. There is “Das Man” in Beckett's works. ‘Das Man’ in Beckett' drama is divided into two types. Secondly, I will examine “Das Man” manifested in Beckett's works who doesn't have understood itself in it's Being[Sein]. This entity lives in comfort given by everyday life, so has lost itself. In conclusion, I will investigate ‘Das Man’ manifested in Beckett's works who understands itself in it's Being. But without any hesitation, this entity chooses to become ‘Das Man’ in order to sustain its life in desperate situation. In other words, this entity endlessly plays meaningless games as a means to sustain its existence.

■ Key Words

Samuel Beckett, Martin Heidegger, Das Man, Dasein, Being[Sein]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토마스 킹의 경계적 사유와 북미 원주민의 트랜스로컬리티의 문제*

이 유 혁

1. 서론

이 논문은 토마스 킹(Thomas King)의 단편 소설과 에세이를 통해 그의 원주민 서사에 대해 분석을 하며, 이를 통해 먼저 그의 경계적 사유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러한 그의 경계적 사유의 특징을 통해 킹이 지속적으로 천착하는 북미에서 원주민의 로컬리티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 킹이 천착하는 경계(영어로는 border 또는 boundary)의 문제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물리적인 경계(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어진 국경으로서의 경계)와 정체성의 경계(북미 원주민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찰한다. 이러한 경계의 문제들과 이와 관련된 그의 사유적 고민들은 북미에서 식민화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주류 백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부여되는 경계—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국경이라는 경계를 포함하여—가 원주민들의 삶과 정신세계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과 밀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1) 국내에서 킹에 대한 연구는 세 편의 논문(민태운 1편, 오민석 2편)이 지금까지 출판되었다. 오민석의 논문들은 킹의 작품들에 나타난 서사적 전략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였고, 민태운은 원주민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그는 자신의 글들에서 물리적인 경계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계들—정체성의 문제를 포함하여—의 식민성의 문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삶의 중요한 양상, 즉 한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적이라는 (또는 트랜스로컬하고 트랜스내셔널 한 특징을 나타내는) 본원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북미에서 물리적인 경계와 원주민의 정체성의 경계의 문제를 의문시하고 극복하려는 그의 시도들은 경계를 정하고 나누고 그 안에 가두려는 정신적인 식민성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신의 탈식민화를 지향하는 ‘탈식민적’ 사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²⁾

이 논문에서 킹의 경계적 사유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로컬리티와 경계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논의될 것이며, 특히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을 통해 킹의 경계적 사유가 경계의 문제—물리적인 경계, 정체성의 경계를 포함한 사유적인 경계 등—를 고민하고 넘어서는 ‘탈경계적’이고 ‘탈식민적’인 사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³⁾ 이러한 논의는 또한

2) 여기서 ‘탈식민적’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필자가 의미하는 것은 영어로 decolonial 혹은 anticolonial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postcolonial의 한글 번역으로 종종 사용되는 탈식민적이라는 단어와는 그 의미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용어 선택을 하는 이유는 킹은 북미 원주민의 현 상태와 관련하여 ‘포스트식민적 혹은 탈식민적’(postcolonial)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며 오히려 decolonial 혹은 anticolonial이 그의 입장을 간략하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북미 원주민의 현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는 외적으로는 다르지만 여전히 다른 방식의 식민주의적인 지배하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고질라 대 포스트-콜로니얼」(“Godzilla vs. Post-Colonial”)에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으면 탈식민적이라는 단어를 통해 decolonial 혹은 anticolonial을 의미한다.

3) 이 논문에서 로컬리티 (locality), 트랜스로컬리티 (translocality)를 지역성, 초지역성과 같은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식으로 표기하는 이유는,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 용어들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의미에서 북미 원주민들의 소수자성의 문제와도 연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리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적 용어로서 트랜스로컬리티를 문학적·문화적인 텍스트의 분석을 위한 비판적인 개념적 틀로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즉 트랜스로컬리티의 ‘트랜스 trans’의 경계적 한계 넘기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민함으로써 식민적이고 억압적인 경계적 틀의 한계를 의문시하고 이것의 극복을 모색할 수 있는 사유적 가능성으로서의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적 확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킹의 경계적 사유의 특징적 양상들

경계의 문제가 킹에게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주제인가는 그의 작품들에서 지속적으로 이 주제가 다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자신의 장편 소설인 『푸른 초원, 흐르는 물』(*Green Grass, Running Water*)과 『진실과 맑은 물』(*Truth and Bright Water*)과 자신의 단편 소설 모음집인 『한 좋은 이야기, 그것』(*One Good Story, That One*)에서 위도 49도선을 따라 그어진 캐나다와 미국을 가로지르는 국경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놀드 데이비드슨(Arnold E. Davidson), 프리실라 월턴(Priscilla Walton), 그리고 제니퍼 앤드루스(Jennifer Andrews)는 킹의 작품 세계에 대한 그들의 비평서인 『경계 넘기』(*Border Crossings: Thomas King's Cultural Inversions*)에서 킹의 작품 세계의 이러한 특징을 그의 전기적인 배경과 연결하여 논한다(4-10). 즉 그들에 의하면 킹이 그의 작품 세계에서 경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천착하는 것은 그의 혼혈적인 태생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북미의 인디언 체로키족 후손이고 그의 어머니는 독일계 그리스인 후손으로서 킹은 백인과 북미 원주민의 혼혈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볼 때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국적을 유지하지만 나중에 캐나다로 이주하

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그곳에서 최근에 은퇴할 때까지 교수로서 재직하며 동시에 작가로서의 자신의 명성을 구축하게 된다. 그의 법적·민족적 정체성은 어느 하나로 확정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경계선에 걸쳐 있다. 그리고 그는 체로키라는 원주민 아버지의 후손이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원주민 부족이기에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원주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돌봄 하에 자라면서 (자신의 글에서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집을 나갔으며 아버지의 삶의 말년에서야 비로소 그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언급하기도 한다) 비록 그의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자식들에게 체로키 원주민들의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었지만 원주민 언어도 잘 하지 못하고 원주민의 삶에 대해서 삶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면서 자랐다(Davidson, Walton, and Andrews 4). 이러한 그의 삶의 요소들이 그로 하여금 삶 속에서 늘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경계들에 대한 자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데이비드슨, 월턴, 그리고 앤드루스가 킹의 경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하는 것은 그의 중간자적인 입장 (in-betweenness)이며—이는 어느 한쪽에 완벽하게 속할 수 없으며 둘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경계라는 고정된 틀을 끊임없이 의문시하는 상태⁴⁾—이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항적인 혹은 대안적인 관점에 대한 것이다(Davidson, Walton, and Andrews 15). 이 논문에서는 킹의 몇 편의 글들을 물리적인 경계의 문제와 정체성의 경계의 문제라는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분석함으로써

4) 자신의 법적·민족적 이중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킹은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중간자적인 입장이 작가로서의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유리한 전략적인 위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지점이 미국이나 캐나다라는 한 쪽의 독자들에게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Andrews 164). 이는 한편으로 킹의 글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의 글의 다문화적인 복잡한 특징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그의 중간자적인 입장은 실제로 그로 하여금 곤혹스럽고 힘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티모씨 글렌(Timothy Glenn)이 잘 요약해주고 있다(243).

그의 중간자적인 입장이 가져다주는 경계적 사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이렇게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논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킹의 경계적 사유가 제시하는 대항적인 혹은 대안적인 관점의 양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킹의 경계적 사유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대항적인 혹은 대안적인 관점이 바로 그의 작품 세계의 특징을 탈식민적인 (decolonial) 것으로 범주화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논한다. 그 이유는 식민의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식민지와 식민지배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다양한 경계—물리적인 경계와 정신적인 경계를 포함하여—를 식민주의자들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다양한 실제적인 영역들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도 통제하고자 한다. 이것은 캐나다의 경우에는 과거에 종종 군사적인 무력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종종 다양한 방식의 강제적인 혹은 ‘합법적인’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정책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⁵⁾ 킹은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서 이러한 강제화 된 경계의 식민성을 깊이 의문시하고 이에 대한 대항적인 혹은 대안적인 사유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킹의 글쓰기가 추구하는 것은 응구기 와 티옹고(Ngugi Wa Thiong'o)가 오래 전에 제시한 ‘정신의 탈식민화 Decolonizing the Mind’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2.1 물리적인 경계의 문제

최근 북미의 남쪽에 위치한 미국과 멕시코를 나누는 국경선의 문제가

5) 예를 들면, 킹의 『불편한 인디언』(*The Inconvenient Indian: A Curious Account of Native Peoples in North America*)은 이러한 북미 원주민이 과거에 경험했던 식민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현재의 여러 사건들과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는 에세이집으로서 그의 탈식민적 사상을 드러내준다. 이 논문의 본문에서 이 책의 일 부분이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정치·문화·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9/11 이후에 북미의 북쪽에 있는 국경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남쪽의 경계와는 여전히 상황이 아주 다르다.⁶⁾ 어떤 의미에서 북미의 북쪽의 국경은 남쪽의 경계에 비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남쪽의 경계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방식의 장벽은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⁷⁾—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듯이 보인다. 킹의 단편소설 「경계들」(“Borders”)은 이러한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물리적인 경계가 원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식민적인 경계에 대한 원주민의 저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보여준다.

「경계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원주민 어머니와 아들이며 이야기는 아들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들은 북미의 국경의 북쪽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12살 혹은 13살 되었을 즈음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미국 솔트 레이크 시에 살고 있는 자기 누나를 방문할 때 국경 검문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는 시작한다. 이들이 국경의 미국 쪽 검문소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가 자신의 국적을 캐나다인이라고 하지 않고 블랙풋(Blackfoot)이라는 자신의 원주민 정체성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이들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캐나다 쪽 검문소에 돌아오지만 여기서도 그녀는 자신의 원주민 정체성인 블랙풋을 고수함으로써 이들은 캐나다 쪽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두 개의 국경 사이에 있는 면세점의 주차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

-
- 6) 9/11 이후 급변하는 정치지형학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경계의 문제에 대한 연구로서 『장벽들을 넘어서』(*Beyond Walls: Re-inventing the Canada-United States Borderlands*)가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 7) 그런데 2011년 미국의 관세 및 국경 보호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에도 미국과 멕시코에 설치되는 것과 비슷한 식의 장벽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다(“뭐, 미-캐나다 국경에 철조망을?”).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눈에 띄는 장벽을 설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그어진 국경이 원주민들에게 미치는 식민성의 문제를 다루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체성의 경계의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경계들」은 경계 만들기의 식민성과 폭력성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원주민 어머니의 국경선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저항적 행동을 통해 유럽에서 온 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경선의 식민성과 폭력성을 비판하고 들추어낸다. 그녀의 저항적 행위는 유럽에서 식민주의자들이 북미 대륙으로 이주해 오기 오래 전부터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던 블랙풋이라는 원주민 부족의 삶—이들은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이 국경이 만들어지기 오래 전부터 그들만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이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에 의해 어떻게 나눠지고 단절되어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⁸⁾ 원주민 아들의 아버지는 국경의 남쪽에서 태어난 원주민의 후손으로서 법적으로는 미국인이며 이는 그의 누나가 오래 전에 일을 하기 위해 미국 쪽으로 이주하면서 언급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One Good Story, That One* 133).⁹⁾

비록 원주민 어머니의 행동이 영웅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원주민 어머니와 아들이 이틀 밤을 보냈던 주차장이 위치한 면세점의 직원은 그녀의 행동이 자기에게 영감을 준다고 추켜세우기도 한다[*One Good Story* 147]), 그녀의 저항의 ‘성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외적인 변화나 그러한 가능성의

8)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이 그어지기 전에 원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북미 대륙에 분포되어 있었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문화정치적 지형학을 보여주는 지도를 참조할 때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경계들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원주민들의 삶에 대한 전혀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면, Native American Culture Areas 라고 명명된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웹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infomapsplus.blogspot.kr/2013/04/native-america-s-first-nations.html>>

9) 앞으로는 *One Good Story*로 축약하고 쪽수를 표기할 것이다.

암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원주민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식민적인 경계를 넘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선은 여전히 저기에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계를 의문시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을 하지만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주민 어머니가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강요된 경계의 문제—국경선과 국가적 정체성—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주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집요하게 고수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에 대해 킹 자신도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렇게 완전히 인접한 정치 바로 한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의 선을 긋고 한쪽은 캐나다이며 이는 미국 쪽과는 매우 다르다는 그 사실. 경계들은 우리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급조하는 매우 인공적이고 주관적인 장벽들이다. 국가적 경계들은 우리가 삶에서 만들어 내는 그런 종류의 경계들의 표시일 뿐이다. 나는 「경계들」이라고 불리는 단편 소설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어머니가 하나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문제로서 다룬다. 그녀는 블랙풋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이동할 수가 없다.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거나 캐나다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Andrews 172). 이 인용문에 따르면, 킹의 이야기는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계의 식민성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반작용으로 원주민이 자신만의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경계를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있는 한계적인 모습을 또한 지적한다.

이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킹이 「경계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물리적인 경계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블랙풋으로 자신을 한정하는 원주민의 경계 짓는 행위의 문제점을 또한 비판한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원주민과 백인 주류라는 이분법적인 대립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경계를 만든다는 것의 인위성, 정치성, 폭력성 등을 비판하

는 이야기이며, 원주민이라고 하는 역사의 피해자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러한 경계 만들기의 한계 안에 갇혀 자신을 오히려 더욱 고립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의 이야기의 제목이 the border가 아니라 borders 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면적으로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북미의 원주민의 문제를 다루는 짧은 이야기의 이면에 다양한 형태의 경계를 만드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깊이 있고 심각하고 심지어는 철학적인 주제가 담겨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계들」은 킹의 문학적 인 궤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서 경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킹의 중간자적인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경계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드슨, 월턴, 그리고 앤드루스는 호미 바바가 하이데거를 인용한 것—“경계는 어떤 것이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 경계는 그곳에서 어떤 것이 자신의 존재를 시작하는 지점이다”(Bhabha 1)—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의 논지를 제시한다: “경계들을 단지 방어적인 표지들로서 이해하기보다는 … 이러한 [나누는] 선들 [혹은 경계들]은 또한 다양한 관점들의 표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낸다”(Davidson, Walton, and Andrews 15). 이 인용문이 제시하듯이,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경계가 만드는 닫힘과 열림의 이중적인 작용이며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간과 그곳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에벌린 메이어(Evelyn P. Mayer)는 원주민 어머니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긍정적으로 부각시킨다. 메이어는 특히 원주민 어머니와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이틀 밤을 머무르게 되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 검문소 사이에 위치한 면세점의 공간을 중간적인 공간 (in-between space)으로 간주하며, 어머니가 아들에 들려주는 옛적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아마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들었을 것이다—원주민의 창조 이야기에 주목을 한다. 이 공간을 그녀는 “원주민의 틈새 공간”(“Indigenous Interstitial Spaces,” 268) 또는 “난민, 혼종, 그리고

제 삼의 공간의 장소”(“Beyond Border Binaries,” 78)로 묘사하며, 특히 그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 원주민 이야기가 두 경계 사이에 갇혀 있는 그들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Indigenous Interstitial Spaces,” 272; “Beyond Border Binaries,” 79-80). 물론 그 다음 날 아침 여러 명의 취재 기자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 몰려드는 바람에 결국 그들은 당국자들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어머니가 원주민 정체성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입국한 뒤 나중에 다시 캐나다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 메이어의 분석에서 필자가 발견하는 것은 주차장이라는 공간/장소에서 원주민 어머니가 원주민의 창조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며 두 번째 밤을 보내는 것과 취재진이 몰려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결국 그들의 두 경계 사이에 갇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그녀의 해석에서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다는 느낌이다.¹⁰⁾

오히려 필자가 보기에는 원주민 아들의 입장이 좀 더 킹의 입장과 근접하고 그가 추구하는 중간자적인 입장을 시사해 주는 듯이 보인다. 먼저 앞에서 킹의 인터뷰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킹은 원주민 어머니의 입장에 비판적이다. 또한 다른 인터뷰에서 킹은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추측하건대 내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선을 믿는다고 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게 그것은 하나의 상상의 선이다.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상상력에서부터 온 하나의 선이다” (Davidson, Walton, and Andrews 13 재인용; Rooke 72). 여기서 킹은 미국과 캐나다

10) 실제로 킹의 「경계들」에서 원주민 어머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원주민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아주 짧으며 어떻게 보면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필자가 보기에 메이어의 두 편의 논문에서 제시되는 논지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킹의 다른 글들에서 그가 제시하는 유사한 방식의 접근에 대한 부분들—특히 중간적인 공간에 대한 것과 원주민 창조의 이야기의 역할에 대한 것—이 많이 상호 참조되어 덧붙여 질 필요가 있다.

사이에 놓인 눈에 보이는 국경이 미치는 영향력 특히 상상력의 경계를 제한시키는 영향력에 대해서 지적한다. 원주민 어머니의 입장은 또 다른 경계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오히려 서로에게 적대적인 경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낸다. 원주민 아들은 「경계들」의 이야기 전체를 회고하면서 서술하는 입장에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에서 주도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고 그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며 어머니가 주도하는 이야기의 흐름에 끌려가는 존재로 그려진다. 물론 이는 그가 당시에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 국경 검문소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인 검문소 직원에게 “우리는 블랙풋이고 캐나다인이다”(One Good Story 139)라고 선언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물론 그 당시 그가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그의 이 말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록 아주 짧은 한 마디이지만 원주민 아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은 킹의 중간자적인 입장을 잘 요약해 준다. 예를 들면, 킹의 유명한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대한 그의 에세이(“Godzilla vs. Post-Colonial”)에서 그는 비록 탈식민(postcolonial)이라는 시각이 유럽 중심적이고 식민적임으로 인해 적극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랜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는 ‘원주민 문학’을 다른 그가 ‘캐나다 문학’ 혹은 ‘비원주민 문학’이라고 하는 유럽에 의한 식민주의 역사 이후에 구축된 문학과 수평적인 위치에 놓고 그것의 독특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블랙풋 혹은 캐나다 인이 아니라 블랙풋 *이고* 캐나다인이라는(not either A or B but both A and B) 선언은 킹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갖게 되는 경계적 사유의 특징과 상통한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이 논문의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인종족/민족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경계를 가로지르는 그의 전기적 배경과도 상당히 연관된다.

정리하면, 식민적인 경계인 국경선과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강요된 국

가적인 정체성을 거부하고 아들에게 오래 된 옛적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원주민 이야기를 전해 주려는 어머니의 노력은 과거 회귀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식민의 역사 이후에 형성된 원주민들의 다양한 모습—전통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집단들도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백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다른 소수민족들과 섞여서 혼종된 문화를 형성하며 살고 있고, 이러한 혼종성은 식민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원주민 문화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며, 킹 자신이 이러한 혼혈 원주민의 후손이다—은 순수함보다는 오히려 혼종적인 것이 원주민 문화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¹¹⁾ 이런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된 아들의 입장은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면서 원주민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이고 현재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원주민 어머니는 블랙풋이라는 한 가지 정체성만을 고집하지만 오히려 킹은 「경계들」에서 원주민 어머니와 아들의 두 가지 입장을 통해 경계—국경선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포함하여—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열려 있고 유동적인 것—경계 넘기가 가능하고 혼종이 가능함—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경계도 이와 유사한 방식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아들을 통해 블랙풋이면서 동시에 캐나다인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의 실존적인 모습에 대한 선언, 또한 「경계들」에서 그저 잠시 언급될 뿐이지만 아들의 원주민 아버지의 정체성도 또한 하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고 유동적이다: “우리 아버지는 미국 쪽에 있는 록키 보이 출신이다. 아빠는 미국인이야,” 래티티아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11) 그런데 킹에 의하면 다른 북미의 이주자들의 혼종적 정체성은 별문제 없이 인정되었지만, 원주민의 혼종적 정체성만이 북미 역사를 통해 볼 때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속적으로 주류 백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순수함’이 유지되기를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에 관한 그 진실』(*The Truth about Stories*) 31-60쪽과 148-14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로 오고 갈수 있다”(One Good Story 133). 이러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범주로 한정된 경제보다는 열려 있고 유동적인 경제를 지향하는 킹의 경제적 사유의 특징은 다음 절에서 원주민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그의 본격적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2.2 정체성의 경계의 문제

킹은 다수의 글들에서 원주민 또는 인디언의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¹²⁾ 그에게 정체성의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자신의 개인적인 가족사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갖게 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천착하고 자신의 문학 작품들과 에세이들에서 이에 대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서술한다.¹³⁾ 더 나아가 킹은 전체로서의 북미 인디언의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경험을 연결하여 인디언의 정체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재고한다. 이 논문에서 다룬 『불편한 인디언』(*The Inconvenient Indian: A Curious Account of Native Peoples in North America*)에서 킹은 북미 인디언과 유럽 백인 이주자들/식민주의자들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현재의 상황들과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킹이 의도하는 것은 “일종의 대안적인 역사 쓰기로서 서구적인 역사의 재현을 거부하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한 대안적인 재-서술을 창조하는 것이다”(Glenn 231). 이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킹이 『불편한

12) 킹은 자신의 글들에서 북미의 원주민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인디언 부족—예를 들면, 블랙풋과 같은—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인디언이라는 전체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 절에서 다루는 텍스트에서 킹이 사용하는 용어가 인디언임으로 필자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논문 전체에서 원주민과 인디언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민족 집단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13) 예를 들면, 『이야기들에 관한 그 진실』(*The Truth about Stories*)의 두 번째 장 「당신은 내가 생각한 그런 인디언이 아니다」(“You’re Not the Indian I Had in Mind”)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31-60).

인디언』에서 제시하는 ‘죽은 인디언들 Dead Indians,’ ‘살아 있는 인디언들 Live Indians,’ ‘법적인 인디언들 Legal Indias’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용어들을 통해 인디언의 정체성의 범주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는 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용어들 중에 킹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형성된 경제적 사유의 특징과 맞닿아 있는 ‘살아 있는 인디언들’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특징을 통해 그의 단편 소설 「화가 조와 디어 아일랜드 학살」(“Joe the Painter and the Deer Island Massacre”)에서 킹이 시도하는 대안적인 역사쓰기의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킹이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용어들로 북미 원주민들의 정체성의 범주화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이유는 북미의 대중문화에 ‘야만적’, ‘고상한’, ‘죽어 가는 인디언들’과 같은 스테레오타입적인 이미지들이 여기저기에 존재하지만, 그가 보기에 실제 삶에서 북미의 인디언들은 오히려 ‘죽은 인디언들’, ‘살아 있는 인디언들’, ‘법적인 인디언들’로 범주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킹에 따르면, ‘죽은 인디언들’은 물리적인 생명이 죽은 것과는 상관없다. 그리고 이는 그의 책에서 지속적으로 논하는 인디언들이 역사를 통해서 주류 백인 식민주의자들에게 어떻게 귀찮은(inconvenient) 존재로 취급되는 것과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죽은 인디언들’은 북미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집합적인 상상력과 두려움에서부터 생각해내고 만들어 낸 스테레오타입들과 상투적인 문구들 등과 같은 것들과 연관된다(*The Inconvenient Indian* 53). 예를 들면, 인디언들이 사용하고 착용했던 문화적인 파편들—깃털머리장식, 구슬이 달린 셔츠, 술장식이 있는 노루가죽 드레스들, 얼굴 페인트, 삐로 된 목걸이 등—이 인디언들에 대한 본질을 대체하는 ‘기표’(signifiers)의 역할을 한다(*The Inconvenient Indian* 54). 또한 다양한 인디언들의 이름들이 본래적인 맥락과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사용되고 소비되고 있다. 킹은 북미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이러한 인디언들과 관련된—특히 그들의 과거의 삶과 관련된—기표들이 얼마나 북미인들의 삶에 편재하며 원주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본질이라고 믿어지는, 즉 ‘기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지적한다.

킹이 말하는 ‘살아 있는 인디언들’은 앞에서 언급한 ‘죽은 인디언들’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살아 있는 인디언들을 가리킨다. 유럽에서부터 이주민/식민주의자들이 이주해 오기 전에도 북미에 살고 있었고 식민주의 과정에서도 그러했고 그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살아서 존재한다. 유럽인들이 북미로 이주한 처음부터 이들은 그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내고, 당혹케 하고, 성가신” 존재들이었다(*The Inconvenient Indian* 59). 북미 인디언들에 대한 백인 주류적인 입장에 대해서 킹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문제는 살아 있는 인디언들이 죽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럴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북미[의 사람들에게] 그 죽은 인디언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인디언들이 필요치도 않았고 요구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관계가 없는 것이었고,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었을 때 살아 있는 인디언들은 잊혔고, 캐나다와 미국의 시골 벽지나 도시 중심가에 흩어졌거나 보호구역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으면, 잊힌다. 잊히면, 보이지 않는다”(*The Inconvenient Indian* 61). 정리하면, 유럽 식민주의자들에 의한 북미 원주민들에 대한 식민 정책은 때로는 무력을 통해 때로는 ‘합법적인’ 정책들을 통해 원주민들을 고립시키거나 주변화하거나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잊히도록 만들고, 잊히도록 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주민들은 존재한다. 이러한 여전히 존재하는 북미 인디언들을 향한 백인 주류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킹에 의하면 북미에 거주하는 모든 원주민들이 ‘살아 있는 인디언들’

14) 이러한 잊히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인종적 문화정치학의 운용원리는 북미의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북미의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주류 백인들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지만 대다수의 북미 인들은 동시대의 원주민들을 보면서도 이들을 인디언들로 보지 않는다(*The Inconvenient Indian* 61-62). 즉 그들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과거의 특정 이미지에 기반을 둔 인디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또한 그들은 있지만 없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취급당하며, 단지 어떤 특정 부류의 인디언들만을 공식적으로 인디언들로 인정하며 이들은 ‘법적인 인디언들’로 취급된다(*The Inconvenient Indian* 68-69).¹⁵⁾ 이들은 현재 ‘살아 있는 인디언들’의 일부이지만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인정되지 않는 인디언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적인 인디언들’이라는 개념은 합법의 이름하에 수행되는 식민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¹⁶⁾

여기서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킹의 세 가지 용어들 사이의 관계이며 이것의 기저에 놓인 이데올로기적인 운용원리에 대한 것이다. 킹은 이 세 가지 용어들이 북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한편으로 북미[의 사람들]이 죽은 인디언을 사랑하고 살아 있는 인디언을 무시하면서, 법적인 인디언을 증오한다”(*The Inconvenient Indian* 69). 비록 세 가지로 범주화되었지만 이들은 크게 ‘죽은 인디언’과 ‘살아

15) 여기서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혹은 ‘법적인 인디언들’로 간주되는 어떤 특정 부류의 인디언들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필자가 의도하는 것은 인디언이라는 인종적/민족적 개념이 정치적 지배 논리에 의해 종종 결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메티부족(Metis)은 유럽인의 북미로의 이주 초창기부터 주로 원주민 여성들과 유럽 정착민 남성들 사이의 결혼에 의해 생겨난 혼혈족 후손들로 구성된 부족이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1982년에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법적인 인디언들로 인정되었다. 아직도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원주민들의 혼혈 문제로 인해 누구를 법적인 원주민으로 인정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남아 있다.

16) 이에 대한 킹의 자세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에 관한 그 진실』 148-151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물론 이러한 인디언들에 대한 북미의 정책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있는 인디언'의 관계로 좁혀질 수 있다. '법적인 인디언'은 '살아 있는 인디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 있으면 무시하고 완전히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적당히 일정 수의 원주민만을 자신들의 '관리 하에' (이는 통제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둔다. 북미의 인디언들은 무시되고 관리 받아야 할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기저에 놓인 이 데올로기적인 운용원리에 대한 킹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죽은 인디언의 신성함의 숭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미의 사람들은 살아 있는 인디언들이 오늘날 진짜 인디언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정서는 기독교의 토대들 중의 하나인 순수와 원죄라는 관념을 기묘하게 다시 가공한 것이다. 죽은 인디언들은 에텐동산의 변종적인 인디언들이다. 순수하고, 고상하고, 순결하다. 완벽하게 진짜이다. 장자크 루소적인 인디언들이다. 깃 하나도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없다. 살아 있는 인디언들은 타락한 인디언들이며, 현대적이고, 동시대적인 복사본들이며, 전혀 진정한 인디언들이 아니며,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연관이 있을 뿐이다. (*The Inconvenient Indian* 64-65)

원주민들에게 죽은 인디언들과 살아 있는 인디언들 사이의 구분은 거의 유지하기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미[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두 인디언들을 빛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죽은 인디언들은 위엄이 있고, 고상하고, 침묵하며, 적절하게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죽어 있다. 살아 있는 인디언들은 보이지 않고, 제어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 그리고 숨을 쉬고 있다. 전자는 영웅적이지만 허구적인 과거를 낭만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후자는 단지 불쾌한 동시대의 놀라움일 뿐이다. (*The Inconvenient Indian* 66)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죽은 인디언들'은 순수하고, 고상하고, 때 묻지 않은 완벽하게 진정한 존재들이다. 이에 반해 '살아 있는 인디언들'은 타락하였고, 현대적이며, 동시대적인, 원래의 인디언의 복사본들이고, 혈통

적으로만 연관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자는 영웅적이고 허구적인 과거에 대한 것이지만, 후자는 그것을 목격하는 이들을 불쾌하게 하고 놀라게 하는 동시대의 놀라움이다. 이러한 ‘죽은 인디언들’이라는 관념의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은 막대하다. 이에 대해서 킹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어떻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그 인디언—이 형태와 영향력을 가지는 데 살아 있고 저항하는 어떤 것—인디언들—은 보이지 않는가?”(King 2005: 53).

여기서 필자의 주목을 끄는 것은 킹이 자신의 글들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주변화 되는 동시대의 ‘살아 있는 인디언들’의 삶의 양상들에 대해서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동시대의 ‘살아 있는 인디언들’의 삶의 모습은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순수하고 고상하고 이상적이기보다는 혼종적이고 때 묻고 세속적인 측면들이 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인디언들’의 삶의 바로 이러한 측면이 킹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형성되는 경계적 사유의 입장과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다. 즉 킹은 ‘죽은 인디언들’과 ‘법적인 인디언들’이라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원주민의 정체성의 개념이 아니라 살아서 현존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숨겨지고 주변화 되고 억압된 ‘살아 있는 인디언들’의 살아 있음의 다양한 양상들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공적으로 인정되는 인디언들의 정체성의 경계의 한계를 의문시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살아 있는 인디언들’이라는 개념적 특징은 킹의 단편 소설 「화가 조와 디어 아일랜드 학살」에서 한 무리의 인디언들이 마을 축제의 연극에 참여하여 공연을 하는 것을 통해, ‘죽은 인디언들’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을 극복하고 ‘살아 있는 인디언들’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킹의 작품은 특히 ‘살아 있는 인디언들’이라는 용어에서 ‘살아 있다’는 것의 의미가 살아 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살아 있다는 것의 존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화가 조와 디어

아일랜드 학살」에서 킹은 원주민들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없는 존재의 상태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아가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의 한 양상을 보여 준다.

화가 조(Joe the Painter)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어느 날 신문에서 자기 마을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야외극(pageant) 공연 시합이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자신의 가장 친한 그가 추장(Chief)이라고 부르는 인디언 친구와 공유한다. 둘은 의기투합하여 이 시합에 참가하기로 하고 조는 연극 대본을 준비하고, 그의 인디언 친구는 조가 다수의 인디언들이 연극에 필요하다는 말에 자신의 인디언 친구들을 모으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조는 자신이 준비하는 연극의 내용에 대해서 추장과 공유한다. 제목은 ‘매튜 라슨과 디어 아일랜드 학살’(Matthew Larson and the Deer Island Massacre)이고 그 내용은 라슨과 50명 정도 되는 그의 백인 가족들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주하여 자신들을 위한 정착민 마을을 건설하던 중인 1863년에 발생한 라슨을 중심으로 한 백인 이주민들에 의한 인디언 대량 학살에 관한 것이다. 연극의 내용에 대해서 둘은 추장은 과연 자신의 원주민 친구들이 동족들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연극을 좋아할지,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뭘 좋아한다고? 모든 것이 역사야. 네가 역사에 간섭할 수는 없어. 그것은 항상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될 수는 없어, 저기에 있을 뿐이지. 바꿀 수도 없어”(One Good Story 108).

이와 함께 조의 입장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그가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추장에게 그의 인디언 친구들이 인디언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One Good Story 112).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아무도 긴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One Good Story 112). 계속해서 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모두 상고머리를 하고 있어! 제기랄, 상고머리를 하고 있는 인디언은 안 돼. 1863년에 인디언들

이 상고머리를 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이 땅은 긴 머리를 하고 있어야 해. ... 모두가. 우린 가발을 찾아야 해”(*One Good Story* 112).

역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조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외모와 관련하여 그는 과거의 어떤 이미지에 근거한 스테레오타입에 기초하여 인디언들을 ‘바르게’ 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의 입장은 킹이 ‘죽은 인디언들’이라는 용어를 통해 제시한 것과 서로 통한다. 이는 현재의 입장에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고 인디언의 과거의 역사를 박물관과 같은 시공적으로 제한된 곳에 박제화 시켜 놓은 대상처럼 여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현할 때 그것의 현재적 전유를 통한 역사 다시 쓰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인디언들이 연극에 참가하고 공연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은 인디언들의 역사가 “유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Glenn 235). 몇몇 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킹이 조라는 인종적으로 백인이지만 그 마을에서 주변화 된 인물—어떤 측면에서는 원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데 상당히 주목을 한다.¹⁷⁾ 이런 조를 통해 킹의 중간자적인 경제적 사유의 특징의 어떤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오히려 필자가 보기에 연극을 실제로 준비하고 공연하는 전 과정을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디언들은 다수인 백인 주민들과 백인 시장 앞에서 소위 개척기라고 하는 때에 유럽에서 이주해 온 백인들이 인디언들의 땅에 와서 살면서도 그들이 절대로 내어 줄 수 없는 중요한 땅까지 빼앗으려고 밤을 틈타 몰래 기습하

17) 예를 들면, Horne 20-22쪽과 Davidson, Walton, and Andrews 130-132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 죽이는 그 살육의 현장을 상당히 실감나게 재현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처음에 주저했던 그들과는 달리 인디언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연극에 몰입하는 현장의 광경을 킹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One Good Story* 116-118).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더 이상 억압되고 주변화 된 ‘피해자들’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선언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의 효과는 연극 공연이라는 과정으로 인해 더욱 극대화된다. 즉 평소에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의 백인들 앞에 나서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 앞에서 금기वाद 같은 그 마을에서 일어났던 백인들에 의한 인디언들의 대량 학살이라는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공적으로 말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연극이라는 수단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인디언과 백인의 만남—그것이 낭만적이고 영웅적이라기보다는 백인들에 의한 인디언들의 일방적인 살육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또한 연극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현재의 순간에 소수자들인 원주민들과 다수의 백인들이 다시금 만나게 되는 극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 적어도 연극이 공연되는 동안에 원주민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주류 백인들은 자신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과거의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무엇보다 필자가 여기에서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원주민들이 ‘살아 있는 인디언들’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치적인 주체성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살아 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살아 있음—자신들의 존재의 가시성(visibility)과 정치적인 목소리의 표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주류 백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놀랍게 하는 존재들, 즉 ‘살아 있는 인디언들’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킨다.

정리하면, 필자는 이 절에서 킹의 ‘살아 있는 인디언들’이라는 용어가 그의 경제적 사유의 특징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하는 것을 논하였다. ‘살아 있는 인디언들’은 ‘죽은 인디언들’이라는 범주와 ‘법적인 인디언들’이라는 범주에 속하지 못한 다양한 보이지 않고 주변화 된 수많은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역동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필자는 킹이 ‘살아 있는 인디언들’이라는 용어를 통해 원주민의 정체성 정치학의 역동성—원주민의 정체성의 경계의 닫힘과 열림—을 어떻게 보여주는 지에 주목하였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의 여러 작품 중에 한 작품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지만 킹은 그의 다양한 글들을 통해 ‘죽은 인디언들’ 혹은 ‘법적인 인디언들’이라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인디언들의 범주 바깥에 놓인 다양한 인디언들의 현재적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디언이라는 정체성의 경계의 억압적인 방식의 범주화를 의문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그는 백인 주류에 의해 주도된 북미의 인디언들에 대한 문화정치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탈식민적·탈경제적인 문화정치학의 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북미 원주민의 트랜스로컬리티

앞의 논의를 통해 드러났듯이, 북미 원주민의 문화정치적 위치에 대한 킹의 입장은 그들이 비록 지속적인—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식민의 역사로 인해 미국이나 캐나다는 국민국가에 속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라도 예를 들면 원주민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갇힌 삶을 살거나 다양한 강압적 혹은 ‘합법적인’ 식민 정책 하에서 철저히 주변화 되고 점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종적/민족적 정체성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추구의 특징은 유럽 이주민들에 의한 식민의 경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식민 체제를 급진적인 수단을 통해 전복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는 식민의 역사에 의해 탄생한 국가적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한다.¹⁸⁾ 구체적으로 앞의 본문에서 킹의 단편소설과 에세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그가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경계와 함께 부여된 국가적 정체성의 경계와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원주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경계의 인위성과 폭력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정신의 식민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였다. 킹의 경계적 사유의 특징인 중간자적인 입장, 즉 이분법적인 대립에서 두 가지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다른 제 3의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은 이러한 정신의 식민화의 극복을 향한 대안적인 상상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킹이 논하는 북미 원주민의 문화정치적 위치를 ‘트랜스내셔널’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하다는 말의 개념적 특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를 넘는 혹은 가로지르는 공간적인 이동의 개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며, 이것은 또한 추상적으로 백인 주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에서 킹의 에세이와 단편소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경계적 사유가 어떻게 트랜스내셔널 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경계들」은 두 국가 사이의 물리적인 경계와 이와 관련된 강요된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넘어서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불편한 인디언』에 나오는 킹의 에세이와 또 하나의 단편소설 「화가 조와 디어 아일랜드 학살」은 국가에 의해서 강요된 인디언에 대한 두 가지 정체성의 경계의 범주화—‘죽은 인디언들’ 혹은 ‘법적인 인디언들’—를 비판하고 넘어서 수 있

18) 이러한 킹의 탈식민적인 입장, 특히 그의 에세이 「고질라 대 포스트-콜로니얼」 (“Godzilla vs. Post-Colonial”)을 통해 제시된 그의 입장이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그는 일군의 캐나다 비평가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Dvorak 214).

는 열린 개념으로서 ‘살아 있는 인디언들’이라는 용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예는 필자가 지적한 원주민의 문화정치적 위치의 ‘트랜스내셔널’ 한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제니퍼 앤드루스(Jennifer Andrews)와 프리실라 월턴(Priscilla L. Walton)이 그들의 공동 논문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상당히 흥미롭고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북미 원주민의 문화정치적 위치의 트랜스내셔널 한 특징을 논하면서 단순히 미국과 캐나다라는 북미의 북쪽 경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치적 지형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여 북미의 남쪽 경계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북미 원주민들의 삶은 “항상 이미 반구적 (hemispheric)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Andrews and Walton 602). 그런데 더욱 더 필자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반구적’이고 ‘트랜스내셔널’한 특징을 원주민들의 북미 대륙적인 삶의 오랜 특징이며 이것이 또한 원주민성(indigeneity)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 트랜스내셔널 하다는 것을 통해 의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식민의 역사에 의한 결과로서 생성된 캐나다와 미국이라는 (혹은 미국과 멕시코라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비판하고 이것의 넘어서기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측면은 북미의 개별적인 국가 내에서 원주민들의 개별적인 민족적/종족적 차원과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말할 때 트랜스내셔널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이때 개별적인 한 원주민 집단이 하나의 민족(nation)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원주민들이 First nations라고 불린다. 앤드루스와 월턴은 이러한 관점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하면서 유럽적인 국가적 개념의 담론—그것의 식민성—의 영향 하에 원주민들의 독특한 개별적인 차원의 집단적 정체성의 특징들이 약화되고 삭제 혹은 동화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트랜스내셔널 한 관점에서 그들의 민족/종족적 정체성과 연대를 상상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논하기도 한다(Andrews and Walton

601-602).

그런데 앤드루스와 월턴이 지적한 북미 원주민들의 원주민성의 중요한 양상을 드러내는 반구적이고 트랜스내셔널 한 특징을 이해함에서 있어서 필자가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앤드루스와 월턴이 제시하는 논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로컬리티는 원래 지리학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논의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이 논문의 논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트랜스로컬리티는 한편으로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넘어서는 트랜스내셔널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트랜스내셔널리즘과 차이나는 지점은 트랜스내셔널리즘은 국가와 국가라는 거시적인 패러다임 차원의 경계 넘기의 특징을 주로 드러낸다면, 트랜스로컬리티는 트랜스내셔널 한 차원에서 민족주의적인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단위의 하부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로컬과 다른 로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계를 가로지르고 넘는 현상들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여기서 또한 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경계를 넘으면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다른 두 개 이상의 로컬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는 움직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가 단위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층위와 국가 단위 하부, 즉 로컬 단위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층위가 복잡한 방식으로 엮여 있다는 것이다. 트랜스로컬리티를 트랜스내셔널리즘과 구분 짓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전자가 구체적인 장소—대개는 국가 단위 하부의 차원에서의 지역 또는 장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랜스로컬리티는 국가의 중심적이고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영향에 대항하여 로컬의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생성되는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정치적 지형학의 역동적인 움직임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¹⁹⁾

이러한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적 특징을 통해 킹이 말하고자 하는 북미 원주민의 독특한 정체성—트랜스내셔널하고 반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원주민성—을 다시 고려할 때 다음 두 가지 측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앤드루스와 월턴이 지적하듯이,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로컬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반구적이고 트랜스내셔널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이중적인 층위에 놓여 있는 원주민들의 삶과 저항에서 핵심적인 이슈는 땅(거주지, 고향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의 문제(이는 로컬리티 논의에서 장소성의 문제를 다룰 때 핵심적인 주제이다)인데, 이는 원주민들의 개별적인 집단적 정체성의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킹의 단편 소설 「경계들」에서도 원주민 어머니의 저항도 구체적인 지역(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블랙풋이라는 원주민 민족/종족의 땅)에 밀착된 원주민들의 정체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러한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미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비판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킹의 『불편한 인디언』의 핵심 주제이다. 그렇기에 식민주의 역사에서 원주민들을 그들의 원래 땅에서 그들의 삶과 상관없는 특정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동시키거나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강제 이동하여 기숙학교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식민 정책이었다. 이는 원주민들의 정체성의 고유한 특징들—그들의 땅과 거기에 기반을 둔 그들의 문화, 언어 등—을 말살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화가 조와 디어 아일랜드 학살」에서도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 백인들에 의한 원주민들의 살육의 근본 원인이 된다. 이러한 땅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로컬리티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트랜스내셔널하고 반구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북미 원주민들의 원주민성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할 때, 로컬에 기반을 두면서 동시에 트랜스로컬하고 트랜스내셔널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인 트랜스로컬리티의 유용성이 설득력 있게 드러난다.

19) 이러한 트랜스로컬리티의 특징을 트랜스내셔널 혹은 트랜스내셔널리즘과 비교·연구한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두 편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앞의 본문에서 자세히 논하였듯이 킹이 말하는 원주민들의 정체성의 특징은 캐나다 혹은 미국이라는 국민국가의 중심적이고 억압적이고 식민적인 영향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 기반을 둔다. 앤드루스와 월턴은 이러한 저항의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개별적인 차원에서 민족/종족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저항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특히 탈식민적 저항에 있어서 소수자 집단이 어떤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와 연관되는 문제이다. 킹도 자신의 글들에서 원주민들의 개별적인 차원과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저항의 모색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예를 들면 북미에서 60년대 이후 소수자 인종들의 저항의 모색과정에서 각 인종집단의 개별성도 중요하지만 집단적 저항의 모색이 필요하고 효율적임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것의 중심에서 수직적으로 가해지는 식민적인 억압에 대항하여 로컬적인 블록으로서의 원주민 집단들의 로컬적인—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심에 대항하는 개별성의 합이라는 차원의 로컬적인 연합—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는 수평적인 차원의 저항의 연대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의 유용성이 드러난다. 즉 중심(적인 국가의 억압과 폭력의 식민성)에 대한 소수자적 저항의 모색을 위한 로컬/로컬리티의 연합으로서 트랜스로컬리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북미에서 원주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트랜스내셔널하고 반구적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이들의 저항의 모색도 종종 트랜스로컬하고 트랜스내셔널한 방식으로 추구되며, 이러한 원주민들의 저항의 트랜스로컬리티는 이들의 저항의 정치문화적 지형학의 근원적인 특징적 양상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식민적이고 억압적인 경제적 틀(예를 들면, 주류 지배 계급에 의한 민족주의와 그것의 영향)의 한계를 의문시하고 이것의 극복을 모색할 수 있는 사유적 가능성으로서 트랜스로컬리티를 고민할 때 이는 킹의 경제적 사유의 특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러한 사유가 북미의 인디언들에 대한 문화지형학적 위치에 대한 ‘다른’ 인식적 지도그리기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킹의 경계적 사유는 물리적인 경계, 정체성의 경계를 포함한 사유적인 경계 등을 고민하고 넘어서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탈경계적’이고, 이는 또한 억압적이고 식민적인 경계 짓기를 비판하고 넘어서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탈식민적’이고, 더 나아가 또 다른 대안적인 길을 제시하려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적’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자세히 논하였듯이, 「경계들」에서 킹이 주변화 된 목소리이지만 원주민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불편한 인디언』의 에세이와 또 다른 단편소설 「화가 조와 디어 아일랜드 학살」에서 ‘살아 있는 인디언들’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미 원주민들의 트랜스로컬리티—즉 그들의 정체성의 경계가 로컬적이면서 동시에 반구적이고 트랜스내셔널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주민들의 북미적 정체성의 특징이며, 이는 또한 백인 주류의 원주민들의 정체성에 대한 억압적이고 식민적인 경계 짓기의 틀을 극복하고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탈경계적이고 탈식민적이다. 이러한 정신의 탈식민화는 원주민들의 북미적 삶과 정체성에 대한 다른 인식적 지도그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산대학교)

■ 주제어

토마스 킹, 경계적 사유, 북미 원주민들, 트랜스로컬리티, 정신의 탈식민화

■ 인용문헌

- “뭘, 미-캐나다 국경에 철조망을?” 『주간동아』 (2011):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2974/1>>. Web. 2016년 10월 13일 접속.
- 민태운. 「『푸른 초원, 흐르는 강물』에서 ‘진짜 원주민’의 문제」. 『현대영미 소설』 17.1 (2010): 7-27. Print.
- 오민석. 「전복의 수사학: 토마스 킹의 『한 좋은 이야기, 그 이야기』」 『영미 문화』 9.3 (2009): 141-166. Print.
- _____. 「경계를 넘어서, 소수문학의 서사전략: 토마스 킹의 『캐나다 인디언의 짧은 역사』」 『새한영어영문학』 53.1 (2011): 47-66. Print.
- 이유혁.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에 대해서—트랜스내셔널리즘과의 차이와 개념적 응용성을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학』 13 (2015): 265-275. Print.
- Andrews, Jennifer. “Border Trickery and Dog Bones: A Conversation with Thomas King.” *SCL/ELC* 24.2 (1999): 161-185. Print.
- Andrews, Jennifer and Priscilla L. Walton. “Rethinking Canadian and American Nationality: Indigeneity and the 49th Parallel in Thomas King.” *American Literary History* 18.3 (2006): 600-617. Print.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rint.
- Davidson, Arnold E., Priscilla L. Walton, and Jennifer Andrews. *Border Crossings: Thomas King's Cultural Inversions*. Toronto: U of Toronto P, 2003. Print.
- Dvorak, Marta. “The Discursive Strategies of Native Literature: Thomas King's Shift from Adversarial to Interfusional.” *Ariel*

33.3-4 (2002): 213-230. Print.

Glenn, Timothy. "Cultural Resistance and 'Playing Indian' in Thomas King's 'Joe the Painter and the Deer Island Massacre.'" *Western American Literature* 45.3 (2010): 229-251. Print.

Western American Literature 45.3 (2010): 229-251. Print.

Heidegger, Martin. "Building, Dwelling, Thinking." 1971. *Poetry, Language, Thought*. New York: Harper Perennial, 2001. 143-159. Print.

Horne, Dee Alyson. *Contemporary American Indian Writing: Unsettling Literature*. New York: Peter Lang, 1999. Print.

King, Thomas. *One Good Story, That One*. 1993.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13. Print.

_____. *The Inconvenient Indian: A Curious Account of Native People in North America*. 2012.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13. Print.

_____. *The Truth About Stories: A Native Narrative*. 2003.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5. Print.

_____. "Godzilla vs. Post-Colonial." *Unhomely States: Theorizing English-Canadian Postcolonialism*. Ed. Cynthia Sugars. Peterborough: Broadview Press, 2004. 183-190. Print.

_____. *Truth & Bright Water*. New York: Grove Press, 1999. Print.

_____. *Green Grass, Running Water*. 1993. New York: Bantam Books, 1994. Print.

Konrad, Victor and Heather N. Nicol. *Beyond Walls: Re-inventing the Canada-United States Borderlands*. Hampshire, England: Ashgate, 2008. Print.

Lee, Yoo-Hyeok. "Toward 'Translocal' Solidarities: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Spatial Politics of Resistance.”
Localities 5 (2015): 159–169. Print.

Mayer, Evelyn P. “Indigenous Interstitial Spaces: Liminality in Thomas King's ‘Borders.’” *Liminality and the Short Story: Boundary Crossings in American, Canadian, and British Writing*. Eds. Jochen Achilles and Ina Bergmann. New York: Routledge, 2015. 263–273. Print.

_____. “Beyond Border Binaries: Boderlines, Borderlands, and In-Betweenness in Thomas King's Short Story 'B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anadian Studies* 43.1 (2011): 67–82. Print.

Ngugi Wa Thiong'o.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Portsmouth, N.H.: Heinemann, 1986. Print.

Rooke, Constance. “Interview with Tom King.” *World Literature Written in English* 30.2. (1990): 89–107. Print.

■ Abstract

Thomas King's Border Thinking and the Question of Indigenous Peoples' Translocality in North America

Lee, Yoo-Hyeok (Pusan National Univ.)

This paper aims to examine some characteristics of Thomas King's border thinking and the question of translocality King explores by analyzing his short stories and essays. The paper gives particular attention to borders such as the physical border established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 result of colonialism in North America, and the border of identity (indigenous peoples' identity in North America in particular). Hence, the term border includes both visible and invisible borders or boundaries. King's thoughts on these borde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ways in which such borders imposed by the dominant white regimes in the process of colon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states affect the lives of indigenous peoples and their thought world. Not only does King represent the coloniality of such borders, but he also highlights important aspects of indigenous peoples' lives in his writings, that is, the ways in which their lives are fundamentally hemispheric (or transnational and translocal) rather than limited to the border of one nation-state. Furthermore, King's attempts to question and overcome the physical border and the border of identity in relation to indigenous peoples'

lives in North America criticize how such colonial borders can serve to colonize the mind of (colonized) people and also suggest how decolonial (or anticolonial) thinking toward the decolonization of the mind can be explored.

This paper studies some characteristics of King's border thinking by relating the topic of border to the topic of locality. The concept of translocality in particular helps us to consider how King's border thinking tackles the question of borders, such as a physical border, the border of colonial identity, the border of thought world, etc., and also to explore how it can become transborder and decolonial. This also helps us to consider how the concept of translocality, which has often been used in social sciences and geography in particular, can become a useful critical concept for literary and cultural studies in humanities. B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crossing the boundary of borders as suggested in the term 'trans' in translocality,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a potential for extending the boundary of translocality as a critical concept that can contribute to questioning and overcoming the colonial frame of borders often imposed vertically and oppressively. This study hopes to show how a different cognitive mapping of indigenous peoples' cultural geography in North America can be made possible.

■ Key Words

Thomas King, Border Thinking, Indigenous Peoples in North America, Translocality, Decolonizing the Mind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폴 비릴리오의 ‘시간, 공간, 속도’ 개념을 통해 본 성경 담론 분석 : ‘다윗과 골리앗’, ‘아브라함과 롯’의 서사를 중심으로

이 정 일

I. 서론

다윗(David)과 골리앗(Goliath)의 서사(narrative)는 ‘싸움의 룰’까지도 바꾸어놓은 승자의 법칙으로 인용된다. 누구나 질 것이라고 여겼던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에, 다윗의 도전은 승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자 “국가적 서사”이자 “국가적 서사시”(Yadin 394)로 해석된다. 아브라함(Abraham)은 소돔이 자리한 비옥한 요단지역(Jordan Valley) 대신 척박한 가나안(Canaan) 땅을 선택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풍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결과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를 천년 후 성전(聖殿) 터로 선택한다(대하 3:1). 이곳은 다시 천 년 후 메시아(Messiah)가 달린 십자가가 세워진 역사의 무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믿음은 인간행위의 모든 환경과 연결되며, 때론 전쟁의 행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성공보단 실패에 시달린 과정이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서사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변환기(converter)의 역할을 한다. 한계와 위기를 겪을 때 서사는 더 흥미로워 지는데, 선행연구에선 이것을 문학적 시각으로만 읽어낸다.

아브라함의 경우 권희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신분석학적 시각으로 분석한다(27). 권희영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타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징적 행위로 해석한다(32-33). 기수현(본명 Daniel Kister)은 아브라함을 서사 문학비평의 방법을 활용하여 성경적 사건들을 문학적 구성으로 해석한다(101). 하워드 커저(Howard Curzer)는 끊임없이 흔들린 아브라함에 주목한다. 커저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때때로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진정한 영웅(superhero)으로 해석한다(359). 다윗의 경우, 박진옥은 김청기 감독의 영화 「다윗과 골리앗」에 나타난 서사적 변형에 주목한다(125). 엄원식은 다윗의 싸움을 전투적 메시아니즘으로 해석한다(109). 유대학자인 아잔 야딘(Azzan Yadin)은 다윗과 골리앗의 충돌을 무거운 수사적인 산문(prose)에 대한 가벼운 산문의 승리로 해석한다. 이들 선행연구에선 문학적 서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논문은 두 인물(다윗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간, 공간, 속도(Time, Space, Speed)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이것은 두 인물이 체험한 상황을 전복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행기의 발명이 동시에 추락의 발명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선 초점을 믿음의 극적인 반전에 맞추며 ‘속도의 사상가’로 알려진 프랑스 철학자 폴 비릴리오(Paul Virilio)의 개념을 그 반전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수량화할 수 없는 가치이다. 믿음, 가치, 신념은 수량화할 수 없지만, 본 논문에선 성경이 인정한 두 인물의 신념을 비릴리오가 말하는 ‘시간, 공간, 속도’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비릴리오는 테크놀로지를 수단이 아닌 우리시대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본다. 그는 현대세계뿐 아니라 과거 인류를 변형시킨 테크놀로지의 본질과 효과에 주목한다(Kellner 103). 데이비드 캐플란(David Kaplan) 역시 “테크놀로지 장치와 체계는 우리 문화와 환경을 결정짓고, 인간 행위의 양상을 바꾸며, 우리의 현재 모습과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Kaplan, xiii; 제임스 13)고 주장한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도 테크놀

로지가 정치를 앞섰으며, 오늘날 국가를 “기동성 있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해석한다. 즉 개인은 온라인(정보통신세계)에 연결될 때만 존재하며, 존재하는 동안만 현실에 참여하게 된다고 바우만은 주장한다(95, 100-101).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믿음을 테크놀로지가 지배적인 현대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적인 요소가 아닌 “비물질적 요소를 주체와 객체간의 시공간 관계를 바꾸고 지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주은우 14-15) 일종의 전환기로 가정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믿음(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요소)이란 “인간에게 적용된 신의 속성”(비릴리오, 2006:89)이지만, 비릴리오는 전쟁을 물질적 승리로 제한하지 않고 가시적 지평선을 포착하는 지각 장들의 ‘비물질성’을 전유하는 것으로 본다(Virilio, 1989b: 10). 말하자면 그는 “우리의 이상활동과 운동, 통신형태, 심지어 예술까지도 그 심층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테크놀로지로 구축되거나 그 영향을 받는다”(제임스 뒤표지)고 주장한다. 비릴리오가 테크놀로지를 설명하면서 지각의 틈, 비물질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에게 속도(시간의 한 속성)는 공간을 구조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속도는 이동에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현상들 간의 관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세계는 공간세계에 전략적 우위를 가지며, “시간은 공간보다 우세하게 작동[한다]”(비릴리오, 2006:23, 88).

본 논문에선 신앙적 관점으로 다뤄왔던 믿음을 속도, 시간, 공간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서사에 비릴리오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낯설 수 있지만, 이 방식은 한 인물의 용기에 속도에 대한 이해가 결합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즉 ‘시간, 공간, 속도’는 두 인물들의 행동과 외적현상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공간에 대한 시간의 승리를 보여준다. 골리앗의 무장은 공간(근접전투)을 위한 것이다. 반면 다윗의 경무장은 시간(물맷들의 속도)을 위한 것이다. 골리앗의 싸움은 공간을 지배하는 쪽으로 흘러갔지만 다윗은 이것을 시

간으로 뒤집었다. 아브라함과 롯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가능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시간)을 선택한다. 반면 롯은 풍요로운 목초지(공간)를 선택한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서사는 믿음이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소하지만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선 믿음이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은 동기와 단서에 주목하며, 성경 텍스트는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경해석의 맥락으로 해석된다.

II. 폴 비릴리오의 기술적 상상력으로 읽는 성경 담론

‘시간, 공간, 속도’는 비릴리오의 핵심개념들이다. 비릴리오는 기술의 진보를 속도의 진보로 해석한다. 비릴리오는 스스로를 ‘무정부주의 크리스천’으로 부른다(Armitage, 2000:31). 자크 엘뤼(Jacques Ellul)이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철학이나 사회현상과 접목시켜 펼친데 반해서, 비릴리오는 기독교적 신념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제임스 24). 비릴리오는 『동력의 기술』(*L'art du Moteur*)에서 “창조는 인간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매우 자주 사용되는 창조자라는 말은 부적합하다 [...]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창조자이기보다는 확실히 기술자이다”(비릴리오, 2007:92)라고 언급한다. 인간을 기술자(technician)로 보는 비릴리오의 시각은 ‘청지기’(steward)에 대한 기독교적 신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예로 볼 수 있다. 비릴리오의 초점은 철학적, 정치적, 이론적 논의지만, 본 논문에선 그의 관점을 ‘다윗과 골리앗’,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성경적 서사를 해석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믿음이란 단어는 성경을 관통하는 용어이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은 끊임없이 강조된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논문과 같다.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바라는 것(what we

hope for)과 보이지 않는 것(what we do not see)은 미래적 사건을 가리킨다. 미래적 사건은 현재화를 지향하는데, 이것은 테크놀로지의 영역에선 빈번하게 일어난다. 인간의 문명은 기계에 의존한다. 속도기계(Speed Machine)가 주도하는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시/공간을 정복했음을 보여준다. 배와 잠수함은 바다를, 낙하산과 비행기는 하늘을, 자동차와 자전거는 육지에 대한 정복을 상징한다. 공간에 대한 정복은 시간에 대한 승리로 이어진다. 휴대폰, 세탁기, 나는 슈퍼보드 같은 도구들은 시간의 가속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간의 가속화, 즉 미래적 사건의 현재화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 1985),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 1982)나 「아바타」(Avata, 2009) 같은 SF 영화나 판타지 영화를 통해서 예견된다. 이들 영화들에선 가상현실과 실재현실의 경계가 불투명한데, 그것은 속도의 가속화를 통해 선명해진다. 비릴리오는 이러한 현재의 디지털 속도를 ‘순간성, 즉각성, 편재성’이란 용어로 포착한다(정의진 33).

프랑스 작가 쥘 베른(Jules Verne)의 소설 『해저 2만리』(*Twenty Thousand Leagues Under the Seas*, 1870)에는 잠수함 노틸러스(Nautilus)호가 등장한다. 베른이 상상한 잠수함(submarine)이라는 미래적 사건이 1897년엔 내연기관엔진을 사용한 잠수함으로, 1954년엔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SSN-571 노틸러스로 현재화된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2」(Back to the Future 2, 1989)에선 하늘을 나는 보드, 자동 끈 조임 신발, 자동 사이즈 조절 바지, 자동 건조 옷, 하늘을 나는 경찰차가 등장한다. 이중 자동으로 끈을 조여 주는 신발(self-lacing shoes)이 현재화되었다. 그것도 영화 속 시간인 2015년 10월 21일에 맞춰서 출시되었다. 해리포터(Harry Potter) 시리즈에 나오는 투명망토(invisibility cloak)도 현재화되었다. 영화 「아바타」에 등장하는 3D로 구현되는 지도나 지형도 현재화될 것이다. 공간세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약진은 눈부시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란 쉽지 않다. 믿음은 갖는 것은 “과학으로 작동하는 전쟁 [...] 해당 분야를 왜곡하는 모든 것”(Virilio and

Lotringer 27)을 뒤집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 완력 혹은 물질적 풍요가 우월하다는 규칙을 깨고 이를 속도와 시간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걸 의미한다. 이것을 다윗과 아브라함이 보여준다.

1.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나타난 속도와 공간의 의미

성경 이야기에 머물던 다윗과 골리앗을 공공의 장으로 이끌어낸 인물은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이다. 『다윗과 골리앗』(*David and Goliath*)에서, 그는 ‘왜 언더독들은 승리를 하는가?’란 주제를 파고든다. 그는 이 주제를 다양한 사례들—작은 학급, 인상파, 큰 물고기와 작은 연못, 난독증 등—을 통해 검증하는데, 다윗을 모든 논의의 이론적 근거로 삼는다. 다윗의 악역(antagonist)은 사울왕과 골리앗이다. 사무엘상 17장에선 세 명의 인물(다윗, 사울왕, 골리앗)이 대비된다. 외적으로 다윗은 키가 작았다. 대니얼 헤이즈(Daniel Hays)는 사울왕의 키를 182cm로, 다윗의 키를 152~161cm로, 골리앗의 키는 210cm로 추정한다(702). 글래드웰도 골리앗의 키를 210cm로 계산한다(19). 유대인들의 평균 신장(161cm)과 비교하면, 골리앗은 거인이다. 빌링턴(Billington)은 골리앗의 키가 265cm이고 몸무게는 181kg로 본다(508). 그는 헤이즈보다 높은 수치를 잡고 있다. 이런 강자와 싸워 이겼기에, 다윗의 싸움은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싸움’에 대한 은유로 쓰인다. 골리앗은 “군대와 힘센 전사에서부터 장애, 불운, 그리고 압제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강력한 적”(글래드웰 20)을 의미한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한 곳은 세펠라(Shephelah) 지역의 엘라(Elah) 계곡이다. 세펠라 지역엔 계곡이 45개나 된다. 이중 엘라 계곡(예루살렘의 남서쪽 25km에 위치)은 전략적 요충지이다. 바로 블레셋(Philistines)이란 해안지역 사람들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같은 주요 도시로 진

출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였기 때문이다(글래드웰 17). 사울왕이 골리앗과 대립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이곳에 진(陣)을 쳤다(삼상 17:2, 19).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Gath 또는 Tell es Safi)가 있다. 가드는 베들레헴에서 56km 떨어져 있고, 헤브론에선 32km 떨어져 있다(Billington 499). 글래드웰은 3천 년 전 엘라 계곡에서 일어난 다윗과 골리앗의 충돌을 '속도'와 '의학'으로 분석한다. 그는 다윗의 용기나 믿음을 속도란 개념으로 해석한다. 골리앗은 무기(창)와 무장(갑옷)을 하고 싸웠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우위를 속도로 제압한다. 글래드웰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① 그의 모습이나 말은 뇌하수체의 악성종양이 원인인 말단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유사하다. 이 종양은 성장호르몬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는데, 이는 골리앗이 엄청난 몸집을 가진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 게다가 말단비대증의 흔한 합병증 가운데 하나가 시력문제다. [...] 종종 시야가 좁아지고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증을 앓는다. [...] 골리앗은 왜 그렇게 느리게 움직였을까? 주위가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왜 골리앗은 다윗이 싸움의 규칙을 바꾸어버렸다는 것을 그렇게도 늦게 알아차렸을까? 다윗이 가까이 올 때까지 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29-30, 밑줄 인용자).

② 다윗은 [...]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와 기동성이 있었다. 그는 물매에 돌을 장전하고 휘휘 돌렸다. [...] 이스라엘 방위군의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 Eithan Hirsch는 최근 일련의 계산을 통해 전문 투석병이 35미터 거리에서 날린 보통 크기의 돌이 초속 34미터(시속 122.4킬로미터)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대인저지력 면에서 이는 중간 크기의 현대 권총과 맞먹는 것이다. 우리는 다윗이 1초가 조금 넘는 짧은 시간이면 물매를 휘둘러 골리앗을 맞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냈다. (26, 밑줄 인용자)

글래드웰은 “다윗은 투석병이었고, 투석병은 손쉽게 보병을 쓰러뜨렸다”(27)고 설명한다. 이것을 비릴리오 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은 속도(speed)와 기동성(mobility)으로 공간(space)을 절멸시켰다. 글래드웰이 인용문 ②에서 지적한 ‘속도와 기동성’을 비릴리오도 주목한다. 비릴리오는 속도의 사상가답게, 테크놀로지의 가속화로 시간은 공간을 정복했다고 주장한다(비릴리오, 2006:88; Thommesen 149). 그는 『속도와 정치』(*Speed and Politics*)에서 전쟁을 속도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보병의 생존력은 기동력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비릴리오, 2007:46). 비릴리오의 논의를 글래드웰 식으로 말하면, 중보병(골리앗)과 투석병(다윗)의 충돌이다. 골리앗은 중무장을 하고 있다. 그는 적어도 45kg은 되었을 갑옷을 입었고, 놋 투구를 썼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세 가지 무장-던지는 창, 찌를 수 있는 창, 옆구리에 찬 칼-을 하고 있다. 또 그의 앞에는 안내자이자 상대의 공격을 방어할 ‘방패를 든 병사’(shield-bearer, 삼상 17:7, 41)가 앞서 간다. 이 모든 무장은 근접전투에 필요한 것이다.

반면 다윗의 무장은 매끄러운 돌 다섯 개가 전부이다(삼상 17:40). 이런 무장의 차이는 승부의 결과를 예견케 한다. 하지만 비릴리오는 경무장은 ‘속도의 가속화’(the acceleration of speed)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골리앗은 ‘느리게’ 걸었다. 복시증(複視症)으로 시야도 좁았고 무장도 했기 때 문이다. 반면 다윗은 빠르게 뛰며 돌을 던졌다(삼상 17:48). 양자의 승부는 기동성과 속도로 결정되었다. 골리앗은 히타이트(The Hittites) 족속으로 기원전 1900~1700년경에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Monroe 69).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란 책 제목이 보여주듯, 쇠(iron)는 고대에 군사력에서 결정적 우위를 가져다주는 금속이었다. 이런 우위조차 속도와 기동성이 잠재웠다. 골리앗의 완전무장을 다윗은 속도로 제압한다. 속도는, “사냥꾼과 전사의 이점 [...] 모든 전투의 핵심”(Virilio, 1994:19)이었다. 비릴리오는 전투의 역사를 “지각장의 형태변환의 역사”(Virilio, 1989a:10)로 이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을(乙)의 삶을 살

았지만, 다윗의 싸움은 “전쟁은 영토적, 경제적, 여타 물질적 승리를 쟁취하는 문제이기보다 지각장의 ‘비물질성’을 전유하는 문제”(Virilio, 2004b: 35-36)란 것을 보여준다.

2. 아브라함의 서사에 나타난 시간과 믿음의 상관성

폴 비릴리오는 『소멸의 미학』(*Esthétique de la Disparition*)에서 불확실성의 사막을 걸어간 아브라함을 언급한다. 비릴리오는 “그 사막은 잃어버린 시간이고, 다시 어린아이의 세계로 회귀하려는 성숙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초록빛 낙원이다”(Virilio, 2004b:49)고 적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롯(Lot)과 함께 가나안(Canaan)으로 이주했다. 롯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인 갈대아 우르(Chaldea Ur)부터 약속의 땅인 변방 가나안까지 동행했다. 그런데 그 여정이 롯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초록빛 낙원’이 되었다. 이 둘의 엇갈린 행보는 창세기 12-14, 18-19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제단(altar)을 쌓았다(창 12:6-7; 창 13:18). 아브라함은 가나안 도착 후 기근(famine)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이동했고, 도착 후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다(Ricket 39). 그래서 커저는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부른다(344).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삭에게 한 번(창 26:2-4), 야곱에게 두 번했다(창 28:13-14; 창 35:11-12). 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커저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345).

권희영은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아직 주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의 경우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믿음은 “실재를 대체하는 상징”이며 “실제적 행동의 성취”(42)이다. 이런 믿음을 창세기 저자는 보이는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언약(言約)의 선택으로 설명한다. 이런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Paul)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다(롬 4:11; 갈 3).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엔 기근으로, 두 번째엔 가축 떼가 늘어난 결과로 위기(지면의 상실, 시야의 상실; 비릴리오, 2006:48)를 겪는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동거를 했으나, 둘 다 가축수가 늘어났다. 가축을 먹이는 목초지란 공간은 한정되었으나, 둘이 거느린 식솔이 늘고 가축 떼들이 늘자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부딪치게 된다. 분가를 결심한 뒤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거주할 땅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준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 13:10). 창세기 13장 10-13절은 롯의 선택을 이렇게 기록한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a) 온 땅에 물이 넘었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b)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c)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d)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 13:10-13)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것(요단지역이란 가시적 지평선)을 지각하지만 다르게 반응한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눈앞에 펼쳐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란 기억을 통해 해석한다. 아브라함에게 기억은 적극적 인지를 의미한다. 반면 롯은 언약 대신 가시적 지평선에 나타난 풍요를 먼저 포착한다. 가시적 지평선(풍요)과 심오한 지평선(언약) 사이에 분열/혼란이 생긴 것이다. 비릴리오는 ‘세계 안에서 존재’를 인식할 때 이런 분열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비릴리오, 2006:37). 이런 분열은 장소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방해하기도 한다. 비릴리오의 경우, 망원경 같은 광학장치들(optical devices)의 발명은 “우주의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멀리 더 잘 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망원경이란 시각기계는 “우리의 거리와 차원 경험을 삭제하는 ‘가속화 현상’을 시작”(Virilio, 1994:4)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릴리오는 시각(vision)이 기계(machine)로 대체되는 걸 두려워한다(Kellner 111). 다시 말하면 망원경이 기술적으로 개선될수록 별(존재자의 흔적)을 포착하는 능력은 감소하는 셈이다.

인용문의 (c)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언약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반면 롯은 인용문 (a)에서 보듯 비옥한 땅이란 외적 요인을 보고 요단지역을 선택한다. 요단지역은 가나안 땅 밖에 있다. 또 그곳엔 도시(city)란 문명이 있다. 하지만 그곳엔 언약이 없다. 도시란 공간 세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힘, 자신의 욕망을 강화한다. 기계문명에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 대신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더 넓은 공간을 얻기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던 56-57).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며 살았어도 시간속의 거룩, 안식일(Sabbath)을 추구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발견되는 시간을 지향한다. 그는 어디에 머물든지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창 12:7-8, 13:18, 21:33, 22:2). 아브라함의 행보는 우리가 물질과 공간에 대한 소유를 그칠 때, 시간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롯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 롯은 시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한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요의 땅 소돔으로 이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롯은 풍요의 소돔을 택했는데, 비릴리오는 『소멸의 미학』에서 히브리 전통은 결핍을 사막/광야로 형상화한다고 말한다(Virilio, 2004b: 61). 롯은 이 결핍이 주는 영적 의미를 알지 못했다. 롯의 경우,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상상력의 이미지화”(Virilio, 1994:4) 능력이 뒤틀리고 변형되어 있다.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자신이 지각하는 시선에 붙잡힌 나머지, 눈에 체화된 현실—물이 넉넉하고, 에덴동산 같은 곳—을, 그리고 그 결정체인 도시(city)를 선택한다. 롯 이전에 가인(Cain)도 똑같은 결정을 한다. 가인은 동생 아벨(Abel)을 죽인 뒤 에덴 동쪽 놋(Nod)으로 이주한다. 하지만 해

(害)를 입을까 두려워 가인은 누구도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표시하는 표(mark)를 하나님에게 요구했고, 놋 땅에 가선 자신을 보호할 성(城)을 쌓았다(창 4:15-17). 새번역 성경과 영어성경(NIV, ESV, NASB, KJB, HCSB, NLT)은 ‘성’ 대신 ‘도시’란 표현을 쓴다. 성/도시는 방어적 기능을 갖는다. 비릴리오는 도시의 기능을 방어란 군사적 목적으로 본다. 중세까지 사람들은 요새화된 성벽 안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비릴리오는 요새화된 도시는 파괴의 무기인 대포(canon)를 발명하여 스스로를 방어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전쟁(warfare)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여, 전쟁을 ‘차단의 무기’(weapons of obstruction)로 부른다(Thommesen 148). 가인이 가졌던 논리는 롯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소돔성은 롯에게 노마드적 삶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어 장치이다. 그래서 비릴리오는 성을 ‘두려움’으로 설명한다(비릴리오, 2006:138). 소돔성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여지기 전, 롯은 전쟁에 휘말려 모든 재물과 양식과 가족을 빼앗긴 경험을 한다(창 14:1-16). 이때의 경험은 롯에게 보호에 대한 강한 외상(trauma)을 남겼을 것이다.

비릴리오는 사유에서 신체 지각에 주목하여, “공간이 감각 경험의 세계에 제한되어 있으며, 그 너머에는 공간다운 공간이 없다”(제임스 29 재인용)고 주장했는데, 롯은 비릴리오가 말한 감각경험에 붙잡히고 만다. 비릴리오에 따르면, 시각장(the field of vision)은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기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Bartram 297). 시각장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멀게도 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저자는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때 “롯이 눈을 들어 [...] 바라본즉”(Lot looked around and saw: 창 13:10)이라고 기록한다. ‘바라본즉’(saw)은 아담과 이브의 실수를 연상시킨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창 3:6). 선악과(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는 유일한 경계/한계였다. 비릴리오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인간에게 제한을 두며, “인간은 우주의 경이로움의

끝이다. 다시 말해, 나의 경우,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인간은 우주
의 끝이며 세상의 끝이다”(Armitage, 1999:30)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에서, 김서택(94-96)은 룯이 대단히 현
실적인 사람이라고 결론짓는다. 룯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과 ‘죄’
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룯은 ‘눈에 보이는 것’(눈에 체화된 현실)만 가지
고 판단을 내린다. 룯의 시선은 단테(Dante)의 시선과도 연결된다. 단테
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적인 것이든 널리 알려진 것이든, 마치 유리
를 통과하듯 투명한 도구를 통해, 실체가 아닌 의도로서—사물이 아니라
그것의 형상이 들어온다는 뜻이다—눈으로 들어온다”(아감벤 148-149)고
쓴 바 있다. 시선은 의도성과 연결된다. 아브라함은 요단의 풍요를 ‘선택
적으로’ 지각하지 않는다. 비릴리오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시선을 믿지
않는 것’을 의식적인 거부의 표시로 해석한다(비릴리오, 2006:112). 비릴
리오에게 시선은 중요하다. 그래서 무기를 설명할 때도 비릴리오는 모든
무기는 ‘눈의 기능’을 가지며 “전쟁기계 옆에는 늘 정찰기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확장하면 권력은 총구가 아닌 “속도와 시각장의 확
보”(신성환 255, 259-260)로 얻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현실적인 룯의 인
생은 피상적이고 시선은 짧다. 그의 눈엔 체화된 현실만 포착되기 때문이
다. 이것은 의도적인 욕망인데, 여기엔 의도성이 들어 있다. 룯은 현실적
인 시선을 가졌고, 이것은 그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

룯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 틀림없으나 그의 신앙은 이
성적 판단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순종한다. (안수현 263).

안수현은 룯을 안타까워하지만, 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베드로후서 2
장 7-8절에서 룯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룯의 이름 앞에 ‘의로운’
(righteous)이란 수식어를 붙인다. 룯은 소돔인들의 음행, 기술적으로 설
명하면 “온갖 종류의 인공 보철물과 기술적 대체물”(비릴리오, 2006:113)

로 괴로웠다. 사실 롯은 소돔의 악행을 알았으나(창 13:13), 결국엔 소돔에 정착한다(창 14:12). 시간이 흐르자 롯은 잠재적인 순응주의에 빠진 것이다(창 19:1). 성문(城門)에 앉았다는 것은 소돔의 유지(有志, the elders of the city)가 된 것을 의미한다. 고대에 유지들은 성문에 모여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다(Reviv 190). 아브라함이 성문에서 헛 족속이 보는 가운데 막벨라 굴을 산 것과 신명기에서 패역한 아들을 다루는 사건이 비슷한 일례가 된다(창 23:18, 신 21:18-21). 롯은 소돔의 존경받는 멤버였다. 롯은 음행을 괴로워했으나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다. 비릴리오가 말한 감각경험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롯의 인생에서 시편 1편 1절의 경고,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do not walk) →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do not stand) →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do not sit)가 그대로 재현된다. ‘걷다’(walk) → ‘서다’(stand) → ‘앉다’(sit)란 세 개의 동사는 부러울 정도로 매력 있는 삶이 때론 파국을 감추고 있다는 역설, 곧 “시각 기계는 통상적인 재현을 미디어로 전파하면서 결국 이 재현의 영향력을 파괴시킨다는 것”(비릴리오, 2006:112)을 보여준다.

결과로 보면 롯이 바라본 시간의 길이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한 세대를 넘지 못했다. 롯이 선택한 인생은 자아(self), 즉 자신의 삶에만 몰입한 것처럼 보인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찾는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아 중심적(self-seeking, self-serving)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나 내 일도 염려하지 않는 것 같다(Brueggemann 133). 롯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소돔의 음란함을 돌이키려고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두 딸의 행태가 보여주듯(창 19:30-38),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 경고하듯, 그의 가족은 어느 순간부터 죄악된 문화에 물이 들고 말았다. 비릴리오 식으로 설명하면 롯은 “지나친 폭력영화에 익숙해짐과 텔레비전의 연속된 화면의 지나친 겹침 사이에서” 가시적인 것에 과다노출된 것이다(비릴리오, 2006:

113). 과다노출로 인해 룯이 지각한 모든 것이 유황불로 날아갔다. 에서(Esau)도 룯과 동일한 욕망이란 시각장애를 경험한다. 반면 야곱은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다. 야곱은 임종할 때 요셉에게 자신의 유골(遺骨)을 애굽에 묻지 말고 고향 가나안 선영에 장사하라고 당부한다(창 49:29).

선영은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조부 아브라함이 은(銀) 400 세겔을 주고 히타이트(Hittite) 족속에게서 산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다. 그곳엔 사라와 아브라함, 리브가와 이삭이 묻혀 있다. 야곱은 선영에 묻히길 원했다. 이를 통해 야곱은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땅은 가나안이란 사실을, 몸으로 가르쳤다. 성경 담론은 이것을 강조한다. 내가 내리는 결정은 내가 바라보는 시간의 길이를 보여준다. 재닛 윈터슨(Jeanette Winterson)은 이것을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 하나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가지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43)고 설명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이 남다른 이유는 이들이 바라보는 ‘시간의 길이’가 남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복음서 저자들도 마찬가지다. 복음서의 도입부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마태 → 마가 → 누가 → 요한으로 가면서, 저자들은 더 멀리까지 바라본다. 마태는 예수의 출생으로(마 1:18), 마가는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한다(막 1:2). 마가는 요한의 출생까지 올라간다. 끝으로 사도 요한은 시간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Bartholomew and Goheen 132).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요 1:1)

요한은 태초까지 바라본다. 태초는 영원과 맞닿아 있다. 플라톤이 『티마이오스』(Timaios)에서 시간(chronos)과 영원(aeon)을 구분한 이래, 영원은 오랫동안 서구에서 철학적, 종교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Achtner 268). 비릴리오는 시간을 과거 → 현재 → 미래로 진행되는, 연대순이 아

나라 체계로 해석한다. 그는 『극의 관성』(*Inertie Polaire*)에서 “종래의 세 가지 시제는 정확히 연대순이 아닌 체계로 재해석된다”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을 순간들이 연속하는 순서로 이해하지 않고 노출의 순서 곧 “현상이 속도의 빛으로 밝아지거나 그 빛에 노출되는 찰나의 순서로 이해해야 한다”(제임스 66-67)고 단언한다. 신플라톤주의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영(soul)의 움직임 안에 있다. 시간이란 영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지만 영의 시간은, 그것이 완전, 무한, 완벽, 합일을 지향할 때, 영원을 비취준다(Arhtner 268-269). 반면 유대인은 시간은 창조되었다고 인식한다. 칼 라흐너(Karl Rahner)는, “영원은 [...]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간 뒤 우리가 경험한 시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다. [...] 영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래된 순수한 시간의 양상이 아니라 시간 안에 채워진 영(spirit)과 자유(freedom)의 양상이다. 이것은 영과 자유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Jacobs 460 재인용)고 설명한다.

비릴리오는 『탈출속도』에서 성경을 언급하면서 “타자를 아는 것은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비릴리오, 2006:144)라고 쓰고 있다. 비릴리오가 말하는 타자/존재자는 아브라함에게 야훼(Yahweh)이다. 창세기 14장은 존재자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 살 때, 소돔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이 붙잡혀 갔다. 자신이 훈련시킨 식솔 318명을 이끌고 나가 롯을 구한 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El Elyon/창 14:22)을 찾는다. 시간이 흘러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El-Shaddai/창 17:1)으로 부른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표시로 할례를 한다. 다시 시간이 흘러 창세기 21장이다.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한창 크고 있다. 이 무렵 아비멜렉과 우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툰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합의를 한다. 이곳 이름이 브엘세바(Beersheba)인데, 의미는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다. 아브라함은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상록수인 에셀 나무(a tamarisk tree)를 심은 뒤, ‘영생하시는 하나님’(El

Olam/창 21:33)을 예배한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창 21:33)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따라 떠도는 노마드(nomad) 인생이다. 그런데 그가 나무를 심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5km에 있는 네게브(Negev) 사막 한복판에 있는 브엘세바에는 여러 갈래의 시간이 얽혀 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얻은 땅이다. 이곳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3대의 삶의 터전이었다. 하나님은 이삭, 야곱, 엘리야를 이곳에서 만났다(창 21:7, 46:2; 왕상 19:5). 이삭, 야곱, 엘리야는 물리적 시간 속에서 존재자/신을 만났다. 하지만 신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그에게 지리적 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영원히 거하시기에(사 57:15, 시 102:12), 모든 시간(과거, 현재, 미래)은 신에겐 현재로 존재한다(Niehaus 536). 영원(olam, eternity)이란 개념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영원한 언약”(히 13:20)을 설명한다. 아브라함이 얻은 언약은 물리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 과거에 맺어진 언약은 현재적 실재(a present reality)이며 과거의 현재적 사건(a present past event)이다. 동시에 언약은 미래적 사건의 현재화(a present future event)이다. 언약은 인간에게 과거의 사건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에겐 현재의 사건인 것이다(Niehaus 537). 이처럼 영원은 매우 강력한 단어이다.

III. 결론

아브라함과 다윗은 성경담론의 중심인물이다. 이 둘이 갖는 비중은 마

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다. 사도 마태(Matthew)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구약전체의 스토리를 두 이름으로 요약한다(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마태는 메시아(Messiah)인 ‘예수 그리스도’를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를 혈연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결시킨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실패와 좌절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선 유대인의 표상으로, 기독교의 역사에선 그리스도(Christ)의 예표이자 크리스천의 표상으로 설명된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혹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물을 때, 이 둘은 그 해답-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보여준다. 이걸 비릴리오 식으로 표현하면 불안정한 영토를 지키는 것은 갑옷이나 도시가 아니라 시간이고 속도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은 주로 신학적, 영적, 문학적으로 해석되었지만, 시간, 공간, 속도의 관점에서도 해석 가능하다. 폴 비릴리오의 ‘시간, 공간, 속도’ 개념은 두 인물을 구별시키는 믿음(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속성)에 대한 분석의 도구를 제공한다. 말콤 글래드웰이 분석한 다윗의 기동성과 물맷돌의 속도는 비릴리오에겐 테크놀로지이다. 다윗의 물맷돌이 가진 속도와 골리앗의 시력장애를 의학적으로 분석한 글래드웰의 해석은 비릴리오를 통해서 보면 더욱 선명하다. 골리앗은 다윗의 대립자(antagonist)로서 근접전투란 공간에 체화되어 있다. 하지만 다윗은 속도를 가속화하여 골리앗이 차지한 공간을 절멸시켰다. 골리앗이 가진 ‘철’(iron)이란 문명적 우위도 속도 앞에선 무력했다. 비릴리오의 말처럼, “전쟁의 문제란 속도의 문제”(Virilio and Lotringer 157)였다. 이런 시각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이다. 부르심은 아름다웠지만 실천은 혹독했다. 그는 가나안이란 결핍된 땅에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했다. 노마드 인생을 살 때 아브라함에겐 롯이란 동반자가 있었다. 둘은 가나안(Canaan)이란 지리적 공간을 하나님의 언약이란 같은 목적을 붙들고 살

았으나, 아브라함에게 그 공간은 '초록빛 낙원'이 되었지만 롯에겐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언약이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 하지만 롯은 눈에 체화된 현실(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와의 동산 같았던 요단지역)을 선택했다(창 13:10-11). 풍요란 '감각경험의 세계'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는 노마드적 삶을 선택했으나, 롯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요새화된 도시를 선택했다. 불확실함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언제나 이성적 판단을 따라 도시를 선택한다.

믿음이란 영적 가치는 수량화/계량화하기 어렵다. 믿음은 보이지 않은 영적 자질이기 때문이다. 폴 비릴리오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보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인간의 행위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지 드러난다. 시간의 가속화는 테크놀로지의 영역뿐 아니라 믿음에서도 발생한다. 다윗은 속도의 가속화(물맷돌)를 통해 골리앗을 이겼고, 아브라함은 언약이 풍요란 시각기계에 삭제되는 것에 저항함으로써 언약을 지킬 수 있었다. 다윗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눈에 체화된 현실)에 붙잡히지 않았기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적 실재'로 존재한다. 말하자면 "세계 너머에 대한 지각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세계, 즉 지구 전체는 작아지[는 것이다]"(비릴리오, 2006:58). 이 두 사람은 지각장을 확대하여 경험적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차원(믿음)을 찾아낸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가장 원대한 비현실(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시간의 가속화로 공간을 절멸시킴으로써, 비현실이란 미래적 사건을 현재화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동국대학교)

■ 주제어

폴 비릴리오, 다윗과 골리앗, 아브라함과 롯, 시간, 공간, 속도

■ 인용문헌

- 권희영. 「아브라함: 존재와 시니피앙」. 『라강과 현대정신분석』 14.2 (2012): 27-48. Print.
- 글래드웰, 말콤. 선대인 역. 『다윗과 골리앗』. 파주: 21세기 북스, 2014. Print.
- 기수현. “아브라함의 선조들 이야기의 문학적 접근.” 『신학전망』 136 (2002): 101-130. Print.
- 김서택.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서울: 홍성사, 1998. Print.
- 던, 마르바. 전의우 역. 『안식』. 서울: IVP, 2001. Print.
- 바우만, 지그문트 & 레오니다스 돈스키스. 최호영 역. 『도덕적 불감증』. 서울: 책임는 수요일, 2015. Print.
- 박진옥. 「김청기 감독의 <다윗과 골리앗>과 성경의 서사 비교」. 『만화에 니메이션 연구』16 (2009): 125-140. Print.
- 배영달. 「폴 비릴리오: 속도, 기술, 사고」. 『탈출속도』. 서울: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179-197. Print.
- _____. 「폴 비릴리오: 속도와 현대세계」. 『프랑스문화연구』20 (2010). 147-173. Print.
- 비릴리오, 폴. 이재원 역. 『속도와 정치』. 서울: 그린비, 2004a. Print.
- _____. 김경은 역. 『소멸의 미학』. 서울: 연세대 출판부, 2004b. Print.
- _____. 배영달 역. 『탈출속도』. 서울: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Print.
- _____. 배영달 역. 『동력의 기술』. 서울: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7. Print.
- 신성환. 「폴 비릴리오(Paul Virilio)의 전쟁론과 시각 테크놀로지의 상관성 - 영화 <허트 로커(The Hurt Locker)>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66 (2012): 245-280. Print.
- 아감벤, 조르조. 윤병언 역. 『행간』. 서울: 자음과 모음, 2015. Print.

- 안수현. 『그 청년 바보의사』. 서울: 아름다운 사람들, 2009. Print.
- 엄원식. 「다윗의 전기(傳記)에 대한 분석적 비판: 전투적 메시아니즘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9 (2000): 109-135. Print.
- 정의진. 「정보화 사회와 속도: 폴 비릴리오의 속도조절정치」. 『인문학논총』 25 (2011): 23-49. Print.
- 제임스, 이안. 홍영경 역. 『속도의 사상가 폴 비릴리오』. 서울: 엘피, 2013. Print.
- 주은우. 「속도, 시각, 현대성: 시각체제의 변동과 비릴리오의 질주학적 사유」. 『한국사회학』 47.4 (2013): 1-34. Print.
- Achtner, Wolfgang. "Time, Eternity, and Trinity." *Neue Zeitschrift für Systematische Theologie und Religionsphilosophie* 51.3 (2009): 268-288. Print.
- Armitage, John, ed. *Paul Virilio: From Modernism to Hypermodernism and Beyond*. London: Saga, 2000. Print.
- _____. "From Modernism to Hypermodernism and Beyond: An Interview with Paul Virilio." *Theory, Culture & Society* 16.5-6 (1999). 25-55. Print.
- Bartholomew, Craig. & Goheen, Michael. *The Drama of Scriptur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4. Print.
- Bartram, Rob. "Visuality, Dromology and Time Compression: Paul Virilio's new ocularcentrism." *Time & Society* 13. 2-3 (2004): 285-300. Print.
- Billington, Clyde. "Goliath and the Exodus Giants: How Tall Were The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0.3 (2007): 489-508. Print.
- Brueggemann, Walter. *Genesis*.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2. Print.

- Curzer, Howard. "Abraham, the Faithless Moral Superhero." *Philosophy and Literature* 31.2 (2007): 344-361. Print.
- Hays, J. Daniel. "Reconsidering the Height of Goliath."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8.4 (2005): 701-714. Print.
- Jacobs, Louis. "Time and Eternity." *Judaism* 18.4 (1969): 458-463. Print.
- Kaplan, David. ed. *Reading in the Philosophy of Technolog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14. Print.
- Kellner, Douglas. "Virilio, War and Technology." *Theory, Culture & Society* 15.5-6 (1999): 103-125. Print.
- Monroe, Margaret. *The Old Testament and Our Times*. NY: Longmans, 1960. Print.
- Niehaus, Jeffrey. "Covenant and Narrative, God and Time."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3.3 (2010): 535-559. Print.
- Reviv, Hanoach. "Early Elements and Late Terminology in the Descriptions of Non-Israelite Cities in the Bible." *Israel Exploration Journal*. 27.4 (1977): 189-196. Print.
- Ricket, Dan. "Rethinking the Place and Purpose of Genesis 13."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6.1 (2011): 31-53. Print.
- Thommesen, Jacob. "Virilio: From Space to Time, From Reality to Image." *ephemera* 3.2 (2003): 147-155. Print.
- Virilio, Paul. *Esthétique de la Disparition*. Galilée: 1989a. Print.
- _____. *War and Cinema: The Logistics of Perception*. New York: Verso, 1989b. Print.
- _____. *The Vision Machine*. N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Print.
- Virilio, Paul, and Lotringer, Sylvère. *Pure War*. Trans. B. O'Keefe (second edition). New York: semiotext(e), 1983, 1997. Print.

• 폴 비릴리오의 '시간, 공간, 속도' 개념을 통해 본 성경 담론 분석 | 이정일

Winterson, Jeanette. *The Passion*. London: Vintage Books, 1987, 2001.
Print.

Yadin, Azzan. "Goliath's Armor and Israelite Collective Memory."
Vetus Testamentum 54.3 (2004): 373–395. Print.

■ Abstract

Reading the Biblical Discourse through the Concepts of ‘Time, Space, Speed’ by Paul Virilio: Focusing on ‘David and Goliath,’ and ‘Abraham and Lot’

Lee, Jeong-Il (Dongguk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wo biblical narratives of ‘David and Goliath’ (First Samuel 17) and ‘Abraham and Lot.’ (Genesis 13). These two narratives are often retold to inspire people to stand firm in faith. This paper develops an argument about David and Abraham, and relates it to a philosophy of technology. For this, the concepts of ‘Time, Space, Speed’ by Paul Virilio are used to argue that (a) David uses a sling as a speed machine to fight against Goliath, and (b) Abraham’s choice to trust the promise of God shows that he sees the promise of God from the perspective of eternity. What makes David admirable is not only his faith but also his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ccording to Virilio, time has conquered space. Military technology (the sling used by David) offers an example of why the acceleration of speed matters. The shrinking of space by time brings us to the power of speed, which encourages us to rethink visuality as an active, embodied practice that comes from one’s trust in the Word of God. If we think of visuality (or wealth, prosperity) in terms of eternity, where consideration can be given to the promise of God, then it is possible to explain Abraham’s choice on the promise of God

over land in Genesis 13. Ultimately, it is important to possess speed or time, and furthermore, to control speed or time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form of showing physical and spiritual power. If we accepts Virilio's concepts, then we no longer have faith in what we see with our own eyes. The visual things such as heavy armor (Goliath), choice of land (Lot) blind us to other realities represented by David and Abraham.

■ Key Words

Paul Virilio, David and Goliath, Abraham and Lot, Time, Space, Speed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고통과 자기 긍정

이형민 · 조희정

I. 서론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를 읽는 기존의 비평 중에는 프로스트의 시적 화자가 보이는 다면성에 초점을 맞춘 작업이 많다. 특히, 프로스트가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대중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것을 지적하면서 프로스트의 화자가 가진 복합적 특성을 풀이한 연구 성과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렌트리키아(Frank Lentricchia)는 프로스트가 1913년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시인이 되고 싶다”(I want to be a poet for all sorts and kinds, 64)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프로스트가 『아틀란틱』(*The Atlantic*)을 읽는 독서 대중들에게 편하게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난해한 시를 쓴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의 인정을 갈구했다(66)고 지적한다. 리처드슨(Mark Richardson)도 마크 트웨인(Mark Twain)과 프로스트를 비교하면서, 트웨인이 대중적 인기를 끈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일반 독자의 읽기와 비평가에게 기대하는 읽기의 간극 때문에 고민한 것처럼 프로스트에게도 유사한 과제가 부여되었다고 설명한다(2).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프로스트 시의 화자는 일반 대중에게는 간단한 교훈을 전달하는 인물로

읽힐 수 있지만 보다 진지한 독자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단순한 교훈을 해체하기 위한 비판적 매개로 사용되는 어리석거나 기만적인 인물로도 읽힐 수 있다.

이는 프로스트가 사용한 이중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강신욱의 「로버트 프로스트의 대표 시들 다시 읽기-이원론을 중심으로」와 이삼출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초상: 로버트 프로스트 초기 시의 화자들」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강신욱은 프로스트가 대중들에게 폭넓게 사랑받으면서도 흔히 오해를 받는 이유를 “이원론이라는 그의 철학적 견해가 그의 글쓰기와 사유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아 “이원론에 입각한 프로스트 대표 시들 다시 읽기”(4)를 시도하였는데, 이런 독해 방식은 렌트리키아가 지적한 프로스트의 전략에 대한 이해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삼출은 그의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렌트리키아의 독법을 프로스트의 다른 초기 시들에 넓혀 적용해 봄으로써 프로스트를 “모더니스트로 출발한 시인으로 재조명”(98)하고자 하였다.

프로스트는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인이 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 “평범한 독자에게 전적으로 명확해 보이는”(Lentricchia 83) 시를 쓰는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물론, 프로스트가 실제 자신의 시에 그러한 전략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아가서 이러한 전략에 대한 고려가 프로스트의 시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논의와는 별개로 프로스트의 이중적 전략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프로스트의 많은 작품과 작품 내 인물, 특히 시적 화자가 지닌 양면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스트의 시에서는 화자의 진술과 그에 결부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시에서 형상화되는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애매성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 편안하게 시에 다가가고 싶어 하는 독자에게는 프로스트의

화자가 완전히 명확해 보이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느껴질 수 있으면서도, 그 메시지를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 또한 함께 열어두는 것이 프로스트의 적지 않은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 특징인 듯하다.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인물이 가진 복합성은 그 동안 프로스트를 일종의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읽기 위한 전제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런 틀에서 벗어나 있는 비평의 경향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프로스트의 시가 가진 특성을 복합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앞서 소개한 연구들과는 설명 방식과 방향성 등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연구들도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예로 커닝햄(John Cunningham)의 「프로스트의 세계에 나타난 인간의 존재」(“Human Presence in Frost’s Universe”)를 들 수 있다. 커닝햄은 프로스트 시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가 가진 허무성에 주목하면서도 그 허무성만을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맨얼굴인 것처럼 대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허무한 노력 속에서 가치가 발견될 수 있으며 프로스트의 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커닝햄의 연구는 프로스트의 시가 덧없는 노력 속에서도 동시에 영웅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을 등장시킨다는 점을 잘 보여준 연구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다른 연구들처럼 프로스트 시가 구축하는 인물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또한, 커닝햄의 논문은 그 동안 많이 회자되어온 프로스트 시적 세계의 모더니즘이라는 틀을 벗어나 프로스트의 시에 담긴 인간의 노력을 보다 따뜻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프로스트의 시적 인물들이 보이는 모습과 특성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고독의 정서를 나타내는 시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일차적 이유는 프로스트의 시에서 고독한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단일한 색으로 채색하지 않은 시가 많기 때문에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고독의 속성

을 읽어나가는 것이 프로스트 시의 애매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작업으로서 유의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스트의 시 중에서는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처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시로 읽히고 대중적으로 사랑받아 온 작품들이 있는 한편, 「밤을 알고 있는」(“Acquainted with the Night”)과 같이 고독한 정서가 주류를 이루면서도 많은 주목을 받아 온 시들도 있다. 「가지 않은 길」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시로 읽혀 왔던 반면에, 「밤을 알고 있는」처럼 고독을 주선율로 삼는 것으로 보이는 시는 주로 삶에 대한 긍정적 애착이 부재한 시로 읽혀 왔던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프로스트의 시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고독의 정서를 전달하지 않는 시에서도 깊은 고독이 감지되고, 그 반대로 매우 고독한 자아를 표현한 듯한 시에서도 궁극적으로 자신을 긍정하는 인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고독의 정서가 감지되는 프로스트의 몇몇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긍정적 요소에 대한 탐구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자기 긍정적 요소에 주목하는 것은 이런 요소가 한편으로는 자기애를 특징으로 하는 독단성과 기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홀로임을 인식할 때조차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본 논문은 프로스트가 저술한 시 중 가장 유명한 시들을 포함하여 총 일곱 편의 시, 「나를 찾아서」(“Into My Own”), 「자아를 찾는 사람」(“The Self-Seeker”), 「가지 않은 길」, 「한번만은, 그때에, 무언가가」(“For Once, Then, Something”),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밤을 알고 있는」, 「적막한 장소」(“Desert Places”)를 중심으로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고독의 다중성을 살피면서 그 속에 드러난 자기 긍정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¹⁾

1) 본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선별된 일곱 편의 시들은 고독의 다면적인 특성들

II.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고독의 다층적 의미

프로스트의 첫 시집 『소년의 의지』(*A Boy's Will*, 1913)에서 첫 번째 시로 수록된 작품 「나를 찾아서」의 화자는 홀로 숲으로 들어가기로 꿈꾸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시는 aabb ccdd eeff gg의 각운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정통 소네트 형식과는 어긋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네트 형식과 친연성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정통적인 소네트 형식에 변형을 주는 것은 이 시만이 아니라 프로스트의 많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의 경우 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정통 소네트와는 달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전체적 내용이 형식적인 변형과 미묘하게 연결되는 듯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시의 화자는 “나는 억압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날인가/ 그 광활함 속으로 도망쳐 떠날 것”(I should not be withheld but that some day/ Into their vastness I should steal away, ll.5-6)²⁾이라고 말하면서 홀로 자신의 길을 가기를 꿈꾼다. 소네트에서 강조점이 오는 마지막 2행 연구에서도 화자는 “그들은 그들이 알았던 그로부터 내가 변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전부 사실이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겠지”(They would not find me changed from him they knew—/ Only more sure of all I thought was true, ll.13-14)라고 말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후반부에서 이렇게 강한 자기 확신을 보여 주는 이 시의 첫 연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이다. 특히, 「가지 않은 길」, 「밤을 알고 있는」,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와 같이 폭넓게 사랑받아온 대표작들 중 대중적으로 의미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작품들과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으나 고독한 인물이 자아를 수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나타내는 다른 작품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통합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2)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프로스트의 시는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 Edward Connery Lathem (London: Jonathan Cape, 1972)를 출처로 하여 이후부터는 행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은 상당히 다른 느낌을 지닌 화자의 목소리를 전달해 준다.

나의 한 가지 소망은,
높고 굳어져서 바람 한 점 없는 저 어두운 나무들이,
더는 예전처럼 우울의 가면에 불과하지 않고,
운명의 끝까지 뻗어 있으면 하는 것이다.

One of my wishes is that those dark trees,
So old and firm they scarcely show the breeze,
Were not, as 'twere, the merest masks of gloom,
But stretched away unto the edge of doom. (ll. 1-4)

1연의 화자는 자신의 소망(wish)을 이야기할 뿐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믿음이 없는 화자이다. 그는 숲의 나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들어가야 할 길이 가진 부정적인 가능성도 배제시키지 않는다. 어두운 나무들이 “더는 예전처럼 우울의 가면에 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구절은 화자가 이미 어두운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속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앞으로 홀로 걸어가야 할 길이 가질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하나의 소망에서 시작된 화자의 고백은 시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힘을 얻어가며 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을 긍정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이렇게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화자의 목소리는 프로스트가 자신의 첫 작품부터 고독한 상황에 부여한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

프로스트가 관심을 두었던 고독의 정서는 곁에 말을 걸 존재가 없이 홀로 있기에 생겨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상대방과 소통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생겨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생겨나는 고독감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한 깊은 긍정과 연결된 경우가 많

다. 예를 들어, 1914년에 출판된 시집 『보스턴의 북쪽』(*North of Boston*)에 수록된 「자아를 찾는 사람」은 나무를 켜는 기계에 의해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장애를 얻게 된 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화시로 이런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꽃과 나무를 사랑하여 돌아다니며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화자에게 다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 부분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런 화자에게 다리의 상실은 앞으로 살아갈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가 이 노동자의 비참한 삶에 대한 고발을 넘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시의 화자가 이렇게 지독하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나은 형편에 있는 변호사와 같은 타인은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스스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을 고독하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대화시의 마지막 대목에서 화자는 “당신은 내가 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기차를 놓치겠어요. 잘 가세요.”(You don't know what I mean about the flowers./ Don't stop to try to now. You'll miss your train./ Good-by, ll.237-39)라고 말한다. 화자는 삶을 지탱해 주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대신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면에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인식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대목은 특히 “자아를 찾는 사람”이라는 이 시의 제목과 연결 지어 볼 때 흥미로운 지점으로 보인다.

프로스트의 세 번째 시집인 『산 골짜기』(*Mountain Interval*, 1916)에 수록된 「가지 않은 길」은 프로스트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매우 폭넓게 연구된 작품이다. 이 시는 남들이 흔히 택하지 않은 길을 택했으나 오히려 그러한 선택 때문에 성공한 화자가 들려주는 격언과 같은 시로 대중들에게 읽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시를 세밀하게 독해해 보면, 이 시의 화자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작품

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자의 성공을 중심으로 이 시를 해석하는 것은 독자가 이 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긍정적인 결말에 대한 기대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 선택이 모든 차이를 초래했다”(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l.20)는 시의 마지막 행에 강조점을 두고 중의적 의미를 지닌 “차이”라는 단어를 성공으로 치환시켜 이해하게 될 때 이 시를 성공한 화자의 이야기로 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행 이전에 등장하는 “먼 훗날 한숨 쉬며 말하리라”(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l.16)와 같은 표현에 주목하여 시를 해석해 보면, 이 시의 화자가 반드시 성공한 화자가 아닐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이 시는 세속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한 화자가 아니라 그저 한 평범하고 고독한 화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를 담아서 들려주는 이야기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2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이 사람들이 밟은 흔적을 비슷한 정도로 보여 준다는 사실을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두 길을 지나다닌 정도는 사실상 거의 같았다”(“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ll.9-10)고 밝힌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연에서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고, 그 선택이 모든 차이를 초래했다”(“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ll.19-20)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미 시의 이 지점에서 거의 비슷하게 보이던 두 길은 “사람들이 덜 다닌 길”과 그에 대조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로 화자의 인식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프로스트를 미국적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강조한 렌트리키아는 「가지 않은 길」의 화자가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으로부터 이어져오는 자기의존(self-reliance)의 메시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인물인 듯 보이면서도 자주적인 자아에 대한 미국적 신화를 향한 은밀한 공격의 매개로

사용되는 화자로도 읽힐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화자의 시술은 분명한 “불일치”(이광운 112, 재인용)를 보이고 있으며,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에 젖어 있는 감상적인 미국인들이 이 시를 읽고 싶어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화자에게 모순적인 면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사실 이 시의 전개 과정에서 화자의 발화에 서로 다른 시제가 사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별다른 모순이 없다고 생각된다. 예전에 화자 앞에 놓여 있었던 두 길이 거의 유사했다는 것은 화자가 현재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설명하며 펴는 주장이다. 반면에,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는 표현은 앞선 주장과 동일한 시점에서 자신의 진술을 부정하면서 단정 짓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주 먼 훗날 어디에선가”(“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1.17) 자신이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이 시의 중요한 초점은 화자가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실제로 어떤 인생의 지점에 도달할 것인지에 놓여 있다기보다는 화자가 자기 자신의 선택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인생의 경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가 고독의 정서를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사실 첫 연의 1-3행은 화자의 고독한 모습을 부각시키는 면을 가진다. 1행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할 때 사용되는 “두”(two)라는 단어는 3행의 “한”(one)과 대비되면서 화자의 홀로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해 주는 효과를 낸다. 단순히 문법적 기능을 위해서라면 부정관사(a)를 사용하여 “한 여행자”(a traveler)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스트는 “한 명의 여행자”(one traveler)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덩그러니 혼자인 느낌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하나의 몸을 가진 화자는 “유감스럽게도 한 번에 두 길을 갈 수 없고”(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1.2), 따라서 홀로 고심하면서 둘 중 한 길을 택해야 했던 것이다.

결국, 이 시의 화자는 미래에 가서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the one less traveled by)이었다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결과적으로 고독하

게 된 길을 걸어왔지만 처음에는 비슷한 두 길 중 하나를 우연히 택했을 뿐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선택이 우연으로 인해 적막한 길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신의 특별함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길을 택한 것이었다는 내용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하게 될 것임을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화자는 “나는”(I)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망설이면서, “나는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하리라/ 이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언젠가/ 숲에 두 갈라진 길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택했다고”(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ll.16-19) 말하리라 예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화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화자이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미부여를 하려는 의지에 의해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가 실제 사실과는 어느 정도 달리 구축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통찰력 있는 화자로도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사실과 차이를 가지면서 스스로의 선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내러티브가 형성될 때 자기기만과도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반면에 후회와 외로움의 늪에 빠지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긍정하며 살아나갈 이유를 찾게 할 수 있다는 밝은 측면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를 엄밀히 따져보면 낙관적인 방향으로 독해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음에도 주로 성공을 긍정하는 시로 회자되어 온 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에게서 느껴지는 초라하지 않은 당당함과 차분함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뚜렷한 화자의 자의식은 「한번만은, 그때에, 무언가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1917년 프로스트가 프랑코니아(Franconia)에 거주할 때 쓴 이 시는 『하퍼즈 지』(*Harpers Magazine*)를 통해서 1920년에 최초로 출판된 뒤 『뉴 햄프셔』(*New Hampshire*, 1923)에 수록되었는데, 표면적으로 전

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독자가 화자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가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상당한 애매성을 띠고 있다. 이 시는 맨 처음에는 “우물”(Well)이라는 제목을, 그 다음에는 “빛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Wrong to the light)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만은, 그때에, 무언가가」가 되었다고 한다(Tuten & Zubizarreta 119). 결국 확정된 시의 제목이 나타내듯이, 이 시에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장소인 우물이나 그가 향하고 있는 방향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한번만은 보았음이 확실하다고 믿고 싶은 화자의 욕구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 언저리에 무릎 꿇고 앉아 왔다고 나를 비웃는다.

항상 빛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앉아 있어서,

빛나는 수면 위 영상으로 여름의 천상에서 신 같은 자태로

고사리와 구름뭉치로 만든 화관의 밖으로 내다보고 있는

나 자신을 물이 되돌려 보여 주는 곳보다

더 깊은 우물 속은 절대 보지 못하는 나를.

Others taunt me with having knelt at well-curbs

Always wrong to the light, so never seeing

Deeper down in the well than where the water

Gives me back in a shining surface picture

Me myself in the summer heaven godlike

Looking out of a wreath of fern and cloud puffs. (ll. 1-6)

화자가 이 시에서 자신의 고독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 행에서 타인들의 비웃는 시선에 노출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내는

부분은 고독한 화자가 느끼는 자기 연민의 정서를 전해 준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서 비웃음을 사는 화자가 바라본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신과 같은 자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얼핏 보기에 아이러니컬한 느낌을 준다. 화자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 할 때, 독자는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매혹된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소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화자는 한편으로는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아도취적인 자아상에 빠져들면서,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의 간극 속을 맴돌고 있다.

그런 화자가 우물 속에서 어느 날, 한 때,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모습을 넘어서”(beyond the picture, l.8)라고 말했다가 이를 곧바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Through the picture, l.9)라고 정정한다. 이 부분에서 화자는 자신이 목격한 무언가가 화자 자신의 상(reflection) 밖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 자체로부터 발견한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러나, 화자는 발견한 이것을 곧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의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화자가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은 자아를 들여다보는 행위가 더 높은 차원의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나타낸다. 화자는 그가 발견했다 놓친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지닌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는 않는다. 마지막 2행에서 “그 하얀 것은 무엇이었나?/ 진실? 석영 조약돌?”(What was that whiteness?/ Truth? A pebble of quartz? ll.14-15)라고 말하면서 화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독자는 화자가 발견한 것이 흔한 “조약돌”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의식하게 된다. 여기서 화자는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하얀 것”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여 단순히 호기심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약돌”을 보았을 뿐인데 어떻게든 자신의 인식에 의미부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앞서 인용한 마지막 두 행에서 이어지는 물음표들은 화자의 인식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보여주면서 화자가 이 “하얀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물음표로 나타난 질문들에 이어서, 제목과 동일한 마지막 행의 “한번만은, 그 때에, 무언가가”(For once, then, something, 1.15)는 콤마의 사용을 통해 세 단어들을 서로 끊어진 상태로 나열한다. “콤마의 사용은 소리 내어 읽을 때 속도를 늦추게 만들어”(Faggan 123) 각각의 단어에 분명한 강조점이 찍히게 한다. 또한, 마지막 행 뿐 아니라 시의 7-15행에서 계속 콤마의 사용이 많은데, 이는 1-6행에서 콤마가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는 이탤릭체로 강조되고 있는 “한번”(Once)으로 시작되는 7행부터 화자가 알아차렸다고 생각하는 무언가에 대한 서술이 시작된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콤마의 잦은 사용은 화자의 경험의 의미를 강조해 주어 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나칠 수는 없는 어떤 특별한 것으로 강조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해석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이 시에서 화자가 왜 이처럼 구체성이 결여된 “하얀 것”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바로 더 깊은 곳을 보지 못하는 자신을 타인이 비웃는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자신이 발견한 “하얀 것”을 놓친 과정에 대해 “물이 너무 맑은 물을 꾸짖으려고 찾아와서”(Water came to rebuke the too clear water, 1.11) 사라지고 말았다고 해석하는 부분은 그의 심리를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어쩌면 화자는 자신을 “맑은 물”과 연결 지음으로써, 희고 티 없는 진실처럼 대단한 것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싶었던 것일지 모른다. 이런 인식은 화자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밖으로 끌어올려서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발견한 것이 자신에게는 “진실”이면서도 타인에게는 단지 “조약돌”로만 보일 어떤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는 끝내 타자에게 이해받

을 수 없는 자신만의 자아상에 따른 화자의 고독함을 다룬 시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여 자아상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담은 궁극적인 자기 긍정의 시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같은 시집에 실려 있는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는 매우 널리 사랑받아 온 시인데, 이 시에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의 화자가 있다.

이것이 누구의 숲인지 알 것 같다.
그래도 그의 집은 마을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 멈춰서 눈 덮이는
그의 숲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다.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His house is in the village though;
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 (ll, 1-4)

이 시의 화자는 어느 저녁 홀로 고독하게 눈 내리는 숲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다. 화자는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지”(But I have promises to keep, l.14)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의식하고 있지만, 그에게 이 숲을 빠져나와서 타인과 함께하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느낌은 내용상으로도 나타나지만 시의 형식적인 구조를 통해서도 강조된다. 이 시는 매우 규칙적인 운율(meter)과 각운(rhyme)을 가지고 있어서, 약강구조 4보격(iambic tetrameter)의 운율과 aaba 형태의 각운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 4행으로 이루어진 한 연에서 세 번째 행만 다른 소리로 끝나는 규칙적인 각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를 소리 내어 읽으면 예측 가능한 운율이 형성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연인 4연에서는 aaba

각운 구조에 변형이 오게 되는데, 이는 4연의 마지막 두 행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여러 마일을 가야 하지,/ 그리고 잠들기 전에 여러 마일을 가야 하지”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ll.15- 16)라고 완전히 동일한 두 행이 반복될 때, 이 두 행은 반복을 통해 강조되는 것에 더해서 규칙적이던 각운 구조에 변화를 줌을 통해 소리의 측면에서도 다른 행들보다 두드러지게 된다. 이 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형식적 변화와 내용적 반복의 맞물림은 마지막 행들에 독자가 특별히 주목하도록 하면서, 돌아가야만 한다고 되뇌는 화자의 심리를 부각시키고 그가 이 장소를 떠나기가 쉽지 않음에도 애써 마음을 다잡는 듯한 느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고독하게 홀로 숲에 서 있는 화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힘들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는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다”(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l.13)라는 행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에서 화자가 숲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숲의 경이로운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화자가 온전히 숲에 매혹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런 매혹을 죽음에 대한 충동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블룸(Herold Bloom)이 설명하듯이, 실제로 많은 비평가들이 이 시를 죽음, 심지어 자살에 대한 시로 읽어 온 바 있다(Little 194).

하지만, 화자가 숲에 대한 생각에 이렇게 취해 있는 이유를 이 시의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 시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의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서 있는 숲이 “누구의 숲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타인을 뚜렷이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번만은, 그때에, 무언가가」의 1연이 화자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이 시에서도 첫 번째 연은 화자의 사고와 감정을 규정하는 것이 타자에 대

한 그의 인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빛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우물 안을 들여다 보던 「한번만은, 그때에, 무언가가」의 화자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 시의 화자도 다른 이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숲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확인하려 한다. 1연의 3-4행에서 화자는 “내가 여기에 멈추어 서서 눈 덮이는 그의 숲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할 것”(He will not see me stopping here/ To watch his woods fill up with snow)이라고 말한다. 집주인이 눈 덮인 숲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말에는 집주인이 자신과는 달리 이런 풍경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화자의 가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자기기만적인 화자가 독자로 하여금 집주인을 돈만 아는 사람으로 근거 없이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이삼출 109), 이 시의 화자가 집주인이 자신이 보고 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눈 내리는 숲의 풍경에 이미 익숙해져 있을 집주인에게는 이런 숲의 모습이 대단한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화자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을 화자가 이렇게 시의 첫머리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화자는 집주인처럼 숲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한 마리 말 외에는 동행하는 벗도 없는 상황이다. 광활한 숲 속에서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는 화자는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숲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동시에 화자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는 과정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화자가 숲 자체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이 장소에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그 깊고 어두운 곳이 화자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숲 속에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지켜보고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으며, 눈 내리는 숲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 시는 이처럼 홀로 서 있는 화자의 감정과 사고를 통해 화자의 고독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화자의 서술에서 자신을 깊이 긍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감지할 수 있는 시로 읽힐 여지를 갖는다.

『서쪽으로 흐르는 개울』(*West-Running Brook*, 1928)에 수록된 「밤을 알고 있는」은 고독의 어둡고 쓸쓸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시로 읽혀져 왔지만, 이 시에서도 자기 긍정의 메시지가 발견된다. 이 시의 화자는 홀로 밤길을 걷는 외로운 화자인데, 그가 혼자라는 점은 「가지 않은 길」에서도 그러하듯이 “하나”(one)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강조된다. 첫 연의 첫 행을 이루는 “나는 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I have been one acquainted with the night, l.1)는 이 시의 마지막 행에도 반복되면서 텍스트의 첫머리와 끝머리를 장식하는 중요한 문장이다. 이 시에서도 문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불필요한 “하나”(one)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화자가 홀로 존재하는 상태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읽어 보면 흥미롭게 느껴지는 점은 화자가 고독한 자신의 존재를 비참하게 그리지 않고 무언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혹은 적어도 그렇다고 믿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밤을 알고 있는」의 화자는 우울증에 휩싸여 있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화자라도 흔히 읽힐 만큼 깊은 고독을 겪는 인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자가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주목하면서 스스로의 존재 양식을 긍정하는 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예컨대, 「밤을 알고 있는」이라는 제목만 보더라도 프로스트가 화자가 낮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밤을 알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알고 있다”는 표현도 일방향의 앎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acquainted with)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일방적인 앎이 아닌 밤과 화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부각되는 효과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완료형의 거듭된 사용에서도 화자의 삶의 양식에 주목하게 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알릴 때 첫 문장에서 현재완료형을 일회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시에서는 현재완료형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³⁾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서 들려주는 내용이 한 때의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연속된 시간적 길이를 지니고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임을 암시하는 느낌을 준다.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부각하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현재완료형의 사용을 통해 강조된 지속성의 효과는 화자가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혼자일 것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뒤집어 보면 이 시의 화자가 스스로에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상황에 중지부를 찍을 만큼 우울하고 비극적인 고독의 수렁에 빠져 있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주고 있기도 하다. 현재완료형의 사용으로 화자의 고독이 일회적 상황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화자가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의 길을 비슷한 방식으로 걸을 것임을 암시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형식면에서 살펴보자면, A에서 B로 갔다가도 이내 A

3) 그 예로 1연을 살펴보면 “나는 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나는 빗속으로 나 갔다가 비를 맞으며 돌아왔다./ 나는 가장 먼 도시의 빛보다 멀리 걸었다”로 해석 될 수 있는데, 원문에서 모두 현재완료형을 사용하였다. (I **have been** one acquainted with the night./ I **have walked out** in rain—and back in rain. / I **have outwalked** the furthest city light, ll.1-3). 이러한 특징은 2연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

로 돌아오는 이 시의 3운 구법(terza rima)형식도 이 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Cunningham 270)느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패건(Robert Faggen)이 지적하듯이, 영어로 된 시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3운 구법 형식을 사용한 이 시는 14행이면서도 소네트와는 매우 다른 느낌을 전해 주면서 화자의 목소리에 단테(Dante)의 『신곡』(*The Divine Comedy*)을 연상시키는 권위를 부여해 준다(36). 또한, 화자가 반복적으로 현재완료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를 이루는 각각의 문장은 “나는 …해 왔다”(I have…)로 시작되는 강약격(trochee) 형식의 패턴을 보이게 된다(Cunningham 270). 현재완료형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형을 사용했다면 일반적으로 동사에 강세가 주어지면서 소리 내어 읽을 때 주어인 “나”(I)에는 강세가 주어지지 않았겠지만, 현재완료형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과 중 하나가 바로 각 문장에서 “나”가 강세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화자는 밤길을 홀로 돌아다니는 고독한 인물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 온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더 먼 경계』(*A Further Range*, 1936)에 실린 「적막한 장소」도 앞서 논의했던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처럼 눈 오는 밤을 형상화한 시이다. 이 시는 화자의 내면에 대한 묘사로 인해 고독한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시인데, 얼핏 보기에는 단지 ‘가장 두려운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자신이다’라는 진부한 메시지를 주는 시로도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이 없는 별들 사이의 빈 공간으로는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집과 훨씬 더 가까운 나의 내면에,

나 자신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적막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

They cannot scare me with their empty spaces
Between stars—on stars where no human race is,
I have it in me so much nearer home
To scare myself with my own desert places. (ll. 13-16)

화자는 별들 사이의 광활한 공간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 공간이 집(home)과 훨씬 더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화자는 광활한 자연, 나아가서는 우주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상징되는 눈 오는 밤의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공간은 화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여기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거대한 공간이다. 이 공간에 대해 자신을 “두렵게 만들 수 없다”고 단언하는 화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화자가 이 광경을 일반적으로 두렵게 느낄 만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곧이어 화자는 자신과 우주 사이에 유비를 형성하여 한없이 작은 자신의 내면에 자신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적막한 장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대목에서 화자는 감정이 생겨나는 원천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독함의 참 속성을 드러낸다. 이 시는 외적 환경보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에 집중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가장 적막한 공간에서도 그 공간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긍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포이리어(Richard Poirier)가 설명하듯이, 이 시의 화자는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기록조차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147)을 이겨 내는 강한 “자기 확신”(146)을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III. 결론

한 소년의 고독한 죽음을 그린 프로스트의 「밖으로, 밖으로-」(“Out, Out—”)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었으므로 각자의 일로 돌아갔다”(And they, since they/ Were not the one dead, turned to their affairs, ll.33-34)라는 구절이 보여주듯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한다. 나와 타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넓은 세상에서 혼자임을 직시하게 될 때 개개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프로스트의 시에서는 종종 이런 적막함과 고독함을 경험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이런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긍정하는, 혹은 긍정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는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객관적으로 처한 상황 속에서 감지되는 위험성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본 논문은 프로스트의 모든 작품을 총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일곱 편의 시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초기시에서 후기시로 이어지는 과정을 대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아를 탐색하면서 고독을 맞닥뜨리는 화자가 고독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화자로 변모해 가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시들에 등장하는 프로스트의 화자들이 고독을 경험하게 된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결국 혼자가 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프로스트 시의 화자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하면서도 모두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인식에 기반하여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월래스(Patricia Wallace)가 지적했듯이 “많은 프로스트의 시에서 홀로 있음은 자연이나 사회와의 뚜렷이 제한적

인 관계를 암시”(3)하지만, 프로스트 시의 고독한 인물은 타자와 구별되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타자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완전히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자기애가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고 보았으며(Gill 66), 프로스트 시의 고독한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자기애적 요소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긍정과 함께 타자에 대한 인식을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로스트 시의 고독한 인물들은 세계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면서도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내는 생동감을 잃지 않는다. 광활한 숲 속에서, 혹은 지독히 외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밤 길 위에서, 화자는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동시에 타자에 대해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궁극적인 자기 긍정으로 변화시켜 간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일곱 편의 시들은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잘 드러내면서 프로스트 시 속의 고독한 화자들이 지닌 입체적인 모습을 예시해 준다 하겠다.

(중앙대학교)

■ 주제어

로버트 프로스트, 고독, 자기 긍정, 시적 화자, 개인적 서사

■ 인용문헌

- 강신욱. 「로버트 프로스트의 대표 시들 다시 읽기—이원론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40.3 (2014): 1-25. Print.
- 이광운. 「프로스트의 초기 시와 소통의 시학」. 『신영어영문학』 52 (2012): 153-70. Print.
- 이삼출. 「프로크루스테스의 초상: 로버트 프로스트 초기 시의 화자들」. 『비교문화연구』 31 (2013): 95-118. Print.
- 주미란. 「로버트 프로스트 시의 운율 양상 연구」. 『영어영문학 21』 25.1 (2012): 93-112. Print.
- Cunningham, John. “Human Presence in Frost’s Universe.” *The Cambridge Companion to Robert Frost*. Ed. Robert Faggan. Cambridge UP, 2001. Print.
- Davenport, W. A. “Robert Frost: The Work of Knowing.” *English* 28.132 (1979): 276-280. Print.
- Faggan, Robert.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Robert Frost*. Cambridge: Cambridge UP, 2008. Print.
- Frost, Robert.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 Edward Connery Lathem. London: Jonathan Cape, 1972. Print.
- Gill, Jo. “Textual Confessions: Narcissism in Anne Sexton’s Early Poetry.”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50.1 (2004): 59-87. Print.
- Hinrichsen, Lisa. “A Defensive Eye: Anxiety, Fear and Form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31.3 (2008): 44-57. Print.
- Klein, Amelia. “The Counterlove of Robert Frost.”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54.3 (2008): 362-87. Print.

- Lentricchia, Frank. "Lyric in the Culture of Capitalism." *American Literary History* 1.1 (1989): 63-88. Print.
- Little, Michael R. *Bloom's how to Write about Robert Frost*. New York: Chelsea House, 2009. Print.
- Poirier, Richard. *Robert Frost: The Work of Knowing*. Oxford: Oxford UP, 1977. Print.
- Richardson, Mark. *The Ordeal of Robert Frost: The Poet and His Poetics*. Urbana-Champaign: U of Illinois P, 1997. Print.
- Tuten, Nancy Lewis, and John Zubizarreta. *The Robert Frost Encyclopedia*. Westport, CT: Greenwood, 2001. Print.
- Vujin, Bojana. "I Took the Road Less Travelled By: Self-Deception in Frost's and Eliot's Early Poetry." *Annual Review of the Faculty of Philosophy* 36.1 (2011): 195-210. Print.
- Wallace, Patricia. "Separateness and Solitude in Frost." *Kenyon Review* 6.1 (1984): 1-12. Print.

■ Abstract

Solitude and Self-Affirmation in Robert Frost's Poetry

Lee, Hyoung Min · Cho, Heejeong (Chung-Ang Univ.)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multiple levels of meaning conveyed through the poetic speaker's loneliness in Robert Frost's poem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peaker's solitude vary widely, but in most cases, the speaker concentrates on himself in the isolated situation. Also, the solitary experience leads the speaker to become keenly aware of the others' existence, realizing other people's somewhat hostile view of himself. Yet, instead of succumbing to the others' perception, the speaker attempts to interpret the individual experience in his own way and ultimately arrives at the moment of self-affirmation. Some of his earlier poems, such as "Into My Own" and "The Self-Seeker," share similar impulses that allow the speaker to search for his own identity and confront a solitary situation in this process. "The Road Not Taken" displays how the speaker invests his past choice with personal meaning and constructs a positive form of autobiographical narrative. "For Once, Then, Something" highlights the speaker's somewhat proud affirmation of individual experience distinguished from the others' generalized perspective on the world. Frost's later poems, such as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Acquainted with the Night," and "Desert Places," present

extremely isolated circumstances that nonetheless provide the speaker with an opportunity to embrace a precious moment of self-affirmation. Through a careful reading of Frost's poetry, one can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loneliness paradoxically leads to profound experience of self-discovery.

■ Key Words

Robert Frost, solitude, self-affirmation, the poetic speaker, personal narrative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포스트 9·11 시대와 이스트우드주의 : <그랜 토리노>와 <아메리칸 스나이퍼>에 나타난 서부영화의 신화 내면화하기 연구

정 윤 길

I. 들어가며

‘미국 영화의 기적’이라 불리는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는 영화분야의 세계적인 거장으로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백인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들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유명하다. 그의 영화 이력은 유럽에서 제작된 1960년대 스파게티 웨스턴(Spaghetti Western)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세르지오 레오네 (Sergio Leone) 감독의 <무법자> 시리즈인 서부영화 3부작 <황야의 무법자>(A Fistful of Dollars, 1964), <석양의 건맨>(For a Few Dollars More, 1965), <석양의 무법자>(The Good, The Bad, The Ugly, 1966)에 황금을 대신해 납을 파는 ‘이름 없는 남자’로 출연하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1971년 감독으로 데뷔한 이래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 그리고 배우로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거장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영화와 관련된 여러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199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가 수상한 어빙 G. 솔버그 기념상(Irving G. Thalberg Memorial Award)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영화 제작자에게 어빙 G.

솔버그 기념상이 수여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였으며, 더욱이 배우로 영화 인생을 시작한 인물에게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상은 배우, 감독 그리고 제작자로서 30년에 이르는 그의 영화 인생에 대한 헌사(獻詞)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작업을 했던 손 펜(Sean Penn)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만나본 영화 스타 중 가장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I've always said about Clint Eastwood is he's the least disappointing movie star you'll ever meet. Appelo)과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의 “그는 뛰어난 감독이자 위대한 지도자이다. 나는 어디든 그를 따를 것”(Clint is what every great director should be. He is a great leader. And I certainly would follow him anywhere. Huver)라는 평가들은 미국 영화계에서 이스트우드가 갖는 신뢰를 엿볼 수 있다.

이스트우드는 스크린 안과 밖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로서 유명하다. 실제 삶에서의 그와 스크린에 구현된 그의 페르소나를 분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마크 엘리엇(Marc Eliot)에 따르면 스크린 속 그의 페르소나는 첫째, 과거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며 고독 속에서 결연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 두 번째는 <더티 해리>(Dirty Harry)의 해리 캘러햄으로 대변되는 외톨이적인 인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먹을 휘둘러 해결하려드는 레드넥(Redneck)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자신들만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미국 영화의 전형적인 아이콘으로 대변되는 여러 캐릭터와도 닮지 않은 유형의 인물이라는 공통점(Eliot 15-16)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의 이스트우드와 근본적으로 연결돼 있는 캐릭터이다. 특히, 배우로서 <무법자> 시리즈에서 그가 보여준 판초를 걸친 채, 양 미간을 잔뜩 찡그린 시니컬한 눈빛에 시가를 질끈 입에 물고 있는 캐릭터는 지금도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총잡이라는 명성을 유지할 만큼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서부영화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영웅적 주인공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에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세계를 대변하는 하나의 시그니피앙트(significant)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독이자 제작자로서 그의 영화는 스타로서의 지위와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자신만의 독립성을 유지”(카프시스 13)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는 ‘장르주의자’라 할 수 있다. 그가 연출한 작품의 목록을 본 사람이라면 많은 작품, 특히 1990년대 이전의 작품들이 주로 서부나 범죄영화 장르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스트우드에게 있어 영화적 교본이라 할 수 있었던 세르지오 레오네와 돈 시겔(Don Siegel)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작품 세계는 <용서받지 못한 자>(Unforgiven, 1992)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서부영화의 전통이 만들어 온 거짓된 이미지들을 탈신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복적이다”(is subversive in that it aims to demythologize the false picture that the tradition of Westerns has created. Reiff 256)라는 지적처럼 이 영화에서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뿌리와도 같았던 서부영화 장르가 가지고 있던 신화적 궤적을 전복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비평가들은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보여주었던 페르소나에 대해 회의하고 반성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형식의 「백인 남성성의 변화와 다문화 수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의 논의 역시 이러한 흐름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서부영화에 대한 성찰적 태도라는 주제와 그가 서부영화를 더 이상 제작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많은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자신은 어느 것도 뉘우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서부영화와 다시 한 번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그가 장르성을 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내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찰의 기회로 삼으려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변화를 ‘신화적 궤적의 전복’으로만 보기보다는 ‘신화의 현재화’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스트우드의 영화에서 보이는 서부영화의 영웅적 신화 내러티브의 변화를 <용서받지 못한 자> 이후의 작품, 특히 포스트 9·11 시대에 등장한 <그랜 토리노>(Gran torino, 2008)와 <아메리칸 스나이퍼>(American Sniper, 2014)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9·11을 기점으로 삼은 것은 미국 사회 내에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문제의식이 생겨난 역사적 시점이며 이스트우드 역시 이러한 영향 관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내러티브 구조에 있어 두 작품 모두 서부 영화적 장르 안에 있을 법한 삶을 살았던 참전 용사가 ‘이야기 이후의 현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된 상황을 그려내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과정에 다시금 장르적 신화성이 개입하게 되는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두 영화의 내러티브가 만들어내는 감정은 서부영화의 전통적인 장르적 쾌감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스트우드는 서부영화의 장르성을 버리기보다 이것을 운명 같은 하나의 방향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유를 더해가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역사적 변화의 순간에 잊힌 과거의 트라우마를 암시적으로 재연하여 새로운 영웅적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려는 ‘신화의 내면화’¹⁾ 시도임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II. 웨스턴 히어로와 클린트 이스트우드

장르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서부영화의 역사적 변화를 간단히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이스트우드가 대변하고자하였던 서부영화의 영웅적

1) 본 논문에서 ‘신화의 내면화’는 하나의 의식과정을 가리킨다. ‘무의식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특정 신화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쳐 자신이 속한 세계와 개인의 경험을 비교, 대조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축적하고 형성하는데 있어 정신적, 심리적 기제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됨을 의미한다.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부영화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에드윈 S. 포터(Edwin S. Porter)의 〈대열차 강도〉(*The Great Train Robbery*, 1903)를 그 시작으로 삼고 있다. 초창기 서부영화는 사람들의 정착으로 인해 마을과 도시가 만들어지는 개척의 과정 그리고 광활한 대지와 황야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요소로 활용되었으며 “리얼리티가 결여된 그저 이야기를 전하는 수준”(헤이워드 330)이었다. 당시의 주인공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정착과정이 담아내는 문명화와 이와 반대되는 자연—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등장하게 된다. 자연과 문명, 인디언과 백인, 야만과 공동체의 수호라는 이분법적 가치가 중심적인 주제가 된 것이다. 카우보이로 상징되는 주인공은 여성에 의해 주로 재현되는 문명을 거부하고 황야에서 떠돌아다니기를 갈망하는 인물들로 거친 열정과 완고한 개인주의를 드러내며 미국식의 개척자 정신이라는 신화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신화적인 영웅으로서의 카우보이와 같은 서부영화의 전통적 소재는 무법자와 보안관을 영웅으로 묘사하였던 1860년대 싸구려 서부 소설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헤이워드 332). 무법자를 영웅시하는 이 같은 흐름은 링컨주의적 신념에 근거해 국가주의를 신화적 가치로 내포하려는 시도들과 결합하면서 존 포드(John Ford)의 〈철마〉(*The Iron Horse*, 1924)나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의 〈무법자〉(*The Outlaw*, 1943)들을 거치면서 유지되었다. 이러한 영화들에서 무법자는 거대한 지배자들에 대항해 개인의 권리를 재확인시켜주는 인물로서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악당들에 맞서는 외로운 보안관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비판적인 성격의 새로운 유형의 서부영화가 등장하게 된다. 먼저 ‘모던 웨스턴’을 들 수 있는데, 이 영화들은 전통적인 선과 악의 대결과 같은 구도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전통적인 서부영화의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비판하였으며 백인들에 의한 서부 식민화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서부영화의 영웅들은 이전보다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정신분석학이 도입되어 심리적인 동기의 비

중이 커진 ‘심리적 웨스턴’의 모습을 특징으로 하였다(헤이워드 332). 대개 지나간 특정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은 채 고독한 삶을 살아가며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분열된 페르소나를 지닌 느와르적인 주인공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메카시즘과 같은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미국식 정의와 미국 사회를 고발하려는 의도를 지닌 〈하이 Noon〉(*High Noon*, 1952), 〈자니 기타〉(*Johnny Guitar*, 1954)와 같은 작품들도 있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떠돌이 유랑자로서 우연히 한 마을에 들르게 되고 그곳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홀연히 사라진다. 이러한 모습은 8,90년대 이스트우드의 작품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 때 할리우드 장르영화를 대표하였던 서부영화는 1960년대에 이르러 서서히 대중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의 서부영화는 폭력 미학이 강조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사회적으로 검열의 폐지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은 폭력적이고 부패한 미국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고전 서부영화들이 말하는 개척자 정신과 도전정신이라는 신화 그리고 단결된 국가라는 신화가 자신들의 현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무렵 변형된 서부영화의 형태인 스파게티 웨스턴이 등장하게 된다. 스파게티 웨스턴의 흥행은 전통적 서부영화와의 차별성에 기인한다. 주로 “파격적인 미장센, 예측을 뛰어넘는 서사구조와 등장인물의 선악구도의 붕괴, 전통적인 주제로부터의 이탈 등”(이형식 66)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선과 악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주인공은 전혀 영웅적이지 않으며, 대사보다는 액션 장면이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된다. 이러한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들은 특히, 1960년대 반전 운동과 히피 운동 등 당시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미국 사회의 반문화적 경향과 맥을 같이하면서 “신비스럽고 영웅적으로 포장된 고전적 서부극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 성찰”(Krites 140)을 수행한 것이다.

이 시기 서부영화를 상징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무법자〉 3부작을 통해 TV 배우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영화배우로 급성장한 이스트우드였다. 그가 스크린을 통해 보여준 영웅은 찡그린 눈, 시가를 물고 있는 입, 무표정한 얼굴과 침묵 그리고 공허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닌 캐릭터였다. 작품 속 영웅은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악당을 처리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제거한 악당들에 비해 그가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배신하는 행위와 같이 전통적인 서부영화의 영웅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인다. 가령 〈황야의 무법자〉에서 ‘이름 없는 사나이’는 그저 자신의 목적에 충실할 뿐이며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도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정의와 법’의 영역일 뿐”(이형식 67)이다. 이러한 영웅의 모습은 3부작의 마지막인 〈석양의 무법자〉에 이르러서는 치명상을 입어 목숨이 위태로운 복군 장교에게 독주를 한 모금 권하며 연민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좀 더 인간적이고 겸손한 총잡이”(Hughes 72)로 변화한다.

스파게티 웨스턴 이후 미국에서 몇 편의 서부영화에 출연하였던 이스트우드는 〈더티 해리〉 시리즈를 통해 이전까지 황야에서 악한들에게 총을 겨누던 모습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범인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해리 켈라한 경사로 등장한다. 이 인물을 통해 이스트우드는 스크린에 구현된 자신의 페르소나가 갖는 “어두운 면을 꺼내 놓고는”(Eliot 215) 페르소나의 밝은 면과 즐거운 악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켈라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멋지게 해내고 있긴 하지만 범인을 잡는 수사방식은 제멋대로이며 대부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있다. 점보 핫도그를 씹으며 은행 강도들에게 마치 남근처럼 생긴 특대형 매그넛 44구경을 쏘아대는 그의 모습은 “무법자-영웅”과 “무자비한 남성성”(Cornell 2)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었다. 카엘(Pauline Kael)같은 비평가는 “〈더티 해리〉 시리즈는 파시스트적이고 비도덕적인 영화”라고 비판하였으며, 이스트우드는

“단지 그녀가 동의하지 않는 다른 도덕”(최을영 39 재인용)을 담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리는 마초 같은 이러한 모습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를 겪은 당시 미국에서 일어난 신보수주의 정책과 맞아떨어졌다.

웨스턴 스파게티에서부터 시작하여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가 스크린에 구현해낸 페르소나는 다분히 마초적인 영웅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부 영화 전체의 마초 컬트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Jeffords 186)이라 이야기되는 작품인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러한 궤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작을 담아내고 있다. 앞선 영화에서 남성적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름 없는 사나이’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늙고 지친 채 살인을 일삼던 과거를 뉘우치고 결혼 후 가족들과 농장에서 돼지들을 키우면서 성실한 인간으로 갱생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가 다시 총싸움으로 돌아온 것은 아내가 죽은 후 아이들을 키울 돈이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이 총잡이인 자신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돈이 필요하여 총을 다시 잡았지만 창녀들의 어려운 상황에 연민을 보내며 심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주인공 윌리엄 머니의 인간적 고뇌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던 이야기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그가 다시 예전의 무자비함으로 돌아가, 상대들을 처단하고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부 영화가 지니는 전통적인 장르적 쾌감을 가져다주는 전통으로의 회귀를 보여주기도 한다. 영화에서 폭력적이고 섬뜩한 클라이맥스는 “캐릭터와 숙명은 하나이자 같은 것”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의는 사악할지도 모르고 사악한 것이 정의”로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Eliot 425).

분명 ‘이름 없는 사나이’와는 다른 캐릭터를 그려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스트우드 자신이 구현해왔던 기존의 페르소나가 가지고 있던 폭력성을 반성하고 정화하려는 주제의식을 새로이 제시해보려는 시도로만 읽기에는 너무 결정론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

트우드는 자신이 갖던 장르적 신화성을 버리고 그것을 전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다시 동원하며 새로운 성찰의 계기”(Reiff 259)로 삼고자 한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늙은 총잡이인 윌리엄 머니의 삶의 여정이 죽음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폭력성으로 돌아가 적들을 죽이고 홀연히 자신이 살던 마을을 떠나는 것과 같이 “장르의 전통적 신화성을 다시 끼어들게”(정한석)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분명 이스트우드가 이전의 마초적 모습의 페르소나에 대해 분명 변화나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9·11 이후에 제작된 이스트우드의 작품에 한층 더 분명하고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서사적 측면에서 작품 속 여성인물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제적 측면에서 이것은 포스트 9·11 시대에 미국의 보수주의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이스트우드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Ⅲ. 〈그랜 토리노〉

2008년 7월, 이스트우드는 여섯 번째 〈더티 해리〉 시리즈라는 소문이 돌았던 작품의 촬영을 시작한다. 하지만 《가디언》(*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의 “경관에게는 정년이 있습니다. 65세에 은퇴를 했을 겁니다.”(There are certain age limits on police officers. They’d have retired me out at 65.)라는 이스트우드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으며, 그는 〈그랜 토리노〉를 관객 앞에 내놓는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작품 속 그의 연기를 “필생의 연기”(performance of a lifetime, Morgenstern)라고 평했으며, 《뉴욕 옵서버》(*New York Observer*)의 앤드류 새리스

(Andrew Sarris)는 “그는 내가 아무리 최상급의 형용사를 동원하더라도 완벽하게 묘사할 수 없는 인간적이고 지적이며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편협한 노인을 연기하며 감독과 배우 양쪽의 커리어를 마무리한다.”(“... caps his career as both a director and an actor with his portrayal of a heroically redeemed bigot of such humanity and luminosity as to exhaust my supply of superlatives.”)라고 평가하였다 (Hughes 89 재인용). <그랜 토리노>에는 이스트우드의 다른 영화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다. 시작 부분의 장례식 장면은 <용서받지 못한 자>를 떠올리게 하고 월트(Walt)가 타오(Thao)를 도와 일자리를 구해주는 장면은 <밀리언 달러 베이비>(Million Dollar Baby, 2004)에서 매기를 돕던 프랭크를, 그리고 포드 토리노는 <집행자>(Hang 'Em High, 1976)에서 해리가 몰던 자동차이다. 이웃 몽족(Hmong)들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경비초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월트의 집 현관에 나부끼는 성조기는 <아파치의 요새>(Fort Apache, 1948)를 닮아 있다. 주인공 월트 역시 연신 담배를 피워대며 칩 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등 겉으로 보기에 이스트우드가 연기했던 이전의 다른 주인공들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영화의 내러티브적 시간은 한국전 참전이라는 월트의 개인적 경험과 기억이 현재 시간에 개입하여 교차하듯 구성되어 있다. 감독은 두 장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적인 이미지로 제시하기 보다는 동시적인 행위 효과를 가져다주는 인터커팅과 같은 편집을 통해 과거 경험과 관련된 개인 기억이 현재의 특정 내러티브와 충돌하게 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두 시간의 교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의 기억은 현재에서 월트의 한국전까지 확장되어진다. 이는 작품을 통해 미국이 겪고 있는 역사적 변화의 순간에 전쟁이라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암시적으로 재연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보수주의적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디트로이트의 포드 자동차 공장 직원이었으며 ‘1972 빈티지 포드 그랜

토리노'라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홀아비 월트는 반세기 전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서 전쟁 중 끔찍한 살인에 가담했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점은 미국 역사에서 냉전시대 패러다임의 전형이라는 상징성을 갖도록 하며, 영화 속 현재시간인 포스트 9·11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들과의 갈등의 근원적인 배경으로 기능한다. 전형적인 보수적 미국 남성성의 대변자로 그려지고 있는 월트는 잘못된 인종주의적 세계관과 자신과 미국의 옛 가치관을 버려둔 채 훌쩍 앞서가는 현대 문명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이 전부 못마땅한 사람이다. “이웃은 물론 자기 가족도 싫어하며 이웃과 세상이 바뀌는 게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카프시스 442) 인물로서 완고하고 독선적인 노동자의 대명사인 TV 연속극 속의 인물 아치 벅커를 닮은 듯하다. 월트는 이형식의 말처럼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을 연상시키며, 자신이 평생을 통해 지켜 온 나름대로의 윤리와 철학, 그리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지켜내려는 존엄성을 보인다(이형식 71). 그의 세계관은 몽족 무당의 말처럼 과거에 저지른 죄로 인해 현재 삶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한국전쟁에서 겪은 상처로 상당부분 일그러져있다.

영화는 자신만의 보수적인 생활방식과 도덕적 규범을 고집하느라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외톨이가 된 월트와 이웃 사회를 점령한 몽족을 마치 서로의 '거울'처럼 대비시킨다. 이를 위해 감독은 식사 장면 등에서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독립적인 둘 이상의 장면을 시간상의 전후 관계로 병치시켜 두 공간의 갈등 고조를 점증시키는 교차 편집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는 월트가 몽족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된다. 월트에게 몽족의 존재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시간에서 반감의 대상이 된다. 과거 시간에서 그들은 한국전 당시 적군이었던 북한과 중공군을 떠올리게 하며, 현재 시간에서는 일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아들의 상황과 연결되어 백인들이 살던 동네를 점유하고 자신들의 일 자리를 빼앗아가는 이민자들에 대한 위기감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그의 행

동은 미국사회가 갖는 아시아계 이민에 대한 편견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타니아 모드레스키(Tania Modleski)의 주장처럼 9·11 이후 경제의 어려움과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약화 등으로 인한 미국인들의 뿔랑콜리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138-40).

이러한 대비와 더불어 이스트우드는 인물들이 상대의 공간에 들어가고 나옴의 반복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영화 초반부에서 월트는 자신의 집에 타인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 방문(가족으로 대표되는 선한 사람)과 침입(몽족으로 대변되는 악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그랜 토리노를 훔치기 위해 월트의 집에 들어왔던 타오는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기 위해 재방문한다. 그리고 타오의 차량 절도 실패로 인해 갱단 아이들이 월트의 집에 침입하게 되고 월터는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 총을 든다. 타오의 가족들이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장만해서 월트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월터 역시 그들의 집에 초대되어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덧 서로의 공간에 대한 방문은 아주 자연스러워지게 된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 이르러 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 악당의 소굴인 갱단 아이들의 집으로 향한다. 악인의 소굴로 주인공이 찾아가는 것은 “결투의 신청이자 오래된 서부극의 장르적 피날레”(정한석)라 할 수 있다. 갱단의 소굴로 들어선 월트는 그들을 죽이거나 자신이 죽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월트의 선택은 이전의 이스트우드의 그것 그리고 이 영화의 앞선 시퀀스에서 보였던 자신의 행동—수를 구하는 장면에서 처음 안주머니에서 손가락 총을 꺼내보였다가 곧이어 진짜 총을 꺼내 흑인 아이들의 얼굴에 들이대었던—과는 달랐다. 이 순간 관객들의 머릿속에는 그가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이전 시퀀스의 기억이 ‘이름 없는 사나이’와 같은 과거의 모습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복잡해지게 된다. 갱들을 ‘미니어처 카우보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시늉만을 보인 그가 꺼내려던 것은 총이 아닌 한국전 참전 사단 마크가 새겨져

있는 라이터였다. 결국 그는 이를 오해한 갱들이 쏜 총을 맞고 십자가를 만들 듯 양팔을 뻗으며 쓰러져 죽는다. 갱들의 공간에 대한 월트의 방문은 이전 서부극의 총잡이들이 그랬듯 더 이상의 협상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목격자를 남기려는 죽음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한 월트의 행위는 순식간에 악당들을 해치워버리는 서부 총잡이가 보여주었던 전통적 신화성에 대한 작별이며 자기 반영적 의미를 보인다.

수와 타오에 대한 월트의 태도에서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월트는 타오와 그의 여동생 수를 만나면서 탐욕으로 가득 찬 자신의 가족—월트의 두 아들은 그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안달이고 아내 장례식에서 배꼽티 차림으로 조문을 하던 손녀 애슐리는 번쩍거리는 그랜 토리노에 눈독을 들인다—보다 이들과 더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성 캐릭터인 수와 월트와의 관계는 외골수 같던 그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만능 해결사 같은 착한 아버지의 스테레오타입을 상실한 채 자신의 가족관계에서도 소외된 아픔을 겪고 있는 월트는 수가 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왔을 때, 마치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과 동일시하려는 듯 자신의 손에 피를 낸다. 이전 같았으면 무시하거나 비난하였을 이웃 몽족 소녀의 고통에 대한 이러한 공감 행위는 월트의 변화를 보여준다. 상처받은 여성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힘없는 자들의 아픔과 상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월트가 지금까지 가족 및 이웃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하였던 웨스턴 영웅의 마초 컬트적 행동에 대한 회한이자 도덕적 고민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여전히 월트의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이분법적 카테고리 구조를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월트가 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중재된 시선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있어, 과거 한국전쟁에서의 적에 대한 기억에 몽족 갱들의 이미지가 새로이 자리 잡게 됨으로써 서로 다른 시간의 내러티브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자들과 이에 맞서는 월트라는 이분화된 카테고리의 대조가 반복적으로 재현되어 보편화되고

단순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영화 속 인물은 상징적인 남성 권력의 영향아래 여성인물인 수를 매개로 하여 월트와 수의 가족 그리고 몽족 소녀들이 하나의 형제애로 결속되어 있고, 이들의 반대편에 거세된 혹은 거세되어야만 할 몽족 갱들과 소년들, 아프리카계 건달들이 위치하는 이분화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선과 악으로 이분화된 구조 내에서 적대적 영역에 속해있는 무리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수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의 남성성을 거세하기 위한 남성적 권력의 발현”(정훈 128)으로 전형적인 남성 주체성에 근거한 내러티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월트와 타오의 관계에서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오는 사춘 스파이더가 이끄는 몽족 폭력조직 입단식으로 월트의 차를 훔치려했던 인물이다. 차를 훔치는 것은 분명 절도행위이지만 그 집단 내에서는 ‘진정한 남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일종의 성인식과도 같은 통과의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오는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남자로 인정받기 위해 차를 훔쳐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이는 거세된 남성 즉, 타자가 됨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타오가 절도가 아니라 월트의 유언에 의해 그랜 토리노를 갖게 된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둘의 관계는 남성담론에 근거한 ‘진정한 형제애’의 은유로 작용한다. 자기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권위를 상실했던 월트는 타오에게 ‘좋은 남자’가 되는 방법을 전수해주며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이민자 후손인 타오는 그 역시 이민자 후손이면서 이제는 진정한 미국인이 되어있는 월트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음으로써 남자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정치적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다. 월트는 타오에게 성역할 차이에 기초한 전통적인 남성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전수하고 있는데, 마치 타오에게 부재한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는 듯하다. 이외에도 월트는 타오에게 남녀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 사회생활에 필요한 남자들의 대화법

등과 같은 남성다움의 요소를 전수한다. 그리고 남자는 연장을 사용할 줄 알아야하며 집안의 사소한 고장들은 직접 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타오의 가슴에 달려 있는 월트의 한국전 참전 훈장은 그랜 토리노와 더불어 월트가 백인 중산층 남성권력의 이데올로기를 타오에게 남겨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월트가 젊은 신부에게 죄를 털어놓는 고해성사 장면과 타오를 지하실에 가둬 놓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사이의 대조는 이러한 그의 의도를 잘 담고 있는 것 같다. 월트는 신부를 찾아가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 세 가지에 대해 고백한다. 하지만 실제 자신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한국전쟁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월트가 신부를 찾아 성당에 간 것은 자신의 진정한 죄를 털어놓고 자함이라기 보다는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한 그가 하나의 특별한 의식(儀式)을 치르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의 진정한 고해성사는 이어지는 시퀀스에서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보듯 이 장면에서 격자 철문을 사이에 두고 타오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앞선 성당에서의 고해성사 장면과 상당히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가진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때 어떤 기분이었는가라는 타오의 질문에 아이들에게 총을 쏘았던 과거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진심을 솔직히 털어 놓는다. 그랜 토리노와 훈장을 주며 영혼의 상속인이자 미래라 할 수 있는 선한 아이 타오에게만 자기 식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백인 남성주의적 행동원칙이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월트를 보여준다. 이것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스트우드 감독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스트우드는 장르적 쾌감을 보여주었던 이전의 결말들과는 달리 ‘자기용서와 위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스트우드는 암울하고 서늘한 이 영화에서 다른 인간을 구하기 위해 관계를 맺으려는 압도적인 단 한 번의 시도에서 월트가 보여주는 자기희생의 형태로 자기용서와 위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

만 월트의 자기희생은 자신이 경멸하였던 몽족의 문화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가던 고집스럽고 간직한 백인 노병은 결국 미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야 할 몽족 소년 타오를 구하기 위해 선택한 희생이 기독교 인이 야만인을 구원하는 식의 지나치게 노골적인 반전 플롯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트우드의 변화는 기존 담론의 전복보다는 재구성에 목적이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IV. <아메리칸 스나이퍼>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네이비 실(Navy SEAL) 대원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한 미국의 전설적인 저격수 크리스 카일(Chris Kyle, 1974~2013)이 쓴 『미국의 저격수: 미군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저격수의 자서전』(*American Sniper: The Autobiography of the Most Lethal Sniper in U.S. Military History*)을 바탕으로 제작된 전쟁 영화이다. 크리스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이 영화는 9·11 테러와 이라크전을 역사적 배경으로 전쟁과 그 속에서 크리스가 겪는 전쟁 후유증의 문제를 그려내고 있다. 자서전에서 크리스는 적들은 그저 야만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건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전쟁에서 벌어진 살인행위에 대해 고뇌나 갈등을 보이지 않는 심지어 여러 인터뷰에서 살인이 즐거웠다고 말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자서전 속 크리스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하는 제국주의의 화신과 같은 병사”(강형민 8)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는 그를 한결 인간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얇은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영화 속 크리스의 모습은 그리 영웅적이지 않다. 최고의 군인이지만 집 안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한 가장의 모습에 불과하다. 그는 스스로를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갑자기 고국에 돌아와서는 영웅 대접

을 받게 된 것이며 그런 현실을 부담스러워한다.

서부극의 한 장면처럼 이라크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전통적 서부극의 현대적 변형이라는 맥락 안에 놓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서도 영화는 전통적인 신화와 정서를 다시 재현해내려고 하기 보다는 지금의 미국사회에서 서부극적 영웅의 모습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다. 이스트우드는 절대적인 선악의 구분, 믿음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져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서부극의 일반적 영웅에 대한 자신만의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령, 극 초반부 로데오 경기에서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크리스가 경기 후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불화를 맞게 되는 모습을 이어서 배치시킴으로써 서부극의 영웅적 신화를 내면화하고 있으면서 현재의 시간과 쉽게 공존하지 못하는 크리스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전쟁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전투 장면이나 승리의 환희를 극적으로 그려내지도 않는다. 오히려 카메라 앵글은 다소 무미건조하게 전투신을 담아내며 마치 모니터를 통해 전쟁 게임의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이스트우드는 주인공이 느끼는 모순과 딜레마를 무심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더 이상 서부극적 영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죄 없고 착한 양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악마인 늑대, 착하지만 늑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들인 양 그리고 악마로부터 양을 지키는 양치기 개라는 선악의 구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점과 미국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선한 자와 악한 자라는 이분법적인 신념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영화는 크리스와 미군이 기독교라는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이교도인 이라크인과 이라크반군들을 야만인들과 악마들이라고 타자화 하면서, 마치 자신을 포함한 미군들이 그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슬람교라는 적에 대해 십자군전쟁 또는 성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극화함으로써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을 옹

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구분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이 주인공 크리스의 이념적 바탕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이 갖는 정당성과 우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라크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모든 내러티브가 미국인의 시각에서만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괴로움은 ‘악어의 눈물’처럼 비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자기위안적인 반성에 불과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영화 전체를 보수적 극우주의 혹은 이른바 ‘미국 만세’라고 표현되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영화는 전쟁에 비판적이고 이와 관련된 미국이라는 국가의 행태에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감독으로서 이스트우드는 늘 전쟁 같은 삶을 영화로 다뤄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정치 성향을 영화에 주입시키지 않는다. 자신이 우파적인 판타지 만들기에 일조하는 인물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는 “난 실제 삶에서 폭력을 옹호하지 않는다. 만일 그동안 폭력을 옹호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제 다시 그런 영화는 만들지 않겠다.”(허남웅)고 선언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화산섬 이오지마를 두고 대립했던 미군과 일본군의 입장을 각각의 영화에 담아 연계했던 <아버지의 깃발>(Flags of Our Fathers, 2006)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Letters From Iwo Jima, 2006)와 같은 작품에서 특정 정치 입장에 치우치지 않으며 전쟁의 참혹함과 참전 군인들의 모습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와 관련하여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여러 이유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반대하였음을 강조하며 이 영화가 “저격 그 자체를 미화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주인공 크리스가 후회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전쟁에 대한 반대를 보여 준다”(“... glorifies the sniping itself, but then shows that Kyle has

got some regrets in there. And that's just the way it is. I think it's anti.” Dawson)며 이 영화에 담긴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영화는 매우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의 전쟁터를 묘사하며 최대한 미국 중심주의적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전쟁 영화이면서도 전쟁 장면보다는 그 이후의 삶이 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스트우드는 영화 속에서 전쟁 영웅이나 전설의 저격수의 이미지로 크리스를 재현하기 보다는 전쟁의 피해자로서 전쟁이 어떻게 그와 그의 가족 나아가 미국을 망쳤는지를 그려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4번의 파병을 거치면서 전쟁 기계처럼 변해가는 크리스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쟁의 참혹함과 한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가족의 고통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역 후 참전 군인의 재활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자신이 돕던 퇴역 군인의 손에 죽게 되는 영화의 결말은 이러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다.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미국의 전쟁 영웅인 크리스에 대한 맹목적인 영웅화나 추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참전 군인의 죽음에 대한 성대하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춘 진혼곡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이 싸구려 애국심과 결부되어지는 모습을 차분히 꾸짖으며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와 스스로 절연하게 하려는 것 같다. 이러한 감독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미군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가족에만 국한되어 크리스와 미국이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전쟁에서 이라크의 저항세력을 포함한 이라크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은 외면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반전 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미국중심의 편향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강형민 30)이라는 주장 역시 타당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영화에서 이스트우드의 고민은 선과 악의 모호함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고민은 “적은 언제나 악당으로 그려지고 우리 편은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모든 것이 흑

과 백으로 나누어지던 시대인데, 전쟁 당사자들에게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카프시스 393)라는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서 미국의 어머니든 일본의 어머니든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식 잃은 비애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듯이 이스트우드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어떤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군인과 그들의 주변 인물들의 비애를 보여주려 한다. 이것을 앵글에 담아내기 위해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전매특허인 ‘시선과 시점 솟’을 사용한다. 사실 이 기법은 서부영화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것인데 이스트우드는 감정과 철학을 담은 시선으로 바꾸어 의미화 하고 있다. 저격 장면이 많은 만큼 영화라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영화에서는 시점 쇼트와 클로즈업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점 쇼트는 특정 인물의 주관적인 견해를 재현하도록 의도된 카메라 기법이다. 이 방식에서 관객은 인물이 보는 것을 본다. 시점이 주인공에게 귀속되면 동정이 되고 적대자에게 귀속되면 공포가 된다(벤 시즐 100). 클로즈업은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나 사고 과정에 접근하도록 해 준다. 감독은 관객이 인물에 근접하면 할수록 관객이 느끼는 동정심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클로즈업 기법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클로즈업이 인물의 내면 공간에 허용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물리적 근접도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소년이 로켓포를 집어들 경우 자신이 저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발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크리스의 마음을 감독은 방아쇠를 당기는 그의 손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잡아낸다. 관객은 크리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 더 가깝게 느끼게 되며 그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감은 단순한 전쟁 오락물이 아닌 내면적 고통을 그리려는 영화의 목적을 관객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크리스는 주로 조준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좁은 시야를 나타내는 조준경은 그간 편협한 사고에만 갇혀 있던 편협한 신념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플래시백 기법의 사용 역시 이를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스트우드는 전투 장면과 회상 장면을 교차시켜 크리스의 심리적 고통과 전후에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소년을 겨누고 있던 장면이 유년시절 크리스가 아버지와 사슴 사냥을 하던 장면으로 바뀌는 부분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플래시백은 내러티브 장치로서 시간상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플래시백은 해당 내러티브 안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주관적인 순간들이라 할 수 있으며 주로 정신 작용이나 역사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마디로 플래시백은 주관적 진실이자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크리스의 유년시절을 보여주는 것은 관객을 그의 비밀을 바라보는 증인의 위치에 놓이게 하고 크리스는 우리들로부터 정신분석을 받는 일종의 환자가 되도록 만든다. 시가전에서 바닥에 떨어뜨려진 크리스의 전화기와 병원을 나서면 전화기로 전투 상황을 고스란히 들으며 고통스러워하는 타야의 모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교차편집은 영화 예고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다. 자신이 겨누고 있는 이라크 소년과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행복해하는 타야의 모습처럼 전쟁터의 상황과 미국에서의 상황이 연속적으로 등장함으로써 그가 겪고 있는 내면적 갈등을 극대화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저격수인 크리스와 무스타파의 관계 설정을 들 수 있다. 이스트우드는 크리스와 그가 사살하였던 적의 최고 저격수인 무스타파의 만남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저격수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놓인 한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두 사람은 서로 반대편에 속해있지만 각자의 신념에 따라 저격수가 되어 전쟁터에서 적으로 만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가족과 국가를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적에게는 악마이지만 자기편에게는 영웅이라는 공통의 운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란 비극적 사건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

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복수심의 순환으로 만든 최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양치기 개가 되려고 전쟁에 나선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지옥으로 내몰린 어린 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 영화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나타난다. 이라크 전쟁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전쟁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반성 없이 가해자 집단의 개인과 피해자 집단의 개인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거나 혹은 가해자 집단의 개인들이 겪는 고통을 그리는 것만으로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보편화의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가 분명하게 극복될 때 감독이 그리려는 옅고 그림이 사라진, 삶과 죽음만 남겨진 세계로서의 전쟁과 그것으로 인해 평범한 삶을 빼앗긴 채 유령처럼 살아가는 개인들에 대한 책임, 국가의 의무와 윤리 등에 관한 질문들이 합당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V. 나오며

9·11 이후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가운데 〈그랜 토리노〉와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모티프 측면에서 총, 폭력 그리고 신화적 영웅과 같이 서부극의 전통적 요소들이 스토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부극에서 고독한 총잡이로 등장할법한 참전용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영화 속 현재의 시간은 그들에게 ‘이야기 이후의 현실’과도 같은 새로운 환경이며 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두 작품에서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즐거움을 위한 폭력은 찾아보기 힘들며 인물들 역시 그리 영웅적이지 못하다. 심지어 모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러한 구성은 이스트우드 영화의 정서적 모태라 할 수 있는 전통 서부극에서 개인주의에 근거해 무법자를 처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당당히 맞서며 스스로의 존엄과 독립심을 공고히 하

는 개인 윤리의 화신처럼 그려졌던 주인공의 모습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포스트 9·11 시대 미국의 역사와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스트우드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스트우드는 <용서받지 못한 자> 이후 더 이상 서부영화를 만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그 장르와의 사랑을 멈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장르적 쾌감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방식이 많이 사라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영화 깊은 곳에 있는 흐름에는 장르정신의 흔적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것을 마치 중력처럼 받아들이면서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유를 더해가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랜 토리노>에서 월트는 과거에 저지른 죄로 인해 현재 삶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한국전쟁에서 겪은 상처로 상당부분 일그러져있는 인물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윤리를 지켜내려던 그는 자기희생과 같은 죽음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악당들을 해치워버리는 서부 총잡이가 보여주었던 전통적 신화성에 대한 작별이며 자기 반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전쟁 영웅인 크리스를 통해 전쟁이란 비극적 사건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복수심의 순환으로 만든 최악의 결과물이며 그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영화 모두 전쟁과 폭력,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쟁에 대한 의미구조 속에서 파악되기보다는 잊혀진 트라우마나 그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9·11과 같은 미국의 역사적 변화의 순간에 한 개인의 죽음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이라크 전쟁까지 미국이 겪었을 국가적 트라우마를 암시적으로 재연하고 미래의 미국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영웅적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려는 이스트우드의 ‘신화의 내면화’ 시도라 생각된다.

■ 주제어

클린트 이스트우드, 신화의 내면화, 서부영화, 〈그랜 토리노〉, 〈아메리칸 스나이퍼〉

■ 인용문헌

- 강형민.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American Sniper*에 나타난 제국주의 담론에 대한 탈식민주의 연구」. 『현대영미드라마』 29.1(2015): 5-33. Print.
- 이형식. 「백인 남성성의 변화와 다문화 수용: <그랜 토리노>의 정치성」. 『문학과 영상』 17.1(2016): 65-85. Print.
- 정한석.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밀리언달러 베이비’ 1」. 『씨네21』. n. pag. Web. 1 Nov. 2016.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28916>
- 제니퍼 밴 시즐. 정재형 역. 『영화영상 스토리텔링 100』. 서울: 책과 길, 2005. Print.
- 최을영. 「삶을 꿰뚫는 영원한 카우보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인물과 사상』 3 (2009): 39-47. Print.
- 허남웅. 「적은 그를 악마라, 우린 영웅이라 부른다」. 『시사저널』. n. pag. Web. 2 Nov. 2016.
<<http://v.media.daum.net/v/20150119170107461?f=o>>
- 카프시스, 로버트 E. 김현우 역. 『클린트 이스트우드-거장의 숨결』. 서울: 마음산책, 2013. Print.
- 헤이워드, 수잔. 이영기, 최광열 역. 『영화 사전-이론과 비평』. 서울: 한나래, 2012. Print.
- American Sniper*. Dir. Clint Eastwood, Warner Brothers. 2015. Film.
- Appleio, Tim. “Sean Penn on His Serial-Killer Fan and the State of Hollywood.” *The Hollywood Reporter*. 3 Sep. 2015: n. pag. Web. 4 Nov. 2016.
<http://www.hollywoodreporter.com/news/sean-penn-his-seri>

al-killer-779987

Cornell, Drucilla. *Clint Eastwood and Issues of American Masculinity*.

New York: Fordham UP, 2009. Print.

Dawson, Jeff. "Dirty Harry comes clean." *The Guardian*, 6 June. 2008: n, pag. Web. 5 July. 2016.

[〈https://www.theguardian.com/film/2008/jun/06/1〉](https://www.theguardian.com/film/2008/jun/06/1)

Dockterman, Eliana. "Clint Eastwood Says *American Sniper* Is Anti-War." *Time* 17 Mar. 2015: n, pag. Web. 5 July. 2016.

<http://time.com/3747428/clint-eastwood-american-sniper-anti-war/>

Eliot, Marc. *American Rebel: The Life of Clint Eastwood*. New York: Three Rivers Press, 2009. Print.

Feinberg, Scott. "Clint Eastwood: "I Was Against Going Into the War in Iraq"." *The Hollywood Reporter*, 8 Dec. 2014: n, pag. Web. 4 July. 2016.

<http://www.hollywoodreporter.com/race/clint-eastwood-i-was-going-754761>

Gran Torino, Dir, Clint Eastwood, Warner Brothers, 2008. Film.

Hughes, Howard. *Aims for the Heart: The Films of Clint Eastwood*. London: I.B. Tauris, 2009. Print.

Huver, Scott. "Angelina Jolie's (Surprise!) Tribute to Clint Eastwood." *People*, 28. Oct. 2008: n, pag. Web. 4 July. 2016.

<http://people.com/celebrity/angelina-jolies-surprise-tribute-to-clint-eastwood/>

Jeffords, Susan. *Hard Bodies*. New Brunswick: Rutgers UP, 1994. Print.

Kitses, Jim. *Horizons West: The Western from John Ford to Clint Eastwood*. British Film Institute, 2007.

- Kyle, Chris. *American Sniper: The Autobiography of the Most Lethal Sniper in U.S. Military History*. New York: Harper, 2013. Print.
- Letters from Iwo Jima*. Dir. Clint Eastwood. Warner Brothers, 2006. Film.
- Modleski, Tania. "Clint Eastwood and Male Weepies." *American Literary History* 22.1 (2009): 136-58. Print.
- Morgenstern, Joe. "'Gran Torino' Is Perfect Vehicle for Eastwood." *The Wall Street Journal*. Dec. 12, 2008: : n. pag. Web. 1 July. 2016.
<http://www.wsj.com/articles/SB122903195437199459>
- Reiff, Michael C. "The Subversive Jonah Hex: Jimmy Hayward's Revision and Reconfiguration of a Genre." *Undead in the West: Vampires, Zombies, Mummies, and Ghosts on the Cinematic Frontier*. Eds. Cynthia J. Miller & Bowdoin Van Riper. Maryland: Scarecrow Press, 2012. 253-67. Print.
- Unforgiven*. Dir. Clint Eastwood. Warner Brothers, 1992. Film.

■ Abstract

Post-9/11 and Eastwoodism :
A Study on Internalizing the Myth of Western Films in *Gran Torino* and *American Sniper*

Jeong, Youn-Gil (Dongguk Univ.)

This paper examines Clint Eastwood's attempts to internalize the myth of western films in his works *Gran Torino* and *American Sniper*. To this end, the discussion focuses on how post-9/11 renegotiates national identity and new western hero through its narrative. In *Gran Torino*, Eastwood shows a gesture of so many Western heroes and cops he embodied in the past, that is, taking a gun out of holster and symbolizes the heritage of new American masculinity. *American Sniper* arises from the simple premise of a fight to the death between good guys and bad guys. The film is not quite among them, but much of its considerable power derives from the clarity and sincerity of its bedrock convictions. Eastwood shows that Kyle, for all his personal problems, is not himself the problem, but a symptom of a larger problem. The real problem is with the segment of society that glorifies this behavior as heroic, holding up Kyle in particular as a super-hero. Consequently, I assert Eastwood shows the twisted logic that holds up people like Walt and Kyle as heroes while failing to question the cause or need for war and violence in the first place to demythologize the false picture that the tradition of Westerns.

■ Key Words

Clint Eastwood, Internalizing the Myth, Western Film, *Gran Torino*,
American Sniper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소년이 온다』 이탤릭체의 담화적 특성: 한강과 테버러 스미스

조의연* · 조숙희**

1. 『소년이 온다』 이탤릭체가 왜 연구의 대상인가?

서체 이탤릭체는 영어 글쓰기에서 ‘책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와 같이 문장부호(punctuation)로서의 기능을 갖지만 한국어 글쓰기에서 이탤릭체는 문장부호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이탤릭체는 한국어 글쓰기에서 문장부호로서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그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현대 소설에서 이탤릭체가 한 유명 작가의 문체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올해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바로 그 경우이다. 아래 인용된 문학 대담의 일부는 한강의 작품에서 이탤릭체의 사용이 그의 글쓰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문학적 장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차미령 한강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 이탤릭체도 꾸준히 쓰고 계시고요.

한강 …… 이탤릭체를 처음 쓴 것은 『채식주의자』부터 인데,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그 무렵 쓴 단편들에도 대부분 이탤릭체가 들어왔어

* 제1저자

** 교신저자

요. (문학동네 2013: 138)

한강의 소설에서 이탤릭체가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는 『채식주의자』에 서는 주인공 영혜가 자기 꿈의 회상이나 내면의 독백이 한 장면에 걸쳐 나타나다. 영혜 남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서술되다가 장면이 별표 *의 부 호로 분리되고 영혜의 시점으로 전환되어 영혜가 서술한다. 아래와 같이 영혜 자신의 꿈에 대한 회상은 이탤릭체로 표현되고 있다.

*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헤치느라고 얼굴에 팔에 상처가 났어. 분명 일행과 함께였던 것같은데, 혼자 길을 잃었나봐. …… 내 얼굴이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 그 생생하고 이상한, 끔찍하게 이상한 느낌을. (두번째 중략은 한강 원본의 일부임. 『채식주의자』 18-19)

이러한 이탤릭체가 작가 한강의 소설 글쓰기에 처음 ‘들어온’ 것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2007년 단행본으로 출판된 『채식주의자』이다. 그러나 발생빈도나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채식주의자』에서는 전체를 구성하는 3장 가운데 1장에서만 발생하며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4년 발표된 『소년이 온다』에서는 발생빈도나 기능 면에서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¹⁾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이 온다』에서 사용된 문체로서의 이탤릭체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1) 발생빈도의 측면에서 『채식주의자』에서는 약 8회에 걸쳐 나타나며 형식에서는 위와 같이 *표로 분리된 한 장면에서 한 문단 또는 대부분 둘 이상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의 측면에서도 주인공 영혜가 자신의 꿈 혹은 과거 기억의 회상이나 내면의 독백에 국한되어있다. 한편, 『소년이 온다』에서는 주인공 동호의 독백 뿐 아니라 회상은 물론 등장인물들의 목소리, 예를 들어, 친구 정대의 회상에서부터 직접 발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보인다.

유표성(markedness)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이탤릭체는 한국어 글쓰기에서 매우 유표적(marked) 현상이지만, 영미 언어권에서 이탤릭체는 문장부호로서 쓰일 뿐 아니라, 소설에서도 강조(prominence)의 기능으로서 수용성이 높은 무표적(unmarked) 현상이다. (Douglas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소년이 온다』에서 이탤릭체의 발생빈도보다 영어 번역 텍스트 *Human Acts*에서 이탤릭체의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²⁾

본 연구에서는 작가 한강의 인터뷰에 나타난 이탤릭체의 특성을 살펴본 후, 『소년이 온다』의 1장에 나타난 이탤릭체의 사용을 중심으로 한강의 원천 텍스트에서 쓰인 이탤릭체의 담화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울러 테버러 스미스(Deborah Smith)의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는 이탤릭체가 어떻게 수용, 확장되어 쓰이고 있는지를 기술할 것이다.

2. 인터뷰를 통해서 본 한강 이탤릭체의 특성

이탤릭 서체가 컴퓨터 서체에서나 가능한 한국어 글쓰기에서 이탤릭체의 용법에 관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이 온다』에 쓰인 이탤릭체의 기능을 분석하기 전에 작가 한강이 자신의 소설에서 쓴 이탤릭체 문체에 관한 그의 직접적 언급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이탤릭체의 특성을 밝히는 첩경이다.

한강은 자신의 소설에 ‘들어온’ 이탤릭체에 관하여 대담의 사회자가 “보통 내적 독백인가요?”라는 질문에 한강(문학동네 2013: 138)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 좀더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말. 정체로 쓸 수 없는 말.

한강에게 자신의 이탤릭체는 소설에서 일반적 서술이 아닌 작가의 깊

2) 이 부분 3.2를 참조할 것.

은 내면에서 감정적 깊이가 다른 것임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이 감정적 깊이가 다른 말은 바로 폭력에 상처받아 “할말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폭력에 상처받은 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장치이다.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영혜는 고기를 안 먹는다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로부터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사자리에서 뺨을 맞고 강제로 입에 탕수육 고기를 쑤셔넣는 아버지의 폭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 순간 영혜는 교차상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손목에 자해를 가한다. 병실에서 영혜는 자신의 내면에 깊게 드리어져 있는 고통을 끄집어내려는 듯 독백한다.

손목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픈 건 가슴이야. 뭔가가 명치에 걸려있어. 그게 뭔지 몰라. 언제나 그게 거기 멈춰 있어. 이젠 브레이저를 하지 않아도 덩어리가 느껴져. 아무리 길게 숨을 내쉬어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

어떤 고통이, 울부짖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아버지로부터, 남성으로부터, 가부장적 폭력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영혜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가 한강의 이탤릭체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한강의 이탤릭체는 그의 문학에서 고통을 말하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 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깊은 고통을 드러내는 담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년이 온다』 또한 폭력으로 인해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 폭력은 다름 아닌 국가가 군인들을 동원하여 시민을 학살하고 고문한 5.18 국가폭력이다. 이 소설은 그 폭력 앞에서 무기력할 정도로 처참하게 죽은 ‘동호’와 ‘정대’의 고통을, 망가진 시체들을 수습하다, 살아남으려 살아남은 것이 아니어서 죽은 사람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은숙’의 고통을, 고문과 폭행을 몸 속 깊이 지닌 채 살아가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진수’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증언할 수 없는

폭력을 치유하지 못한 채 떠도는 ‘선주’의 고통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막내 아들 동호의 주검을 묻고도 떠나 보내지 못하는 ‘엄마’의 고통에 대한 것이다. 이 소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고 죽어간,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을 이야기 하고 있다. 작가 한강은 이 고통의 소리를 이들에게서 듣고 이들의 고통에 대해 쓰기 위하여 “(제) 자의식을 지우고 최대한 그 목소리들이 되려고만 했다”고 말한다(씨네 21).

그 고통에 대해서 쓰면서 한강은 여기서도 ‘정체’로 쓸 수 없는 말이 많았던 모양이다. 『소년이 온다』에서 쓰인 한강의 이탤릭체 문체의 특성은 그녀의 증언에서 직접 드러나고 있다. 아래의 대담을 보기로 하자.

씨네 21 시로 먼저 등단을 해서인지, 당신의 소설을 읽다보면 간혹 시를 읽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소설 쓰기와 시 쓰기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인상을 받곤 한다.

소설을 쓸 때 시적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이탤릭체로 쓰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감정의 밀도가 어느정도 차오르면 이탤릭체로 쓰게 되는 것 같다. (필자 강조).

계엄군에게 살해되어 자신의 주검이 다른 사체들과 섞여 트럭에 실려 어디엔가 내버려진 동호의 친구 정대는 몸이 없는 혼이 되어 보고싶지 않은 괴물같은 사체들을 본다. 정대의 혼은 독백한다.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정대의 가슴눌린 울림에 우리는 곧 정대의 혼이 되어 버린다. 내가 정대의 넋이 되어 우리는 이렇게 이탤릭체에 흡입되고 만다. 정대의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닌 정대의 고통을 드러내는 작가 한강의 ‘감정의 밀도’가 극대화된 수사적 장치가 바로 한강의 이탤릭체의 기능이다.

분명 이탤릭체로 말해지는 소리는 내면의 정제된 독백이든, 걱정의 독백이든, 상처어린 회상이든, 기억이든, 분명 독자를 그 세계로 빨려들어가게 한다. 한강 작가의 자의식이 상실된 상태에서 감정이입의 단계를 넘어 작가가 소설의 서술자와 동체가 되어 나타난 서술자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목소리’가 그의 이탤릭체에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탤릭체로 쓰여진 인물들의 내면의 고통어린 감정은 극대화되어 독자들에게 읽힌다.

3. 『소년이 온다』의 이탤릭체의 담화적 특성

3.1 한국어 원작의 경우

3.1.1 고통의 밀도가 극대화된 (내면의) 독백

『소년이 온다』에서 이탤릭체로 쓰인 독백은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감정이 극대화된 독백이다. 1장은 주인공 강동호의 이야기이다. 동호는 친구 정대가 군인들의 총탄에 맞고 쓰러진 것을 목격하지만 군인들에 의해 치워진 그를 찾아 나섰다가 도청 앞 상무대에서 시신들을 수습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수 천명의 사람이 상무관 앞에 모여 살해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 추도식이 열리는 상황에서 한 남성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피를 그냥 덮으란 말입니까. 먼저 가신 혼들이 눈을 뜨고 우릴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라는 반복되는 말에 동호는 저며오는 가슴에 심호흡을 하며 ‘혼한테는 몸은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우릴 지켜볼까.’라고 죽은 사람들의 혼

에 대한 무거운 감정을 혼잣말로 되뇌인다. 이 추도식이 진행되며 비가 쏟아진다. 이에 그 남자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아직 추도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는 먼저 가신 혼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동호는 온몸을 적신 이 빗물과 혼연일치가 되어 ‘혼의 눈물을 차갑구나.’라며 피흘리며 살해된 말 못하는 혼을 몸으로 느끼며 이들을 향한 깊은 고통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같이 동호의 감정이 극대화된 우러의 독백은 아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바지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쓴다.

초를 태워도 아무 소용 없네.

냄새를 건디며 너는 강당에 들어선다. ……

상무관에 가득찬 시취들의 심한 악취를 건디기 힘들어 하며 동호는 고통을 드러낸다. ‘초를 태워도 아무 소용 없네.’라고 작가 한강은 그 고통을 정자체로 쓸 수 없어 이탤릭체로 드러낸다.

이와 같이 ‘감정의 밀도’가 극대화된 동호의 독백은 1장 마지막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동호는 친구 정대가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뛰쳐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몸을 숨겨야만 했던 자신을 심히 자책하고 있었다. 서술자는 이런 동호를 ‘너’로 지시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때 쓰러진게 정대가 아니라 이 여자였다 해도 너는 달아났을 거다. 형들이었다 해도, 아버지였다 해다, 엄마였다 해도 달아났을 거다.

심한 자책감에 휩싸여 있는 동호는 총검에 얼굴이 찢어진 여자의 시신

을 확인하는 노인의 얼굴을 돌아보며 정대를 죽이고 이 여자를 죽인 군인들을 향해, 그리고 달아난 자신을 향해 동호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라고 울부짖듯 속으로 외친다. 이러한 이탤릭체로 쓰인 활자는 동호 내면에 짓이기는 고통의 소리가 되어 곧 우리의 고통으로 공명되어 울린다.

결론적으로 대담에 나타났듯이, 감정의 밀도가 극대화된 자기의 고통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이들의 고통의 의미적 중압감을 이탤릭체는 나타내고 있다.

3.1.2 시점 전환: 등장인물 시점으로의 전환

1장은 3인칭 서술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리고 3인칭 서술자는 주인공 동호를 2인칭 ‘너’로 지칭하고 있다. 이탤릭체로 쓰여진 발화는 주인공 동호의 직접 발화, 또는 다른 등장인물의 목소리이다. 먼저 전자의 경우인, 동호의 직접 발화로 읽히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소설의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비가 올 것 같아’는 동호의 독백에 대한 3인칭 서술자의 직접 인용이다. 즉, ‘비가 올 것 같아.’는 동호의 발화이지만, 동호의 시점에서 직접 발화한 것이 아닌 3인칭 서술자의 시점에서 직접 인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탤릭체 발화인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는 주인공 동호의 시점에서 화자의 직접 발화로 그의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 맥락에 따라 이

러한 발화는 동호의 생각으로, 독백으로, 혹은 회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주인공 동호의 시점에서 발화된 것이다. 이러한 이탤릭체는 3인칭 서술자의 시점에서 동호의 시점으로 전환된 발화이다.

동호는 죽은 정대를 두고온 자책감으로 정대의 정미 누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텅 빈 방을 보며 서있다. 이런 동호에 대해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지금 정미 누나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 온다면 달려나가 무릎을 꿇을 텐데. 같이 도청 앞으로 가서 정대를 찾자고 할 텐데. *그리고도 네가 친구냐. 그리고도 네가 사람이야.* 정미 누나가 너를 때리는 대로 언어맛을 텐다. 언어맛으면서 용서를 빌 텐데.

위의 정자체로 쓰여진 서술은 3인칭 서술로 주어진 생략된 ‘너’이다. 3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동호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탤릭체의 발화 ‘*그리고도 네가 친구냐. 그리고도 네가 사람이야.*’는 정미 누나의 직접적 발화로, 정미는 동생을 두고 온 동호에 대한 질책과 깊은 원망으로 가득찬 목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물론 이는 동호의 회상에서 발생하는 정미의 목소리이지만 작가 한강은 정미의 직접 발화로 그녀의 목소리로 말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3인칭 서술과는 구별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쓰고 있다.

이와같이 이탤릭체의 발화는 3인칭 시점에서 서술되던 이야기가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전환되어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불안, 원망을 그대로 전달한다.

3.2 영어 번역본의 경우

영어 번역본 *Human Acts*에 나타난 데버러 스미스의 이탤릭체는 원천

텍스트보다 확장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량적으로 보면 원천 텍스트의 1장에서는 15회의 이탤릭체의 발화가 출현되고 있으나 목표 텍스트에서는 20회가 출현되고 있다. 이는 33퍼센트에 해당되는 증가 비율로 어떠한 측면에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펴본 결과, 증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는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이탤릭체의 담화적 기능이 확장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문장부호로서 쓰이고 있다. 영어권에서 이탤릭체는 문장부호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소설에서도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Douglas 2007). 후자의 경우, 이탤릭체는 영어의 특징인 운율과 억양 등 구어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문학 텍스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서체이다. Douglas에서 구어의 초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탤릭체로 나타나는 경우는 운율 강세(tonic prominence)로 불린다. 이탤릭체의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서술적 강조(narrative prominence)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는 독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몰입시키기 위하여, 특히 독자들 마음에 강하게 각인되기를 바라는 서술 정보나 발화를 전달하기 위해 쓰인다.³⁾

우리는 영어 번역 텍스트 *Human Acts*에서는 문장부호와 서술적 강조로 쓰인 예를 볼 것이다. 먼저 서술적 강조의 예를 보기로 하자.

3.2.1 담화 기능의 확장: 서술적 강조

원천 텍스트에서 3인칭 서술자는 동호와 그의 작은형에 대한 동호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력이 약한 동호는 그의 작은 형을 기억하며 그의 형이 자기를 데리러 도청에 와서 한 말을 회상하는 순간을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3) 또 다른 하나의 용례로 '내포 인용'(embedded quotation)으로 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는Douglass(2007: 6)을 참조하기 바람.

너는 눈을 크게 떠 본다. …… 언젠가 안경을 맞춰야 하려나. …… 여름이면 콧잔등을 타고 자꾸 안경이 흘러 내린다고 …… 작은 형이 그랬는데. 더 이상 눈이 안 나 빠져서 안경을 안 쓸 순 없을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당장 집에 들어와.

단단히 화가 나 있던 작은형의 목소리를 털어내버리려고 너는 고개를 흔든다.

3인칭 서술자는 동호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작은형의 발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당장 집에 들어와’를 마치 작은 형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듯 자유직접화법으로 작가는 배치하고 있다. 이는 원천 텍스트에서 정자체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데버러 스미스는 이탤릭체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You're going to need glasses before long. Perhaps your sight's as bad as now as it's going to get, and you'll be able to get away without glasses at all?

'Listen to me if you know what's good for you: come back home, right this minute.'

You shake your head, trying to rid yourself of the memory, the anger lacing your brother's voice.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동호를 데리러 엄마와 그의 작은형이 상무대를 왔다. 집에 가자는 말에 이를 뿌리친 동호. 결국 엄마와 작은 형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결국 집에 가자는 작은 형의 화난 말은 동호가 갖는 작은형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다.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는 동호 기억 속의 형의 발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이탤릭체로 전달하고 있다. 돌아가자는 형의 말은 마치 동호의 죽음을 예견이나 하듯이 작은 형의 말은 이탤릭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듯하다.

또 다른 예를 보기로 하자. 건너방에 세들어 사는 친구 정대와 그의 정미 누나가 돌아오지 않는 방을 바라보며 정미 누나에 대한 동호의 기억이 3인칭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다. 그의 기억 속의 정미 누나는 어느 추운 겨울 날 늦게 돌아와 방에 연탄 불이 꺼져 있는 것을 알고는 불을 빌리려고 동호의 방문을 두드린다.

고단한 얼굴로 짧은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는 저어, 연탄불 좀 …… 하고 어렵게 입을 떼었다. 그때마다 너는 점퍼도 안 걸치고 날쌔게 아궁이로 달려나갔다. 불붙은 연탄을 골라 부지깥이째 건네주면 그녀는 고마워 어쩔 줄 몰랐다.

번역가 스미스는 동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조심스러운 정미 누나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호의 기억 속에 있는 정미의 발화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하고 있다. 아래의 예가 이를 보여준다.

Face haggard with exhaustion, short hair tucked behind her ears, *excuse me, the fire ...* it seemed an effort for her just to part her lips. Every time that happened you would spring to your feet and hurry over to the fireplace, pick out some hot briquettes with the tongs and hand them to Jeong-me in a long-handled pan. *Thank you*, she would say, *I don't know what to do.*

특히 원천 텍스트의 ‘그녀는 어쩔 줄 몰랐다’라는 정미에 대한 3인칭 객관적 서술은 번역 텍스트에서 직접화법으로 전환되어 이탤릭체 안의 정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듯하다. 이는 위의 ‘*excuse me, the fire...*’의 정미의 자유 직접 발화와 지속성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번역가는 원천 텍스트에서는 일반 정자체로 서술된 이야기 가운데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동호 기억 속의 형의 발화를 그리고 정미 누나의 발화를 이탤릭체로 강조하고 있다.

3.2.2 문장부호

번역가 스미스는 『소년이 온다』의 1장에 등장하는 노래 가사를 번역 텍스트에서 이탤릭체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는 애국가의 일부이며 다른 하나는 아리랑의 일부이다. 먼저 애국가의 경우를 보자.

ST: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따라 부르다 말고 너는 멈춘다.

TT: *Hibiscus and three thousand ri full of splendid mountains and rivers ...*

You stop singing along with the anthem.

다음은 아리랑의 경우이다.

ST: 시간을 벌기 위해선지, 마이크를 쥔 여자가 이번엔 아리랑을 부르자고 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TT: The woman holding the microphone suggests they all sing ‘*Arirang*’ while they wait for the coffins to be got ready.

You who abandoned me here

Your feet will pain you before you've gone ever ten ri ...

영어권 글쓰기에서 이탤릭체는 문장부호로 특히 책이나 노래 제목은 물론 노래 가사를 나타낼 때 이탤릭체를 쓴다. 이탤릭체의 이러한 사용 규범에 따라,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서에 노래가사를 위와 같이 이탤릭체로 전환하고 있다.⁴⁾

4. 결론

비록 한국어 글쓰기에서 이탤릭체 서체는 사용 규범이 없지만 작가 한강에서는 문체로서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하여 우리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나타난 이탤릭체의 담화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탤릭체의 사용 규범이 존재하는 영어권에서 번역된 한강의 소설에는 이탤릭체가 어떻게 증가하여 쓰이고 있는가를 데버러 스미스의 번역 *Human Acts* 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강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강의 이탤릭체는 고통을 받았으나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이들의 깊은 고통을 그들의 목소리로 말하게 하는 심리적 떨림의 장치이다. 『소년이 온다』 1장에서 3인칭 서술자가 동호를 ‘너’라고 지칭하며 동호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동호의 깊은 심리적 내면의 걱정, 우려, 회한, 복수심이 드러날 때는 동호의 시점으로 전환되어 그의 밀도 높은 감정의 목소리가 기울어진 이탤릭체의 떨림처럼 떨리며 전달되고 있었다. 스미스의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 한강의 원천 텍스트의 이탤릭체는 그대로 보존되었을 뿐 만 아니라, 추가되어 나타났다. 영어권에서 이탤릭체는 서술적 강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서술적 강조의 이탤릭체는 번역텍스트에서 보존된 것이다. 그리고 영어권에서 이탤릭체의 사용이 문장부호로서도 사용되는 규

4) 이에 관한 정보는 아래에 주어진 ‘Writer’s Relief’의 웹 사이트에서 참조하였다.
<http://writersrelief.com/blog/2008/03/properly-format-your-titles-underlines-italics-and-quotes/>

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애국가와 아리랑의 노래 가사는 번역 텍스트에서 이탤릭체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번역자 스미스가 자신의 해석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등장인물, 정미 누나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원천 텍스트의 정자체를 이탤릭체로 변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학교·신한대학교)

■ 주제어

이탤릭체, 『소년이 온다』, 한강, 담화적 기능, 서술적 강조

■ 인용문헌

- 김연수. 「한강과의 대화」. 『창작과 비평』 165 (2014): 311-332. Print.
- 이혜경, 한강, 차미령. 「간절하게, 근원과 운명을 향하여」. 『문학동네』 74 (2013): 102-140. Print.
- 이주현. 「빛나고 꽃피는 그곳으로」. 『씨네』. 2014. Web. 17 Dec 2016.
- 한강. 『채식주의자』. 경기: 창비. 2007. Print.
- 한강. 『소년이 온다』. 경기: 창비. 2014. Print.
- Douglas, Peter. “Encoding intonation: the use of italics and the challenges for translation.” In M. Mahlberg, V. Gonzalez-Diaz and C. Smith, eds. *Proceedings of the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Liverpool, 20-23, July, 2009. Print.
- McAlister, Marg. Writing 4 Success. Web. 17 Dec 2016.
- Saldanha, Gabriela. “Translator styl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The Translator*. 17:1 (2011): 25-50. Print.
- Smith, Deborah. *Human Acts*. London: Portobello Books, 2016.
- Writer’s Relief. Web. 17 Dec 2016. Print.

■ Abstract

Discourse Functions of Italics in Han Kang's Novel 『소년이 온다』 and Its English Translated Text by Deborah Smith

Cho, Eui-Yon·Cho, Sook-Hee (Dongguk Univ.· Shinhan Univ.)

In English narratives italics are used as punctuation conventions which cover titles of books or songs, foreign words and quotations. In addition they are used to emphasize narrative information to highlight their importance to the readers (Douglas 2007). However, unlike English, italics are rarely used by Korean writers. One of the exceptions is Han Kang who has been known to employ italics as one of her styles in her novels since 『채식주의자』 (*chaysikwuiija*) in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what discourse functions are loaded in italics in the novel 『소년이 온다』 (*soyon-i on-ta*) and its translated text *Human Acts* because italics are extensively used in this novel when compared with 『채식주의자』. For this we have examined her interviews to see how the writer herself characterizes her use of italics. It has been found that she uses them to emit the painful voices of the victims or the oppressed in her novels which are deeply located in her deep mind. By examining the cases of italics in detail used in Chapter 1 of the novel, we have found that two main discourse functions of italics are used. As narrative emphasis, one of them is to highlight the painful voices of the main character, Dongho such

feelings as worries, anger, and resentment. The other function of the italics is to change the viewpoint of the story from the third person narrator to the main character.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novel, more cases of italics are found because the two songs in the source text are translated in italics due to one of the punctuation conventions of italics. Moreover, the translator Smith is found to make use of the narrative emphatic function of the italics by adding more cases of italics to highlight the voices of characters, Dongho's brother and Chengdae's sister which reside deeply in Dongho's memory.

■ Key Words

italics, *Human Acts*, Han Kang, discourse function, narrative prominence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Male Characters in *The Great Gatsby* from Perspective on Postcolonialism*

Choi, Chang-Young

I . Introduction

F. Scott Fitzgerald's representative work, *The Great Gatsby* is well known for its connotation of American Dream to the modern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orld of materialism, a token of highly advancement. The background of this work is New York in 1920s, where the American culture was in a transition from the rural social system to urbanism. Fitzgerald defined the Jazz Age, which signaled the mental nervousness of the young people after the World War I (1914-1918): "The word Jazz in its progress toward responsibilities has meant first sex, then dancing, then music. It is associated with a state of nervous stimulation."(Echoes of the Jazz Age 180).

Likewise, by shedding spotlight on the American society which was swept by *The Great Gatsby*, often the times, has been analyzed in the theme of American Dream. This thesis, however, views the novel on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through the relationship the mai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hinhan University Research Fund, 2016.

male characters have with the female characters and points some of their limitations.

Postcolonialism is an academic idea that analyzes, explains and responds to the cultural legacy of colonialism and imperialism. Postcolonialism speaks about human consequences of external control and economic exploitation of a native people and its lands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characters in this novel are centered on the white people that had been occupying the American continen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centered on the mental and cultural colonization situation that still existed even after the material prosperity has come in place since the independence from England.

II. Tom Buchanan's own empire

Tom Buchanan is the university colleague of Nick Carraway, the narrator of the novel, and the husband of Daisy, the heroin. He is the descendent of a very wealthy family, and he enjoys wherever there are rich men who know how to play polo. Tom is defined: “one of those men who reach such an acute limited excellence at twenty-one that everything afterward savors of anti-climax”(*The Great Gatsby* 15).¹⁾

Tom and Daisy's house is located in East Egg ,which is 20 miles away from New York. Their House was even more elaborate than I

1) Only the page number is indicated of the books that have been quoted hereafter.

expected, a cheerful red and white Georgian Colonial mansion overlooking the bay(16).

When Nick visited their house, he says “You make me feel uncivilized, Daisy?” due to the indifferent and chilly atmosphere. To a statement that has not much meaning, Tom replies severely like this “Civilization's going to pieces. I've gotten to be a terrible pessimist about things. Have you read ‘The Rise of the colored Empires’ by this man Goddard?..... This idea is if we don't look out the white race will be utterly submerged. It's all scientific stuff.”(24). According to Nick’s explanation, Tom is bulky and has very aggressive impression on his face. He says, “This idea is that we're Nordics. I am and you are and you are and I — and we' ve produced all the things that go to make civilization — oh, science and art and all that”(25).

Tom asserts that the world, which is dominated by the white people, would one day be taken away by other races if the white men do not collect their minds. Daisy agrees by saying, “We've got to beat them down”(25).

Homi Bhabha asserts on his ambivalence theory, which states that the white colonizers have both the desire for domination and the fear towards the colonized people (Bhabha 51). Tom’s fear is displayed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other human races dominating the white people a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he projects the validity and predominance about the American society centered by the white people. Likewise, as Bhabha argues, Tom is the character that feels the desire for rule and the fears regarding it.

The readers see the absence of goal and a sense of boredom from Tom and Daisy who continue to live on luxurious life without special

work. They do not hav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and have no future-driven dreams. American Dream is explicated as a dream that includes the ideals of liberty, equality, individual rights, rugged individualism, unlimited opportunity, democracy, education, change, progress, and the Christian ethic of love and charity(Gentles 52).

To these two people, who live on pleasures resulted from the huge amount of wealth handed down by their ancestors, the success resulted from Protestant-like frugality and diligence make no sense. By taking advantage of his wealth and power, he cheats Wilson, the car repairman, and gets Wilson's wife, Myrtle, as a mistress. If Daisy and Myrtle were to be compared to land, Tom could be interpreted as a dominating empire by expanding the land.

In the meanwhile, these women also prioritize wealth and pleasure, pursuing peaceful living by being trapped in the huge power of men. In this perspective, Daisy and Myrtle cannot help themselves out of the mental devastation and indolence, continuing the state of being colonized. Myrtle is a woman from low class and says the following about her husband Wilson in front of many other people: "I thought he[Wilson] knew something about breeding but he wasn't fit to lick my shoe"(50). She acts as if she, under fancy dress, was from high class. Such self-deceptive attitude is just a mimic of the high class women, and Myrtle is just putting herself into more tragedy due to the gap from the reality.

Myrtle dies horribly in a car accident committed by Daisy. Although Gatsby, Daisy's former lover, was misapprehended as the culprit and died, Daisy hadn't send a message or a flower and neither could anybody else(225). Tom and Daisy smashed up things and creatures

and then retreated back into their money or their vast carelessness or whatever it was that kept them together (231). This behavior is a symbol of slave to material whose humanitarian aesthetic value lies on money and is indeed the standard of mental deformity.

III. Jay Gatsby's mimicry of empire

In his[Gatsby's] gardens men and girls came and went like moths among the whisperings and the champagne and the stars (55). At least once a fortnight a corps of caterers came down with several hundred feet of canvas and enough colored lights to make a Christmas tree of Gatsby's enormous garden(56).

Most people were not invited to this splendid party. The reason Gatsby threw such party is to let Daisy come to his house. As the son of a tenant family in the poor mid-western area, Gatsby had great desire to become successful since young. When he fell in love with Daisy, a woman from high class, he had to participate in World War I. When he came back from the war, Daisy already left for honeymoon with Tom. Gatsby believed that Daisy left him because he was poor. He then brought up all unjust means to buy a house just in three years. Intentionally he bought a house that was located opposite from Daisy's to be able to see Daisy.

Gatsby prepares everything in perfect state for his reunion with Daisy: On a chance Nick and Jordan tried an important-looking door, and walked into a high Gothic library, panelled with carved English oak, and probably transported complete from some ruin overseas(63).

A stout, middled aged man with enormous owl-eyed spectacles waves his hand toward the book-shelves and shouted them, “I ascertained. They're real.”, “Absolutely real — have pages and everything... — Here! Lemme show you”(63).

Daisy never attended the party, but one day visits Gatsby's house upon the offer from Nick. Gatsby then gets overwhelmed by the appearance of Daisy; he had been dreaming for this moment for a long time. Gatsby opens his two enamel closets and gets out his shirts and shows them to Nick and Daisy. This is an action of governing Daisy in materialistic pursuit of love.

He took out a pile of shirts and began throwing them one by one before us, shirts of sheer linen and thick silk and fine flannel which lost their folds as they fell and covered the table in many-colored disarray. While we admired he brought more and the soft rich heap mounted higher — shirts with stripes and scrolls and plaids in coral and apple green and lavender and faint orange with monograms of Indian blue. Suddenly with a strained sound Daisy bent her head into the shirts and began to cry stormily(121-122).

“They're such beautiful shirts,” she sobbed, her voice muffled in the thick folds. “It makes me sad because I've never seen such-such beautiful shirts before” (122). Gatsby hadn't ceased looking at Daisy as if he revalued everything in his hous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response it drew from her well-loved eyes(120).

In this manner, Gatsby tries to impress Daisy in an attempt to turn back time to five years before. When Gatsby introduced himself to Nick, he told him that his parents had passed away and that he is from

a renowned family in England.

Gatsby gets Dan Cody, the rich man, as his mental spirited father after Gatsby helped him when he was 17 years; but this gets revealed later. By leveraging this, Gatsby eventually earns money by doing this and that for Cody.

On a very hot summer day, Gatsby meet Daisy, Jordan, Tom and Nick at a hotel in New York. Tom has already finished investigating Gatsby secretly, and the three of them, including Daisy, get in a quarrel.

“By the way, Mr. Gatsby. I understand you're an Oxford man.”

“Not exactly.”

“Oh, yes, I understand you went to Oxford.”

“Yes—I went there.”

Tom starts mortifying Gatsby. “This tremendous detail was to be cleared up at last”(166). Tom asked to Gatsby that what kind of a row are you trying to cause in his house. They went out in the open at last and Gatsby was content(167). And Gatsby said to Tom like this. “Your wife doesn't love you ... She loves me”(169).

Gatsby tells Daisy, “Daisy, that's all over now. ... tell him[Tom] that you never loved him”(170) “I never loved him,” she said, with perceptible reluctance and suddenly she threw the cigarette and the burning match on the carpet(171).

Then, she says to Gatsby, “you want too much. I love you now — isn't that enough? ... I did love him[Tom] once — but I loved you too.” she began to sob helplessly(171).

Tom then says, “next they'll throw everything overboard and have intermarriage between black and white”(168), giving mortifying

moment to Gatsby. From Tom's perspective, Gatsby is from very low class, similar to the minor races. This also implies that there is hidden dominance and dominated relationship between them.

Afterwards, Daisy drives Gatsby's car on the way back home. When passing "The Valley of Ashes", Myrtle thought it was Tom that was driving the car; she jumps in the car and gets killed. Gatsby tries to protect Daisy by pretending that it was him that was driving the car. But Tom sets it up so that Wilson misapprehends that it was Gatsby who drove the car that killed Wilson's wife. Then, Gatsby gets killed in his own swimming pool.

Nick visits Meyer Wolfsheimer to seek for the people who could attend the funeral but Meyer refuses to participate in the funeral not to get engaged. Among the party guests, nobody went to Gatsby's funeral except for Owl Eyes who wore owl looking glasses.

Gatsby's father, who came to the funeral after seeing the news article, says in devastation that his son was brilliant since young and had big dreams for success. He also adds that he even hit his son because Gatsby told his dad that he ate like a horse. Gatsby's father shows a book that Gatsby had since young.

On the last fly-leaf was printed the word SCHEDULE, and the date September 12th, 1906. And underneath:

Rise from bed	6.00	A.M.
Dumbbell exercise and wall-scaling	6.15-6.30	"
Study electricity, etc	7.15-8.15	"
Work	8.30-4.30	P.M.
Baseball and sports	4.30-5:00	"

Practice elocution, poise and how to attain it	5:00-6:00	"
Study needed inventions	7,00-9,00	"

GENERAL RESOLVES

No wasting time at Shafters or [a name, indecipherable]

No more smoking or chewing

Bath every other day

Read one improving book or magazine per week

Save \$5.00[crossed out] \$3.00 per week

Be better to parents

(223)

In addition, Gatsby bought his father a house two years ago. Looking Gatsby's care towards his parents, one could know that his character was a kind one. But, the tragedy of Gatsby starts from the point that he was negligent of Daisy being materialistic because he was too emotional and too romanticism-oriented. Likewise, this piece is not only about the Jazz Age; it is an edition how the American dream is betrayed in the wretched society. (Ornestien 54)

How Jimmy Gatz is renamed to Jay Gatsby and live a new life is interpreted as the poor tenant becoming a one-night upstart after meeting with Wolfsheim, a Jewish involved in gang. In the perspective of Hom Bhabha, the relationship with Tom, who is from a high class family that has been wealthy for generations, and Gatsby, who is an upstart, seems to be Gatsby, a former tenant, resisting against the colony represented by Tom through mimicry. "This mimicry is a form of mockery, and Bhabha's post-colonial theory is a comic approach

to colonial discourse, because it mocks and undermines the ongoing pretensions of colonialism and empire”(Huddart 57).

IV. Nick Carraway's distorted duality

The narrator of the piece, Nick Carraway, is a young man from Minnesota in middle east. His family is a very wealthy one by three generations three straight. The Carraway is quite well-to-do family, and it is said that they are the descendents of Dukes of Buccleuch(11). But the actual founder of the family was the brother of the grandfather who settled there in 1851. Upon the outbreak of the Civil War, the grandfather sent another person to the battleground and he started hardware wholesale business, which was handed down to the father.

He graduated a university in New Haven in 1915, 25 years after his father; then he participates in the Great War I, which was represented as Teutonic Migration (12). In his younger and more vulnerable years, his father gave Nick some advice. “Whenever you feel like criticizing anyone just remember that all the people in this world haven't had the advantages that you've had”(9). So ever since he reveals that in consequence he's inclined to reserve all judgements(9).

Instead of being the warm center of the world the middle-west now seemed like the ragged edge of the universe — so I decided to east and I learn the bond business after various delays I came permanently, I thought, in the spring of twenty-two(12).

Nick is Daisy's second cousin. Like Gatsby, Nick participated in the

World War I, so their relationship is mixed at multi-levels. After he gets a house in West Egg, he becomes the neighbor of Gatsby.

He also attends the party thrown by Gatsby with Jordan Baker, the golfer who Nick met at Daisy's house for the first time. "You live in West Egg" remarked she contemptuously(22). She is from Louisville and is said to have spent her childhood with Daisy. She was once doubted to have moved the ball on herself to a more favorable spot during the golf game, but Nick gets interested in her anyhow.

Thanks to the help of Nick and Jordan, Gatsby gets to meet Daisy again. Nick says, "he[Gatsby] wanted to recover something, some idea of himself perhaps, that had gone into loving Daisy'(144). Nick then witnesses all the events being taken. Before the accident, Gatsby called Nick upon the favor from Daisy; he said that they were to all meet at Daisy's house.

Something was up. And yet I couldn't believe that they would choose this occasion for a scene—especially for the rather harrowing scene that Gatsby had outlined in the garden(148).

On the day, during the last days of summer, when they left from Daisy's home to New York, Tom asks Gatsby to change the car. Tom then gets Jordan and Nick on Gatsby's car and intentionally stops at Wilson's repair shop. Then, he says to Wilson, "How do you like this one? I bought it last week.(159) ... I'll let you have that(old) car"(161). Myrtle looked at the car from the window at the upstairs. "Her [Myrtle's] expression was curiously familiar ... but on Myrtle Wilson's face it seemed purposeless and inexplicable until I[Nick] realized that

her eyes, wide with jealous terror, were fixed not on Tom but on Jordan Baker, whom she took to be his wife”(161). When the car left, Gatsby and Tom switch to their own cars and leave. Myrtle misapprehends Gatsby’s car for Tom’s. She then runs to his car to tell him something but dies in the car accident.

Nick, likewise, is a man with proper mind and is very considerate who observes his surrounding in a more objective manner. But, the following is an event that took when he was with Gatsby for their lunch on the 42th street, passing by a huge bridge.

A dead man passed us in a hearse heaped with blooms, followed by two carriages with drawn blinds and by more cheerful carriages for friends. The friends looked out at us with the tragic eyes and short upper lips of south-eastern Europe and I was glad that the sight of Gatsby's splendid car was included in their sombre holiday. As we crossed Blackwell's Island a limousine passed us, driven by a white chauffeur, in which sat three modish Negroes, two bucks and a girl. I laughed aloud as the yolks of their eyeballs rolled toward us in haughty rivalry(92).

Nick thought, ‘Anything can happen now that we’ve slid over this bridge’. Even Gatsby could happen, without any particular wonder (92). From this part, the reader could get the implication of Nick’s racist perception as an Irish Catholic. That African Americans mimic the high class of the white is ridiculous implies Nick’s inclination to looking down on minorities.

[C]olonial mimicry is the desire for a reformed, recognizable Other as a

subject of difference that is almost the same, but not quite, which is to say that the discourse of mimicry is constructed around an ambivalence ; in order to be effective, mimicry must continually produce its slippage, its excess, its difference (Bhabha, 86).

Bhabha's ambivalence theory could be summarized as the white colonial desire and fear towards those people that are under their colonial rule. This implies similar psychological similarity to Tom's assertion that one should keep cautious of the colored race.

In addition, Nick's statement — 'A small flat-nosed jew [Wolfsheim] raised his large head and regarded me with two fine growths of hair which luxuriated in either nostril. After a moment I discovered his tiny eyes in the half darkness'(92-3) —and his expression — 'demonic Finn'(115) — are indirect implication of Nick's perception that the minorities are inferior.

This is an evidence of ignorance of his father's warning to reserve conclusion. Nick, despite his faithful attitude that kept him to stay by Gatsby until the end and proper mentality, cannot overcome such limits. This implies that Nick also needs to solve the problem of surpassing the mental and cultural colonial state of mind. Also, one that needs attention is that the situation of reclamation from American continent to the Middle West should be perceived from the minorities.

One should also be aware that the ancestors of Nick including most of white people have expelled the Native Americans in the process of foun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laughtered many of them to establish well-to-do family and do the steel business.

V. Conclusion

This paper analyzed the novel in the perspective of colonial rul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frequently cited perspective of “American Dream”. This view has to do with the empire of more power dominating less powerful nation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o eventually ruling the state of the citizens’ mind. As time changes, the colonial rule system has been collapsed due to the national resistance and independence movement of many countries. But, this is only what’s viewed from the surface.

As seen from the characters in this novel, the white women from low class, who are considered the social underdogs, do not consider the poor men as gentlemen and do not recognize them as humans. Likewise, the attitude of ridiculing others comes from the misconception that oneself is from a high class with dignity. Such misconception is rooted from the mental colonial rule state, in other words the mental slavery state. The hegemony, which is applied in between the powers and lesser powers, is seen in the relative concept within the white community, who are all American citizens.

In other words, the colonialism is seen between Tom Buchanan, who prides in traditional wealth and rich family, and Gatsby from the low class; this implies that the selfish supremacy exists, which makes people want the people they think are inferior to always remain in that state.

Although limitation is seen, the readers could feel a sense of hope when Nick decides to go back to his homeland after getting sick and tired of materialism. If his descendents get the proper education to

think in the stand of others, the mental and cultural maturity, as well as the equal opportunities for the minorities, who have been neglected from the American dream, will be realized.

In that sense, the characters in this novel should be awake themselves from their mental devastation. If not, their future will not see any bright light similar to what Nick saw the night before he left the East — no lights aside from the ferry that came across from the straits.

(Shinhan Univ.)

Keywords

American Dream, Colonialism, Postcolonialism, ambivalence, mimicry, mental wilderness, awareness.

■ References

Bhaba K, Homi. Ed.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14. Print.

Fitzgerald, F. Scott. Ed. *The Great Gatsby*. Paju: Munhakdongnae. 2013. Print.

_____. Ed. *Echoes of the Jazz Age*. Malcolm Cowley and Robert Cowley.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66. Print.

Gentles, Frederick and Steinfield, Melvin. Ed. *Dream on, America*. San Francisco: Canfield Press. 1971. Print.

Huddart, David. Ed. *HOMI K. BHABHA*. New York: Routledge. 2006. Print.

Ornstein, Robert. Ed. "Scott Fitzgerald's fable of East and West."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The Great Gatsby*.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ited by Ernest H. Lockridg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Michigan University. 1968. Print.

Wikipedia: Free Encyclopedia: en. wikipedia. org. Web. 30 Nov 2016.

■ Abstract

Male Characters in *The Great Gatsby* from Perspective on Postcolonialism

Choi, Chang-Young (Shinhan Univ.)

This paper analyzes the male characters in *The Great Gatsby*, the representative piece by F. Scott Fitzgerald, in the perspective of new colonialism. The writer aimed at observing the mental state and aeriarity of Tom, Gatsby and Nick in association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women characters. The novel itself has been dealt in the perspective of American Dream, the author perceives the characters' material-driven states and its devastation as a type of mental slavery. The American society in 1920s after the World War I is an era of mental devastation with many young people lost in their paths. Although America is the power that dominates the world, the members of the country, who have been ruling many minorities including African Americans had been devastated mentally and culturally. In other words, their mental wilderness is similar to the colonial rule. In order to overcome such state of mind and get self awakening, the characters themselves have to put much effort forth.

■ Key Words

American Dream, Colonialism, Postcolonialism, ambivalence, mimicry,

영어권문화연구 9권 3호

mental wilderness, self awakening.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Self-Reflective Individual and Disciplinary Power in J. M. Coetzee's *Disgrace*

Choi, Cho-A

I . Introduction

In the opinion piece written for the *La Repubblica* on 11 September 2016, Orhan Pamuk denounced his mother country Turkey as the place where freedom of thought has disappeared. He added that Turkey is “progressively putting behind bars all people who take the liberty of voicing even the slightest criticism of the government” (“Nobelist Pamuk: ‘Freedom of thought no longer exists’ in Turkey”). Pamuk’s cry follows the signatory concerning the detainment of Ahmet Altan, a journalist and an author, and his brother Mehmet Altan, a prominent academic, under the allegations that these brothers were spreading “subliminal messages announcing a military coup” (Pamuk et al., “Turkey has detained a prominent novelist. We unite to say this vendetta must end”). The author of *Disgrace*, J. M. Coetzee, is one of the figures who immediately undersigned the signatory issued “to protest the vendetta the government is waging” (Pamuk et al., “Turkey”). Coetzee’s belief in the freedom of speech against repressive

government is echoed in *Disgrace*.

For his sexual engagement with one of his students, David Lurie is brought before a university hearing committee. He readily pleads guilty to the charges but the committee members dogmatically demand him to give a true confession and issue a public apology. The more David wants to alienate himself from the committee's overarching influence, its demands become intense. Many, if not most, of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chastise David for usurping his social power as a professor to rape Melanie against her will. Derek Attridge points out that feminist readings of *Disgrace* bear no sympathy whatsoever for David and unequivocally label him as a rapist.¹⁾ Other scholars including Lianne Barnard (23–25), Lucy Valerie Graham (433–44), Sue Kossew (158–59), David Attwell (856–57), and Patrick Lenta (15) also read David's sexual liaison as an act of violation willed upon Melani e.²⁾ For these critics, whether Melanie gives a silenced consent does not matter because her social status as a student already relegates her to a vulnerable position vis-à-vis David. Domestic scholars Rhee Suk-koo (241–53), Hwang Jung-ah (79–198), and Kim Hyun-Ah (97–118) also do not fail to pin point that David—a symbolic figure of the

1) There are enough works that incorporate David's rape of Melanie in building their arguments, especially through postcolonial lens or in Foucauldian slant. However, most of those works hone in on the significance of David's engagement with the dogs. Some recently published works by Gayatri Spivak, Nicole Shukin, and Michael O'Sullivan fall under this category. Lately, reading *Disgrace* in light of animal studies, biopolitics, and ecocriticism has also spurred fruitful discussions.

2) It is common for the works published on *Disgrace* to wholly, if not partly, share the view that David is a rape perpetrator. Recently, Ken Barris, Deirdre Coleman, and Cynthia Willet have contributed to this body of criticism. Remy Orinaku goes so far as to label David as a prey.

colonial legacy—indeed usurps his social power to take advantage of Melanie sexually.

This paper agrees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David indeed misuses his power of position to gratify himself. Yet, it does not attempt to lay a moral judgement on David, not because David is free of any wrongdoing but because it is assessed that previous studies have sufficiently explored the moral dimension of his character. Rather, the focus of the analysis lies in reading the committee's attempt to discipline David as an intrusion into David's individual sphere. The paper argues that what David resists is not the legal remedy the committee originally seeks but Catholic religiosity, and not unrelatedly, authoritarianism and institutionalized power embedded in the committee's demands. For David, the nature of the hearing and its demands recall "Mao's China" (*Disgrace* 66) that purged, humiliated, and tried to re-educate the intellectuals who voiced dissonance with the government policies. This paper seeks to uncover the parallel between the hearing, Mao's China, and the Sacrament of Penance and illuminate how this parallel fuels the tensions between David and the committee members. The accumulation of tensions eventually brings the hearing to an utter failure since neither party gets what it wants. Finally, in closely examining the ramifications of that very failure, a possibility of the rise of the self-reflective individual against the disciplinary power of an authoritarian institution is glimpsed.

II. Reformation in Mao's China and the Catholic Church

What peppers David's resentment towards the overall experience of the hearing is the committee's initial suggestion that he go through counselling. As soon as the questioning begins, David readily pleads guilty to the charges of sexual harassment and clerical misconduct. Facing David's nonchalant surrender in admitting the charges, Dr Rassool doubts whether the committee needs to safeguard David from his failing conscience. Immediately following this doubt, the young woman from the Business School brings up the need for David to "undergo counselling" (*Disgrace* 49). The purpose of counselling is to diagnose the problem of the subject and help the subject to reconcile with himself or herself. As Dr Rassool and the business woman see it, David has a problem of being elusive. David finds this suggestion upsetting and replies: "I am a grown man. I am not receptive to being counselled" (49).

David's belief in the incorrigibility of his character becomes more salient when David recounts to Lucy that the hearing experience, including the suggestion to go through counselling, was aimed at "re-education, Reformation of character" (66). As Patrick Lenta reveals, the gesture of counselling implies that "the principal purpose of the committee's response is not to punish but to correct and normalize" (7). It is precisely the committee's institutional attempt to reform David and the play of politics inseparable from it that troubles him. Later when David mulls over the reason for his uncompromising disposition, he tells Lucy: "[The hearing] reminds me too much of Mao's China. Recantation, self-criticism, public apology. I'm old

fashioned, I would prefer simply to be put against a wall and shot. Have done with it" (*Disgrace* 66). What unsettles David is the committee's reiteration of the disciplinary domination model analogous to the one under Mao's China, which traces parallel in the Roman Catholic tradition. In this model of disciplinary institutionalization, individuals who disagree with the institutional vision and principles are labelled as transgressors and enemies. Then, they are forced to renounce themselves, confess their sins, and seek forgiveness. Through this process, these transgressors are in fact to be cleansed of their impure desires, corrected of their digressive behaviors, and normalized to be the people that the institutions deem virtuous. For David, the word "counselling" registers as a code word that signals the committee's enactment of the politico-religious reformation narrative that buttresses the disciplinary domination model.

To understand why David compares the hearing experience to Mao's China and its model of discipline, a brief glance of China under Mao Zedong's leadership is imperative. The model of repressing the intellectuals can be found even before the official onset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at lasted from 1966 to 1976.³⁾ Mao's government during this period was basically a totalitarian regime that tried its best to extinguish any independent thoughts that disagreed with or digressed from Mao's socialist agenda. Under the slogan "Fight selfishness, criticize revisionism," Mao continued to purge the intellectuals; they were subjected to self-disavowal, self-accusation,

3)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events leading up to the Cultural Revolution such as the Hundred Flowers and Anti-Rightist campaigns, refer to Maurice Meisner's book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pp. 155-90.

public humiliation, and public confession. When the confession was deemed to be insufficient, Mao and his cohorts did not hesitate to use the most horrendous forms of torture to extract words of self-denial from these intellectuals. It was fundamentally Mao's purpose to mold the intellectuals into compliant Maoists and eradicate any shadows of individuality or particularity. Mao sought to purify and discipline the intellectuals of their *élan vital*. He believed that China's historical development depended upon the people's consciousness, thus, sought ideological molding and thought reform as important steps to equip people with the consciousness fit for economic and political growth.⁴⁾

The origin of the reformation model practiced by Mao, which in David's point of view trickles down to the hearing scene, can be traced back to the practice of the Sacrament of Penance in the Roman Catholic tradition. According to the Catholic belief, the process of reformation is based on transforming an individual from a private man with independent thoughts and values into a public man with consciousness agreeable to the Church's principles and visions. Ideally for this renewed man, the boundary between private and public spheres would disappear and the two spheres would be fused since the spiritual rebirth kindles transparency. For Catholics, confession-making is a quintessential part of this rebirth. According to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confession-making begs the Sacrament of Penance. By repenting, the sinner is reborn as the

4) On the purge of the intellectual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refer to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pp. 291-375, especially pp. 295-300; 315-21, 366-60.

faithful servant, forgiven by the priest who is conferred of God's power to absolve, and ultimately reconciled with God and the Church. Sacrament of Penance paves the way for the sinner to restore his dignity lost from being a prodigal son and a lost sheep.⁵⁾ Making a confession to a priest is a crucial part of this sacrament. In this coming-back-home practice, a priest exercises his institutional authority to legitimize the sinner's confession as sincere and confer amnesty. When making a confession, verbal admission of wrongdoing is not enough but ritualized actions such as going into the confession box, uncorking all sinful desires and guilt to the priest, asking for forgiveness, and making amends to be received back into the Church community, and even displaying disgruntled face to show that the sinner feels the pangs of his or her moral conscience are not only desired but also naturally called fo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oman Catholic Church's existential justification as an institution depends on the Sacrament of Penance and in turn, it necessitates ritualized actions to validate the very practice of the Sacrament itself.

This interplay of religiosity and politics in the Church's enactment of the Sacrament of Penance robs the individuals of their private spheres. Likewise, in Mao's China, public humiliation and self-disavowal served as a sign of genuflection and submission to Mao's

5) In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there appear two sons. The younger son returns home after wasting his fortune, worrying that his father would not receive him back. But the father welcomes and embraces his return. He says that though the younger son led a prodigal life, his return should be celebrated because he was once lost but found where he belongs. For details, refer to Luke 15:11-32; The metaphor of the lost sheep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epenting sinner's return. Refer to Matthew 18:12-14 and Luke 15:3-7 of the Bible.

authority and power. Both the Church and the Maoist government sought to reform individuals in the name of a communal good. Yet, there is one small but paramount difference. In Mao's China, the mechanism of confession-making took an escalated and amplified form; Mao transcribed the religious rite of confession into social practice to serve for his political agenda. In doing so, Mao and his China demanded something more than the Roman Catholics have demanded their sinners, namely, a staging of viscerality. If the stage for the Catholic sinner were confined to the confessional box or the physical structure of the Church building, the stage for the intellectuals under Mao's purge was often the local village, neighborhood, or the plaza. In the so-called "struggle session," intellectuals had a whole audience—local people and sometimes, friends also—to persuade that they were indeed being reformed. The practices that largely fell under self-denial required theatricality on the intellectuals' behalf such as keeping the heads bowed, crying out their impure beliefs, and showing remorseful faces, to count among many others.

This is the kind of visceral proof that the committee demands David to display. The committee wants him to enact his words. But David believes that the committee's demand is political in nature because the visceral proof only caters to a purposive end, not a purposeful end: "These are puritanical times. Private life is public business. Prurience is respectable, prurience and sentiment. They wanted a spectacle: breast-beating, remorse, tears if possible. A TV show, in fact" (*Disgrace* 66). Like what David says, the committee's demand for "a TV show" is in fact a demand for the spectacle that may not genuinely reflect David's internal thoughts and feelings but that can

impress and persuade the committee members to offer him amnesty. This power to offer amnesty serves to justify the existence of the committee. David finds this demand for spectacle as a sign that religious rite translates into social practice. What is worse in David's case is that religious righteousness is called for by the university that is in no way a religious institution. At least in Mao's China, confession was detached from serving a religious end; even in the case where the intellectuals were required to denounce their Christian faith, confession worked as a means to satisfy Mao's political vision. But David experiences not only a total politicization of a religious rite but also a total consecration of social practice as a religious ordinance. As such, later when David gently denies Lucy's labelling of him as a scapegoat, David tells her that "real actions were demanded instead of symbolism ... Purgation was replaced by the purge" (91). It is Dr Rassool who symbolically plays the role of a priest and Mao in David's experience of the hearing. Dr Rassool's incessant demand for confession and performance of sincerity, of which both prove to be impossible tasks for David, exasperates him precisely because of her religious determinism and political maneuver.

III. The Good Shepherd, the Atheist, and the Other

Among the committee members, Dr Rassool is undeniably the one that appears most eager to bring about David's reformation. The tension between David and her grows rampant as the hearing progresses. Dr Rassool severely criticizes David for putting up a

lackadaisical attitude in submitting to her demands that he give a detailed testimony of what happened. She argues that the “wider community is entitled to know what it is specifically that Professor David acknowledges” because as she sees it, David’s case is laden with “overtones” (*Disgrace* 50) that beg the need of a confession. And these overtones, as she later claims, translate into historicity, namely, the “abuse of a young woman,” “the pain [David] has caused” to Melanie and her family, and “the long history of exploitation of which this is part” (53). But David dubs Dr Rassool’s intention as asking for a heartfelt confession and firmly refuses. As he sees it, it is unfair that Dr Rassool impose him the responsibilities for and to the history of women, power dynamics, and most importantly, South Africa. Yet, facing Hakim’s proposal that the committee is there to help him, David finally confesses. David reports that at the moment he saw Melanie, he metamorphosed into the vicarious corpus of Love: “I was not myself. I was no longer a fifty-year-old divorcé at a loose end. I became a servant of Eros” (52). After this, Dr Rassool is extremely disappointed because his confession falls short of her expectation. She demands David to perform the sincerity of the words admitting his abuse of social power and moral wrong, hence, asks David: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good enough for you. Does it reflect your sincere feelings?” (54).

Dr Rassool’s demand underpins two curiosities: “Did sex between David and Melanie really happen?” and “Does David accept and validate what Melanie claims she felt or accuses of in her complaint?” David’s answer to the first questions is affirmative. David authenticates the factuality of the truth of the charges. However, he cannot vouch for

the truth of Melanie because Melanie's truth is inaccessible and inviolable. Melanie is the "Autrui, the human Other" (Marais 165). In his essay explicating Blanchot and Levinas's take on the Other, Michael Marais notes that for Levinas, "the human Other is singular, specific, and personal (Totality 86-87)" (qtd. in Marais 165). This alterity of the human Other "carries the trace of that which belongs to the order of the enigma rather than the order of the phenomenon ("Phenomenon 69-73; "Meaning" 103-07)" (qtd. in Marais 166). Thus, when encountered with this alterity, "the trace of absolute alterity borne on the face of this Other places him/her beyond the comprehension of the subject" (166). David is ontologically deprived of any possible means to verify the facts of Melanie's complaint as true because Melanie is innately that which is foreign to him. In addition, Melanie's foreignnes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made sense of. In order to accept Melanie's truth as the objective account of what happened, David would have to be an omniscient being. Bu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David is an atheist (*Disgrace* 91, 172). He believes that the truth is neither verifiable nor acceptable because a single, unmediated standard to which the verifiability of the truth can be measured to is absent.

In asking David to perform his validation of Melanie's truth, Dr Rassool basically acts as if she is a scourge of God, as if it were her intention to reveal "the depth of sin to the sinner, show sin to the conscience for what it is, and drive the sinner to seek and find grace in Christ" (Wilsey 4). In this sense, Dr Rassool's behavior shadows that of a priest. In the Roman Catholic tradition, priests uphold the positions of "in persona Christi" and exercise the power of divine

jurisdiction on behalf of God. Similarly, Dr Rassool believes that her status as a female entitles her of the authoritative power to assess, blame, and exculpate David from his sin. She proffers to be the Good Shepherd to David so that he can reflect on his moral flaw and begin the inward search for the truth. But as Margaret Herrick argues, this truth of the self is fundamentally the search for God, “an interior God” (88). Thus, the hearing become a site where Dr Rassool urges David to seek religious redress instead of a legal remedy, following the “sequence of transgression, confession, penitence and absolution” (Coetzee, “Confession and Double Thoughts: Tolstoy, Rousseau, Dostoevsky” 194). But this religious mission of hers is inadequate and flawed.

Coetzee offers a critical insight that the true confession can only be delivered by “faith and grace” (200). In his reading of Tolstoy, Rousseau, and Dostoevsky on the theme of confession, Coetzee suggests: “The truth about the self that will bring an end to the quest for the source within the self for that-which-is-wrong, [Augustine] affirms, will remain inaccessible to introspection” (194). The bare truth about oneself is inaccessible “because the basic movement of self-reflexiveness is a doubting and questioning movement, [and] it is in the nature of the truth that the reflecting self tells itself not to be final” (204). Thus, trying to form a confession inevitably produces “the doubling back of thought that undermines the integrity of the will to confess by detecting behind it a will to deceive, and behind the detection of this second motive a third motive (a wish to be admired for one’s candor), and so on” (222-23).” In this sense, truth-seeking is not a teleological task but a permanent suspension of the very

truth, thus, the unremitting state of searching and becoming. This is why giving a true confession is ultimately a religious task because unless one subscribes to “faith and grace,” he or she is ontologically barred from reconciling with the closure that a successful search for the truth should bring about. Since David does not believe in God (*Disgrace* 66–67, 91, 172), eliciting him with the truth-talk is an unattainable goal. In turn, David insists that Dr Rassool’s demand for confession and sincerity is “beyond the scope of the law” (55) and adamantly identifies himself with the discursive aspect of “the law,” the legal procedure and due process.

Michelle Kelly draws an insight that what David displays is “a denial of the multiple discourses that have shaped modern legal conventions and proceedings—what might be described as the cultural foundations of legal procedure” (168). In other words, David rejects the comprehensive capacity of the law to reflect religious morality and press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aw’ as a pure, monolithic, single entity, or a neutral, uncontested space” (Kelly 167). Jane Poyner notes that David does not deny the call for justice. David simply believes that justice-talk is only possible in the strictly discursive realm of the law; thus, he refuses to conceive of “the law” as the accommodating corpus of Christian religiosity (Poyner 70). Thus, the mission to extract a kind of “truth” from David via confession-making is stunted from the beginning. Unlike what Dr Rassool assumes, the “truth”—the absolute truth before God—is not discoverable within and from David. But David’s irreligiousness is not the only reason for his resistant disposition. What complicates Dr Rassool’s self-bestowal of judicial capacity is her ulterior motive to extract the kind of truth that

is already predetermined in her mind. This is where Dr Rassool's religious cause intermingles with political approach. She carries with herself her own consciousness and prior experiences in the very act of digesting Melanie's words, thus, inevitably becomes the filter of Melanie's truth. Thus, there lurks the danger that the "truth" Dr Rassool demands of David being subjected to distortion or wishful thinking. Rebecca Saunders specifies this wishful thinking as "governed by the university code of conduct which not only decides how [David] will be punished, but regulates and delimits the truth [David's] interrogation can produce" (103). David's frustration with the hearing is aggravated when he senses that Dr Rassool's wishful thinking hinges on religious righteousness. She stands at the cross-section of religious righteousness and political practicality in trying to locate him within the reformation narrative as a sinner.

IV. Politics Hand in Hand with Catholic Religiosity

Dr Rassool is the one who best captures Saunders's argument that the committee severely circumscribes David's integrit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his wrongdoing is condoned. Rhee and Lenta also do acknowledge David's misdemeanor but they problematize the insufficiency of reading David as a sinner, and the committee, a legal and punitive body apropos of David's moral degradation. According to these two critics, David's adamant refusal to confess is essentially a resistant gesture. As Rhee reveals, David cannot agree with "the society that judges an individual's private behavior according to the

political perspective determined a priori or that which expiates individual behavior according to formalized relationships” (241). He contends that the staging of David’s resistance in the novel is Coetzee’s attempt to criticize the society that “does not acknowledge or consider particularities of individual or private relationships but impose a single, unitary yardstick in assessing an individual” (Rhee 242). Lenta agrees and expands upon this point. The quintessence of Lenta’s analysis is that David resists the committee’s “disciplinary power” (8). David’s outright rejection to comply with the committee’s demands is his very own fight to keep individuality and freedom intact from “a kind of tyranny that prescribes the elimination of individuals who resist transparency” (8). Rhee and Lenta are right to point out that David wishes to disengage himself from the overarching influence of the committee. But they fail to locate the religious ramifications of the committee as a disciplinary institution; what David resists is not simply the committee as an institutional body that suppresses him but its attempt to politicize the religious sacrament into an acceptable social practice. The kind of tyranny prescribed by the committee, of whose original model can be located in the practice of the Sacrament of Penance, is insidiously tied in with the members’ vested interests that subsume the sacredness of religious cause. Thus, the line between religious and political causes is blurred and the very ambiguity caused by this braiding of discourses ends up sustaining the tyranny. Dr Rassool’s demand that David demonstrate sincerity is representative of this tyranny.

As Rosemarie Buikema argues, the process of articulating a confession may yield a momentary revelation of the truth but “this

contact with a truth is undermined if the confession is aimed at convincing an audience” (191). But David is put into a situation in which he has to formulate a confession and show his admission of wrong “[reflecting his] sincere feelings” (*Disgrace* 54), which is essentially a demand that he give form to amorphous emotions just so that Dr Rassool can feel assured. She wants David to communicate to her the sign of repentance through physical gestures just like the intellectuals under Mao’s regime were required to demonstrate their effort to overcome themselves. The specifics of what these gestures should reflect are most clearly defined by Jeffrie G. Murphy:

Repentance is the remorseful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one’s wrongful and harmful actions, the repudiation of the aspects of one’s character that generated the actions, the resolve to do one’s best to extirpate those aspects of one’s character, and the resolve to atone or make amends for the harm that one has done. (139)

In this vein, what Dr Rassool wants David to be aware of the “responsibility of [his] wrongful and harmful actions” (139), yield an emotional response, deny himself, and erase his immoral streak, as if it can be done at the stroke of a magic wand. He is solicited to efface his existential grounding and re-write himself. In other words, Dr Rassool demands from David a complete makeover of character. She wants to observe the very unfolding of David’s self-transformation—the staging of self-denunciation, self-cleansing, self-renewal, and conversion. To put Dr Rassool’s demand in Saunders’s words, it is the demand for “a performance that demonstrates viscosity” and this

two-fold demand “asks both for a suitable performance and for a visceral transformation and it shoulders the hope that the former will function as assurance of the latter” (Saunders 101). Dr Rassool’s personal desire to observe David’s visceral transformation invokes one function of the Mosaic Law which is to goad the sinner “into renewal of spirit and conformity with the will of God” (Wilsey 4). In David’s case, his visceral transformation would necessitate bodily expressions such as “[shedding] tears of contrition” (*Disgrace* 52) and may even extend to the point where he begs on his knees or buries his face in his hands, asking for forgiveness.

Dr Rassool is only willing to register David’s physical expression, and not his linguistic testimony, as the currency of proof that he has indeed been renewed. But David is skeptical about whether the visceral—his demonstration of sincerity—can really do the job of reforming him because “his temperament is not going to change, he is too old for that. His temperament is fixed, set” (2). David’s doubt reflects his understanding that regret is something fundamentally personal, hence, Dr Rassool cannot possibly figure out whether his moral qualms “comes from his heart” (54). Coetzee’s insight on sincerity supplements David’s refusal:

We are now beyond all questions of sincerity. The possibility we face is of a confession made via a process of relentless self-unmasking which might yet be not the truth but a self-serving fiction, because the unexamined, unexaminable principle behind it may be not a desire for the truth but a desire to be a particular way ... We can test its truth only when it contradicts itself or comes into conflict with some ‘outer,’ verifiable truth, both of which eventualities a

careful confessing narrator can in theory avoid. ("Confession" 220-21)

From Coetzee's vantage point, David is inherently barred from producing the "right kind of confession" that Dr Rassool and the committee wants because the demand is paradoxical at most. The moment David utters a confession, what Coetzee calls the "process of relentless self-unmasking" (220) stops. The confession becomes the destination of that unceasing movement. However, David cannot help but project his "desire to be a particular way" in making such confession. It is a fictive confession. Therefore, Dr Rassool's idea of truth that David is a sinner subtends the kind of sincerity David can be faithful to, thus, serving the political end to satisfy Dr Rassool's agenda. But as revealed in his version of confession, David does not regard himself as a sinner; he blames falling prey to Eros. Thus, in this case, the demand to perform the sincerity of the truth is a type of "disciplinary domination" (Lenta 3) that drives David to deceive himself. David resists being an instrument that not only fulfills Dr Rassool's self-righteousness but also completes her vision of the hearing.

David's noncompliance can be decoded as his resistance of the Catholic religiosity that took a sizable form into a social practice called disciplinary domination; it robs him of autonomy in coming to terms with his own self. This resistance, ironically, hints at David's insistence on being sincere and true to himself in his own terms only. David's resistance does not mean that he is incapable of feeling the pangs of moral conscience. In fact, he has been all too aware of the advantage his social position and older age might bring, knowing that

“the girl he has brought home is not just thirty years his junior: she is a student, his student, under his tutelage. No matter what passes between them now, they will have to meet again as teacher and pupil.” (*Disgrace* 12). He even realizes that the sex may be “a mistake, a huge mistake” (25). It is obvious that David is mindful of the possible repercussions of his behavior.

However, his identification with secularism calls forth what Herrick defines as the Rousseauian truth. For Rousseau, the divine sense of truth can be translated into authenticity, “being true oneself, knowing oneself. But since there is no longer a God, the ‘truth’ of the self, rather than being with God, replaces God in meaning and value” (Herrick 89). This authenticity is exactly what David expresses when he retorts to the business woman while giving his *confession* (writer’s emphasis): “It is not a defence. You want a confession, I give you a confession. As for the impulse, it was far from ungovernable. I have denied similar impulses many times in the past, I am ashamed to say” (*Disgrace* 52). David is honest to the extent that he admits of pursuing Melanie sexually even though he had the free will to restrict himself. Yet, he does not feel shameful for acting upon his desire because he believes that sexual desire is something so fundamentally humane and natural. Rather, David’s belief that the right to desire is, and should be, exempt from any kind of moral judgments is reflected his brooding on the dog’s behavior: “One can punish a dog, it seems to me, for an offence like chewing a slipper. A dog will accept the justice of that: a beating for chewing. But desire is another story. No animal will accept the justice of being punished for following its instincts” (90). As Heerden argues, David’s right to sexual desire is amoral and reflects

his “deeper desire to retain (or perhaps resuscitate) his self-image as a desirable man” (Heerden 51). For David, feeling the surge of sexual lust, claiming his right over it, and following it through is an existential proof that he is alive. To correct his desires would be to thwart him from the source that makes him feel human and to infringe upon his right. David’s voice that he would rather be “put against a wall and shot” is echoed when he immediately adds that “what was ignoble about the Kenilworth spectacle was that the poor dog had begun to hate its own nature ... At that point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shoot it” (*Disgrace* 90).

By subconsciously comparing himself to the dog, David admits the undeniable animality latent in human beings.⁶⁾ He registers the hearing committee’s effort to reform his character as a puritanical move that seeks to normalize his deep-seated private desires. However, doing so is denying human nature, the very humanity intrinsic to all individuals. It is a form of violence that tortures David to unlearn how he affirms his existence as a human-being and re-learn to subject himself to the power of the institution. In his extensive engagement with Foucault, Lenta comments that David’s attempt to keep his privacy intact is a struggle against “the penal system’s concern with gaining access to and attempting to control the subject’s internal thoughts—with taking hold of ‘the ‘soul’ of the criminal” (7). In this light, David’s resistance to the committee’s demands reflects “a deep

6) This aspect of the novel has Agambenian dimension in the sense that David embodies what Agamben calls “bare life,” that liminal state between zoe and bios. For details, refer to Giorgio Agamben’s book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1995) and Hannah Arendt’s book *The Human Condition* (1998).

human resistance to accept to be undone by the morally binding address of another person, and therefore the limitations of any discourse—religious, legal, systemic—that would effect change” (Faber 309–10). In this case, “to be undone” means to be intervened by the force of “tyranny that prescribes the elimination of individuals who resist transparency” (Lenta 8). Individuality for David is the pillar of his existence, so elimination of it registers as an evisceration. Collaterally, David demands to be understood as a singular, particular, and alienated entity. Thus, David’s ensuing resistance to demonstrate the sincerity of his words admitting that he mishandled his power serves as a corollary of his refusal to intimate himself with Catholic morality that labels him as a sinner and forces him to be a cellophane man.

As the hearing progresses, David’s frustration with Dr Rassool’s effort to instrumentalize him gets worse. What fans David’s vexation is the other members attempt to saturate politics with Catholic morality. By strongly recommending David to issue a public apology, the committee asks David to exteriorize his guilt and compromise himself with the committee’s will. Desmond Swarts implies that issuing a public statement can help both David and the university:

“All eyes are on the university to see how we handle it ... We on this committee see ourselves as trying to work out a compromise which will allow you to keep your job. That is why I ask whether there is not a form of public statement that you could lie with that would allow us to recommend something less than the most severe sanction, namely, dismissal with censure.” (*Disgrace* 54)

Even after the hearing is over, Mathabane urges David once again to consider issuing a public statement and reads him the draft: “I acknowledge without reservation serious abuses of the human rights of the complainant, as well as abuse of the authority delegated to me by the University. I sincerely apologize to both parties and accept whatever appropriate penalty may be imposed” (57). The content of the draft exactly reflects all the demands that David has been rejecting hitherto. David consistently demonstrates an atheist attitude when retorting to Mathabane: “Repentance is neither here nor there. Repentance belongs to another world, to another universe of discourse” (58). It shocks David to hear Mathabane reply that what matters is not his sincerity per se but the formal gestures showing that he acknowledges his fault and is determined to make up for it (58). The political intent of the committee that has been culminating so far becomes most intense at this juncture. Mathabane wants David to provide the gesture of apology so that the committee can publicly demonstrate that it has fulfilled its duty of guiding David through the path of redemption. Mathabane is not worried about reconci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avid and Melanie. In the end, he only cares about protecting the committee’s integrity before the public’s expectations. This is problematic for David who wants to remain authentic to himself because Mathabane basically demands that he “be false to himself in a way tantamount to hypocritical spectacle” (Lenta 9).

By refusing to issue the public apology, David resists Mathabane’s attempt to achieve his predetermined goal at the expense of robbing him of agency. David’s fervent resistance to the committee’s

enactment of the model of disciplinary domination can be penned as his searing defense of his private sphere from the committee's violent intervention. Simultaneously, it is an assertion that David wants to live the margin as an intellectual exile, marked by "a liminal condition and realm of spiritual orphanage in the life of an individual, identifiable by [his] categorical negation of all that is considered normative in society" (Kalua 50). Disappointed as the lack of separation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David resists stooping to being the product of the committee's project to make him a right-minded man.

V. Failure, a gesture towards possibility?

The clashes between the demanding committee and defiant David result in complete failure of both parties. Each side's needs are not met and remain unmet. Most importantly, Melanie as the confessor to whom David's confession must be addressed is absent. Borrowing from J. M. Coetzee's use of the term, the confessor means "the one whom the confession is addressed" and the confessant, "the one who confesses" ("Confession" 195). In his reading of Stavrogin's confession in *The Possessed*, Coetzee questions the possibility "of whether secular confession, for which there is an auditor or audience, fictional or real, but no confessor empowered to absolve, can ever lead to that end of the chapter whose attainment is the goal of confession" (195). David finds no remedy at the site of reconciliation because ironically, Melanie who has the power to forgive is absent from the very site. David is only forced to make a confession to the committee and not to

Melanie. He is also strongly advised to issue an apology, without the opportunity to actually deliver it to Melanie. Thus, without the confessor, the committee's role as the mediator of reconciliation fails. If David's failure to apologize to the right person is caused by the spatial absence of the confessor, his failure to be on agreeable terms with the committee is of linguistic nature. David's language fails to function as a medium of expression and delivery as in the committee's neglect of his version of confession. His language also fails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because David's repeated resistance explicitly conveyed in words do not stop the committee from coercing him to make himself vulnerable to its demands. The absence of the communicability of language makes David's defense, explanation, and confession ineffective.

The failure of David and the committee to make compromises leaves the reconciliation question hanging in the air. What is intriguing is that this failure sans closure begs the ques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failure, given the context of Lucy's rape, David's attempt to cope with her, and his engagement with the dogs. The failure, this paper argues, barter for the unmitigated openness that gives some mental space for David to engage with his selfhood. At the literal level, it is only after David is displaced to Eastern Cape as a result of the hearing's failure that his growing sense of empathy towards the Otherness of the Other can be glimpsed. The change David's character begins to go through recalls what Simon Drichel describes as the development of violent sociality to ethical sociality (148-71). Violent sociality refers to a mechanism in which a masterful ego reduces the other to the structures of its own consciousness.

David as a masterful ego has so far “adequated” the otherness of the Other. Drichel borrows Levinas’s definition to clarify that adequation means the action of the knowing ego that reduces the exteriority of the world to the structures of the self, thus, consuming exteriority and abolishing alterity.

Yet, the displacement to Eastern Cape compels David to come to terms with “ethical sociality,” a mechanism in which the self is affected by the other’s irreducible singularity. Whether David is completely renewed as a caring and relatable individual remains unclear. At least, he conceives of the possibility of self-examination on a number of occasions. For example, David initially finds Bev Shaw with “black freckles, close-cropped, wiry hair, and no neck” almost detestable (*Disgrace* 72). But as the story progresses, David discovers himself counting on Bev Shaw as a friend (139), admitting himself as a “dog-man” (146), sleeping with Bev Shaw (149–50), questioning whether he could love Teresa in his opera for being “plain, ordinary” (182), and doubting whether there is a lesson to learn from engaging with the dogs (210). These moments attest to how David is beginning to break out from his consciousness hitherto close-circuited and indeed be affected by the sheer incomprehensibility of the Other. What David’s exilic status enables is expounded by John E. Drabinski in his exploration of Levinas’s postcolonial ethics: “What is transformed is egoism: I no longer put myself at the center of the world. Rather, decentered, I ‘cognize’ the Other in another sort of way, a way that does not seize upon the Other with my gaze or pre-established categories of knowing, being, or value” (15). Giving up the dogs to death fractures David’s internal consciousness of reason and desire

and curtails his sense of moral superiority. David may abandon a self-entitled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fuels his narcissism and begin to imagine a kind of responsibility that is born at the face of the Other.

David's moral development glimpsed at the end of *Disgrace* offers a critical insight that the rise of the self-reflective individual can overcome the limits of institutional power. The committee's a priori dogma of how the hearing should unfold, what kind of results it should achieve, and what type of a person David should be renewed into fails to be implemented. What actually works in favor of David's transformation from a defensive and self-contained individual to tolerant and empathetic individual is his direct, personal, and experiential engagement with the Other—Lucy and the dogs. The momentum for self-reflection arises within David while he undertakes to be communicable to the others around him, human and animal. Thus, David subverts the myth that the institutional or outer intervention is needed to bring about changes in individual consciousness and character.

(Yonsei Univ.)

■ Keywords

J. M. Coetzee, *Disgrace*, individualism, disciplinary power, confession

■ Works Cited

- 김현아. 「J. M. 콧시의 <추락>: 인종주의 공간에서 서술되는 윤리적 딜레마의 수사학」. 『영어영문학 연구』 51.2 (2009): 91-118. KISS. Web. 17 August 2016.
- 이석구. 「죄의 알레고리인가, 알레고리의 죄인가?—콧시의 <치욕>과 재현의 정치학」. 『현대영미소설』 16.3 (2009): 229-53. KISS. Web. 17 August 2016.
- 황정아. 「너무 ‘적은’ 정치와 너무 ‘많은’ 윤리: J. M. 콧시의 <치욕> (Disgrace)」. 『현대영미소설』 14.2 (2007): 179-98. KISS. Web. 17 August 2016.
- Attridge, Derek. “J. M. Coetzee’s *Disgrace*: Introduction.” *Interv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ostcolonial Studies* 4.3 (2002): 315-20. Print.
- Attwell, David. “Review: Coetzee and Post-Apartheid South Afric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27.4 (2001): 865-67.
- Barnard, Lianne. “The politics of rape: Traces of radical feminism in *Disgrace* by J. M. Coetzee.” *TYDSKRIF VIR LETTERKUNDE* 50.2 (2013): 19-29. ProQuest. Web. 3 October 2016.
- Barris, Ken. “Miscegenation, Desire, and Rape: The Shifting Ground of *Disgrace*.” *Journal of Literary Studies* 26.3 (2010): 50-64. Print.
- Buikema, Rosemarie. “Literature and the production of ambiguous memory.” *European Journal of English Studies* 10.2 (2006): 187-197. Print.
- Coetzee, John Maxwell. *Disgrace*. New York: Penguin Books: 1999.

Print.

_____. “Confession and Double Thoughts: Tolstoy, Rousseau, Dostoevsky.” *Comparative Literature* 37.3 (1985): 193–232. EBSCOhost. Web. 17 August 2016.

Coleman, Deirdre. “The ‘Dog-Man’: Race, Sex, Species, and Lineage in Coetzee’s Disgrace.”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55.4 (2009): 597–617. ProQuest. Web. 2 November 2016.

Drabinski, John E. *Levinas and the Postcolonial: Race, Nation, Other*.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1. Print.

Faber, Alyda. “The Post-Secular Poetics and Ethics of Exposure in J. M. Coetzee’s Disgrace.” *Literature & Theology* 23.3 (2009): 303–16. Print.

Graham, Lucy Valerie. “Reading the Unspeakable: Rape in J. M. Coetzee’s Disgrace.”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29.2 (2003): 433–44. Print.

Heerden, Adriaan van. “Disgrace, Desire, and the Dark Side of the New South Africa.” J. M. Coetzee: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Literature. Ed. Anton Leist and Peter Sing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Print.

Herrick, Margaret. “The ‘Burnt Offering’: Confession and Sacrifice in J.M. Coetzee’s Disgrace.” *Literature & Theology* 30.1 (2016): 82–98. Print.

Jodonomocracy [John D. Wilsey]. “Luther and Calvin on the Mosaic Law.” Nomocracy in Politics, <https://nomocracyinpolitics.com/2015/03/23/luther-and-calvin-on-the-mosaic-law-by-john-d-wilsey/>. Web. 20 July 2016.

Kalua, Fetson. “‘Seeing the entire world as a foreign land’: the exilic

intellectual in JM Coetzee's *Disgrace*." *Scrutiny* 2 17.1 (2012): 49–60. Print.

Kelly, Michelle. "Playing It by the Book": The Rule of Law in J. M. Coetzee's *Disgrace*."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46.1 (2015): 160–78. Print.

Kossew, Sue. "The Politics of Shame and Redemption in J. M. Coetzee's *Disgrace*."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4.2 (2003): 155–62. Print.

Lenta, Patrick. "Discipline in *Disgrace*." *Mosaic* 43.3 (2010): 1–16. Print.

Marais, Michael. "Little Enough, Less Than Little: Nothing": Ethics, Engagement, and Change in the Fiction of J. M. Coetzee." *Modern Fiction Studies* 46.1 (2000): 159–82.

Meisner, Maurice. *Mao's China and After: A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New York: The Free Press, 1999. Print.

Murphy, Jeffrie G. *Punishment and the Moral Emotions: Essays in Law, Morality, and Relig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Oriaku, Remy. "J.M. Coetzee's *Disgrace* as an Allegory of the Pain, Frustration, and Disorder of Post-Apartheid South Africa." *Matatu: Journal for African Culture & Society* 48.1 (2016): 145–60. *EBSCOhost*. Web. 8 November 2016.

O'Sullivan, Michael. "Giving Up Control: Narrative Authority and Animal Experience in Coetzee and Kafka." *Mosaic* 44.2 (2011): 119–135. *Project MUSE*. Web. 10 October 2016.

Pamuk, Orhan, et al. "Turkey has detained a prominent novelist. We unite to say this vendetta must end." *The Guardian*, 11 September 2016, 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

- /sep/11/turkey-coup-ahmet-altan-mehmet. Web. 13 September 2016.
- Poyner, Jane. "Truth and reconciliation in JM Coetzee's *Disgrace*." *Scrutiny* 2 5.2 (2000): 67-77. *Taylor & Francis*. Web. 13 September 2016.
- Saunders, Rebecca. "Disgrace in the Time of a Truth Commission." *Parallax* 11.3 (2005): 99-106. *Taylor & Francis*. Web. 13 September 2016.
- Shukin, Nicole. "Tense Animals: On Other Species of Pastoral Power." CR: *The New Centennial Review* 11.2 (2011): 143-67. *Project MUSE*. Web. 10 October 2016.
- Spivak, Gayatri. "Ethics and Politics in Tagore, Coetzee, and Certain Scenes of Teaching." *Diacritics* 32.3-4 (2002): 17-31. Print.
- Unknown, "Nobelism Pamuk: 'Freedom of thought no longer exists' in Turkey." *The Japan Times*, 12 September 2016, www.japantimes.co.jp/news/2016/09/12/world/politics-diplomacy-world/nobelism-pamuk-freedom-thought-no-longer-exists-turkey/#.WC1_YmWO7Vo. Web. 13 September 2016.
- Willett, Cynthia. "Ground zero for a post-moral ethics in J. M. Coetzee's *Disgrace* and Julia Kristeva's melancholic."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45.1 (2012): 1-22. Print.

■ Abstract

Self-Reflective Individual and Disciplinary Power in J. M. Coetzee's *Disgrace*

Choi, Cho-A (Yonsei Univ.)

This paper takes issue with the critical view of David Lurie, the protagonist in J. M. Coetzee's *Disgrace*, as a sinner. It argues that David's resistance is ultimately a cry for individual will and freedom, to keep his private sphere intact from the encroaching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power. The paper investigates how the prototype of institutional domination found in Catholicism is worked into the mechanism of the hearing. In doing so, the parallel between Roman Catholicism's Sacrament of Penance, the purge of the intellectuals in Mao's China, and the committee's demands for David is examined. The ramifications of the hearing's failure that ques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al disciplining of individuals are also explored. Reading David as a resistant hero hints at the possibility that the reconciliation of the history's past and present, and the vision for a new-fangled future may begin with the distancing of the ruling consciousness from itself sans systematic or external intervention.

■ Key Words

J. M. Coetzee, *Disgrace*, individualism, disciplinary power, confession

영어권문화연구 9권 3호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Psychological Approach to Somerset Maugham's "Rain"

: Focusing on Personality Typology and the Unconscious

Han, Hak-Sun

I . Introduction

"Rain" is an outstanding masterpiece among Maugham's short stories and made him start his career as a successful writer.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s' personalities and psychological status on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s mostly based on the theories of Freud and Jung. On the onset of this paper, I intend to introduce the author's childhood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tory and this paper.

Maugham became an orphan around 10 and was raised by his paternal uncle emotionally cold and religiously rigid as a Vicar of Whitstable, in Kent and his German-born aunt with no experience of raising a child (*The Summing UP* 40)¹⁾. After receiving basic education in the local school, he was sent to King's School in Canterbury, where

1) Throughout this paper, the book name, *The Summing Up* used for quotations is abbreviated into "SU" and page numbers of quoted passages appear parenthetically in the text.

he spent “four years of torment and general unhappiness” (Rogal 170). In addition, his lack of fluency in English resulting from his long stay in France made him stammer and bullied by his peers, which caused him to be more isolated and depressed. How much influence this dismal childhood had on his view of life and literature is reflected in his 1916 novel, *Of Human Bondage* via the eyes of a little Philip (May 688). With regard to the impact of his infelicitous childhood on his literature, he indicated that such a depressed environment of his childhood made him a writer who had “no lyrical quality” and was lack of “poetic flights” and imagination (*SU* 22). However, Rogal suggests that such hardship played an essential role as a driving force to make Maugham produce literary works with an honest and trustful attitude and set a right direction for his future works as a short story writer (174).

As for the materials of his works, he was deeply attracted and attached to ordinary people rather than prestigious or celebrated personalities not for their own sake but for the sake of his work. This was because he strongly believed that celebrated people show the world their masks, often impressive ones but take care to conceal their real selves by playing the parts expected by the world. On the other hand, he thought that ordinary people, who were his field of interest, provide unending materials for literary works due to their unexpectedness, singularity, and infinite variety. His taste for the ordinary people started from the reading of Maupassant’s works. During his stay in France at the age of 14 for the medical treatment due to tuberculosis with family history, when he was at King’s School, he extensively read the French writers’ works among which he was

fascinated to the works of Maupassant, a writer who endeavored to describe the secular and fatuous lives of the middle-class people. (*SU* 6–8) I think that the awareness of his weak-points as a writer became a motivator to encourage him to be committed to writing satirical and authentic stories for the mediocre people and their lives. In addition, his talent to make the best of his acute power of observation was probably obtained by his medical experience and travel overseas, and the ability to make a logical judgement was possibly cultivated by his extensive reading. Believing that his special interest and affection towards the ordinary must have had a great impact on the personality typology and psychological status of the characters, I explore the personalities of the protagonists from their appearances and behaviors generally based on the Freudian and Jungian theories. Next, I analyze the effect of Davidson's psychological status on the escalation of conflicts with Thompson focusing on his repressed desire in the id.

II. The Birth Process of "Rain"

"Rain" is set in the South Seas in the wet season. In November, 1916, Maugham had an opportunity to take a trip to Hawaii, Samoa, and Tahiti with his secretary Haxton. He had already had a romantic emotion of the South Seas through his reading, but what he saw via his own trip offered him much more intense and exotic impression than what he had felt in his previous reading. His South Sea stories were "essentially criticisms of the romantic glamour of his

predecessors” rather than the reiteration of their illusions in that he tried to see the alien land as it really was without any poetic frills (May 689). He recalled that when he entered the new world he found “a new self” as well as beauty and romance he had never expected, and he felt all the instinct of a novelist inside him going out with “exhilaration to absorb the novelty” (*SU* 130). On the way to Tahiti from Hawaii, he determined to travel to Samoa, when the ship headed to Apia²⁾ was stranded near Pago Pago³⁾ because a Cholera epidemic was suspected and a quarantine was enforced. On the list of the passengers of the steamboat were the names of the people to be the main characters of “Rain”: the missionary Davidson, the whore Thompson, and the doctor Mulqueen. Mulqueen was renamed Dr. Macphail in “Rain” and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nly as a mediator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protagonists but also as Maugham’s alter ego. Regarding this, he revealed later in *The Summing Up* as follows: fact and fiction are so intermingled in his works that he regards himself as a character in the story and speaks through the creatures of his inventions although he pictures other people’s lives (9). For several days for quarantine, Maugham took careful notes of these people as well as the geographical features and climatic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which resulted in the famous novel “Rain” (Rogal 244). Four years after his first trip to the South Seas in 1916, he published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The Trembling of a Leaf*, in which “Rain” was contained. The six stories played a decisive role in establishing

2) Apia is the capital and the largest city of Samoa. From 1900 to 1919, it was the capital of the German Samoa.

3) Pago Pago is the territorial capital of American Samoa.

Maugham as a short story writer.

"Rain" is set in Pago Pago, where the American naval base is located and the cultures of the West and aborigines are intermingled due to its geographical feature of "a great land-locked harbor" where ships turn sharply and steam slowly (*Complete Short Stories* 4)⁴. Besides, the region provides an apprehensive and turbid atmosphere instead of the purity of the South Seas and the peaceful and orderly mood granted by the primitive nature. Also, the hot and humid weather of Pago Pago in the wet season applies pressure on the psychology of Davidson and Thompson, bringing the mood of tension and oppression. To make matters worse, the constant sound of rain makes the people miserable, hopeless, and powerless as if their bones suddenly become soft. The rain is portrayed as unmerciful and terrible and as containing "the malignancy of the primitive powers of nature" in it (20). No less than these clima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psychology of the protagonists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surprise ending of this story. In the following chapter, the personality typology of the characters will be discussed especially focusing on Davidson and Thompson, and Macphail.

III. Personality Typology

Freud thought that human personality consists of three major

4) Throughout this paper, all quotations of "Rain" are from *The Complete Short Stories of W. Somerset Maugham* and page numbers of quoted passages appear parenthetically in the text.

systems: the id, the ego, and the superego. For those who are mentally healthy, these systems are unified and achieve harmony, helping them effectively and satisfactorily to cope with the environment. And people cope with the environment because they want their basic instincts and desires to be satisfied. However, in case the harmony among the systems is broken, people do not adapt to the environment feeling unsatisfied with the world, and their abilities to cope with the environment decrease (Hall, 1999: 22). Freud thought that all energy which is used for performing the work of the personality originates from the instincts. In the process of satisfying the instinctive desires such as eating, sleeping, and sexual desires, the i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because its ultimate goal is to satisfy physical desires. Therefore, if these desires are satisfied, the instinctive energy does not emit any more and a person obtains a psychological stability. However, if not, an aggressive instinct revives and the means to achieve its goal is getting more elaborate. (Hall, 1999: 37-38)

In contrast, Jung had a different perspective on personality from Freud.⁵⁾ He did not entirely accept Freudian theory especially regarding his attitude to find solutions to most of the psychological problems in his sexual theory, and finally established a distinctive personality theory of his own called analytic psychology, where sex was rarely mentioned (Dewey, 2012: Chapter I). His personality typology begins with the distinction between introversion and extraversion. He believed that people are dominated by introversion

5) The two people met in Vienna in 1907, when Freud canceled all his appointments for the day and they talked for 13 hours straight. Indeed, Freud considered Jung as the crown prince of psychoanalysis and his apparent heir (Boeree 2006).

or extraversion but sometimes both attitudes exist in the same person. The introverted are generally self-centered and prefer to work in solitude and keeps their thoughts inside, forming their ideas on their personal belief and ignoring socially accepted concepts. On the other hand, the extraverted prefer to talk and work in groups and they are dependent on the outer world for their perceptions and understandings. (Boeree 2006) However, since humans are not "one-dimensional creatures," the dichotomous distinction of personality cannot account for all perceptions and judgements of humans (Pearman 9). From my standpoint, the heavy dependence on such dichotomous distinction may result in failure in grasping each individual's characteristic, and therefore more subdivided personality typology is needed in order to account for unique and unusual human behaviors.

Myers⁶⁾ subdivided extraversion and introversion into two groups respectively: stable and unstable. Those with stable extraversion are very social and eloquent, like responding to other things and people, and try to solve the problems rather than worry about them. On the other hand, those with unstable extraversion are very active and optimistic, but somewhat impulsive and capricious. And even though they are easily excited and extremely aggressive, they are not stingy with favorable and generous tears. Contrary to the extraverted, those with stable introversion have a tendency to be passive but quite careful in everything and considerate of others. They not only have a superb ability to control themselves but also provide others with a sense of

6) Briggs Myers implemented the ideas of Carl Jung and added her own insights. Katharine Cook Briggs and her daughter Isabel Briggs Myers constructed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to indicate psychological preferences in how people perceive the world and make decisions (Wikipedia).

trust. However, those with unstable introversion are very taciturn and hard to make friends with others, avoiding intruding into others' business. Besides that, they show skeptical and pessimistic attitudes for almost every issue, which makes them continually worried about what they do (Myers, 1987). In the subsequent sections, I portray what personality typology the main characters have, mostly based on the theories of Freud and Jung.

1. Davidson's personality typology

Davidson is a man of tall stature with very slender limbs which show a feeling of being loosely jointed. He has full and sensual lips which seem to indicate his suppressed desire. His appearance gives us an inauspicious impression that something unpropitious might arise immediately. What is more, the feasible discrepancy between his sensual image and his job as a missionary seems to work as an ignition device to arouse conflicts. The foreshadowing of the upcoming conflicts can be easily predict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writer's choice of the words. A delicately calculated strategy is hidden in Maugham's selection of the words because he was very talented in choosing them, which deliver the best meanings via the techniques of euphony, simplicity and lucidity. Regarding this, he suggested that words exist for their meanings and if readers do not pay attention to the words, it is like that they cannot pay attention to all of the story (*SU* 25). Therefore, careful attention is required for the description of Davidson's appearance in order to assume his personality:

His appearance was singular. He was very tall and thin, with long limbs loosely jointed: hollow cheeks and curiously high cheek bones; he had so cadaverous an air that it surprised you to notice how full and sensual were his lips. He wore his hair very long. His dark eyes, set deep in their sockets, were large and tragic ... But the most striking thing about him was the feeling he gave you of suppressed fire. It was impressive and vaguely troubling. (6)

The words such as “loosely jointed,” “sensual lips,” “tragic eyes,” “hollow cheeks” etc. work to foreshadow Davidson’s suppressed desire and its impending explosion. According to Freud, the deep and suppressed part of our mind is the id, which is the source of the libido, that is, a source of energy for the entire psyche. The id is described as chaos or a cauldron filled with seething excitation dominated by sexual impulses and aggression and it is expressed in drives and urges the behaviors like sex and aggression. However, the explosion of the libido is postponed or avoided due to the work of intellectualization as the defense mechanism⁷⁾ when we endeavor to adopt a self-possessed and logical attitude toward what becomes threats to our emotional upset. Artistic or religious activities function as the defense mechanism of sublimation and help to lead the id impulses to the refined and civilized behaviors (Dewey, 2012: Chapter 11). From my standpoint, Davidson could avoid the explosion of his repressed desire thanks to the strong belief in the Lord and his passionate missionary work, which must have worked as the defense mechanism. Prior to encountering Thompson, he may not have

7) A defence mechanism is an unconscious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reduces anxiety arising from unacceptable or potentially harmful stimuli.

experienced such a threatening incident as to trigger his suppressed libido. For him, the defense mechanism has worked as efficiently as to make his id impulses sublimated into the missionary work, for which he believes all means are justified. Davidson's personality typology is hard to be concluded as introversion or extraversion because he is very taciturn as an introvert when being with the Macphails, but his contribution and passion for the missionary work as well as his determined attitude indicate that he also has extraversion, which is well portrayed in his words:

How can I ask the natives to put their trust in the Lord if I am afraid to do so myself ... if they send for me in their trouble I'll come if it's humanly possible. And do you think the Lord is going to abandon me when I am on his business?
(11)

Besides his indomitable faith in the Lord, Davidson shows a cold-heartless and cruel personality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what he has in mind. He prevents the natives from wearing their traditional clothes, Lava-lava⁸⁾ by employing all possible means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m converted: offering penalty; imposing forced labor; and leaving them bullied and isolated from the native society until they completely yield to his order. (13) Such a cruel and dictatorial disposition must have originated from Maugham's childhood memories in his unconscious.

8) A lavalava is an article of daily clothing traditionally worn by Polynesians and other Oceanic peoples. It consists of a single rectangular cloth worn as a skirt.

Freud associated the libido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ersonality. According to him, the movements of libido are termed as introverted and extraverted respectively, and introversion and extraversion are described as inborn and having a biological foundation (Hall, 1999: 59). Contrary to Freud's standpoint, Jung thought that extraversion is involved with a high rate of fertility with relatively few defensive powers, and introversion a lower rate of fertility with much greater means of self-preservation. In consequence, given that most persons are born with a greater capability of adapting in one way rather than the other, an early falsification of one's personality type can become a source of neurosis in one's later life. If one function dominates over the others, the less dominant ones are repressed into the unconscious. (Jung 29-36)

On the whole, Davidson has a very complicated personality. He has both introversion and extraversion. However, prior to encountering Thompson, he may have had stable introversion according to the estimate of his superb ability to control himself and provide others with a sense of trust. Currently, he has unstable introversion which can be estimated by his taciturn manner and difficulty making friends with others. Nevertheless, it is still hard to define his personality as either introversion or extraversion. What is noteworthy regarding personality is that when introverts express extraversion, they become more lunatic and extreme, sometimes falling into a passionate love or harsh hatred. Davidson's extraversion toward Thompson is close to insanity and shows extremity.

2. Thompson's personality typology

Throughout the "Rain," three women are involved with Davidson: Davidson's wife, Thompson, and Mrs. Macphail. Among them, Macphail's wife is not described in this paper because her role is meager regarding the conflicts with Davidson. Davidson's wife as opposed to Thompson is thought of as a major cause of her husband's suppressed desire which is assumed by her appearance, movement, and voice:

She was dressed in black and wore round her neck a gold chain, from which dangled a small cross. She was a little woman, with brown, dull hair very elaborately arranged, and she had prominent blue eyes behind invisible pince-nez⁹⁾. Her face was long, like a sheep's, but she gave no impression of foolishness, rather of extreme alertness; she had the quick movements of a bird. The most remarkable thing about her was her voice, high, metallic, and without inflection; it fell on the ear with a hard monotony, irritating to the nerves like the pitiless clamour of the pneumatic drill. (2)

Contrary to the monotonous and elaborate image of Davidson's wife, Thompson has a very sexually attractive and social image, which is well described in the words like "plumpy," "white," and "bulged":

She was twenty-seven perhaps, plump, and in a coarse fashion pretty. She wore a white dress and a large white hat. Her fat calves in white cotton

9) Pince-nez is a style of glasses which were popular in the 19th century and supported without earpieces by pinching the bridge of the nose.

stockings bulged over the tops of long white boots. (8)

Behind the sexual impression lies her warm-heartedness, which changes into violence and savageness when her privacy is interrupted by Davidson. When she is driven into a corner by Davidson's thorough stratagem to expel her, she does not hesitate to pour coarse language toward him as well as furious resistance. However, when she comes to realize that there remains no way to escape from his stratagem, she shows weak femininity, leaving her fate in his hands. He sticks to punishing her to the extent the readers wonder. His over-involvement in her business started with the express purpose of saving her soul, but his obsession gradually turns into interest in her as she grows naive and shows weak femininity.

According to Myers's subdivision of personality typology, Thompson must have had stable extraversion before her privacy was interfered by Davidson because she has shown a very social personality, being eloquent and favorably responding to other things and people so far. She also tries to solve her own problems by deciding to take a ship toward Sydney where she can avoid being in prison in spite of her previous prostitution. However, her personality changes into unstable extraversion when Davidson begins to deeply interfere with her business and life in the name of the salvation of her polluted soul. She turns somewhat impulsive and capricious, and when her deportation day to San Francisco, where the penitentiary is located, comes nearer, she grows excited and extremely aggressive. (Myers 1987)

I think that the crash of the two persons appears unavoidable given the obvious difference of personality typology which works as a

major factor to cultivate the conflicts in this story. For those who are mentally healthy, the three parts consisting of human personality are unified and works harmoniously, preventing them from being inclined to one part. However, Davidson's psychic harmony is broken due to the advent of Thompson, and so has Thompson's. To sum, since it is human nature to cope with the harsh environment because humans want their basic instincts and desires to be satisfied, it seems that the two persons are bound to be involved in severe conflicts until they find their psychic equilibrium again.

3. Macphail's personality typology

Macphail is thought of as Maugham's alter ego, which is assumed in the description of him on the onset of the story: "After two years at the front and a wound that had taken longer to heal than it should, he was glad to settle down quietly a Apia for twelve months at least" (12). Although he is not a protagonist, he speaks for Maugham's views of life and human: "I speak through the creatures of my invention" (*SU* 9). As an observer and mediator, he plays a role in foreshadow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protagonists. He is a man of forty with a pinched face, who is thin and looks "precise and rather pedantic" (1). Contrary to Davidson with a very self-centered and dictatorial personality, Macphail has a somewhat timid personality, which can be presumed from the passages: "when he was operating in an advanced dressing- station the sweat poured from his brow and dimmed his spectacles in the effort he made to control his unsteady hand" (11). In spite of this timidity, the readers can see his geniality towards the

ordinary or even secular people like Thompson, which sometimes works as a factor to cause the conflicts with Davidson.

Jung divided the human psyche into three parts: the ego which is conscious mind; the personal unconscious which includes what is not conscious at present but can be;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which is like most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unconscious. He also developed the notion of a persona, which is a mask for the collective psyche consisting of "the sum of psychic facts that are felt to be personal." (Jung 36) He believed that archetypes such as persona, anima, and animus, and shadow are very important to form our personality and behavior, among which the persona represents our public image. We put on a mask before we show ourselves to the world. At its best, the mask shows the good impression we aspire to present when we implement the roles that the society requires of us. At its worse, it shows the false impression with which we manipulate our opinions and behaviors. (Hall and Nordby 67-69) As Davidson is wearing his uncle's mask which represents the contradictory and dictatorial religious society of the times, Macphail is also putting on Maugham's mask which I assume is intended to typify his humanity and affection towards the ordinary people and native cultures, which is indicated in the following passage:

I have been held back also by the irksomeness of setting down my thoughts in my own person. For though I have written a good deal from this standpoint I have written as a novelist and so in a manner have been able to regard myself as a character in the story. Long habit has made it more comfortable for me to speak through the creatures of my invention. (SU 9)

Macphail's timid personality is best portrayed in some episodes in the story: when Davidson's wife says that she cannot expect a sense of morality from the natives due to their vulgar attire, Macphail talks in defense of the natives by refuting that such attire is suitable for the weather there; when he heard his wife saying that Davidson would persuade the landlord to expel Thompson, he sides with Thompson saying that "there doesn't seem to be any other place for her to go" and "in weather like this a native hut must be a rather uncomfortable place to live in" (19); and when he tells his wife to ask the missionary to let Thompson go to Sydney instead of sending her to San Francisco where the prisonment is waiting for her (27).

According to Jung, a persona is intended to play the role of male or female and for most people the role is determined by their physical gender. What is more, people are bisexual in nature because when they begin their lives as fetuses they have undifferentiated sex organs which gradually become male or female under the influence of hormones. Accordingly, people become gradually molded into men and women when we are under the influence of society, having the personality of anima or animus: the anima is the female aspect which is present 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of men; and the animus is the male existing 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of women. (Boeree, 2006) In the following chapter, I analyze the effect of Davidson's unconscious on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s, focusing on his repressed desire.

IV. Influence of the Unconscious on Development of Conflicts

Psychology is the study of human behavior and mind, which includes all aspects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thoughts and experiences. At an earlier stage, Freud divided human psyche into three: the conscious, the pre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However, later, he newly presented the entities of human psyche: the id, the ego, and the superego. (Hall 1999: 54) The id is the source of our bodily needs, desires, and impulses, in particular, our sexual and aggressive derives. Also it is dark and inaccessible part of our personality, containing the libido which is the source of instinctual force to seek pleasure and avoid pain. According to Freud, the id is generally infantile because it is inherited and present at birth, and the unconscious which occupies most of the id is no good and evil and no morality in nature, not perceiving the judgement of value. Therefore, In our unconscious we are very childish now that we expect immediate satisfaction but have low patience for frustration. (Hall 1999: 39-40)

Influenced by Freud, Jung also divided the human psyche into three parts: the ego, the personal unconsciou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Freud's notions of the id and superego disappeared in Jung's division of human psyche. The personal unconscious is viewed as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s since a person's lifetime and as not consciously recalled. The collective unconscious, on the other hand, is a sort of what human beings have universally inherited, and it is like the memory of the species passed on to all human beings like animals' instincts. Even though Jung was deeply influenced by Freud,

he disagreed with Freud's heavy dependence on sexuality as a key to motivating behavioral force and his concept of the unconscious as too limited and overly negative. In 1912, Jung published *Psychology of the Unconscious* which outlines the clear theoretical divergence between himself and Freud and forms the basic tenets of Analytical Psychology. (Hall and Nordby 32-33) Now, I will summarize the development of conflicts between Davidson and Thompson and analyze the cause of the conflicts from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of Freud and Jung.

The Davidsons, the Macphails, and Thompson come to stay in the same house for a fortnight because of the epidemic of measles developed among the crew of the schooner on their way to Apia, the capital of the west Samoa. Before Davidson is not aware that Thompson is a whore who escaped from Iwelei which he thinks is a blot on our civilization, he does not show any sensitive response to the music flowing out of her room and the boisterous sound with men, unconcernedly looking at his watch. And when he hears the same sound the next day again, he pretends to be indifferent to the sound, talking about the medical issues with Macphail, but the twitch of his face indicates that his whole attention is directing to her room. Suddenly at the moment, the thought comes to his mind that she was out of Iwelei filled with sin and shame, and his voice begins to tremble with indignation and horror, losing temper and shouting with no patience. He criticizes Iwelei as the most obnoxious place in the South Seas, where he endeavored to expel the prostitutes using persuasive logic that vice is a necessary evil. After he found out her indecent past, his eyes are flashing and his pale face turns paler in his

emotion. Finally, in spite of Macphail's dissuasiveness, he rushes into her room and hurls the gramophone on the floor, which makes him disdainful of being thrown out of the room by some robust men in the room. In the middle of this turmoil, she turns on the gramophone defiantly again, shouting the words of an obscene song in a mocking voice. (15–18) After feeling ashamed of being thrown out of the room, Davidson is hardly asleep all night and goes out in a nervous state at dawn. He seems to plot against her with the clue not found. He asks for an interview with Thompson for the purpose of saving her soul before his plot is revealed.

Freud divided anxiety into three types: reality anxiety; neurotic anxiety; and moral anxiety. In other terms, "the three types of anxiety which the ego experiences are fear of the external world, fear of the id, and fear of the superego." (Hall 1999: 62) I assume that Davidson's anxiety originates from the fear of the id and the superego and it is involved in both the neurotic anxiety and the moral one; thus, it indicates the danger signal to the equilibrium of his psyche.

Finally, Davidson's first face-to-face confrontation with Thompson is made without any interrupter and the rain stimulating sensory nerves continues. The rain continues unmercifully as if it foreshadows the upcoming conflicts of the two, and it seems to harbor "the malignancy of the primitive power of nature" (20). As time passes by, his desire to save her soul is getting stronger and obstinate, which makes their conflicts aggravating and their relations strained to the breaking point. His obstinate behavior toward her can be explained by Freud's term 'object-choice.' According to Freud, "the investment of energy in the image of an object, or the expenditure of energy in

discharge action upon an object that will satisfy an instinct, is called object-choice or object-cathexis” (Hall 1999: 39). I think Davidson may have chosen Thompson as an object to satisfy his instinct via the expenditure of his repressed energy in discharge action.

Meanwhile, in order to hide anxiety and loneliness, Thompson turns on the gramophone again in defiance but the note is melancholy and sounds like she is asking for help. As his prayer to save her polluted soul gets stronger, a little change is seen in her attitude as if she gives an answer to the prayer. When she encounters Mrs. Davidson and Mrs. Macphail, the previous sardonic smile disappears on her face and “the pretence of mirth” is seen in her attitude. (23) She looks plainly perturbed and hastened on by something. Davidson’s stratagem gradually appears on the surface and her last resistance is made in a way to pour out “a torrent of insult” to him such as “you poor low-life bastard” but he accepts her resistance indifferently. (20- 25) Five days later, she is ordered to take a ship toward San Francisco and turns into a completely defeated loser. Her hopeless image in a white hat and clothes looks like a patient emaciated by long illness. A nervous psychological status is seen in her behavior of folding and unfolding her fingers spasmodically, from which her defiant image is not seen. I think that unlike the neurotic and moral anxiety of Davidson, Thompson’s anxiety comes from the reality, where Davidson forces her to take a ship toward San Francisco. According to Freud, those who are suffering this type of anxiety cannot do anything to “fend off the danger,” and they come to collapse or faint due to the escalation of the anxiety, finally leading themselves to death (Hall 1999: 64). To get out of this anxiety,

Thompson asks Macphail to persuade Davidson to send her to Sydney, but Davidson does not accept the suggestion in spite of Macphail's entreaty. Macphail soothes her with the promise to see the governor himself, but his effort to help with her dilemma ends in vain, which makes her visit Davidson of her own. What is noteworthy at this point is that her previous defiant and arrogant image has disappeared before him:

This is no longer the flaunting hussy who had jeered at them in the road, but a broken, frightened woman. Her hair, as a rule so elaborately arranged, was tumbling untidily over her neck. She wore bedroom slippers and a skirt and blouse. (30)

Now she turns into an effeminate woman and entreats him not to send her to San Francisco, swearing to God that she will be a good woman if not sent to the penitentiary. In spite of her swearing to God, he does not show mercy and sticks to his original intention, which is subject to his own misfortune. After her entreat is rejected, she does an animal-like behavior to "burst into low, hoarse shrieks" which sound hardly human and "beat her head passionately on the ground" (31). She is carried to her room by the landlord and Macphail in a state of being almost insensible. She completely succumbs to Davidson's pressure and what is noteworthy at this point is that a surprising change has happened to the names by which Davidson refers to her: when he refers to her while praying with her to save her soul, he names her "our erring sister"; and when he kneels in prayer, he names her "dear sister, Sadie Thompson" (32). What is more, a great shift of

attitude toward Davidson has happened to Thompson. She is eager to meet him, saying to Macphail that Davidson will be willing to see her whenever she wants. Davidson also rushes to her on receiving her message of seeing him. Finally, she comes to confess before Davidson and other men that she has been a bad woman and wants to repent. On hearing this, Davidson asks the other men to leave him alone only with her, saying that the Lord has heard their prayers (33). After letting Macphail and the landlord go out around two at dawn, Davidson stays with her all night. Macphail hardly falls asleep due to the anxiety about gloomy foreboding surrounding the two persons.

The next morning, when Macphail keeps eye contact with Davidson, he notices that Davidson's eyes are shining with "inhumane fire" and "ecstasy" and he is filled with "overwhelming joy" (33). And Davidson naturally calls her "Sadie" which is a term of endearment toward one's sweetheart, saying that her soul has been transformed although he cannot say that her body has been purified. When asked if he stayed up with her last night, Davidson responds to Macphail with these words: "she could not bear to have me leave her ... a great mercy has been vouchsafed me. Last night I was privileged to bring a lost soul to the loving arms of Jesus" (33). For the next three days, he has spent most of his time with her praying until he becomes exhausted with rarely eating and sleeping, which seems as a harbinger of his breakdown. Mrs. Davidson tells Macphail that she heard Davidson say that he has been dreaming about the mountain of Nebraska, which looks like a woman's breasts. I think Davidson's dream is to be explained by the Freud's theory of the id:

When the directional flow of instinctual energy is blocked by ego or superego processes, it tries to break through the resistances and discharge itself in phantasy or action. When the breakthrough is successful, the rational processes of the ego are undermined. (Hall 1999: 40).

Freud thought that dreams disguise the desires of the dreamers. There remains a constant connection between some part of our every dream and some details of our life during the previous waking state (*Dream Psychology*). Davidson's dream of the mountain Nebraska is considered the indirect presentation of his wish and the cause of the obscurity is Davidson's desire to conceal his thoughts. Usually, the male genital is symbolized by persons and the female by a landscape. In the case of Davidson, the landscape of the mountain Nebraska which resembles the woman's breasts symbolizes the female genital. However, this symbolic gratification is not sufficient for the powerful libidinous excitement (*Dream Psychology*). Contrary to Freud, Jung made a very different interpretation of dreams. He thought that "dreams act as a compensation, aid in maintaining psychic equilibrium and serves as a mental corrective" (Jung 35). To Jung, even the dream of a penis does not have much to do with the dreamer's unfulfilled sexual desire because in primitive societies, not every phallic symbol referred to sex and it rather stood for spiritual power, and most primitive cultures understood the strong connection between the penis and strength, that is, between fertilization and fertility (Boeree 2006). Therefore, Davidson's dream of the mountain Nebraska is viewed as one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from Jung's perspective.

Getting back to the story again,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ompson's attire and psychological status which become major causes to ignite Davidson's desire. She wears a dressing-gown with no stockings and her hair is tied in a sluttish knot, with her eyes swollen and creased with crying. Davidson's restlessness looks intolerable even to himself but he is buoyed up by a great exhilaration, spending time reading and praying with her. His psychological state is getting more and more nervous due to lack of sleep and eating. As for Davidson's nervousness, Freud thought that "behind every neurotic fear there is a primitive wish of the id for the object of which one is afraid." Therefore, I assume that what Davidson really fears is his own shadow or his own id because his id is "constantly exerting pressure upon his ego" until it reduces his ego to "a state of helplessness." (Hall 1999: 65)

Davidson says that he is seeing the true rebirth of a bad woman who is getting pure and white like the new-fallen snow, and when he sees her beautiful remorse for all her sins, he feels as humble and afraid as not to touch the hem of her garment. On hearing this, Macphail suggests to Davidson that she should not be sent to San Francisco since she is sincerely repenting and her soul has been saved. In this regard, Davidson says that he is bleeding in his mind and loves her as he loves his wife and sister, when his voice trembles with excitement and he can hardly articulate the words due to the passionate emotions. (35) I think that Davidson's cruelty toward Thompson should be viewed as sadistic attacks caused by his rising moral anxiety. In terms of this cruelty, Freud stated that "moral anxiety, which is experienced as feelings of guilt or shame in the ego, is aroused by a perception of danger from the conscience" (Hall 1999:

68). And a person who exercises a lot of self-control like Davidson is supposed to give a good deal of thought to "instinctual temptations" because he cannot find "other outlets for his instinctual urges" (Hall 1999: 69). The superego of a very high-minded person like Davidson is able to get satisfaction for the id "by attacking people who are considered to be immoral" such as Thompson (Hall 1999: 48).

Contrary to the exhilaration of Davidson in the process of saving her soul, Thompson who has been wretched and tortured by his expulsion order feels as if she were a victim to wait for the savage rites of a bloody idolatry. Only when she is with Davidson does she have courage, but without him she becomes unkempt and dishevelled. Everyone is waiting for the day when the ship for San Francisco is to arrive in the intolerable tensions. The next morning, Macphail gets up by hearing the landlord calling him. The people lead him to the seaside where Davidson's dreadful dead body lies with his throat cut from ear to ear. He is more surprised at Mrs. Davidson's unnaturally composed attitude and steady voice regarding her husband's death as if she had known that such a thing is destined to occur. And from the downstairs, the gramophone is playing ragtime loud and harsh, with a sailor chatting with Thompson who is wearing white dress and high shiny boots over her fat legs bulged in her stocking. Peace comes to the place where the missionary left and people return to their usual life, with Thompson starting her business again, which made Macphail outraged and rushed into her room to blame for her frivolous behavior. Instead of her apology, he comes to hear her pejorative words: "You men! You filthy, dirty pigs! You're all the same, all of you. Pigs! Pigs!" (40). Her disdainful words using the metaphor

of 'pig' towards all men imply what happened between the two last night. Instead of mentioning why everything has changed in a single night, Maugham leaves the assignment to the readers, who can interpret the reason from their own perspectives.

V. Conclusion

So far I hav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personality typology and the psychological status on the conflicts between Davidson and Thompson from Freudian and Jungian perspectives. According to Freud, our energy is at the disposal of the ego and superego because it is employed for two general purposes. First, our energy helps to discharge our tension via its investment in cathexes, which are defined as the process of investment of mental or emotional energy in people, objects, and ideas. Second, it prevents the discharge of tension by being in anti-cathexes. For a balanced and healthy life, to maintain energy equilibrium between the id and the superego is important. (Hall 1999: 70) Therefore, what we think and do are assumed to be determined by the relative strengths of these driving and resisting forces. Regarding the cause of Davidson's unexpected behavior, how we should interpret his rape in the process of saving her soul and his subsequent suicide is our assignment. Should we see that the whore intentionally lured the missionary to rape her in order to avoid his punishment? Or should we see him as a wolf in sheep's clothing to rape the hopeless prostitute in the name of bringing salvation for the purpose of discharging his repressed desire? I have

some different perspectives.

In the case of Davidson, the equilibrium of the relative strength began to break after meeting the opposite subject to his wife. In spite of his effort to maintain the balance, the energy from the id where his libido was repressed was too strong to be sublimated into other forms of behavior or art. However, his superego kept saying that his desire should be repressed because he is a missionary, which made his guilt feelings unbearable: therefore, he could not help doing "something to invite punishment from an external source in order to expiate his guilt and secure relief" (Hall 1999: 69). Such person is subject to "commit crimes out of a sense of guilt" and wants to be punished (Hall 1999: 69). As Hall puts, Davidson's superego must have ordered him to punish himself rather than being humiliated alive, which is seemed the best way for him to expiate his guilt. Therefore, I think it is not right to judge his behavior just with a standard of evil, good, or moral because a lot of complicated and inexplicable factors, whether they are psychological or environmental, lie behind the unexpected behaviors of human beings.

To sum up, the message that Maugham wants to deliver through this short story is not the problem of guilt or innocence surrounding a missionary's behavior, but the human internal conflicts between good and evil. Maugham is a writer who put a high value on humanity and tried hard to represent it in his stories by showing diverse aspects of human life. Instead of making the readers influenced by his view of life, he led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based on their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by leaving the final answers for the readers.

■ **Keywords**

Maugham, Rain, Conflict, Personality, the Unconscious

■ Works Cited

- Allport, G. (1955). "Becoming: Basic Considerations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http://www.panarchy.org/allport/becoming.html>, 2016. Web. 10 Aug. 2016.
- Boeree, George. (2006). "Personality Theories of Carl Jung," <http://web.space.ship.edu/cgboer/jung.html>, 2006. Web. 7 Sep. 2016.
- Dewey, Russel A. *Psychology: An Introduction*. <http://nraobbs.blogspot.kr/2012/02/psychology-introduction-by-russell.html>, 2012. Web. 17 Sep. 2016.
- Freud, Sigmund. *Dream Psychology*. Translated by Jung Myung Jin. GoogleBooks. 2012. Print.
- Hall, Calvin and Nordby Vernon.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Translated by Kim Jyung Seup. Moonye Publishing, 2009. Print.
- Hall, Calvin.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Sigmund Freud*. New York: Meridian Printing, 1999. Print.
- Jung, Carl. *Abstracts of the Collected Works of C.G. Jung*. Edited by Carrie L. Rothgeb and Siegfried M. Clemens. Maryland: DHEW Publication, 1978. Print.
- Maugham, W. Somerset. *The Summing Up*. The New American Library of World Literature: New York, 1958. Print.
- _____. *The Complete Short Stories of W. Somerset Maugham: I. Rain & Other Stories*.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8. Print.
- _____. *Of Human Bondage*.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70. Print.

May, Charles E. *Short Story Writers*. California: Salem Press, 2008.

Print.

Myers, David G. *Psychology*. New York: Worth Publishers, 1987. Print.

Pearman, Roger R. *Habits of Mind: Jung and Psychological Type*.

London: Micholas Brealey Pubication, 2010. Print.

Rogal, Samuel. *William Somerset Maugham Encyclopedia*. Westport:

Greenwood Press, 1997. Print.

■ Abstract

Psychological Approach to Somerset Maugham's "Rain": Focusing on Personality Typology and the Unconscious

Han, Hak-Sun (Kyungnam Univ.)

"Rain" is one of Maugham's best known short stories to make him famous as a writer.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personality typology and psychological status of the protagonists on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s from the Freudian and Jungian perspectives. The conclusion is that for humans to live a peaceful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equilibrium among three part of human psyche: the id, the ego, and the superego. If the balance is broken, humans sometimes do unexpected behaviors regardless of their own wills. From my own perspective, despite Davidson's effort, the energy from the id was too strong for him to accommodate the order of the superego. The increasing anxiety caused by his morality and sexual desire made him feel heavily guilty, having him make a final decision to expiate his guilt and secure relief by committing suicide right after relieving his desire.

■ Keywords

Maugham, Rain, Conflict, Personality, the Unconscious

영어권문화연구 9권 3호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A Gesture Life*

Ashley Harbers

Introduction

A Gesture Life has been read as a variation of the historical novel, as an inquest into Asian American identity in the context of American assimilation, as a transnational or diasporic narrative, as an exploration of new dimensions of literary realism, and even as a chivalric romance. Critically, the novel is read as a success in some of these dimensions and as a failure in others. At the center of many of these discussions is the unreliable narrator, (Korean family name Oh)/Jiro Kurohata/Franklin Hata, who, through euphemism, elision, and indirect circumlocution, narrates a stream-of-consciousness tale that alternates between present and past with little warning other than what initially appear to be loose connections in his memory. Significantly, the reader is not at all passive in this story; he or she must work to piece together the chronology of and fill in the gaps in Hata's narrative, and herein lies another aspect of the story's power. The reader is often placed in the analyst's chair through instances in which we can clearly

recognize the subject's attempts at atonement, reconciliation, and crisis resolution, although Hata himself does not recognize his actions as such. In that position, we must also interrogate our feelings toward Hata, feelings that over the course of the novel may vacillate between anger and indignation at one end of the spectrum, and shame, even pity, at the other end. Dramatic irony is at work in the novel, and the reader often apprehends connections between and among incidents and images; Hata does not acknowledge these connections, though he does become increasingly aware of them at the novel's end. Many critics¹⁾ have addressed Hata as an "unreliable" or "untrustworthy" narrator, but perhaps because of the incredibly horrendous events that serve as context for the novel, or because of the impossibility of addressing every significant aspect of a novel, only a few critics, including Alexis Motuz, have addressed Hata's narrative situation as one that exhibits a kind of trauma, unacknowledged explicitly in the novel but recognizable to the reader who is aware of the active work he or she must do in recognizing the gaps in Hata's account.²⁾

The dimension of trauma, perhaps controversial in a postmodern age that has reshaped trauma as a moral rather than a psychological issue, is one that we should consider when examining Hata as both narrator and character. First, viewing Hata as suffering from perpetrator trauma does not at all exonerate him for the crimes structurally and institutionally perpetuated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and by

1) For example, see the work of Hamilton Carroll, Christopher Lee, and Alexis Motuz cited later in this article.

2) Carroll does mention Hata's "traumatic narrative," but he is more concerned with how the novel "consistently displaces Hata's tale of successful assimilation"(593) rather than how it articulates a traumatic subject.

-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A Gesture Life* | Ashley Harbers

extension, Hata himself. I am not arguing that we should withhold moral judgment on his actions; rather, to engage with the multi-dimensionality of the novel, we should closely examine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his actions and the consequences of his failure to come to terms with the past. Reading Hata as a traumatized subject engages issues of literary representation in the novel as well as the reader's role in interpreting Hata's history as mediated through his memory. This paper first considers the way that unrecognized history can problematize literary represent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history and memory, and the heightened requirements placed on the reader in the presence of an unreliable narrator. At the end of the novel, I contend, we may find ourselves trading places with Hata, undergoing a kind of analysis as well through the participatory act of reading.

The Ethics and Aesthetics of Literary Representation

Questions of representation abound in *A Gesture Life*; readers and critics alike take issue with certain elements of the novel, namely the recession of Kkutaeh, or K, the “comfort girl” with whom Hata falls in love in a scenario where the “appalling colonial history is transformed into background against which a foredoomed love story unfolds as mediated through the recollection of Hata” (Rhee 96). A common criticism levied against novels that characterize the comfort woman is that the representation fails in some way to adequately capture her experience, or that the representation deprives the comfort woman of

her agency, her humanity, or some other aspect that has become incumbent upon writers of fiction to present in the absence of cohesive historical recognition. Christopher Lee argues, though, “K functions as the arbiter of historical truth and enables *A Gesture Life* to fulfill its realist commitments by foregrounding Hata’s failures as both narrator and character... In a striking inversion, her lack of power as a character allows her to function as the anchor of the novel’s realist epistemology and political commitment” (106).

Foregrounding the existence of such diverse perspectives, perspectives inflected by a tension between aesthetics and ethics in general and the unresolved nature of the comfort women issue in particular, recalls Kandice Chuh’s argument about

the critical importance of approaching representations of ‘comfort women,’ like any and all representations precisely as representations—as discursive constructions and not as mirrors of the real. If we fail to do so, we will likewise fail to contend adequately with the complexities of both the representations under study and the histories to which categories like ‘comfort women’ refer. (9)

She argues for a “distinction between ‘comfort woman’ as an epistemological/literary object, and the actual people who lived through the institutional violence that is part of the history underwriting that term” (Chuh 9). Chuh also argues that the comfort woman, taken as term of analysis and history, prevents her (and the text) from becoming a way—sometimes *the* way—that people understand “how ‘they’ *really* are,” a trap into which Western readers are especially prone to fall (due in part to a general ignorance of Asian history except where it

-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A Gesture Life* | Ashley Harbers

intersects with the West, primarily during and after World War II). In this reconceptualization, the comfort woman becomes “dislodged from functioning as an identity or as a description of a person, and reconstituted to work as a reference to multiple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discursive practices that materialize bodies—that make bodies matter, both literally and figuratively” (Chuh 9).

This issue of the materialized body and its representation becomes particularly interesting in *A Gesture Life*, considering deliberate instances of disembodiment—first the death of Hata’s friend Enchi, the dismemberment of K, and lastly, in Hata’s recollection of Sunny’s late-term abortion by C-section. Chuh’s argument for the representative capacity of the comfort woman figure is jarring if representation is regarded as diminishing the historicity of their experiences; there is a fear amongst both critics and readers of losing a sense of the historical through a seemingly reductive representation, especially for an issue that continues to struggle for historical recognition. Others, like Chuh, fear more that a focus on the violence perpetuated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will obscure the systemic, institutionalized violence (10) that is perhaps more accessible, or at least more recognizable, when we consider the manner in which the novel is narrated through and mediated by memory. K’s figuration in *A Gesture Life* is intended not to relegate the comfort woman to a distant historical background, but rather, as Lee argues, foreground Hata’s dual failures. Ultimately, this is Hata’s story; in this narrative mode, K cannot speak except where conjured by Hata’s memory. Her representation should not be viewed as diminishing the experience of the comfort women but foregrounding the crimes of their violators.

Intersections of History and Memory

Nigel Hunt's observations about narrative and memory can alleviate some of the anxiety about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Hata's account. Hunt says, "Within the study of memory it is pointless to discuss whether or not a particular memory corresponds to the actual objective past. What we should be concerned with is how and why the memory is constructed as it is" (108); the reason for this is "narrative involves the attempt to develop a coherent past, which involves over-emphasizing the role of some events (memories) and under-emphasizing others (perhaps memories about which we are embarrassed, or which do not fit our current conceptions of ourselves)" (116). Hunt clearly articulates Hata's relationship with the narrative and the role of memory in its creation. How do we know that Hata is so clearly self-deceived? How do we recognize him as an unreliable narrator? How do we know that his memory is withholding the full scope and measure of the past? There are hints early in the novel that Hata is aware of the choices he faces regarding his memories. His backyard swimming pool with "bottom and sides painted a dark battleship gray to match the stone surround" (*Gesture* 22) functions as the anchor of his daily routine and serves as a place of imagination and reflection. More than once in that pool, Hata has a dissociative out-of-body experience, seeing himself in the water: "I could see the exacting, telling shapes of all...and what caught me too was that I knew there was also a man in that water, amidst it all, a secret swimmer who, if he could choose, might always go silent and unseen" (*Gesture* 24). The dark-watered swimming pool may seem

-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A Gesture Life* | Ashley Harbers

too obvious a metaphor for memory and for the unconscious mind, but the prominence of light and dark pools in the novel should not be discarded just because it is accessible; not only is the reader acutely aware of the relationship Hata articulates between water and memory, but also the ease with which the metaphor is apprehended comfortably ushers the reader—any reader—to the analyst’s chair. Hata is aware of his choices regarding his memories; he can further repress them or risk drowning in them, as other, later incidents in swimming pools reveal.

Before we know anything about the fraught relationship between Hata’s memory and his reality, he says to Officer Como and her daughter from his hospital bed:

I’m not sure what I see anymore when I ‘look out’... if it’s real or my own making or something in between, a widely shared fantasy of what we wish life to be and therefore, have strived to create. Or perhaps more to the point, what ought we see, for best sustenance and contentment and sense and purpose to our days? I...can operate only provisionally at present. (*Gesture* 80)

At this point in the novel, Hata almost acknowledges the problem of memory, the ease with which we can “doctor” it, modify it to suit our needs. Toward the novel’s end, he revisits this idea again, although at that point he longs for “erasure” rather than reclamation of innocence (*Gesture* 290). This conversation with Officer Como warns of both narrative unreliability and the malleability of memory while foreshadowing the later appearance of K’s ghost once the division between Hata’s past and present further blurs. This “provisional” operation,

accompanied by mentions of “persistence” and “perseverance,” reflects failed attempts to cope with his own trauma. Later in the novel, we can quickly ascertain that there is a certain kind of sadness, even a melancholy,³⁾ that surrounds him. The elegiac tone and the halting, resigned way in which Hata recalls some events that elicit regret are paired with prefaces of reluctance—“I didn’t really care for those activities, but,” “I didn’t drink a lot, but,” “I didn’t like those pictures but I looked anyway,”—that attempt to explain or minimize his role in some of these events. For Hunt, these are psychologically natural ways of minimizing uncomfortable memories, but for readers, they warn us to question the narrator. This narrative style has natural limitations; while we must accept that there are things that cannot be known through first-person narration, it is only through this style of narration that we can gain an analyst’s access to Hata’s mind. The freedom of writing of history through memory, though, is in the subjectivity of memory itself.

Trauma and Vicarious Expiation

If we want to interrogate Hata seriously at the many psycho-social levels the novel makes available, then it is only helpful to explore his own convoluted history as well. To understand Hata as someone who

3) At times Hata seems unsure not of what he has lost, but of how it has influenced and shaped him. On that note of consciousness, Freud says, “This indeed might be so even if the patient is aware of the loss which has given rise to his melancholia, but only in the sense that he knows whom he has lost but not what he has lost in him” (Freud 245).

has experienced trauma, first we must explore two aspects of his character: his relationship with knowledge—including both his lack of self-knowledge and stubborn refusal to recognize reality—and his Korean ethnic origins. We can certainly explore his cognitive dissonance and painful lack of self-knowledge through, for example, the regular chest pains he does not understand—pains the reader can clearly connect to anxiety based on when they occur in his narrative—and how he was “strangely unmovable” on the issue of adopting a daughter (*Gesture* 74). The latter example indicates his failure to recognize his adoption of Sunny as a coping mechanism. Second, his origin positions him in a place of trauma. Hata, as an ethnic Korean, occupies the unenviable space of colonized and colonizer.⁴⁾ Incidentally, Alexis Motuz has also used this position to explain Hata’s “urgent desire to belong, his ethnic erasure and passing, and…the roots of both his racism and classism” (421). The question becomes, then, how can we articulate Hata as traumatized without seeming to exonerate him for his complicity in crimes against humanity in general, and against the comfort women in particular?

Both Hata’s quiet complicity and his actions are indefensible; however, if we are trying to understand the construct of the character, a significant element of that construct lies in interrogating our definition of trauma. According to Saira Mohamed,

Trauma as a psychological condition refers to a response to an experience that renders an individual unable to properly process that experience, which

4) See also Young-Oak Lee, “Gender, Race, and the Nation in *A Gesture Life*” pp.154-56.

may result in symptoms such as flashbacks, nightmares, feelings of alienation, diminished empathy, or avoidance of reminders of the initial trauma. It is a wound of the soul, and as such, it knows no categories of victim and perpetrator, good and evil. (1170)

The issue of perpetrator trauma can arise in the context of war's aftermath and is more commonly discussed in sociological, psychological, and/or legal terms.⁵⁾ Noticing a shift in the culture of trauma, a shift "situating it squarely within the world of victims," she continues, "The point is not to generate sympathy for a génocidaire. But recognizing him as a person who chose to kill, and who now suffers because of it, can illuminate both the roots of his crimes and the real horror undergirding them—that perpetrators are merely people, and that any other person could do the same" (Mohamed 1158). Mohamed claims that our resistance to allowing a psychological attribution of trauma to perpetrators of war crimes is seated in a fear of the human capacity for such evil. As much as possible we want to imagine that "we" are different from "them," but, she argues, taking perpetrators "outside of the caged context of objectification" (1162) allows for a fuller, more honest understanding of "human history" (1165) and for objective recognition of a psychological condition that requires treatment.

Through his narrative mode, Hata reinforces Hunt's claim that "traumatized people lose coherence of their life narrative; traumatic

5) The concept of perpetrator trauma emerged in the Nuremburg trials after World War II, but became much more prominent after wars in Vietnam, Cambodia, and Indonesia.

-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A Gesture Life* | Ashley Harbers

events fundamentally alter the way people think, their views about their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how they believe others should act and the nature of the world generally” (126).⁶ Hata exhibits the cognitive dissonance, triggered flashbacks, nightmares, hallucinations (or visions), and the distorted memory that mark a trauma sufferer. He resists knowledge, sometimes stubbornly, referring to the arriving sex slaves as “volunteers” up until the point that K informs him otherwise, and he is quite “taken aback” to learn the truth; in fact, he “could not accept the whole truth of it” (*Gesture* 161–63; 250). Most indicative of all of Hata’s symptoms, traumatic distortion intersects with the representation of K as a comfort woman in the novel. First, talking about Sunny acts as a trigger for memories of K; when Sunny alludes to rape at the hands of Jimmy Gizzi and vows to kill herself before allowing something like to ever happen again, Hata experiences “the drug of fear ... and with it the revisitation of a long-stored memory of another young woman who once spoke the same words” (*Gesture* 150). Alexis Motuz points out that from this point the connection between Sunny and K becomes very clear to the reader (417), if it has not become so already. Clarity emerges for Hata too, even to the point that he obliquely acknowledges that what he narrates as love might have been rape.⁷

6) Similarly, Hamilton Carroll contends, “Trauma functions as an alternative form of memory and history” (595).

7) Hamilton Carroll, Christopher Lee, and Alexis Motuz read the two sex scenes in the novel as rape, not consensual sex. On Hata’s narration of this event, Anne Anlin Cheng observes, “Declaring his sincere intentions in ways at once conventional and elliptical, Hata’s words fold rape into love, strain into promise, highlighting the disturbing gap and intimacy between rhetoric and reality, between romance and coercion. The universalizing language of

Sex—or love, or “trembling desire” (*Gesture* 295)—blinds Hata’s younger self, even in his memory. After their first sexual encounter, Hata assumes K is crying “for the end of her maidenhood” (*Gesture* 261), despite the fact that the narrator tells us she was “reserved by” and “visited by” Captain Ono. When confronted with her pregnancy, the trained medic rejects the physical, clinical evidence⁸⁾ and Captain Ono’s claim in favor of an assessment in terms of “Let me see you.”⁹⁾ In this way, the medic evaluates K’s profile in shadow (*Gesture* 270; 294). In an iteration of the power of the male gaze, Hata deliberately refuses to see. After recounting this memory, Hata then suffers nightmares of performing a C-section, which trigger yet another traumatic memory of Sunny’s abortion with which he assisted (*Gesture* 274; 345). In between these two events, Kkutaeh is murdered, butchered. On this event Rhee observes, “Nowhere in Hata’s romance is the girl’s death delivered definitively, nor does Hata’s eventual visit in memory to the scene of the murder aid the reader in discovering exactly what took place” (99). I contend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is: first, the limitations of the narrative structure and Hata’s convenient absence from the scene obviate our ability to receive a firsthand account, and second, the strange,

romance here authorizes forms of violence and domination” (591). Cheng’s reading reinforces Rhee’s reading of the text as a kind of chivalric romance and also reinforces my reading of a persistent narrative gap in the text that the reader must fill in a participatory sense.

- 8) The fluid from K’s breast on which Hata gagged can be present in the early stages of pregnancy.
- 9) Young-Oak Lee contends, “[Hata] may have been able to embrace humanism in place of colonialism, but he cannot stomach the slightest hint that his K had already lost her virginity before they met” (151).

-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A Gesture Life* | Ashley Harbers

otherworldly narrative of that paragraph offers another example of a traumatic memory. Clearly Hata is trying to atone for K through Sunny but recognizes the failure of this in fulfillment of the adage that “those who do not learn from history are doomed to repeat it.” He arranges Sunny’s abortion; he participates in the cutting of her body, just as he was complicit, even through his absence, in the cutting of Kkutaeh’s body. Though his visions reveal his desire to do so, he cannot seek forgiveness from K, but he does apologize to Sunny. Finally, because Hata encounters her ghost, K and her body cannot be represented as categorically, absolutely dead. K’s representation at every level in this novel reinforces both the historical horror of her experiences and Hata’s trauma.

Toward a Personal/Narrative Resolution

At the end of novel, Hata’s narrative loses the sense of rough linearity it had retained; after his hallucinatory encounter with K, his narration of her last day is interspersed with glimmers of recognition through the phrases, “I realize now,” and “I see now,” followed by a sudden desire to apologize to Sunny for compelling her to have the abortion. Reflecting on why K did not kill him when she should have, Hata says,

If I believed then that she did not do so because she valued me or hoped to be saved by me, I realize now that it was neither of those things ... She had not hurt me for the same reason that she had given over her body some hours

before, not for passion or love, or mercy or humanity, but their complete absence and abasement, such there were no wrongs remaining, no more crimes, nothing to save herself from. In an odd way, I think now that K wanted the same thing that I would yearn for all my days, which was her own place in the accepted order of things. (*Gesture* 299)

Hata begins to assemble his memories into the kind of “meaningful, sensible story” that the treatment of trauma requires (Caruth 117). K’s literary representation foregrounds Hata, and in doing so, facilitates Hata’s recognition of his own complicity in the wider horror of what transpired. Her role evolves in the story as well; she is not flattened, but rather her representation achieves a dynamism by means of Hata’s realizations. No longer obviating his role with notions of good Japanese social solidarity, Hata acknowledges, “I see now, I was in fact a critical part of events, as were K and the other girls, and the soldiers and the rest. Indeed the horror of it was how central we were, how ingenuously and not we comprised the larger processes, feeding ourselves and one another to the all-consuming engine of the war” (*Gesture* 299).¹⁰⁾

Recognizing his centrality in the horror of the war, and subsequently, in the perpetration of crimes against K and others, is an important step toward Hata’s narrative resolution. He ultimately realizes, “I feel I have not really been living anywhere or anytime, not for the future and not in the past and not at all of-the-moment, but rather in the lonely dream of an oblivion, the nothing-of-nothing drift

10) For an in-depth discussion of nationhood and identity in the novel, see Young-Oak Lee’s “Gender, Race and Nation in *A Gesture Life*.”

from one pulse beat to the next, which is really the most bloodless marking-out, automatic and involuntary” (*Gesture* 320–21). This recognition precipitates his final break with the trappings of his American life—the large house, the substantial savings, and all of the symbols of the careful cultivation of a careful life—all were to be distributed to others. Only in this unmooring of himself is he finally free. Though the ending is ambiguous in that Hata’s destination is ultimately unknown, it is not an ending without hope.

This hope is intimately connected to Hata’s acknowledgement of his grandson Thomas as well. Hata admits his early discomfort with Sunny’s ethnic origins—“Her hair, her skin, were there to see, self-evident, and it was obvious how some other color (or colors) ran deep within her”—and he was disappointed that he would not be able to “pass” her as his own (*Gesture* 204).¹¹ Sunny complicated his plan for assimilation. His recognition of Thomas, though, evidences his eventual resistance to the cultural pressures of assimilation. Past and present fuse neatly when Hata actively tries to save Thomas from drowning; ultimately, a lifeguard saves Thomas, but Hata does save his Indian American friend Renny Banerjee (*Gesture* 322–23). In a reaction markedly different from his past, the elderly Hata of the present dives into the pool to save someone, anyone, while his younger self stood on the sidelines and watched as people suffered. If, as previously mentioned, the swimming pools in the novel function as metaphors for memory, then his act at the end of the novel demonstrates his dive into that memory to save not only another, but

11) See Hamilton Carroll for a more in-depth discussion of Hata’s co-opted fears of “miscegenation,” and Alexis Motuz on erasure and the act of passing.

also himself. He cannot save K, but he can save *someone*. The displacement of his actions—Sunny for K, Renny for Thomas—demonstrate both Hata’s desire to atone and be atoned. The pool, and by extension his memory, once a place of shadow, erasure, and dissolution, is becoming a place of salvation and recovery.

Conclusion

From the analyst’s chair, it is not too difficult to describe Hata with problems that exceed the effects of trauma, but Chang-rae Lee invites us to explore the gaps in the text created by his narrative choice, as the multiple readings of a single scene reveal.¹²⁾ Critics like Wolfgang Iser seek to balance perceived gaps in generally psychoanalytic readings by joining them with the phenomenological,¹³⁾ meaning “one must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text but also, in equal measure, the actions involved in responding to the text,” (“Reading” 956) since we can view the “reading process as a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ext and reader” (*Art* 107). When we accept the invitation to engage with the text this way, “The reader, in establishing these inter-relationships between past, present, and future actually causes the text to reveal its potential multiplicity of connections” (Iser, “Reading” 958). As readers “fill in the gaps” in the text in their own ways, revealing the dynamics of the very act of reading, they explore “[t]he

12) Notice, for example, how some critics read the sex scenes as rape scenes, (as cited here in note 7), but others do not as address them in that way.

13) In the sense of the book as an “object of our experience.”

-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A Gesture Life* | Ashley Harbers

extent to which the ‘unwritten’ part of text stimulates the reader’s creative participation” (Iser 959).¹⁴ What Barthes calls “rereading” and “rewriting” and what Iser calls “gap filling” mimetically resist the kind of “devouring consumption” of standard reading practices (Barthes 15). Just as Hata eventually resists—and even overturns—the consumptive consumerism of his adopted society, so also can Lee’s novel resist the consumptive tendencies of representation that are troublesome to both readers and critics alike.¹⁵

Lee’s novel not only invites active reader participation, but also it depends on the reader’s ability to recognize these gaps and fill them appropriately; the novel’s success depends on the reader’s recognition of Hata’s untrustworthy narrative and the way traumatic experiences alter his memory. The reader must recognize how K’s representation foregrounds Hata’s personal and narrative failure. To recognize Hata as traumatized, the reader must acknowledge what Saira Mohammed views as the most common barrier to the

14) In Barthesian terms, the reader participates in the production of textual meaning to such an extent that the act of reading completes the act of writing; “the writerly text is *ourselves writing*” (S/Z 5; 10–11).

15) For example, in quoting Fredric Jameson’s *The Political Unconscious*, Suk Koo Rhee argues that *A Gesture Life* employs “the impressionistic strategy of modernism whose function is to de-realize the content and make it available for consumption on some purely aesthetic level.” (Jameson qtd in Rhee, 96). Rhee reads the novel as a kind of chivalric romance, and as such the novel is able to “stylize and contain for consumption the unpleasant quality of the historical realities it describes” (96). If, however, the reader can participate in subverting the novel as a object of consumption, the act of representation becomes less a means of consumption, and, as I have argued, more of Chuh’s “epistemological/literary object” (9) that foregrounds the narrator’s failures.

recognition of perpetrator trauma: “the idea that any person could do the same” (1158). This novel invites us to engage the narrator himself and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he is situating us. We are invited to interrogate, analyze, challenge and determine the nature of history, of memory, of trauma, of forgetting, of atonement. In doing so, the reader’s notions are challenged as well. There is a reciprocal relationship at work in reading this narrative; like Hata, we find in our analysis both gaps and flaws in our knowledge. In this way the Western reader in particular can ascertain not only gaps in distant historical knowledge, but also a more local and most likely flawed knowledge. At the novel’s end, the Asian American immigrant experience also is thrown into sharp relief; the anxieties of assimilation, the abnegation, the erasure of self that “successful” assimilation acquires, and the consumerism that in part defines American life are not only exposed, but rejected. Like Hata, the reader must choose what to do with new knowledge—to drown, or become free.

(Yonsei University)

■ Keywords

perpetrator trauma, memory, unreliable narrator, *A Gesture Life*, Chang-rae Lee

-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A Gesture Life* | Ashley Harbers

■ Works Cited

- Barthes, Roland. *S/Z*. Trans. Richard Miller. New York: Hill and Wang, 1974. Print.
- Carroll, Hamilton. "Traumatic Patriarchy: Reading Gendered Nationalisms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Modern Fiction Studies* 51.3 (2005): 592–616. *Project Muse*. Web. 11 Nov. 2016.
- Caruth, Cathy.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96. Print.
- Chuh, Kandice. "Discomforting Knowledge: Or, Korean 'Comfort Women' and Asian Americanist Critical Practice."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6.1 (2003): 5–23. *Project Muse*. Web. 6 Oct. 2016.
- Cheng, Anne Anlin. "Passing, Natural Selection, and Love's Failure: Ethics of Survival from Chang-rae Lee to Jacques Lacan." *American Literary History* 17.3 (2005): 553–74. *JSTOR*. Web. 11 Nov. 2016.
- Freud, Sigmund. "Mourning and Melancholia." *The Standard Edition of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Trans. James Strachey. Vol. 14, 1911– 1913. London: Hogarth Press, 1959. 243–58. Print.
- Hunt, Nigel. *Memory, War and Trauma*. Cambridge: Cambridge UP, 2010. Print.
- Iser, Wolfgang. "The Reading Proces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Critical Tradition*. Ed. David Richter. Boston:

- Bedford/St. Martin's, 1998. 956-68. Print.
- Iser, Wolfgang.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8. Print.
- Lee, Chang-rae. *A Gesture Life*. New York: Penguin-Riverhead
Books, 1999. Print.
- Lee, Christopher. "Form-Giving and the Remains of Identity in a
Gesture Life."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14.1 (2011)
95-116. Project Muse. Web. 25 Oct. 2016.
- Lee, Young-Oak. "Gender, Race, and the Nation in *A Gesture Life*."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46.2 (2010): 146- 59.
ProQuest. Web. 11 Nov. 2016.
- Mohamed, Saira. "Of Monsters and Men: Perpetrator Trauma and
Mass Atrocity." *Columbia Law Review* 115.5 (2015): 1157-1216.
Web. 1 Nov. 2016.
- Motuz, Alexis. "Before Speech: An Interrogation of Trauma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Canadi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43.3 (2013): 411-32. *Project Muse*. Web. 2
Nov. 2016.
- Rhee, Suk Koo. "Consumable Bodies and Ethnic (Hi)Stories:
Strategies and Risks of Representation in *A Gesture Life*."
Discourse 34.1 (2012): 93-112. *Project Muse*. Web. 6 Oct. 2016.

-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A Gesture Life* | Ashley Harbers

■ Abstract

The Unreliable Narrator, Problematic Representation, and Perpetrator Trauma in *A Gesture Life*

Ashley Harbers (Yonsei Univ.)

In arguing for a rereading of the unreliable narrator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as suffering from perpetrator trauma, this paper first considers the way that unrecognized history can problematize literary representation, the interaction between history and memory, and the heightened requirements placed on the reader in the presence of an unreliable narrator. Applying Saira Mohamed's definition of perpetrator trauma in conjunction with a close reading of the narrator's words and the Iserian gaps in those words that place a certain onus on the reader, I suggest that Hata's inability to cope with his traumatic memories results in unsuccessful attempts at vicarious expiation through other relationships in the novel. At the end of the novel, I contend, readers may find themselves trading places with Hata, undergoing a kind of self-analysis as well through the participatory act of reading.

■ Keywords

perpetrator trauma, memory, unreliable narrator, *A Gesture Life*,

영어권문화연구 9권 3호

Chang-rae Lee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Race Out of Joint:^{*}

(Im)possibility of Post-raciality

Kim, Dae-Joong

I. Introduction: Sublime object of post-racism

Is post-raciality real? Does it exist at all? If it does, then what about raciality itself as the foundation of it? To someone who might think of race or raciality,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racial phenomena, as an obsolete relic of the past, this question might be regarded as a cliché or a façade that overshadows liberal democratic global space—a flat world where everyone comes and goes freely as cosmopolitan subjects without any discrimination resulting from skin color or borders. Or to some liberal democratic, capitalistic cosmopolitans, under the god-almighty global capitalism and universal reign of freedom, post-raciality is real while raciality means nothing but a personal subterfuge to get more benefits under the auspice of equal opportunity or affirmative action plan. Or to some Koreans this question seems far-fetched fantasy or a mere American issue tha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8019759)

does not matter in Korea.

But the questions I raise are timely and urgent not only in the U.S. but in every place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Recently, in the U.S., where, with the adven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 black man has become president, many white conservatives have found themselves at an ideological crux that sutures their hidden white supremacy; so they quip that Barak Obama is not a black man but a bi-racial American whose blackness is overcome by his some drops of white blood. In fact, this pathetic appeal to logos unfolds the ideological truth of the post-raciality. In this paper, I contend that post-raciality is a strategically-created ideological fantasy that blocks people from opening their eyes wide to behold the truth of the discursive network of such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as colonialism, gender, class, xenophobia, raciality, global capitalism, etc.

II. Racial Deadlock: Fifty Shades of Blackness

Recentl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have gotten shocked and appalled at the bombardment of news stories telling of police shootings of black people and of other events like the burning of a black church at Charleston, S.C. and still more tragic events that reveal that, in the eyes of the justice system, black lives do not matter. Meanwhile, demagogues and pundits preach recklessly that these events do not result from racism but from individual pathology or prejudice. Peter Baker in a *New York Times* article, “After Charleston Shooting, a Sense at the White House of Horror, Loss and Resolve,”

reads Obama's speech after the Charleston massacre as a call on "the country to unify in the face of tragedy." Baker also interprets the political meaning of Mr. Obama's citation of Dr. King's address after "the bombing of the 16th Street Baptist Church in Birmingham, Ala., in 1963 that killed four young black girls" to reveal the similarity of both events and urgency of Charleston Shooting in terms of racial history. Then, Baker claims, "Mr. Obama's election seemed to promise a brighter future in race relations, but events of recent years appear to mock that hope."

This dismal result of the president Obama's hope may have come from the failure of his strategic emphasis on compromise. For instance, when president Obama addressed the class of 2016 Howard University, historically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y for African Americans, he again underscored 'compromise' "to consolidate your gains and then you move on to the next fight from a stronger position" (Shear). Though it makes sense absolutely why he,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d to emphasize the value of compromise and reconcili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ideological signifiers of nationalism, it is also doubtful whether this post-racial political aim can change the racial reality of the country; compromise in some sense means 'do nothing now but wait' which Dr. King in his Birmingham letter declined.

Anna Holmes in another *New York Times* article, "America's 'Postracial Fantasy'" deliberately analyzes how illusionary the post-racial politics in the U.S in the so-called post-Obama raciality. She claims using several stories from the lives of mixed race children that

“these experiences led [her] to suspect that the breathless “postracial” commentary that attached itself to our current president had much to do with the fact that he is biracial as with the fact that he is black.” Holmes assumes that white supremacy creates post-raciality by using the president Obama as a case to hide their racism in which fifty shades of blackness determine how seriously black you are in terms of skin color as well as one’s thoughts.

This also reflects what Tim Wise, an anti-racism activist claims in his *Colorblind: The Rise of Post-racial Politics and the Retreat from Racial Equality*. Wise, critically reviewing Obama administration’s racial policies, astutely and acerbically contends that “Obama’s election, far from serving as evidence that racism had been defeated, might signal a mere shape-shifting of racism, from Racism 1.0 to Racism 2.0, an insidious upgrade that allows millions of whites to cling to racist stereotypes about people of color generally, while nonetheless carving out exceptions for those who, like Obama, make us comfortable by seeming so “different” from what we view as a much less desirable norm”(15). Wise calls the hidden logic of new racism “post-racial liberation,” which is the “combination of race-neutral rhetoric and colorblind public policy”(16). As Wise argues, to hide its old identity the new racism goes through ideological facial plastic surgery to change its pigment and shape by injecting signifiers of colorblindness, liberalism, post-racial era, post-Obama raciality, etc. The debates surrounding the pos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post-Obama raciality, post-raciality, post-racial liberalism, or colorblindness have many discursive fronts. From now, I will examine a few of these fronts using several theorists’ contention over the meaning of

post-raciality; and then, I will discuss how lame the post-racial discourses can be.

III. History of Racialogy and Liberal Democracy

The exploration into post-raciality should start with fundamental inquiries of race itself. What is race? If we need to discuss race theoretically, how can we approach it? Is race about social categories or cultural phenomena? Is race an ontological or epistemological category of humanity? Or is it just played out? All these questions convolutes around the ambiguous discourse of race historically metamorphosed and discursively compromised by dominant social and scientific episteme.

One of the major works on race is Thomas F. Gossett's *Race- The History off An Idea in America* which includes theoretical and historical research on the morphing of discourses of race and racism; it argues that though race and racism had existed in various historical moments and places in the world before Western modernity dominated it, it was systematized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science and racism in the modern Western world. For example, in 19th C Europe and America, according to Gossett, people believed firmly the scientific hypothe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ize of crania and the degree of intelligence to prove how inhuman Africans are(74). During that time, Westerners also thought of phrenology or physiognomy as scientific ways to distinguish races from one another. In addition, according to Gosset, in the 19th century, Darwinism,

which won over mono/polygenism that had dominated racial theories, provided pseudo-scientific reasons for racial differences. Darwinism is in some ways tied to eugenics, theory that tried to prove conclusively that whites are superior to other races.

Contextualized with these scientific beliefs, according to Gossett, liberalists, especially in the U.S., have been prone to racism. Though it is partially true that liberal positions white people took were limited and biased, their propensity for racism has posed “more difficulty in comprehending” (Gossett 173) because essentially their theoretical or political position has been contradictory with racism—how anyone can claim the value of universal freedom in the cond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For example, liberal democrats in the U.S. have tended to maintain that social justice for white working-class has been far more important than race or gender issues. Liberalists, who pursued individual freedom and autonomy, might have regarded race as not a social issue liberal democracy had to engage for true liberation of all humanity but as biological category of humanity scientifically set and fixed firmly. Under these collective ideological fantasies, liberal democrats(also neo-conservatives or neo-liberalists) disseminated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efficiency, scientific data, historical progress, and social unification without infringing on anyone’s individual freedom ironically to choose to discriminate against sub-humans(women, blacks, Native Americans, Asians, etc.).

The catchphrase of Jim Crow law, “Separate but equal,” was possible because liberalists acclaimed whites’ liberty to choose to live separated from blacks. They believed in the model of civilization where people under the sham of equal opportunity competed with

one another free without being subject to interference from the state, though they also believed in data from the biased scientific research that blacks were less intelligent and more animalistic; thus it was not their fault that blacks lived poor and had to be slaves. Following this tradition, nowadays the white liberals' quips "I have a black friend" or "I love hip-hop music" are frequently heard as subterfuges to prove how liberal they are while they hide their thoughts that America is a true liberal space where science objectively proves the supremacy of whites. Or some white people just implore 'leave us alone' not to be compelled to live equally with animal-humans or strangers (immigrants).

The state also perpetrated racism under the ideological signifier of liberal democracy in the U.S. as well as other European nations. This is what Michel Foucault in his various lectures and books, especially in *Society Must Be Defended*, claims. In *Society Must Be Defended*, through extensive genealogical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race and racism, Foucault discusses how traditional 'racial struggle,' in which race had been mere difference of skin color and tribal struggle, changed into state racism, in which race became an ideology the state made use of to establish nationalism and national conflicts as an ironical strategy to keep national unity. In this historical progress, 'population' in a nation was modified discursively to mean national and racial unity where racial others discursively concomitant with national others. Biopolitics is the core of this transition because emphasis on life and welfare through scientific understanding emphasized how racial others could be dangerous to healthy unity of one race and one nation. Sovereignty that once had the power of determining subjects' death become a realm of life and science that

purports eugenic health and national health.

Capitalism in collaboration with imperialism was also part of this transition. Global capitalism required the state to import healthy and obedient but low-paying manpower from the third world; simultaneously, the state also promulgated the fantastical idea that those immigrants took the jobs of natives to avert their attention from class issues in the economic system to racial clash. Racism has been an ideology for the aggravation of this clash and the aversion of attention while migrant workers or immigrants have been subject to hate crimes or forced exclusion from domestic laborers. The liberal capitalistic state has required these racial tensions to sustain their regimes. Unlike racial struggle before the emergence and formation of modern racial state, there is added pressure here from the increasing fluidity of borders, which challenges national identity.

Etienne Balibar in this regard argues for a ‘differential racism’ that applies traditional racial categorization and strategies of oppression to new immigrants or migrants. Immigrants or migrants, though their different cultural exquisiteness or exoticness can be accepted thanks to multiculturalism, are controlled by the state not to trespass the boundary of their role as low-paying workers. Xenophobia and hate crimes against refugees, contextualized with hatred against religion and global politics, share the ideological core of racism. This global racism with perverted form of multiculturalism propagandizes the idea of “different but equal” in the same vein of “different but separated.” Admittedly, ‘different in culture but equal in legal status’ cannot be the same with ‘different in culture but separated (not equally but) legally.’ Yet, I argue, under this globally pandemic

differential racism, whether the recent hate crimes against Middle Eastern refugees or the black church burning, both inter-racial conflicts or intra-racial conflicts share the same reality—white supremacy rules.

White supremacy convolutes around the idea of whiteness as property explored by Cheryl I. Harris in his famous paper in *Harvard Law Review*. Harris claims that “Whiteness as property has taken on more subtle forms, but retains its core characteristic—the legal legitimization of expectations, power, and control that enshrine the status quo as a neutral baseline, while making the maintenance of white privilege and domination” (1715). As Kim and Bobbi argue, “whiteness as property builds the representational system in the US. In the US, other ethnic identities, especially unstable, unidentifiable identities of immigrants, become alienable, while whiteness as property and the inalienable right remains as an absent cause of hegemonic positions that whites hold in the economic and political hierarchy.”¹⁾

IV. Racial Formation and Post-raciality

White supremacy and whiteness as property are hegemonic signifiers that suture the dominance of liberal democratic global capitalism with racism. Post-raciality, I argue, is a progeny of this

1) This quote is from a upcoming co-authored book chapter I and Bobbi Olson have written and published, “Deconstructing Whiteness in the Globalized Classroom.”

differential racism where white supremacy under the guise of various shams holds sway while it applies on its facial value thick makeup of multiculturalism and colorblindness. This is what Michael Omi and Howard Winant argue in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Omi and Winant maintain that the race has been formed by the racial state whose foundation itself is linked to the history of racism (racial dictatorship) and racial movement (racial democracy) that resist it; through a civil rights movement, according to them, the U.S. could make a transition from racial dictatorship to racial democracy. To expound this theory, they critically interpret three historical racial positions: ethnicity, class, and nation. Omi and Winant argue that the previous race theories based on the “Pan-Africanism”, “Cultural nationalism,” “Internal colonialism” had their own limits because they are inadequate to explain the racial form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racial state has produced the race ideologies and created racial meanings. As Omi and Winant also point out, it is true that on the micro level, “race is a matter of individuality, of the formation of identity,” (66) but, on the macro-level, race is “a matter of collectivity, of the formation of social structure” (67). Overall, the racial theories based on ethnicity, class and nation have ignored the fact that race is “a continually evolving category in its own right” (66). Furthermore, significantly they “understand race as an unstable and “decentered” complex of social meanings constantly being transformed by political struggle” (68).

Especially, Omi and Winant denounce ethnically-based racialogy imbued by multiculturalism. Omi and Winant explain how ethnic understandings of race either fail to recognize or intentionally ignore

the reality of racial conflicts to propose a colorblind society where each race, subcategorized into ethnic groups (i.e. Korean American, Irish American, Hungarian Americans, or Elysian Americans) with different ethnic background, live peacefully together sharing their national cultures only under the condition of total assimilation to American nationalism. Assimilation and world citizenship are the core of multiculturalism or ethnic-based racial theory. Many liberal democratic cosmopolitans believe in this multicultural, ethnic-based race deliberately announcing the end of racism and the advent of multicultural ethnic harmony—namely, post-raciality.

Omi and Winant's arguments delineate the current U.S. racial map in which racial formation is contextualized with the global migration, post-modern culture, and the new cultural nationalism which deconstructs the stable race cultures. Then they suggest that the anti-racial movements against racism implicitly compromised by racial state require the hegemonic war in culture and politics where "the war of position" is preferred to "the war of maneuver." Antonio Gramsci, an Italian Marxist, introduced the idea of the war of position which is a strategy that enables each micro-level political block to take a position in the ideological battlefield where various NGOs or small groups including gay/lesbian groups, animal right group, etc. ally in order to wage a hegemonic war not only with the racial state (e.g. the United States) but also with global differential racism that, through global capitalism, manipulates racial minorities. Yet, they also uphold the primacy of race in all these phenomena of global, differential hegemonic war; they argue that race is the key factor or master signifier that activate other ideological, hegemonic signifiers

—sexism, xenophobia, colonialism, etc.

Post-raciality is also a perverted duplicate of racism, according to Omi and Winant. Targeting post-raciality, Omi in his recent article, “‘Slippin’ into ‘Darkness’: The (Re)Biologization of Race,” argue that post-raciality ignores the reality of unconscious racial hatred and practice of hate crime and undermines the structural, hegemonic racism. They also discuss how a racial minority’s body is culturally created (i.e. Beyoncé or Michael Jackson) under the denial of the racial minority’s inner self. Biopolitics operate in this cultural perversion.

Interestingly, Paul Gilroy, a Black English scholar, points out the operation of the same bio-politics in the discourse of race. Yet, though not fully embracing the idea of post-raciality, he argues that post-raciality is undeniable global racial reality. Then dialectically sublating post-raciality he proposes a new territory of identity, diasporic identity—the unfixed existential identity of those who cross physical, discursive, or cultural borders. In his highly controversial book, *Against Race: Imagining Political Culture Beyond the Color Line*, Gilroy suggests that race as well as racialogy face catastrophe in nano-politic /diasporic global space. According to Gilroy, the virtual realities of “race” are going down to “dismal and destructive life” (Gilroy 11). According to Gilroy, race as a representation of the human being has shown the limits of humanity; and in the era of nano-politics, the bio-politics of race is obsolete. Opponents, like Omi and Winant in their abovementioned article, critique Gilroy directly and argue that racism is still stubbornly ingrained in the U.S. society.

V. Conclusion: Against post-raciality

Admittedly, given the ubiquitous racism and unconscious racial prejudice produced by white supremacy both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it is hard to agree to Gilroy's provocative claim. Racial conflicts and complex racial ideologies are prevalent and lurking in the contemporary U.S. society in the form of whiteness as property or differential racism in spite of cultural phenomena in the postmodern condition in which "the fantasies of blood and belonging" (Gilroy 32) has been challenged. According to Žižek, ideology has two layers: the first layer is the realm of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which hides the deeper layer of 'belief before belief,' "they know and they do." Unconscious racism works not in ignorance but in hidden self-deception which makes people determine their actions under the aegis of colorblind utopia or cosmopolitanism excluding dangerous migrant workers or refugees. Donald Trump, Brexit, or the neo-conservative ideology that democracy always works only within the corporate-dominating global capitalism are contextualized with neo-liberal global racism. "Make a pie bigger for only you" or "you are so kind, an Asian woman" or "difference is ok but no strike" or "multi-culturalism to invite more beastly dangerous southern Asian migrant workers to Korea" are post-racial expressions that we everyday hear and ignore. So much so, what can be a way to traverse these ideological fantasies? The ability to critically reflect and analyze the racial situations and ethical understanding of universality of human vulnerability might be the answer. Yet, the dark cloud of a racial future is looming all over the world. Racial melancholia might not

disappear so easily.

(Kangwon National Univ.)

■ Keywords

Post-raciality, Racial Formation, Differential Racism, Omi and Winant,
Paul Gilroy.

■ Works Cited

- Baker, Peter. "After Charleston Shooting, a Sense at the White House of Horror, Loss and Resolve." *The New York Times*, 17 July 2015. Web. 18 Nov. 2016.
- Balibar, Etienne and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Verso, 1991. Print.
- Cheryl, I. Harris, "Whiteness as Property," *Harvard Law Review* 106.8 (June 1993): 1710–91. Print.
- Foucault, Michel. *Society Must Be Defended*. London: Penguin, 2003. Print.
- Gilroy, Paul. *Against Race: Imagining Political Culture Beyond the Color Line*. Cambridge: Belknap/ Harvard UP, 2000. Print.
- Holmes, Anna. "America's 'Postracial' Fantasy." *The New York Times*, 2 Sept. 2015. Web. 18 Nov. 2016.
- Kim, Dae-Joong and Bobbi Olson. "Deconstructing Whiteness in the Globalized Classroom," *Anti-Racist Activism: Teaching Rhetoric and Writing*. Spec. issue of *Across the Disciplines* 10.3 (2013): Web.
- Omi, Michael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Routledge, 1994. Print.
- Omi, Michael. "Slipping into Darkness: The (Re)Biologization of Race"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13.3 (2010): 343–358. Print.
- Shear, Michael D. "Obama Says Thought and Compromise Are Key to Bringing Change." *The New York Times*, 14 May 2016. Web. 18 Nov. 2016.
- Žižek, Slavoj.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New York: Verso, 1989. Print.

■ Abstract

Race Out of Joint: (Im)possibility of Post-raciality

Kim, Dae-Joong (Kangwon National Univ.)

In this paper, I contend that post-raciality is a strategically-created ideological fantasy that blocks people from opening their eyes wide to behold the truth of the discursive network of such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as colonialism, gender, class, xenophobia, raciality, global capitalism, etc. The debates surrounding the possibility and accountability of post-Obama raciality, post-raciality, post-racial liberalism, or colorblindness have many discursive fronts. I examine a few of these fronts using several theorists' contention over the meaning of post-raciality; and then, I discuss how problematic the post-racial discourses can be. Michel Foucault discusses how the state made use of racism to establish nationalism and national conflicts as an ironical strategy to keep national unity. Etienne Balibar argues for a 'differential racism' that applies traditional racial categorization and strategies of oppression to new immigrants or migrants. Omi and Winant maintain that the race has been formed by the racial state whose foundation itself is linked to the history of racism (racial dictatorship) and racial movement (racial democracy) that resist it. Paul Gilroy points out the operation of the same bio-politics in the discourse of race, while he fully embraces the idea

of post-raciality as the global racial reality. Yet, Gilroy's audacious challenges against the significance of race in the postmodern culture sounds only partially legitimate. Reading through those theories, in this paper I argue that post-raciality is an ideological fantasy that hover over the dark racial reality where white supremacy and differential racism work.

■ Keywords

Post-raciality, Racial Formation, Differential Racism, Omi and Winant, Paul Gilroy.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A Reading of the Film *Today And The Other Days* :

Based on the Analysis of Narrative

Kim, Jong-Wan

I . Introduction

1. Purpose of study

Structuralism is a typical analysis methodology of films that focuses on several phenomena regarding the rules of forming a film's meaning. Similar to the story analysis method in 'Poetics' by Aristotle, structuralism identifies the systems of meaning. In other words, it attempt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meaning and the translation with the text. In the latter part of structuralism, there is greater focus on the audience's interpretative convention than the main agent (director)'s intention or the text analysis. There is the tendency to put stress more on the audience and the act of viewing, than on the director, the text or the work of art itself. However, watching a film, which depend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ork of art and the audience, can be arbitrary to the director's narrative strategy and the audience's analyzing ability. In order to obtain the universality, it

should follow the analytical discourse based on the principle. Thus, from the aspect of narratology, trying to succeed to the systemicity of the structur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ommunication strategy between the text and the author while finding out the paradigm of the movie.

2. Method and scope of study

In a bid to convey ‘the story – the event’ in film narrative, given ‘story–event’ should be a symbolized system which can be structuralized as film language with the narrative. And this system can arouse the aesthetic distance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film from the level of the director’s narrative strategy. A series of studies, which try to analyze this distance, are regarded as the efforts to shorten the ga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To a certain extent, they need to maintain universal validity.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pproach of narratology, which has contributed to analyzing film narratives based on the unit of ‘story’ and ‘storytelling’.

From this narrative perspective, the basic unit is an event and it would be structuralized by a sequence through the linkage with other adjacent events. In addition, the director needs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in order to represent the arrangement of the events logically, and the style of representation can become the character of the director’s narrative strategy.

The language system in films, the representation of a series of semiotic systems established by this narrative strategy, is commonly distinguished by the discourse, which is a way of conveying the story,

rather than relying on it. Thus,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discourse in the film *Today And The Other Days*¹⁾ is analyzed from the nar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reviews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by the discourse and classifies the story with the collections of interrelationships related to the story and the components of the meaning effect. Next, it defines the category of narrative behaviors and analyzes the temporality of films, the order of narrative and the arrangement of events that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story and story-telling. Moreover, it will discuss focalization – the medium as the means of narrating events – and ‘story-telling’ that narrates events. The analysis of the narrative structure would help the audience to comprehend the strategy and a world view of the director – the story conveyor – rather than making the audience engage in the story by themselves.

In order to concrete the method of the study, the narrative structure of *Today and the Other Days* would be analyzed by two different narrative levels: ‘story’, the matter of an event, and ‘story-telling’, the style of representing events to the audience. In the process of study, the concepts of Barthes Roland, ‘narrative function’ and ‘narrative acts’ (Barthes Roland, pp.91–118), will be frequently applied and the theory of Genette Gerard, ‘enonciation’ (Aumont Jacques, pp.182–200), is referred to analyze narrative behaviors.

1) Choi Wi-an, *Today and the Other Days* DVD, produced by Realgon Cinemato Inc.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rt Theater Association, 2009.

II. The structure of theory

1. Story syntax of *Today and the Other Days*

For narrative analysis, Roland Barthes uses two terms – Kernel and Satellite. Each means the central incident of story and the thing that keeps the maintenance or maintains the gap of kernel. Since kernel is the basic element of the action that forms the development or the progress of sequence, it cannot be eliminated without changing sequence. However, satellite plays the role of expanding the framework of a sequence or filling the gap by maintaining, delaying or postponing kernel as its companion(Roland Barthes, Ibid., pp. 91-118). The narrative structure of *Today and the Other Days* is centered on two events: an event that Seong-jae (the narrator) supports her father (the observer) and another event that due to her father's abuse during childhood, Seong-jae who suffers from aphasia, resists her father's domestic violence and escapes to fantasy. Furthermore, by causing the uproar between reality and fantasy around Seong-jae, the intervention of other characters into these two main events establishes the roles of kernel and satellite.

Kernel events are roughly divided into the two kinds of events: the first one is to build Seong-jae as the narrator, and the second one is to do father as the observer,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he following are the kernel events of Seong-jae.

① On her way back home on a red clay road after the Cello Concerto rehearsal, a truck driver slaps her face because she does not move out of his way.

② Her father is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due to cerebral infarction but still is obsessed with his health and desire. So her boring daily routines are repeated – boiling down medicinal herbs for her father and feeding him.

③ One day an escapee sneaks into her house and leaves after changing his clothes, and Seong-jae masturbates to feel free and erupt sexual desire.

④ After she gives her father a bath, she vents her anger toward her father's domestic violence and immorality.

Kernel events that arose from her father(the observer).

① He watches Seong-jae being slapped by a truck driver through a telescope when she comes back home on her bike.

② He whines and nags at Seong-jae while she is boiling the medicinal herb and preparing his meal.

③ He keeps a watch on Seong-jae, kicking out a kid in the neighborhood, a plumber, a postman, and a missionary who peek into the house.

④ He sneaks a look at Seong-jae's skirt when she takes a nap or she while she is taking a bath, and steals a glance at her sex encounter with a truck driver at midnight.

⑤ He conceals the prisoner clothes, which Seong-jae hid, from the police officers who came along to arrest the escapee and he expresses his sexual desire when Seong-jae gives him a bath.

There are additional events which Seong-jae experiences along the central axis of the series of the stories. The scenes of reminiscence or

fantasy are mainly arisen from the traumatic phenomenon of father's domestic violence and it shows Seong-jae's confusion of having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 to support father and the desire to get away from it.

The following events are the satellite units, which are connected to the kernel events of the two characters.

① The young Seong-jae runs away from her father beating her mother and hides in the bathtub with her older brother. She gets caught and hurt, and suffers from aphasia.

② She thinks the escapee's trespassing means her brother is coming back home to rescue her. She eventually escapes with him to the fantasy world and meets her brother in the childhood.

③ She runs out of the bathroom while giving her father a bath and looks at the picture of 'simon and Pero' on the dresser of her room.

Normally, this structure analysis is the style of the integration concept of the story. Integration analysis structuralizes the story into a chain of events and selects the events according to the capability of operating in a sequence that tries to postpone or amplify events. For example, based on what Barthes said, which asserted that the story creates the continuity by the way of conjoining, embedding or alternating the events in sequence, if the events in film were restructured, then Seong-jae (the narrator) could give her father a bath sincerely or deny it, or it could be the situation the she reserves the judgment about her behavior of 'supporting sick and frail father.' In other words, this event raises a narrative situation proposed by the

unconscious longing for her brother, the savior in Seong-jae's fantasy in the events that happened before and after. This action is a realization of several events that arose from the first kernel, the situation that Seong-jae is bound to support her father is based on a socially accepted idea.

Moreover, this event opens the probability of additional actions in the process. Namely, Seong-jae can either assist or not her father having a bath. She can also take a pessimistic view of her circumstances by appreciating Ruben's painting 'Simon and Pero'²⁾. Here, it is translated as the extreme metaphor with regard to the father's violence and the daughter's sacrifice in that Seong-jae goes back to the bathroom to give her father a bath with music, Offenbach's Cello Concerto 'Les Larmes de Jacqueline'. The scene seems to describe incest in her room after running away from the bathroom. Seong-jae may or may not know the anecdote of 'simon and Pero'. In the last scene, she plays cards with her father and screams using sign language: "You will be punished. Why didn't you stop me? You should have hit and stopped me like you did before". If it is acknowledged, the meaning of 'support' can be put off. Due to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 socially accepted idea, within the issue of 'support,' the director structuralizes the internal and external events in sequence by connecting with satellite situation for the syntagms of story.

In the father's third and fourth kernel events, the characters who directly convey false information about Seong-jae's 'support' - the

2) It is the painting of Peter Paul Rubens and the original title is 'Roman Charity' at The Amsterdam Rijksmuseum.

plumber, the evangelizing women, and the mailman - bring about confusion between Seong-jae's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In contrast to Seong-jae's physical and mental free will, they amplify Seong-jae's sense of duty by highlighting the father's existence. The director chose the connected events and structuralized them. Of course, a satellite works between the kernel events of the two characters. The connected satellites between kernels clearly support the relevance between two kernels. For instance, in the third satellite, the painting 'simon and Pero' plays the role of satellite connecting the kernel events of Seong-jae and the father. The behavior of Simon taking Pero's breast seems to be equated with the father's peeking under his daughter's skirt while she is taking a nap, seeing Seong-jae taking a bath and even having an erection by her assisting him have a bath. Looking at Pero's face with sympathy toward her father, she thinks that it represents her feeling so it may have consoled her. And she may have been relieved, decreasing her rage, looking at Simon's agape toward Pero every time when she feels disappointed by her father. By that, it can only explain how she goes back into the bathroom to finish giving him a bath after running out of bathroom. In this case, the painting can be the object which gives consolation and encouragement to her situation. Consequentially, by following the logic of Barthes, satellite either delays or expands kernel (Cohan Steven and M. Shires Linda, pp.85-89).

2. The functions of action

Story analysis cannot only focus on the structuration of the event

because the meaning caused from the character's actions structuralizes events themselves. In this instance, characters' actions mean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event that happened because himself and related other functions so it is a general idea that performs the functions as an actor by arranging in sequence. The arrangement of characters within story is compared to the syntactic arrangement of words within a sentence. Words themselves carry out specific functions within sentences but they can function only within the integrated relationship with other words that compose a sentence or the value of Paradigme (Paradigmatiques)³⁾ according to the position within a sentence. Thus, like nouns functioning in the relationship with verbs, characters within the story function as Paradigme and as Syntagme related to events. For example, Seong-jae is the subject of 'support' and her father is the object of the action. Here, the subject of story is the performer of action and the object is the purpose of action. Therefore,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events of story. In more detail, the four types of actors who intervene in events and function after being interrelated are the sender who begins or creates an event, the receiver who records or obtains the results of the event, the opponent who delays an event by interrupting the subject or competes with the subject, and the helper who assists the subject and maintains an event(Cohan Steven, M. Shires Linda, Ibid., pp.103-108).

When it is applied to *Today and the Other Days*, Seong-jae is the

3) In the book by Steven Cohan and M. Shires Linda, Im Byeong-kwon translated 'paradigmatiques' as 'corresponding'. This word implies 'interdependent' or 'semantic'.

subject and the father is the object in a sense of ‘supporting the father’. The sender is Seong-jae’s trauma –mother’s death and brother’s leaving home, and the opponent is ‘the escapee’ who disrupts Seong-jae’s action of supporting and causes her deviation, the helper is ‘the kid in the neighborhood’ or ‘simon and Pero’ in the painting, and the receiver is her past life overcoming trauma. However, characters do not always perform in the same way in stories. For example, the functions of Seong-jae and the escapee have been changed by a series of events. While the escapee is the opponent who has intruded upon the private space of Seong-jae who has to support her father, but also he is the helper who assists her to meet her brother in fantasy and hope to escape for freedom.

In other words, the character repeatedly performing the same function like the father is considered to have a single function, and the characters performing more than one function in a certain event like the escapee is considered to have multiple functions. The character performing different functions in each event is considered to have changing function. When the character’s function is undecided or adjusted due to reminiscence like the brother in fantasy, it can be considered to have unsettled function. Since the function shift rearranges the discriminativ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when it comes to the meaning effect of characters, the scope is seen to be unstable. Thus, the director’s intention within the story syntagm can be figured out by analyzing the character functions. In the aforementioned example, Seong-jae’s role has multiple functions and the role is changed by the axis of sequence variation. The audience needs to understand the inner side of the characters’ actions. Change

is caused by the story's intervention. The escapee's function changes when the event of Seong-jae and the escapee, and another event of Seong-jae and her brother in her trauma are intervened. As a result,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the main characters, it can be understood how the story of *Today and the Other Days* contributes in character meaning formation.

III. The structure of story-telling

1. Narration actions

Even though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e formal markers of enunciation by Benveniste Emile – the concept of person, space, and time – to the field of movies, the application has been attempted under the purpose of 'story-telling in movie'. Especially, Genette Gerard is highly interested in the enunciation of movies. He has made a number of achievements in stories, the events of stories, and the narrative actions of stories. The concept of focalization is one of his representative achievements (Cohan Steven, M. Shires Linda, *Ibid.*, pp.103-108).

According to Vanoye Francis, the followings are the answers to the question 'Who are the viewers?'

① The omniscient narrator who speaks more things than a character knows.

② The narrator who speaks only about the things seen by a certain character.

③ The narrator who speaks less things than a character knows

(Aumont Jacques, Ibid., pp.184).

The first type has omnipresence focalization (Seo Jeong-nam, Ibid., pp.324), the second type has internal focalization, and the third type has external focalization. The internal focalizer can be fixed, changeable, or even diversified. Applying Brian Henderson's theory (Aumont Jacques, Ibid., pp.185~187) that Genette's category is applied systemically into the story of movie, Seong-jae is the narrator of *Today and the Other Days*. However, the narrator Seong-jae leads major movie story, any information is found in the character's point of view. Since Seong-jae is set as the character who can neither hear nor speak due to aphasia that resulted from the father's domestic violence during childhood, she is isolated except for the scene that she meets her brother in her trauma. And even though she's a narrating character, she's limited in the narrative. The audience can see her only with the second narrator, her father and the kid in the neighborhood. Strictly speaking, *Today and the Other Days* is not focalized in the sense that any character's point of view is not cinematized in the whole movie and even in any sequence.

For instance, the unfocusing style can be found from the very first sequence. When looking at the Fig#1 below, Seong-jae is introduced as the character observed by her father or the kid in the neighborhood. It shows father's observing something through a telescope, the kid's over-the-shoulder-shot, Seong-jae's falling asleep in the subway, and the railroad. However, from Fig#1, due to the intervention of somebody's subjective point, that is found to be the truck driver's in C#8, the shift from the frontal shot of Seong-jae riding a bike to the shot of the

face-to-face shot with the driver in C#15 and 16 after three crossing cutting. Finally the C#19 and 20, finish within the observation shots with the father's telescope. The whole sequence cannot be seen as the father's observation shots, since C#1, 3, 5, 9, 11, and 12 cannot be explained reasonably. In particular, the C#11 adds confusion since it is the intersubjective shot of the truck driver. The C#15 and 16 should also be analyzed as the character shots including the director's intervention. In other words, the director not focalizes it as a sample mean of the story regarding Seong-jae and her father or proposes the two character's first impression through various focalization styles (Seo Jeong-nam, *Ibid.*, pp.316-326 and Brian Handerson, pp.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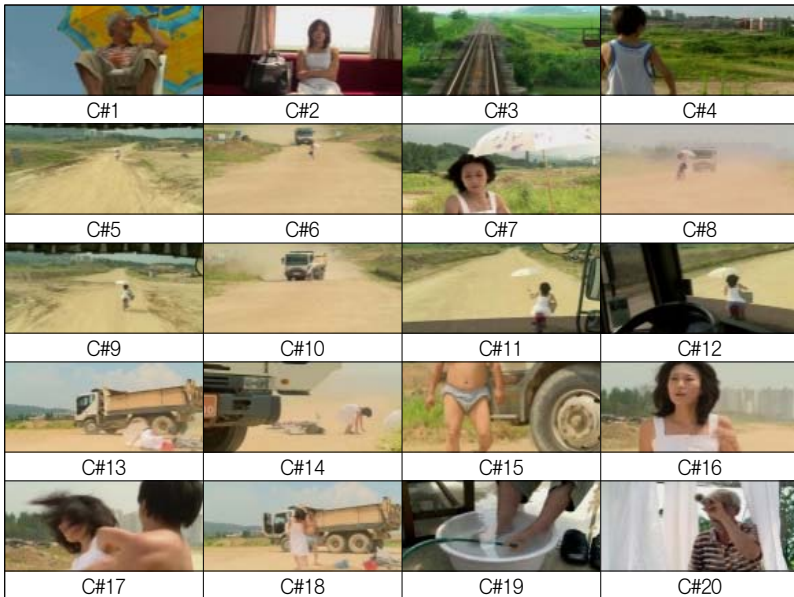


Fig 1. The first sequence cut

The analysis of the first sequence as shown in the Fig#1 of *Today*

and the Other Days in Henderson's style results in following facts. First, relationship between the narrator's telling and seeing keeps changing. Second, it is ambiguous to specify what has been told at the moment when the door of the truck opened as in C#14 because the point of audience's view is different: some may be interested in figuring out who the truck driver is and others may have an interest in whether Seong-jae got hurt at that moment. Thus, in film analysis,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ich one should be the standard of the analysis between what the character knows and what the character is watching is unclear. That is, since what is seen by the movie character differs in respective sequences, most movies will have very flexible focalization when they are established as the focalization standard of story.

2. Narration time

The consideration of temporality is necessary when analyzing film narrative in order to confirm clearly the logical order of incidents and figure out the gap between the story sequence and the director's narration strategy, since film narrative is hardly developed in the chronological order. Genette analyzes the issue of temporality within the order, duration, and frequency of the narrative(Seo Jeong-nam, *Ibid.*, pp.134). When Genette's theory is applied, the present, the past, and the fantasy are all together in *Today and the Other Days*. So the audience has to rearrange the narration time into the story time so as to correctly understand the text, because the director has strategically used anachrony strategy that the order of a series of story does not

match the order of narrative. According to Schultz, there are two types of anachrony: the prolepsis shows the incidents that did not happen in the series of the story and the analepsis ruminates the events that happened in the past(Seo Jeong-nam, *Ibid.*, pp.136 and Robert Schultz, pp.74-91). The anachrony is widely used in *Today and the Other Days*. Seong-jae is enslaved by her father's domestic violence in childhood (analepsis) and she frequently longs for her brother in order to escape from it (prolepsis). Of course, this prolepsis is unclear. It is not clearly mentioned whether 'the escapee' - the substitute of brother - is actually the brother who ran away from home but they are merely contextually connected. The indefinite points, which cannot be rearranged by story time, such as the prolepsis and analepsis are called as achrony(Cohan Steven, M. Shires Linda, *Ibid.*, pp.124~126), and eight achronies are used in *Today And The Other Days*.

The frequency of incidents is also the clue show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ory time and the narrative time. The frequency has a lot to do with the number of times a certain incident is narrated in the story. There are several basic types when it comes to the frequency. For instance, singular event - the major type in film narrative about an incident - happens once in a film since it is narrated once. Repeated events -Seong-jae's being slapped on the face by the truck driver or the escapee's intrusion-happen once but they are narrated several times. Iterative event - Seong-jae and her father's playing Hwatu - occurs multiple times but it is narrated only once. According to Genette, the repetition of a certain incident intends to emphasize the incident more than any other incident. In the movie the scene

about escapee's left clothes is repeated. It makes Seong-jae consider him the messenger instead of her brother. Pseudo-iterative (Cohan Steven, M. Shires Linda, *Ibid.*, pp.127) – the variant form of iterative events – is the type which blends the frequency of temporary incident and iterative event. The bathroom scene, the cause of Seong-jae's trauma, it is mentioned several times in the film but the incident only happened once. It works as the central axis which makes Seong-jae powerless and obey men throughout the whole movie.

Furthermore, narrative – a way of duration – can adjust the story time. Dura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ory time and the narrative time. The universal way of narrating duration in films is summary and scene. The summary is the method which compresses the narrative time. The scene, where Seong-jae is going home on a bike, in sequence #1, shows the compressed narrative time, which can actually be much longer, but it reduces the time with crossing the truck driver's cuts. The father observing something through a telescope in C#1, Seong-jae in the subway in C#2, the railroad captured from the running train's inside in C#3, the kid in the neighborhood looking at the red clay road in C#4, and Seong-jae riding the bike in #5 are found in detail from C#1 to C#5. Seong-jae's long journey is narrated in several summarized scenes by inserting the father and the kid's observation. The length of summary is one scene or an insert when anachrony is definite, but the length can be extended into a long sequence. On the contrary, the story time and the narrative time seem equivalent in the dialogue scene. In C#15, 16, and 17, Seong-jae's expression in C#16 is inserted well between C#15 and C#17 during the truck driver's movement, but the driver's

movement is extended. Thus, Seong-jae's absurdity and anxiety are well-expressed. Normally, most of movie narratives mingle scenes with summaries adequately. Other methods are slow motion, pause, and ellipsis that can narrate the duration with the scene and summary. While slow motion and pause extend the duration of narrative, ellipsis eliminates it.

3. Narrative medium

The matter of narrative time reveals narrative medium indirectly. In film narrative, camera clearly plays the medium function. That is, camera is the actual medium which conveys story. In classical reviews, the narrator is classified into the linguistic titles of pronouns such as the first person and the third person by distinguishing mediator and medium. Moreover, when the narrator is a character in a story, the narrative is character-oriented and spoken by the first person. On the contrary, when the narrator is not the character in a story, the narrative is anonymous and spoken by the third person. In fact, the classification into the first person or the third person is useful for elucidat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in which the narrative mediator is related with the story. But the classification has some problems when comes to the film analysis. Strictly speaking, the third person cannot narrate. The pronoun 'he or she' is the person instructed by the narrator, not media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narrative. Also, the first person pronoun is available only when the narrated character is the narrative mediator. The categorization of narrative is to identify the diffe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narrative

mediator and the story, based on the matter of whether they are included in the story, or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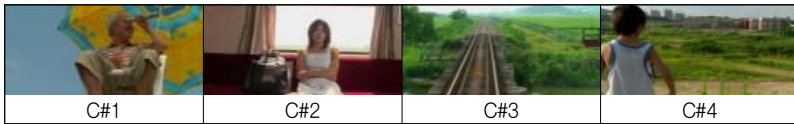


Fig 2.

As shown in the Fig#2, it can be vague whether it is in the first person or the third person. Even though the story is developed like the kaleidoscope in the father's telescope, as in the situation when the father telling someone, who may be the director, that Seong-jae is coming, the third person pretends to be the first person or the third person is used in turn with the first person. Moreover, as when the father narrates his daughter 'seong-jae' or in the contrary she narrates him, or the kid in the neighborhood narrates both of the father and the daughter, the first person narrators is responsible for the narrative. In this case the variety of statements is available such as successive narration, alternating narration, narration in an order, and cooperative narrative. Even in the stories being narrated by a single narrator, it is inevitable to insert a story which is narrated by another character to a certain extent. In *Today and the Other Days*, at the moment when Seong-jae realizes that someone is observing her while she is hanging the wash out, the viewpoint is eventually identified to be the escapee's. In other words, the both of Seong-jae and her father are the major narrator of their stor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y play the secondary role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with the audience by inserting the other person, the kid in the neighbor, the escapee or the brother in the fantasy.

4. Focalization

Focalization has three components – the narrative agent as a describer, the focalizer as a watcher, and the focalized one as a target. Usually the narrative mediator's point of view is different within the text. While the mediation is about who substitutes the narrator, the point of view is about who determines the narrated things. There are two ways to focalize the narrative in film text. External focalization limits the narrative scope only into external observation and makes the narrator function as the focalizer. Internal focalization makes the person realize the narrative and function as a focalizer (Susan Sniader Lanser, pp.38 and Na Byeong-cheol, pp.220-241).

The focalization in *Today and the Other Days* is the type of character focalization, since the narrator who takes a view of the whole movie is inferred to be the father observing Seong-jae as a target with a telescope. However, the narrative target no longer functions as the focalizer in the scenes where he is inversely observed by Seong-jae. For instance, the private incidents in the bathroom with her brother or the escapee occurred by Seong-jae's observation during her father's absence, so they're no more her father's story by telescope. The focalizer of the stories is Seong-jae.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figure out whose point of is the scene of Seong-jae masturbation holding the escapee's uniform. The only

person who is able to know this scene is the kid of the neighborhood, but he is not in the position available to see it since he has hidden under Seong-jae's bed. Moreover, the scenes of the truck driver and Seong-jae's fight are very likely to be the kid's point of view. Therefore, the focalization is done by many and a variety of people. Furthermore, the director raises an interesting focalization issue in the film. The director does not function as the anonymous narrator but functions as the character who watches the father. He listens to the father's saying that Seong-jae is coming home. The director is responsible for the text description, but not text narrative. He is the focalizer but exists only out of the story. Based on the above, the focalizer who views the whole movie is described by the ambiguous narrator or the director himself. It can be an example of external focalization.

5. Story-telling

According to Silverman, the subject as a teller in the movie narrative is used as the mean of film production such as camera movement or edition (Cohan Steven, M. Shires Linda, Ibid., pp.152). Focalization distinguishes the subject character with the mediator. The subject speaks think and feel in storytelling. And the mediator transfers the subject's words, thoughts, and feelings. When the characters' focalization is misunderstood as the narrative in film, the teller and the subject of the text are treated as same. For instance, in the narrative by interior monologue, the character appears to be the subject of the speech, because the character tells the story as the

narrator of the text. However, in this case, the character functions as the subject of the speech by a camera, since the camera cannot affect to text expression. Furthermore, focaliz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of the speech and the subject of the narrative within text. The narrative subject – the character equated with audience and mediated subject in the text – is formed by dual mediation effect (narrative and focalization). This equation works with the storytelling strategy and other narrative components.

The anonymous narrative mentioned in the previous passage clearly shows the subjects quite clearly. The focalization elaborates what the subject thinks, says, and feels, rearrang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s within the text. In the case of external focalization trying to connect the narrative subject and the narrated subject, the audience is able to know the medium's action. On the contrary, when the internal focalization interrupts the connection, the audience perceives the narrative subject trying to mediate the medium. Moreover, since the movement of focalization makes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flexible, it makes the point of view in the text difficult to be fixed in a certain narrator or a character, and the audience also difficult to figure out the narrative.

For example, the father is the narrator in the his conspiracy scenes – peeping through a telescope, peeping at Seong-jae taking a bath over the window, and snooping around her daughter's having sex with a truck driver. On the other hand, in Seong-jae's narrative she recognizes his father snooping around her naked body. And the father is focalized to have voyeurism, since he is exhausted in mind and body and unable to satisfy his sexual desire in the reality. The

focalization movement exposes the internal story as well as the external actions. For instance, the narrator is ambiguous to be specified, such as the brother's sweet tempting voice in the bathroom scene in the child hood, and her father's interrupting voice when her following her brother in the fantasy scene.

IV. Conclusion

If it is unreasonable to analyze the movie text within narrative, what is the limit in the meaning formation process of texts and what is the extent of the limit? Based on the analysis process in this study so far, I believe logical explanation with regard to how movie narrative creates audience or the subjectivity of audience is possibly to be the answer of the theoretical argumentation of textuality, topicality, or story-telling. Thus, *Today and the Other Days* was analyzed with the narrative perspective from a thesis but it was a little be free from the risk of arbitrary translation. The attempt to understand a certain movie's structure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enables self-awareness of subjectivity by analyzing cinematic devices within fantasy and reality, and recognizing the fiction of the world shown in the movie. In other words, it enables to maintain proper aesthetic distance to the fiction created by an author.

Therefore, the analyses based on story (syntax and the function of actions) and story-telling (narrative actions, temporality, and focalization) were described to shorten the gap with audience by identifying director's political intention in movie narrative rather than

to explain a certain movie narrative. The structure of the ‘story’ was identified by analyzing the incident’s integrated and corresponding relationship through deconstructing the first sequence of Choi Wi-an’s movie, *Today and the Other Days*. It is searched in what ways these incidents are organized and distinguished by the characters. And it can be examined whether there is the structural possibility the other similar genre can have. In the ‘story-telling’ chapter, movie’s temporality was analyze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vie time and the real time through the method of Genette – sequence, continuity, and frequency. And the issue of who watches, who is seen, and who narrates was expanded from the point of focalization to the generality of the movie. At last, the chapter aimed to identify what the medium of story should be like so as to be brought in audience by focusing on the mutuality between the narrator and the focalizer.

In conclusion, if point of view, narrator, sequence order, and speed is decided, the reason or validity has to be deeply considered. The reliability as well as the purpose of the use are to be studied. It enables to understand the director’s intention in the public relationship through the degree of narrative probability, the style of speech, the distance with audience, and the speed. Eventually, the study can strengthen the function and meaning of a certain movie narrative by influencing the audience’s response and comprehension. Moreover, understanding the intention expressed in a certain text is the same as being able to distinguish the narrative subjects and actions. It is interesting because it means that the narrative subject can be identified again with narrative action. Lastly, the narrative

theories used as the foundation of this study are the foreign prominent scholars' – Barthes Roland, Genette Gerard, Cohen Stephen, Chatman Seymour, Silverman Kaja, and so on. I extend my gratitude for their work since they provide logical assessment and alternative structure for the main Korean movies in the face of cultural diversity now.

(Dongguk University)

■ Keywords

narratology, enonciation, anachrony, pseudo-iterative evnt, focalizer

■ Works Cited

- 나병철. 『영화와 소설의 시점과 이미지』, 서울: 서명출판, 2009. Print.
- 바르트, 롤랑. 김치수 역, 「이야기의 구조적 분석 입문」, 『구조주의와 문학 비평』, 서울: 홍성사, 1980. Print.
- 오몽, 자크. 전수일 역, 『영화분석의 패러다임』, 서울: 현대미학사, 1999. Print.
- 프랭스, 제랄드. 최상규 역,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예림기획, 2015. Print.
- 코헨, 스티븐. 샤이어스, 린다. 임병권, 이호 역, 『이야기하기의 이론』, 서울: 한나래, 1997. Print.
- Handerson, Brian, “The Tense, Mood, and Voice of Films”, *Film Quarterly* 19. 4 (Summer Edition, 1983). Print.
- Schultz, Robert, *Structuralism in literature: An introduction*, New Haven and London, 1974. Print.
- Susan Sniader, Lanser, *The Narrative Act*, Princeton: Princetonuniversity press, 1981. Print.

■ Abstract

A Reading of the Film *Today And The Other Days*: Based on the Analysis of Narrative

Kim, Jong-Wan (Dongguk Univ.)

This thesis attempt to compare and analyse with Text *today and the other day's* narrative style. So, I put to practical use narratology by a theoretical basis. First of all, I am trying to analyse Text's narrative by Roland Barthes, next rereading with Steven Cohan's theory is composed. All through Text film's internal analysis, I come up with narrative strategy prescribing the characteristic and research the sufficient propriety in narrative's meaning. Also, some signs to be use with the object of Text film's analysis is described and involved in Gerard Genette's time and Steven Cohan's focalization code. Of course, this work of re-evaluation is establishing the sense of sight of narrative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ext film's narrative structure. And then a outcome that the director try narrative strategy shows spilting occurrence against the narrative style from the formal and functional perspective, that could search the reason from reinterpretation out of the concept of Text film.

Therefore a conclusion that I attempts narrative analysis could explore that the narratology make understanding to all principle upholding sign system, signifying reader's trying interpretation. In order that the narratological personality reflect in the Text film, I did

focus on analyse elements of the distinguishing narrative form and function, attempt aesthetic reinterpretation of the Text film *today and the other day*.

■ Keywords

narratology, enonciation, anachrony, pseudo-iterative evnt, focalizer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Research on Judaism Shown in Saul Bellow's *Seize the Day*

Park, Koung-Im

I . Introduction

The characteristic of Bellow's works is to include the optimistic view of life that the main characters overcome the futility and helplessness in human existence, which cannot be favorable to us, and show the value of human dignity in ordinary life. He believes that, though human beings have the weak biological conditions to exist, they have the mental capacity to overcome such adverse survival conditions and the driving force to design the positive and optimistic life. Likewise, his positive and optimistic attitude toward human beings seem to be related to his background of growth closely. Bellow was brought up in a traditional Jewish family in the slums of Montreal, Canada. Under the influence of parents, he was used to typical Jewish education and lifestyle. And he has studied at the Jewish Religious School since he was a child and learnt Hebrew there and used Yiddish, the Jewish language, at home. The Jewish terms or episodes discovered in his works are closely related to his natural background and it is clear that Judaism and Jewish life's norm became the main

subjects of his literature.¹⁾ Bellow uses the Old Testament and the Talmud as the important symbolic tool to recover the human dignity of characters and find the moral self in order to lead the positive and transcendental awareness toward life. His attitude that justice wins and restore the value of human dignity someday, no matter how confusing and absurd the world is, reflects his Jewish view of ethics.²⁾

Based on the belief that all human beings are the divine presence born by God's will, Bellow advocates the human values and emerges the characters who overcome their life's trials and obstacles. Most of characters appeared in his novels are Jews.

Since Jews try to find their Heaven in the here-and-now instead of the future world even though they believe in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who will save them. They have their own philosophy of positive reality not to lose their hope and dreams for the future even if

1) Bellow says that he is an American writer with Jewish blood rather than a Jewish writer, but he identifies his own fundamental identity from other Jewish including Israeli Jews (Magill 249). He doesn't like to be called as a Jewish American writer but he also doesn't deny his Jewish nature. What he denies is to be classified as a specific writer and to be restricted by the illiberality as a writer. Bellow spoke openly that he was raised in a traditional Jewish family using Yiddish as his mother tongue and learnt Hebrew in his religious class (Goldman 57). When Samuel Y. Agnon, the Israeli writer who won the Nobel Literary Prize, asked Bellow about "Do you use the subjects related to Judaism in your novels?" after they met first, Bellow answered "Yes, I use the subjects in general" (Walden 26).

2) Bellow who thinks that all writers should be a moralist can be said as a moralist for sure. Regarding the question of "What is a human being?", he suggested the positive and optimistic answer for this. This attitude reflected the basis of Judaism and these Judaism elements became the subject of his novels, and at the same time, it affected the characters, styles and tone in his works (Goldman ix).

- Research on Judaism shown in Saul Bellow's *Seize the Day* | Park, Koung-Im

the reality is painful and difficult.³⁾ Likewise, by realizing the justice and love given by Bellow considers the human dignity, God in the reality, the freedom of choice,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which were not highlighted in literature such as naturalism and modernism, in the Jewish background of positive reality. In Chapter 2 and 3, I tried to figure out the definition of Judaism which becomes a great tool to project his theme consciousness in the works and the reflection of his Judaism elements on his early work, *Seize the Day*, respectively.

II . Judaism

The best feature of Judaism is that there is no specific doctrines like any other religions. It is hard to define that Judaism is a specific religion, however, 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Jewish life's norm which puts emphasis on personal pledge, faith, consciousness and commandment to God (Lange 149). And also, Judaism includes all Jewish traditional culture such as education, literature, philosophy and lifestyle as well as religion and ethics.⁴⁾

That Judaism is originated from the Jewish mental foundation such

3) Goldman, a critic, says that Bellow's characters approach their life from the positive Jewish view of believing that to ignore the pleasure of life created by God is a sin (223).

4) Judaism is the essence of the living Jewish tradition beyond a simple system of belief. Judaism is a culture of Jews, a product of Jewish experience. Judaism can be called Jewish culture, literature, philosophy, ethics, faith, morality, customs, folklore and worldview (Leventhal 9).

as the Old Testament, Torah and Talmud is the universal opinion. And Torah is the scriptures written by Moses: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and Deuteronomy. And this is also called as the Pentateuch. Torah is also the commandments which set the guidelines for human life including numerous laws, ceremonies and institutions. The Talmud is not only the life guidelines for Jews including all Jewish laws, traditions, practices and folklores but also the wisdom of life to overcome all historical trials against Jewish.

The Old Testament describes that all human beings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Genesis 1:27). According to Erich Fromm, the fact that human beings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means that a human being has the obligation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mself through the suffering and trials and to achieve the spiritual growth. He said that, if human beings tr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God through good and moral life, human beings will recogniz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is an equal relationship rather than a master-servant relationship (65). Likewise, Judaism contains the practical idea that humans find the nature of God while they keep the laws and pursue the spiritual and moral life. In order to access to God through the righteous life keeping the laws, Jewish recognizes the fact that the personal will to choose their own way for themselves is important to be saved (Browitz 10). Human beings have the weak and uncompleted elements but they are the existence created by God naturally. Therefore, Jewish regards the suffering and trials given to themselves as a rite of passage to access to God (Goldman 7).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Judaism, Covenant with God,

- Research on Judaism shown in Saul Bellow's *Seize the Day* | Park, Koug-Im

humanity, moral behavior and optimistic attitude toward life may be included (Baek 38). These elements are the core values of Judaism which sustain the bonds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stead of any secular values and also the guidelines of action for understanding God and approaching to God through the discovery of brotherhood, the overcoming of fear and alienation in death and the abandonment of selfish ego.⁵⁾

One of the great features of Judaism is that it does not emphasize on the afterlife unlike other religions. Judaism is a reality positive idea to emphasize on the social obligations and moral responsibilities in the real life and to recognize the positive reality. That Jewish accepts the personal suffering and trials as it is and consider it as a kind of test assignment to be overcome is the reflection of the positive reality principle of Judaism. Judaism which puts emphasis on the optimistic attitude toward life is demanding us to realize humanity following God who created human beings and loving and respecting others in the real life.

Mordecai Kaplan⁶⁾ thought that the authenticity of religion has a profound effect on how it affects human salvation and that the human salvation can be achieved by discovering the true inside of each human being rather than through some physical or external elements

5) Jacob Neusner summarizes two factors that led to the prosperity of Judaism.

The first is the obedience and patience required by Judaism, and the second is the virtues to compromise and to do their best, such as loving their neighbors, forgiving others and helping the poor people (95).

6) Kaplan had a great influence on generalizing the radical approach to Judaism.

He was a rabbi and the professor of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 and he rejected the concept of a living god and conceptualized divinity as the power to achieve salvation instead (Elazar 109).

(Scult viii). Mel Scult said as below about the Jewish consciousness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the salvation mentioned by Kaplan.

We see that salvation, our becoming fully human, is central to Kaplan's thinking. His notion of salvation implies a striving for justice, a concern for the rights and the dignity of the other. These ideals are the essence of democracy and religion in general, but also of Judaism in particular. Jewish peoplehood, for Kaplan, is the particular vehicle for the expression and pursuit of universal values. He warned against reducing peoplehood to the narrow self-interest of the Jewish people. Loyalty to the Jewish people ideally means accepting the collective ideals of justice and mercy, law and order it means accepting our responsibilities to ourselves, to our family, to our nation, and to all humankind.
(viii)

Salvation is not just about the Jews who believe in the ideology of the chosen people but it is related to the fundamental problem of universal human existence about what human being is and what the real life is, rather than a concept confined to specific religious ideas. The problem of human salvation that Kaplan is talking about is closely related to the universal and realistic values of human life, beyond the narrow ideals of nationalism. Likewise, human salvation can be said as the problem of present-oriented and positive reality 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and others, protecting law and order and realizing justice and love in our real life. The next Chapter examines how the elements of Judaism mentioned above were reflected inversely in Bellow's main works.

- Research on Judaism shown in Saul Bellow's *Seize the Day* | Park, Koung-Im

III. *Seize the Day* – Absence of Jewish value

*Seize the Day*⁷⁾ is about the experience for a day of the main character Wilhelm who is trying to get out of his misfortunes. In his college years, he decides to drop out of college and make his way into Hollywood due to the impression that the impostor Maurice is going to succeed him as an actor. He has no interest in studying from the beginning and thinks that there is no other way to succeed other than being an actor. His gestures are awkward and his speaking the lines is also clumsy and he fails to pass the screen test, but he quits school and leave for LA to become an actor, dreaming of the American dream.

After the test Wilhelm took the initiative and pressed Maurice Venice until he got him to say, "Well, I suppose you might make it out there." On the strength of this Wilhelm had left college and had gone to California.⁸⁾

This action of Wilhelm may be contrary to Judaism which warns about material life, losing his sense of reality without being cold and rational. In fact, the fallen appearance of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in which materialism is prevalent, reflects the fallen nature of the Old Testament society mentioned in the Bible. The characteristics of False Prophets living a fallen life warned in the Old Testament and

7) Kramer says that the relevance of this novel to the main parts of Jewish American culture is found from the public comment on Jewish immigrant experience and Bellow's own association (45).

8) Bellow, Saul. *Seize the Day*. (New York: Penguin Books, 1996), p. 14. Hereinafter, it is abbreviated as SD.

putting a false delusion in people can be represented as the Wilhelm's despairing dream in pursuit of material values in fallen society and the Maurice's unethical cunning for encouraging Wilhelm to become an actor and setting up prostitution through his office. The Old Testament strongly warns those who mislead people when society is corrupted.⁹⁾

Wilhelm barely put his step into Hollywood but he couldn't escape from the secondary characters for nearly a decade and became economically difficult to sustain a poor life. After he came to LA, he changed his name from Wilhelm Adler into Tommy Wilhelm from the desire to become an actor¹⁰⁾ and felt like he became a free man.

He had cast off his father's name, and with it his father's opinion of him. It was, he knew it was, his bid for liberty, Adler being in his mind the title of the species, Tommy the freedom of the person. (*SD* 25)

The act of abandoning his father's name for the secular purpose

9) Jeremiah: See Chapter 29: 14-16.

10) Opdahl, a critic, says that the act of Wilhelm's changing of his name symbolizes to deny his all Jewish nature and identity (109). Goldman says that Bellow sets himself as a person of Abraham in his novels but his characters as the on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Jacob. She notes that Bellow destroys the idols of contemporary literature in this patriarchal role and overturns its negative influences and replaces the destructive idols with the deepness of our being, the wonder of life an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According to her, the individual main characters in his novels are always fighting against the absolute power of his conscience, his flesh and his fantasy, and as in Jacob's case, this power forms the hostile situations and the main characters fight hard and redefine their position as human beings (xiv).

reminds us of Esau in the Old Testament, who hands down his birthright to his younger brother Jacob to have a bowl of porridge.¹¹⁾ After Wilhelm left his house and wife, he tried to deny his Jewish bloodline by marry Olive, a Catholic believer. His behavior is in contradiction with Judaism's law which emphasizes honoring the parents and not standing against their will.¹²⁾ In addition to this, there are several cases that Wilhelm is in contradiction with the virtues of Judaism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amily ties. He went out of his house leaving his family alone and entered the Gloriana Hotel where his father, Adler, was staying. He didn't want to get married again first, but he changed his mind after he met Margaret. However, in spite of his father's opposition to marriage, Wilhelm married her

11) Goldman says that Bellow uses the anecdotes of the Bible to reveal particularly Jewish characteristics in expressing the main subjects of his works. Among the characters in the Bible, Abraham who made the opportunity to reject paganism and to establish monotheism by destroying idols and Jacob who took away the birthright from Esau in an unfair way and has escaped from his anger were the main characters appearing in the Bellow's works. She says that Abraham symbolizes the fact that God doesn't exist without absolute unity and Jacob shows the fact that a perfect spiritual life can be harmonized with human life in the present world, and that Bellow completes his novels by combining these two characters in the Bible. And she adds that Bellow destroys the idols of contemporary literature in this patriarchal role and rejects its negative influences by describing the main characters as the ones with Jacob'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er, the individuals in his novels are always fighting against the absolute power of his conscience, his flesh and his fantasy, and as in Jacob's case, this power forms the hostile situations and the main characters fight hard and redefine their position as human beings (xiv).

12) Honor your parents. Then, you will live long in the land which your God has given to you (Exodus 20:12).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as your God commanded you. And in the land which your God has given to thee, thy life shall be long and blessed (Deuteronomy 5:16).

like standing against his father. He tried to look away from reality thinking that his misfortunes were caused by his emotional and impulsive choice, while ignoring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marriage, but there was nothing that can be done to his will.

Wilhelm was still paying heavily for his mistakes. His wife Margaret would not give him a divorce, and he had to support her and the two children. She would agree to divorce him, and then think things over again and set new and more difficult conditions. (*SD* 29)

Likewise, Wilhelm's behavior to ignore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his choice and to avoid reality is contrary to the Ethics of Judaism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no matter how rash the choice was.¹³⁾

Wilhelm's reckless behavior lasted even after his marriage. He had worked for more than 10 years at the company and was expected to be promoted, but when the president promoted his son-in-law instead, he became angry and resigned. However, due to his imprudent behavior, his family was threatened with a livelihood. Differently from Christianity, which restricts human free will by the concept of original sin, Judaism emphasizes the free will that every human being can choose his own destiny by his own decision. Since this discretion of free will is based on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for the personal choice, it is different from the indulgence

13) And the ones who make a pledge with their own lips, even if they didn't know it well, they should be responsible for whatever he recognized (Leviticus 5:4).

of freedom.¹⁴⁾ In other words, Judaism acknowledges the discretion to choose good and evil by free will and also requires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choice. This free will of choice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choice are reflected on the Bible.¹⁵⁾ Wilhelm, not accepting the bad result caused by the choice of free will and avoiding the responsibility and being caught up in a get-rich-quick fever depending on his father rather than solving his own problem, is practicing the free will emphasized in Judaism in a wrong way.

As well as Wilhelm, Adler, his father, is also living a life that does not match the Jewish values. Adler blames Wilhelm for not being practical and perceives him as incompetent. However, he boasts to the surrounding people that his son gets paid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revealing his ambivalence (“My son’s income was up in the five figures. 36”). Adler, who has gained a considerable reputation in the medical community and has accumulated wealth but is not willing to help his son in a difficult situation, must be seen rejecting the tradition of Judaism.¹⁶⁾ Also, the image of Adler, who does not want to

14)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relative importance of human free will and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of omnipotent God. This problem was controversial by several Jewish schools in the latter day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While the Sadducee entirely denied the intervention of God in the human things and considered only the human free will as absolute, the Essene supported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The Pharisee emphasized the fact that human being have free will, acknowledging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taking the moderate stance, and also insisted that this free will is required for the moral and religious life necessarily and does not contradict God’s omnipotent capacity (Eisenberg 85).

15) Follow the path, and keep his commandments, ordinances, and laws, you will be well and flourish. And in the land where you will enter and occupy, your God will bless you (Deuteronomy 30:16-17).

leave his property to his son, even a penny, is contrary to the look of Abraham, who asks God to give his child inheriting his.¹⁷⁾

It is from his distorted personality that William cannot live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people and shows a maladaptive nature to reality. He dislikes his sister, a housewife who has not forsaken her dream of becoming a painter at the age of her 40s, and reproaches her saying to care only about housework. By his attitude toward his blood sister, saying to give up her dream without any consideration about her talent as a painter, it can be assumed that he lacks the consideration of others. Moreover, after his mother who was the only care for him left the world, he likens himself to animals like hippopotamus, elephants and pigs and is dominated by consciousness of damage, thinking that he became the loner whom nobody does care for (55).

Wilhelm's this kind of self-depreciation came from a psychology that wants to forget his misery, such as his father who refuses to help

16) Thought the Bible does not describe the father's obligations to his children specifically, the Shulchan Aruch which is the Jewish code derived from the Talmud and the Talmud describe about this, In Judaism, both the Talmud which is the orally transmitted law and the written law are considered as important, and these two laws are described in Shulchan Aruch. According to this law, the father's obligation to his son is to provide food until the son is of a certain age. However, if the child has no income and the father has the ability, the father has an obligation to raise his son (Goldman 64).

17) Abraham asked. "Lord, my God, what will you give me? I have no children yet. The only one who can inherit my property is Eliezer of Damascus. Since the Lord has not given me a child, the servant in my house will be my heir". When Abraham said like this, the Lord spoke to him. "The boy is not your heir. The son who will be born from your body will be your heir" (Genesis 15: 2-3).

- Research on Judaism shown in Saul Bellow's *Seize the Day* | Park, Koung-Im

his financial problems, the uncompleted dream to become an actor and the last remaining property swindled by Tamkin, the swindler, and to blame others and to avoid reality. However, it only grows his dependency on others more and more. It can be said that this attitude of Wilhelm, who is not responsible for his own choice and avoids reality and is pessimistic about life complaining about the given circumstances. This is contrary to the virtues of Judaism, which requires the affirmative and optimistic perspective toward the present.

William does not even receive his father's help at all, and even the last remaining money is lost to equity investment, and he keeps on falling to hell. The one who makes Wilhelm lose all money eventually by making him buy the Lard stock and then disappears is Tamkin, the swindler, but paradoxically, the advice he gives to Wilhelm is related to the philosophy of "here and now", the subject and title of this novel. He tells Wilhelm the key point of the positive reality of Judaism to be faithful to the present.

"Nature only knows one thing, and that's the present. Present, present, eternal present, like a big, huge, giant wave—colossal, bright and beautiful, full of life and death, climbing into the sky, standing in the seas. You must go along with the actual, the Here-and-Now, ... And say to yourself here-and-now, here-and-now, here-and-now. 'Where am I?' 'Here.' ... and not let your imagination shoot ahead. Be in the present. Grasp the hour, the moment, the instant." (89-90)

William does not receive any help from his father, loses all his fortune, and weeps at the funeral of someone whom he doesn't know

at all (118). His crying is an expression of remorse for his past life, which has dismissed complaints about his trials, ignored his responsible life and wasted only one time of his life and is the external confession that he didn't live a life of Judaism, even though he had a Jewish bloodline.

The virtues which Bellow emphasizes commonly in his novels include the Jewish elements, such as positive reality, responsible and moral life for the things selected by free will, and recovery of bond with others based on love, but in this novel, by showing the main characters' life which is contrary to the Jewish virtues, it is clearly highlighting the elements of Judaism inversely.

IV. Conclusion

Bellow, who was born in a family of Jewish immigrants, grew up with a Jewish education since childhood. His Jewish background affected his works. He enhanced the aesthetic completeness by adding the Jewish elements to his main works. Judaism is the most prominent element in his works and became the basis of his literature. Judaism teaches that human beings can embody heaven in the real world by accepting the present, following the law and living a moral life, no matter how painful and difficult the reality is. Human dignity, affirmation of reality, overcoming alienation and restoration of moral self are the virtues emphasized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Talmud, the essence of Judaism.

Wilhelm, the main character of 『Seize the day』, which is one of his

- Research on Judaism shown in Saul Bellow's *Seize the Day* | Park, Koug-Im

early major works, stands against the parents and gets married as he wants, but he doesn't try for his family's living and only dreams of becoming an actor despite the lack of ability. He doesn't acknowledge the fact that his misfortunes were caused by his own choice. He blames others and continues to act irresponsibly depending on his father financially and being caught up in a get-rich-quick fever like stock investment. Wilhelm's thinking and behaviors are contrary to the virtues of Judaism which considers the moral and responsible life and the trials in reality as the suffering for human maturation and emphasizes the positive and optimistic life. The writer is highlighting the elements of Judaism inversely in this work by showing the negative life of his main characters in *Seize the day*.

(Kangwon National Univ.)

■ Keywords

Judaism, Talmud, Old Testament, Jew, Torah, responsibility.

■ References

- Bellow, Saul. *Seize the Day*. New York: Penguin Books, 1996. Print.
- _____. *Henderson the Rain King*. New York: Penguin. Print.
- Baeck, Leo. *The Essence of Judaism*. New York: Schocken Books, 1976. Print.
- Browitz, Eugene B. *Understanding Judaism*. New York: Union of American Hebrew Congregation, 1963. Print.
- Eisenberg, Ronald L. *850 Intriguing Questions about Judaism: True, False, or In Between*.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15. Print.
- Elazar, Judah. D. *Covenant and Civil Societ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1998. Print.
- Fromm, Erich H.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An Owl Book Henry Holt and Company, 1994. Print.
- Goldman, Liela. *Saul Bellow's Moral Vision*.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Inc., 1993. Print.
- Goodman, Nan & Kramer, Michael P. Ed. *The Turn around Religion in America: literature, culture, and the work of Sacvan Bercovitch*. Surrey: Ashgate Publishing Ltd, 2011. Print.
- Kramer, Michael. P. Ed. *New Essays on Seize the Da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rint.
- Lange, Nicholas De.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rint.
- Leventhal, I. H. *Judaism*. New York: Funk & Wagnallis Co., 1947. Print.

- Research on Judaism shown in Saul Bellow's *Seize the Day* | Park, Koug-Im

Magill, Frank N. Ed. *The 20th Century A-GI: Dictionary of World Biography*. New York: Routledge Publishers, 1999. Print.

Neusner, Jacob. *The Emergence of Judaism*.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4. Print.

Opdahl, Keith M. *The Novels of Saul Bellow*.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Print.

Scult, Mel. *Judaism as a Civilization*.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and the Reconstruction Press, 1981. Print.

Walden, Daniel & Avery, E. Gross. *Studies in American Jewish Literatur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Print.

■ Abstract

Research on Judaism shown in Saul Bellow's *Seize the Day*

Park, Koungh-Im (Kangwon National Univ.)

This paper aims to study Jewish elements in Saul Bellow's *Seize the Day*. Judaism is the religious, ideological base for Jews, which focuses primarily on this life seeking salvation in this world. It is based on Old Testament and folklores such as Talmud all of which highly value the realistic values, perseverance through trials, moral life, free will of the man who is created by God.

It is natural for Bellow to employ Jewish elements in his novels to convey his novels for he was born in Jewish immigrant family and has been raised under the Jewish cultural background. Through his novels, he approaches his themes of free will, social responsibility from Judaic perspective. *Seize the Day* is one of the Bellow's best novels in which he employed more abundant Judaic elements than any other later works of his. Tommy Wilhelm, the main character of the novel, lacks the sense of reality setting unattainable goals, neglecting his responsibilities unwilling to accept life as it is, and relies on his father for financial support. Such negative attitude toward his life contradicts Jewish virtues. In this way, Bellow employs Jewish elements and conversely highlights the Jewish virtues in this novel.

- Research on Judaism shown in Saul Bellow's *Seize the Day* | Park, Koung-Im

■ Keywords

Judaism, Talmud, Old Testament, Jew, Torah, responsibility.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Crossing the Wilderness: The Meaning of Toil in Hemingway's "Big Two Hearted River" and McCarthy's *All the Pretty Horses*

Seo, Ju-Hyun

I . Introduction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Ernest Hemingway's short story "Big Two Hearted River" garnered little interest when it first appeared in the 1924 collection *In Our Time*. Despite such inauspicious beginnings, the story's literary themes are now considered central to the writer's philosophical concerns, providing ample evidence of a burgeoning minimalist style as well as the innovation known as the "iceberg" (Hong 1) technique. For example, in this deceptively simple story, the protagonist Nick Adams is depicted travelling through the burnt terrain of his childhood. The fact that everything is burnt black is sign enough, though, that the story should not be read as a nostalgia-filled journey through the natural world. Instead, as Philip Young points out, it is full of "violence and vice" (Young 30), an underpinning that points towards Hemingway's contemporary, war-informed world. The iceberg method, therefore, compels the reader to look for deeper resonances in which the protagonist is revealed as a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wounded soldier recovering from the trauma of the First World War. The compulsion to plunge below the surface is made doubly exigent by the biographical knowledge that the writer was drawing from his experiences as an ambulance driver during the conflict. William Adair flushes out these textual, biographical and historical correspondences:

Many readers agree that Nick of “Big Two-Hearted River” is a writer and veteran and that certain elements in the story—the fire—destroyed town, the burned-over countryside and fire-blackened grasshoppers, the hills which Nick must travel through in order to get to the river (there are no hills in Seney, Michigan), his memory of seeing dead fish floating belly up in streamside pools (colonel Cantwell remembers corpses floating in still canals)—suggest images which he had seen during the war. (Adair 584)

John Grady Cole, the hero of Cormac McCarthy's *All the Pretty Horses* (1992) is a modern incarnation of the war—haunted Nick Adams. Although John Grady Cole wasn't directly involved in the Second World War, he nevertheless experiences trauma vicariously by watching the effect that war had on his damaged father, a character who is depicted as morally and physically exhausted; so spiritually broken, it seems, that his very life—force is spent. For this reason, his father's abjection cannot simply be reduced to a single subjective experience; for, ultimately, it acts as primary cause for the eventual dissolution of the entire family as well as John Grady Cole's decision to turn his back on this society. It is here where we find a textual correspondence between John Grady Cole's and Nick Adams'

decision to make out for the wilderness: the war-ravaged civilized world, it seems, has nothing to offer these traumatized characters.

All the Pretty Horses is the first novel in *The Border Trilogy*. At first glance, this homage to the Western tradition might deceive the reader into thinking the novel is just a tired reworking of an obsolete cowboy myth. However, if we place the novel within its post-Second World War context, the tragedy begins to circulate around several important historical and existential themes: namely, the “disillusionment brought on by the modern world, the power of essentialism based on nationality, the increasing fluidity of national boundaries, and the transformative effects of travel” (Brown 125). Moreover, the post- World War era “correlates with the beginning of modern globalization” (Husband 58). The journey of John Grady Cole reminds us of a plethora of social-historical indices beneath the quest surface: for example, the fracturing of family and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Furthermore, such indices provide material ground for the more spiritually embedded scars.

The wilderness was once considered as a place for hermits and madmen. However, by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solitary and fearful images of the wilderness were changed. The previous condemnation of the wilderness was transferred to the new city environment. Civi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ubdued America. Labor-saving industrial and agricultural machinery in cities and man-made hazards like world wars made Americans focus on the wilderness, not on the city.

The average citizen could approach wilderness with the viewpoint of the

vacationer rather than the conquerer. Specifically, the qualities of solitude and hardship that had intimidated many pioneers were likely to be magnetically attractive to their city-dwelling grand children ... At the end of nineteenth century, cities were regarded with a hostility once reserved for wild forests. (Nash 143)

For these reasons, I shall look for correspondences between “Big Two Hearted River” and *All the Pretty Horses*: first, as a way of shedding light on the two writers' deployment of the quest myth as metaphors of self-redemption and subject affirmation in a world that increasingly rejects such qualities; and, second, to show that their respective wilderness experiences can be seen through the Thoreauvian emollient of self-reliance.

II. Into the Wilderness

Although Hemingway doesn't directly refer to Nick's participation in the war, it becomes apparent, and following Grebstein, that “the burned-over land which Nick crosses on his way toward the river can be equated with his war-scorched nerves” (Grebstein 20). The devastating experience of the war can only serve to deface the environment of Nick Adams childhood. Through his “war-scorched” (Grebstein 20) eyes, he perceives death and violence in both town and country:

The train went on up the track out of sight, around one of the hills of burnt

timber ... There was no town, nothing but the rails and the burned-over country. The thirteen saloons that had lined the one street of Seney had not left a trace. The foundations of the Mansion House hotel stuck up above the ground. The stone was chipped and split by the fire. It was all that was left of the town of Seney. Even the surface had been burned off the ground. (Hemingway 177)

The dreary landscape of Seney can be read as corresponding with Nick's mental anguish; that is as a "spiritual wasteland" (Yoo 39). In trying to heal his inner and outer wounds, Nick Adams decides to leave the inhumane modern world and find solace in the woods. In doing so, he stoically endures, indeed derives a certain pleasure from, the discomfort of day-to-day self-reliant toil. Paradoxically, such routine exertion makes him feel more alive than he had felt for some time.

It was hard work walking up-hill. His muscles ached and the day was hot, but Nick felt happy. He felt he had left everything behind, the need for thinking, the need to write, other needs. It was all back of him. (Hemingway 179)

In spite of feeling better in this familiar environment, his eyes soon lock-on to the skittish movements of a trout swimming in the translucent water. Perhaps instinctively aware of danger, the trout is shown skittering for the shadows where it can safely lurk. Just like the trout, Nick also tries to find his places of seclusion: and so seems a little bit nervous in the early part of this story. Philip Young pinpoints

for us the hidden fear of Nick Adams:

Nick goes about his business exactly as if he were a trout keeping himself steady in the current, the whole affair is seen sharply but is slightly distorted, and there are now several deep pools in Nick's personality-where in the shadows lurk "big ones." Nick is clearly in escape from something. (Young 44)

Nick Adams' apprehension finds its correlate in the depiction of John Grady Cole in *All the Pretty Horses*. Given that he is only 16 years old, his disenchantment with the world is all the more powerfully and poignantly rendered because he is in many ways old before his time. His coming of age in the middle of the rapidly changing post-war world means that he is looking for certainty where certainty doesn't exist anymore; for example, he looks for support from his family, but finds none. He is more attached to his father than mother, so tries to go riding with his father. But the only thing that seems to be passed from father to son is a sense of ominous despair about the future. John Grady Cole's father can't even protect himself. John Wegner describes the father's depressed state of mind.

John Grady's father, a former P.O.W and survivor of the Bataan Death March, returns not "the same" despite his son's assertion that he is the same "inside" (APH 12). On their last ride, he looks "over the country with those sunken eyes as if the world out there had been altered or made suspect by what he'd seen of it elsewhere. As if he might never see it right again. Or worse did see it right at last" (APH 23). John Grady's father may be wracked by

pneumonia (many Bataan survivors returned with fatal pneumonia or other deadly infectious diseases), or he may have cancer or emphysema promoted by the cigarettes and lighters distributed to American soldiers. (Wegner 84)

John Grady Cole tries to reconcile with his mother, an actress, who is described as being “completely out of touch with nature and the life force of 'the blood and the heat of the blood that ran through the horses and men that John Grady values” (Boo 222). In one scene, he is shown secretly visiting the theatre to watch his mother perform in a play. However, the implied hope of understanding his mother comes to nothing:

He sat leaning forward in the seat with his elbows on the empty seatback in front of him and his chin on his forearms and he watched the play with great intensity. He'd the notion that there would be something in the story itself to tell him about the way the world was or was becoming but there was not. There was nothing in it at all. (McCarthy 21)

Moreover, the death of John Grady Cole's maternal grandfather deprives one last chance for him to stay in America and protect his identity from being hurt or lost in an increasingly modernized, post-war Texas. It is this death that symbolically transforms John Grady Cole into an orphan, and thus provides the mythopoeic reason for the quest to begin.

Therefore, he decides to leave the United States for Mexico, which he believes, still preserves the cowboy lifestyle and spirit. He is looking for some sense of belonging, some sense of authentic being

so chooses the free-ranging life of a cowboy. In the same way that Nick Adams seeks out a desolate place far from the madding crowd, John Grady Cole's decision to leave his home or homeland is an intended alienation. It is an attempt to regain control over himself and to heal the wounds caused by his disintegrating family and the modern world. Of this alienation, John Wegner observes:

Isolation and alienation seem at the heart of McCarthy's novels; however, the alienation of the individuals comes at a time when America has exponentially increased its world-wide involvement in other countries's affairs. The very creation and use of the atomic bomb virtually forced America into a universal role as a Big Brother peacekeeper, making isolation impossible to maintain ... the technology of the twentieth-century delimits John Grady's desire to live on "a little spread up in the hills" where he can kill his own meat and remove himself from the world below (COP 77) ... Essentially, isolation and alienation are never complete because technology subverts the ability to remain alone. World War II acts as a moment of aporia for these boys: the alination and isolation of the individual is deconstructed by the ever growing communal responsibility and intrusion. (Wegner 85)

Referring to the passages above, the readers can reach the assumption that both protagonists suffer from the lack of stability. Only the stable environments can make people maintain their sound subjecthood. However, the protagonists are surrounded by the impacts of the World Wars, the deaths of people and the sudden changes of a modern world. Therefore, all of these factors provoke them to escape and compensate for their unfulfilled desires, that is,

finding who they are and where they belong.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e 'lack' is always related to "DESIRE" (Evans 98) according to Lacan.

It is a lack which causes desire to arise (see S8, 139) ... When the term first appears, in 1955, lack designates first and foremost a lack of BEING (there are close parallels with Sartre here; see Sartre, 1943). What is desired is being itself ... Lacan returns to this theme in 1958, when he argues that desire is the metonymy of the lack of being. The subject's lack of being is 'the heart of the analytic experience' and 'the very field in which the neurotic's passion is deployed' (E, 251) ... In 1956, lack comes to designate the lack of an object. (Evans 98)

Thus, their departures can be read as their efforts to fulfill their lack of being, finding their missing object. Just like Moses from the Bible, who led his people to the 'Promised Land', the two protagonists search for their own 'Promised Lands': one is the riverine woods of his childhood; the other is the great ranch, La Purisma in Mexico. They finally take their first steps, crossing the wilderness within and without.

III. Endeavors in the Wilderness

Hemingway and McCarthy both take great pains to prove that the wilderness has values such as "a moral influence, a source of beauty, and a place of exciting adventure" (Nash 76). Like Natty Bumppo

depicted by James Fenimore Cooper, Nick Adams and John Grady Cole are attracted by “the sublimity and holiness of wild nature” (Nash 76). Especially, John Grady Cole is more attached to Indians living in the wilderness rather than his modern contemporaries. Ultimately, the two protagonists' complete exposure to nature gives them a chance to realize disappearing innate goodness and moral lessons in a post-war America.

Nick prepares his own shelter and meals, supporting himself completely in the middle of the woods. His walking, hard work and even the pain caused by heavy backpack allows him to grow inwardly. This immersion in work provides respite from the nagging pain of remembering of what he had gone through as a soldier. It seems that his physical agony distracts him from the mental anguish he suffers. The preparation for fishing seems to be a ritual itself; through it, he tries to heal his anxiety.

It smelled pleasantly of canvas. Already there was something mysterious and homelike. Nick was happy as he crawled inside the tent. He had not been unhappy all day. This was different though. Now things were done. There had been this to do. Now it was done. It had been a hard trip. He was very tired. That was done. He had made his camp. He was settled. Nothing could touch him. It was a good place to camp. He was there, in the good place. He was in his home where he had made it. (Hemingway 183-184)

Right up till Nick Adams prepares his bed, there are frequent images of working on the river, of Nick preparing and making things. While moving his limbs, he feels happiness rather than regret about

making himself busy in a deserted forest. The burdens of his mind, which have overwhelmed him till that moment, disappear in the midst of toil.

In the woods, he finds a swarm of black locusts. They have turned black, an adaptive process that allows them to survive the burned fields. They cannot even think of escaping from this blackened land. They have given up their willpower already. It is possible that these blackened locusts are emblematic of modern people, surviving and adapting to the sombre post-war world. They have lost their potency, their strong sense of identity and life force, yet still survive. If Nick Adams returns to civilization, there is a distinct danger that he will succumb to the demands of modern technology or, worse, be enslaved to dominant material values. If such a thing happens, he might (not unlike the lifeless black locusts) lose his own sense of identity and life force. Therefore, when he exclaims to a hapless locusts, "Go on, hopper" (Hemingway 180), it can be read as a declaration of self-emancipation. In addition, his aimless, unhurried amble through the scarred landscape becomes a ritual freeing himself from the traumatic memory; his toil, a refusal to conform to the modernized world. So to speak, his physical endeavor is a stimulant against self-paralysis, the kind of modern temptation which prevents him from responding to his dynamic life force.

Similarly, John Grady Cole is self-sufficient in food and bed throughout his journey. Rather than choosing more convenient modern transportation to cross the wilderness, he prefers instead to ride on a horse. This suggests that he believes the industrial can't replace the natural, and so through his riding, he feels connected to

nature. Therefore, in this novel, a horse is not just a horse. It is nature itself and a medium for his labors, such as taming horses, riding on them and having adventures with them. The closer he is to the quine world, the more he alive he feels. Horses have been with us for such a long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rse and John Grady Cole impels us to think of the civilized, industrialized world, and how it cuts us off from nature. Therefore, riding on a horse symbolizes a spiritual reconnection with nature.

Horse, which represent the life blood and heat that John Grady values above all else, are the only constant in his life-the only thing that he is able to depend upon and freely love throughout his journey and life. John Grady's decision to ride his horse into Mexico symbolizes his rejection of industrial civilization, and it is his ability to tame horses that gives him the chance to stay and work on the Mexican ranch in his quest for a new West. (Boo 227)

Moreover, as Kyung-sook Boo points out above, it is John Grady Cole's actual horse skills that elevates his standing among the Mexican community. He sees this ranch as his old and lost home. The self-reliance which endows him with the gifts of horse-care and self-fortitude - even when it is severely challenged as in the Mexican prison section - parallel Nick's meticulous fishing preparations.

Such preparation acts as a jumping-off point for Nick's immersion into deep unconscious memory. The slow, patient wait for the fish to bite is representative of a cautious confrontation of his unconscious. However, the energetic movements and life forces that the trout transmit can only cure him gradually. In a similar fashion, the Mexican

prison in which John Grady Cole ends up in is symbolic of the violent reality of Mexico existing behind the pastoral facade of the hacienda. John Grady Cole's tragic flaw is that he has misunderstood the country as an ideal place far removed from its obvious material reality. However, the truth is that there is no place free from destructive urban influence and industrial capitalism.

The prison was no more than a small walled village and within it occurred a constant seethe of barter and exchange in everything from radios and blankets down to matches and buttons and shoenails and within this bartering area ran a constant struggle for status and position. Underpinning all of it like the fiscal standard in commercial societies lay a bedrock of depravity and violence where in an egalitarian absolute every man was judged by a single standard and that was his readiness to kill, (McCarthy 182)

Even though there is no direct correlation between John Grady Cole's prison experience and Nick Adams' fishing endeavors; on a deeper level the protagonists have to face the causes behind their unappeasable melancholy. For Nick Adams, it is his 'traumatic memory,' and for John Grady Cole, it is his refusal to come to terms with the 'unromantic reality'.

IV. Facing the Reality

McCarthy uses western frontier backgrounds to explore natural human instincts in the wilderness which hasn't been drenched in a

standardized culture. The path that John Grady Cole takes is primeval and harsh. That is, the path toward Mexico is at times unrelentingly desolate and bleak. In this kind of wilderness even the animals seem to partially recover their wildness, while the food and people are often described as primeval. To be sure, there are some necessary life-lessons to be learned here; for in a similar way to how Nick Adams has to go deeper into the woods to find himself, so too must John Grady Cole's own journey become incrementally fraught with danger and portent before self-knowledge is attained. This specifically Mexican nature seems to divest him of all lingering exaggerated modern customs and thus compels him to forge a truer and purer identity. Such self-recognition seems to be more truthful than his own noble and fictional thoughts of being a cowboy.

Like Nick Adams, who is bewildered due to losing his identity after the war, John Grady Cole mistakenly thinks that he knows who he is. However, the truth is, he is completely lost. The sudden tragic death of Blevins, his awful and near-fatal experience in a Mexican prison along with his breaking up with Alejandra – all help him to see the world as it is. There is no sanctuary. Most importantly, the fierce prison knife fight provides him with sufficient proof of the hard struggle for existence. His journey and labors teach him some hard lessons on the coexistence of good and evil in a world that he can never change.

This *umwelt* marks a point of correspondence between the world of Nick Adams –

Nick's hand was shaky. He reeled in slowly. The thrill had been too much.

He felt, vaguely, a little sick, as though it would be better to sit down.
(Hemingway 193)

And John Grady Cole's –

For me the world has always been more of a puppet show ... I think I just didn't have any choice. Just didn't have any choice ... Yessir, I didn't mean that I expected a answer, Maybe there ain't no answer, (McCarthy 231-293)

Alfonsa's critical viewpoint toward the world and what the judge says to him are parallel and their words become valuable lessons for John Grady Cole. This will encourage him to grow up and make him realize how hard it is to keep his identity as a romantic cowboy.

V. Conclusion

When Nick Adams implicitly confirms that he is not yet ready to face his biggest trauma, we are made aware of this through the slow, psychological foregrounding of the “tragic swamp” (Adair 584) in the last few pages.

In the swamp fishing was a tragic adventure, Nick did not want it. He did not want to go down the stream any farther today ... He climbed the bank and cut up into the woods, toward the high ground. He was going back to camp. He looked back. The river just showed through the trees. There were plenty of days coming when he could fish the swamp. (Hemingway 198-199)

John Grady Cole also retreats from his broken and falsely imagined ideal country, Mexico, to prepare himself to find another ‘Promised Land’. In short, their retreats are not the end of their challenges. Until they reach their ‘Garden of Eden’, they will never stop searching nor will they spare any effort in doing so.

They stood and watched him pass and watched him vanish upon that landscape solely because he was passing. Solely because he would vanish ... He rode with the sun coppering his face and the red wind blowing out of the west across the evening land and the small desert birds flew chittering among the dry bracken and horse and rider and horse passed on and their long shadows passed in tandem like the shadow of a single being. Passed and paled into the darkening land, the world to come. (McCarthy 301-302)

These transformations are not entirely personal. Perhaps they will learn how to create new identities and a place commensurate with their longing. As John Grady Cole's father remarks, “people don't feel safe no more” (McCarthy 25) and 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Therefore, the two protagonists should transform themselves deliberately and skillfully in order to survive. At novel's end, John Grady Cole decides once again to leave his country of origin. Nick Adams, on the other hand, stands back from the swamp that had threatened to destroy him. As with John Grady Cole leaving his country, Nick Adams leaving the swamp is not his “end” but, “as it turns out, his beginning” (Peebles 52). In the conclusion, their toils will help them maintain their drive to live and will-power as the perfect stimulus in this soulless modernized world. At the same time, their

labors, because they are harsh and tragic, suggest also that the desire to be different and separate from this tragic world can come at a great personal cost.

(Dongguk Univ.)

■ Keywords

Ernest Hemingway, Cormac McCarthy, *Big Two Hearted River*, *All the Pretty Horses*, Wilderness

■ Works Cited

- Adair, William. "‘Big Two-Hearted River’: Why the Swamp is Tragic."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17.4 (1991): 584-588.
- Boo, Kyung-sook. "Ride Off Into the Sun: The Cowboy as the New Vanishing American in Cormac McCarthy's *All the Pretty Horses*."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9.1 (2007): 213-238. Print.
- Brown, Davis. *Dislocating America: Mobility and Nationality in Post-World War II U.S. Fiction*. Diss. U of Wisconsin-Madison, 2014. Print.
-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Print.
- Grebstein, Sheldon Norman. *Hemingway's Craft*.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73. Print.
- Hemingway, Ernest. *The Nick Adams Stories*. New York: Scribner Book Company, 1981. Print.
- Hong, Seung-hyun. "Ernest Hemingway's Technique in ‘Big Two-hearted River’: Lifting the Underlying Iceberg of Hemingway." *The Association of Comparative Study of World Literature* 29.0 (2009): 557-567. Print.
- Husband, Andrew. "McCarthy's Multitude(s): All the Pretty Horses and Los Hombres del Pais." *Cormac McCarthy: All the Pretty Horses, No Country for old Men, The Road*, Ed. Sara L. Spurgeon.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2011. 58-74. Print.

- Lee, Hyang-Mann. "Revision of the 'West': Cormac McCarthy's *All the Pretty Horses*."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3.3 (2009): 131-147. Print.
- McCarthy, Cormac. *All The Pretty Horses*.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92. Print.
- Nash, Roderick Frazier. *Wilderness and the American Mind*. New Haven: Yale UP, 2014. Print.
- Park, Kyung-seo. "Talking to Nature: Ecological Healing in 'Big Two-Hearted River.'"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58.2 (2014): 171-89. Print.
- Peebles, Stacey. "Hang and Rattle: John Grady Cole's Horsebreaking in Typescript, Novel, and Film." *Cormac McCarthy: All the Pretty Horses, No Country for old Men, The Road*, Ed. Sara L. Spurgeon.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2011. 44-57. Print.
- Wegner, John. "'Wars and Rumors of Wars' in Cormac McCarthy's Border Trilogy." *A Cormac McCarthy Companion: The Border Trilogy*. Eds. Edwin T. Arnold and Dianne C. Luce. Jackson: Mississippi UP, 2001. 73-91. Print.
- Yoo, Gong-suk. *Anxiety and its Cure Reflected in the Selected Stories of Ernest Hemingway*. Diss. National U of Cheonnam, 2010. Print.
- Young, Philip. *Ernest Hemingway: A Reconsideratio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P, 1966. Print.

■ Abstract

**Crossing the Wilderness:
The Meaning of Toil in Hemingway's *Big Two Hearted River*
and McCarthy's *All the Pretty Horses***

Seo, Ju-Hyun (Dongguk Univ.)

Although Hemingway's short story "Big Two Hearted River" was not popular during that period, it has literary themes that are central to Hemingway and has a strong sense of his typical writing style, the iceberg technique. Therefore, his seemingly simple and short story of Nick Adam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s an account of a peaceful journey toward nature. On the contrary, it is a story of an inwardly and outwardly wounded soldier from the First World War. Hemingway himself also took part in the same war and was traumatized by the event.

Cormac McCarthy also examines the anxieties of modern people in his writing by using similar iceberg technique. For this reason, his novel *All the Pretty Horse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other old-fashioned Western adventure story. As Nick Adams in "Big Two Hearted River", John Grady Cole is a victim of the World War. John Grady Cole's father participated the Second World War and he lost his *Wille zum Leben*. Ultimately, his father's participation leads John's entire family to be torn apart. After the death of John Grady Cole's maternal grandfather, he leaves United States for Mexico in order to

keep his cowboy lifestyle and spirit.

This paper aims to compare two stories, “Big Two Hearted River” and *All the Pretty Horses*, so as to show personal journey and toil in the wilderness as a means of self-redemption and regaining one's authentic identity in a disoriented modern world. To examine the meaning of journey toward the wildernes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aspects in American Wilderness. First, it has the qualities of solitude and hardship. Second, it is an attractive place to city dwellers who want to escape from too much civilization. In this perspective, I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two protagonists' endeavors at healing their damaged identities in the wilderness.

This paper will be divided into three main parts. First, I will examine the departures of the two protagonists toward the wilderness. Second, I will discuss the effects of their endeavors in the wilderness. Lastly, I will explore their gradual realization of the reality and constant exertions to regain control over their authentic identities and values.

This comparison process will give the readers the idea that the protagonists' patient labors and toils in crossing the wilderness can be read as efforts to restore their impaired subjecthood in a post-war world. Even though the two protagonists' endeavors to heal their identities in it are not successfully fulfilled, it would be worthwhile to analyze some positive aspects of their attempts as our contemporaries' heroic challenge.

■ Keywords

Ernest Hemingway, Cormac McCarthy, *Big Two Hearted River*, *All the Pretty Horses*, Wilderness

■ 논문게재일

○투고일: 2016년 1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2월 9일 ○게재일: 2016년 12월 31일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규정

제1조 (학술지 발간의 목적과 성격)

- (1) 동국대 영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는 영어권 문화와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자들의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술지 『영어권문화연구』(*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를 발간한다.
- (2) 본 학술지는 영어권문화연구와 관련된 논문들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은 영어권의 인문, 철학, 문학, 문화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괄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조 (학술지 발간 일정)

- (1) [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연 2회 발간한다.
- (2) [원고 접수와 심사] 원고는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고자에게 게재 희망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논문 접수 마감은 1권은 3월 15일, 2권은 7월 15일, 그리고 3권은 11월 15일로 하고 이때까지 접수된 문에 대해 해당호 게재 여부를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기한 보다 늦게 투고된 논문들에 대해서는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투고 및 심사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투고 및 심사 일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호	투고 마감	심사	수정본 접수마감	심사 완료
1권	3월 15일	3월 16일 ~ 31일	4월 10일	4월 15일
2권	7월 15일	7월 16일 ~ 31일	8월 10일	8월 15일
3권	11월 15일	11월 16일 ~ 30일	12월 10일	12월 15일

제3조 (학술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

- (1) 학술지의 발간규정에 대한 심의 및 제/개정은 편집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및 심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 (1)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영어권문화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수록될 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5)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7) 편집위원은 학문적인 조예가 깊고, 연구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중에서 전문성, 대내외적 인지도, 경력사항, 연구실적, 연구소기여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8) 편집위원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상임이사나 회원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9) 편집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10)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기타 출판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소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 (11) 편집위원은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에 맞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고루 선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은 『영어권문화연구』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학술지와

관련하여 제반 대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회의를 주관하고, 원고를 두고 받아 관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회의에 투고된 원고를 보고하면서 각 논문마다 전공분야에 맞는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해당 논문에 대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관리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회의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 2회 이상 학술지의 편집방향과 특성에 대해 협의한다. 특히 특집호를 기획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예정 발행일 8개월 전까지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

- (1) [접수 및 관리] 원고는 공정한 투고 시스템을 사용해 모집한다.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람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2)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blind test) 인비로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한 논문의 저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한 후 심사위원회에 송부한다.
- (3) [심사위원 위촉]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그 논문에 적합한 전공분야 3인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기여도,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회의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편집위원 중에 해당분야 책임자

가 없을 시에는 다른 회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심사 일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심사결과서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5) [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1) 학회계재 형식 부합성, 2) 내용의 창의성, 3) 논지의 명확성, 4) 논증과정(문단간 연계성, 인용근거의 정확성, 구성의 밀도, 문장의 명증성, 설득력 등), 5) 주제의 시의성, 6) 논리적 논지전개, 7) 학문적 기여도와 같은 논문의 질적 심사와 8) 논문 형식, 9) 참고자료의 적합성, 10) 영문초록과 주제어가 적절한지 등과 같은 형식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심사자는 평가결과를 연구소의 심사결과서 양식에 따라 서술식으로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계재 가’, ‘수정 후 계재’, ‘수정 후 재심사’, ‘계재 불가’ 중 택일하여 판정한 후 논문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계재 가’ 판정이 아닐 경우 그 이유나 수정-보완 지시 및 계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6) [계재 판정] 논문의 계재여부는 해당 분야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공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계재가’ 혹은 ‘수정 후 계재’로 평한 논문만을 원칙적으로 계재 대상으로 한다. 각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계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호에 계재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계재 가 :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계재 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나) 계재 불가 : 논문 심사 결과 편집위원(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계재 불가” 판정이 나왔을 경우.

다) 수정 후 계재 :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계재” 혹은 그 보다 상위의 종합평가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 라) 수정 후 재심사 :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아 대폭적인 수정을 한 후에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그보다 하위의 종합평가 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 (7) [심사 결정 및 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회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심사자 인적 사항을 삭제한 후 첨부한다.
- (8)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적어 논문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 혹은 재심을 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 위원 1인이 참여하고 2인의 신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 (9) [심사결과 통보] 접수된 모든 논문은 연구소 일정에 따라 40일 이내에 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필자에게 우선이나 전자우편으로 게재 확정을 통보하고, 논문의 집필자가 학술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집필자에게 <게재 불가 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은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일시를 적시하여 수정제의서를 발송한다.
- (10)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 혹은 전자 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자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계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 (11) [수정제의 수용원칙] 논문 집필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를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론문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수정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재심요구도 없는 경우와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

1. 논문의 구성

- (1) 제목 : 제목은 논문보다 큰 글자(14 포인트)를 사용하고 부제목 (12 포인트)이 있는 경우에는 주제목 다음에 콜론을 찍고 부제목을 쓴다. 작품제목은 영어로 쓴다.

예: 브라이언 프리엘의 휴머니티 이념: Translations를 중심으로

(2) 논문의 소제목

로마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 서론부분: I. 서론 (영문논문의 경우, I. Introduction)
- 본론부분: II, III, IV. . . (구체적 소제목 명기는 저자의 필요에 따른다)
- 결론부분: V. 결론 (영문논문의 경우, V. Conclusion)

(3) 필자이름

- ▶ 논문 서두 우측 상단에 위치. 한글 성명을 쓴다.

예 : 홍길동

- ▶ 논문 본문 마지막, 주제어 전에 소속 학교 명칭을 넣는다.

예 : 동국대

- ▶ Abstract 경우에는 영문 성명 아래 영문 학교 명칭을 쓴다.

예 : Hong, Kil Dong (or Kil-Dong)

(HanKuk University)

- ▶ 영문 성명은 Hong, Kil Dong으로 한다.

- ▶ 공동필자의 경우: 맨 앞에 위치한 필자가 제1필자이고, 그 다음의 공

동필자는 가나다 순 (영어 이름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4) 참고 / 인용 문헌(References / Works Cited)

본문이 끝난 뒤 반드시 인용 문헌(11 포인트)이라는 제목 하에 참고 및 인용 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하고 인용 문헌이 끝나면 200 단어 내외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5) 영문 요약

논문제목(14 포인트)은 영어로 쓴다. 제목 1줄 밑 오른쪽 끝에는 필자의 영문이름을 쓴다.

예: Myth-seeking Journey in Brian Friel

Hong, Gil Dong
(Dongguk University)

The theme of rebirth in Brian Friel is well expounded in many aspects : . . .

Its main objective is. . . .

(6) 주제어

본문이 끝나면 2줄을 띄고, 한글 논문인 경우 “주제어”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한글로 명기한다. 그리고, 영문초록이 끝나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영어로 기입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이상의 주제어를 영어로 기입한다.

(7) 본문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 포인트로 하되 줄 사이의 간격 비율은 160으

로 한다.

2. 한글 논문에서의 외국어 사용

- 고유명사의 경우 작품명은 우리말로 번역하고 인명은 우리말로 옮겨 적되 교육인적자원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른다.
 - 처음 나오는 모든 외국어는 괄호 속에 원어를 제시하되, 두 번째 부터는 원어제시가 필요 없다. 작품명과 번역된 저서명은 처음에 번역한 제목을 『 』 안에 쓰고 이어서 () 안에 원어 제목을 병기하고, 그 다음에는 번역된 제목만 쓴다. 한글 논문 제목은 「 」 안에 쓴다.
- 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

3. 강조와 들여쓰기 (Indentation)

- (1)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혹 밑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에 쓰며, 인용문 중 강조 부분은 원저자의 명기에 따르고, 논문 필자의 강조는 이탤릭체로 쓰며 인용문 끝 출처 표시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를 명시한다.

- (2) 모든 새로운 문단은 두 글자만큼(타자 철자 5칸) 들여쓰기를 한다.

4. 인용 및 출처 밝히기

모든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고 바로 뒤의 괄호 안에 원문을 덧붙인다.

- (1) 직접인용의 경우

- 한글로 된 번역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 ” 안에 인용문을 쓰고 이어서 ()안에 출처를 밝히고 괄호 밖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55-56).

- 외국어 원본에서 인용할 경우 “ ”안에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을 쓰고 이어서 ()안에 원문을 쓴 후에 적절한 문장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밝힌다.

예: “역설적으로, 오늘의 등장인물들은 저급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열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대함을 구축한다”

(Paradoxically, O'Neill's characters achieve their greatness through passions that might be thought of as base. 428-29).

예: “어제의 고통”(yesterday's pain, 471)

(2) 간접인용의 경우 출처는 문장의 마지막에 칸을 띄우지 않고 바로 이어서 ()안에 쪽수를 밝히고 괄호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55-56).

(3) 독립인용문

- 두 줄 이상의 인용의 경우 독립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독립인용문의 위쪽과 아래쪽은 한 줄씩 비워 놓는다. 독립인용문의 첫 줄은 어느 경우에도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나 두 개 이상의 연속된 문단을 인용할 경우 두번째 문단부터 들여쓴다. 또한 독립인용문은 본문보다 작은 9 포인트의 글자를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좌우를 5칸 정도 본문보다 들어가게 한다.

- 괄호를 사용하여 독립인용문의 출처를 밝힌다. 본문중 인용과 달리 인

용문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한 칸 띄 다음 괄호를 시작한다.

예: 길을 가다 영희를 만났다고 그가 말했다. (15)

(4) 인용문중 논문 필자의 첨삭

- 인용문의 중간부분을 논문필자가 생략할 경우 마침표 세 개를 한 칸씩 띄운다.

예: 길을 가다 . . . 만났다고 그가 말했다.

길을 가다 영희를 만났다. . . . (뒤를 완전히 생략하는 경우에)

- 인용문의 대명사나 논문의 맥락에 맞춰 의미를 논문 필자가 지칭하여 밝힐 때 대명사나 어구 다음 []안에 쓴다.

예: In his [John F. Kennedy's] address, "new frontier" means . . .

(5) 구두점과 인용문

- 따옴표와 함께 마침표(또는 쉼표)를 사용할 때 마침표(또는 쉼표)는 따옴표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처를 병기하여 밝힐 때는 '출처 밝히기' 원칙에 먼저 따른다.

예: 인호는 "영어," "불어"에 능통하다고 "철수가 주장했다."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도 말하듯이 "주인공은 죽지만 비극의 종말은 항상 삶의 가치를 더욱 확인시켜 준다" (55-56).

5. 영문원고 및 영문요약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6. 서지 사항

- (1) 인용 문헌이라는 제목 하에 밝히되 모든 출전은 저자 항목, 서명 항목,

출판 배경 항목, 쪽수 항목 등의 순서로 적는다. 그리고 항목 내의 세부 사항은 MLA 최신판의 규정을 따른다.

(2) 단 한국어로 번역된 외국 문헌을 명기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저자 항목: 원저자의 한국어 발음 이름 중 성, 성표,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번역자 항목: 번역자 이름을 쓰고 “역”을 붙인다.

- 서명 항목: 번역된 책 명을 겹낫표 안에 쓰고 괄호 안에 원서 명을 이탤릭체로 쓴다.

- 출판 배경 항목: 번역서의 출판 도시, 출판사, 출판 연도 순으로 쓴다.

예: 윌리엄스, 레이몬드. 이일환 역. 『이념과 문학』(Marxism and Literature).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2.

(3) 하나의 문헌에 관한 서지항목의 길이가 길어서 한 줄 이상이 될 때 두 번째 줄부터 6칸 들여 쓰도록 한다.

예: Lewis, C. S. “View Point: C. S. Lewi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Ed. Denton Fox.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8, 110-22.

(4) 외국문헌 서지목록에 국내문헌도 함께 포함시킬 때는 국내문헌을 가나다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열거한다.

(5) 외국대학 출판사의 경우 University는 U로 Press는 P로 줄여쓴다. 외국출판사의 경우 Publishers, Press, and Co., 등의 약호는 모두 생략하고 하나의 머리 이름만 쓴다.

예: Harper, Norton, Houghton, Routledge 등.

예외로 Random House로 표기한다.

- (6) 같은 저자의 2개 이상 출판물을 명기할 때는 두 번째부터 저자이름은 다섯칸의 밑줄로 처리한다. (_____.)
- (7) 공동저자의 경우, 맨 앞에 위치한 저자가 제1 저자이고, 그 다음의 공동 저자는 가나다 순 (영어 이름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 (8) 기타 상세한 논문 작성법은 MLA 최신판을 따르고 그 기준을 한국어 논문 작성법에 응용하도록 한다.

『영어권문화연구』 투고 규정

1. [학술지 발간] 매년 6월 30일, 8월 31과 12월 31일 연 3회 발행하며, 한글논문은 앞부분에 외국어 논문은 뒷부분에 게재한다.
2. [원고 제출시한] 1권은 3월 15일, 2권은 7월 15일, 그리고 3권 11월 15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예정논문을 제출한다.
3. [논문의 내용] 투고 논문의 내용은 영어권의 인문, 철학, 문학, 번역, 문화 연구나 학제적 연구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거나 그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기고 자격] 논문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어권문화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전공자나 연구자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연구소장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5.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을 따른다.
6. [편집요령] 『영어권문화연구』 편집 및 교정 기준에 따른다.
7. [심사기준] 『영어권문화연구』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항(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을 적용한다.
8.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 시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은 20만원, 일반 논문은 10만원을 논문 게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저작권 소유] 논문을 포함하여 출판된 원고의 저작권은 영어권문화연구소가 소유한다.
12. [규정의 개폐 및 수정] 본 규정의 개폐 및 수정은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개폐 및 수정을 의결한다.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작성 및 기고 요령

『영어권문화연구』에 기고하는 논문은 아래의 원고 작성요령을 따라야 한다.

1. 논문은 제목을 포함하여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된 논문은 본문에 한자와 영문 등을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 괄호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쓰는 경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한다.
2. 외국어 고유명사는 한글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작품명은 한글로 번역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제시한다. 인용문은 번역하되, 필요에 따라 원문을 괄호 속에 병기한다. 운문의 경우에는 원문을 번역문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인명이나 지명의 경우 해당 언어권의 발음을 존중하되, 결정이 어려울 때는 교육부 제정 외국어 발음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3. 각주는 연구비 관련 내용 및 재인용 사실을 밝히거나 본문 내용의 필수적인 부연 정보를 위해서 간략히 사용하고, 인용문헌의 명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미주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실용논문의 경우 조사 및 실험 내용을 미주의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5. 컴퓨터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되, 우리말 논문은 45자×450행, 영문논문은 70자×500행 (출판지면 약 20쪽) 내외로 한다. 논문의 작성은 가능하면 <아래한글>프로그램(hwp)으로 하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및 크기 등은 기본양식으로 한다.
6. 직접, 간접 인용 부분의 마지막 구두점이 마침표의 경우에는 출처 표기 원칙을 적용 받아 (따옴표 다음의) 괄호에 이어서 표기한다.

7. 국내 서적이거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본문 중에 괄호를 이용하여 미국 현대어문학회(MLA)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의 규정에 따라 저자와 쪽수를 명시하고, 논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인용문헌(Works Cited)으로 밝힌다.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 이름』. 편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 영문문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고 책 이름은 이탤릭체로 한다.
 -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 이름. 편자.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8.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을 함께 인용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국내문헌을 ‘가나다’ 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문헌은 ‘ABC’순으로 열거한다. 인용문헌은 본문 중에 직접, 간접 인용된 문헌만을 명시하고 참고(references)로만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기하지 않는다.
9. 기타 논문 작성법의 세부 사항은 미국현대어문학회(MLA)의 『지침서』(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최근판 규정을 따르며, 한글 논문의 경우에도 미국현대어문학회 『지침서』의 세부 사항을 응용하여 따른다.
10.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자의 이름과 대학 이름을 논문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필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원고 제출시 필자의 신원은 ‘논문게재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한다.
11. 원고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간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3부의 인쇄본을 동시에 우송한다. 제출할 때, 다음의 기본사항을 명시한 표지를 붙이고, 원고(영문요약 포함)에는 일체 필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게재 확정 이후 출판 교정 시에 필요에 따라 인적 사항을 첨부한다.
 - 논문 제목 (한글 및 영문)

- 필자 이름 (한글 및 영문) 및 필자 정보
 - 공동 연구의 경우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있을 때 명시
 - 필자 소속단체(학교)명(한글 및 영문)
 - 필자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게재 희망호
12. 모든 논문의 말미에 5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를 명시한다.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 말미에 2줄 띄고 “주제어”를 제목으로 한글 주제어를 한글로 명기하고, 영문초록 말미에 2줄 띄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문으로 제시한다. 영어논문의 경우 논문과 영문요약 말미에 2줄 띄고 “Key Words”를 제목으로 하여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영어로 명기한다.
13. 모든 논문 뒤에는 20행 내외의 영문요약을 붙인다.
14. 원고는 접수 순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각 논문의 심사위원회를 위촉하여 심사하고 게재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원고 접수, 논문 심사, 사후 관리)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5.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포함한 원고 필자에게 출판 최종 송고 이전에 논문 형식과 맞춤법에 대한 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받은 논문의 경우 최종 교정 및 편집의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원고작성 세부 지침

1. 용지규격: A4
2. 용지여백: 위 쪽: 56.00 mm 머리말: 10.00 mm
 원 쪽: 49.99 mm 오른쪽: 49.99 mm
 아래쪽: 60.00 mm 꼬리말: 0.00 mm

3. 아래의 사항은 편집 메뉴 중 “모양 → 스타일”을 이용하여 정하십시오.

구 분	정렬 방식	행간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들여 쓰기	글자 크기	글자 장평	글자 간격	글 자 모 양
논문제목	가운데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4 pt	90%	0%	한글: HY신명조 영문: Times New Roman 한자: HY신명조
부-소제목	가운데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2 pt			
필자명	오른쪽	160%	0글자	0글자	0글자	10 pt			
본문/바탕글	혼합	160%	0글자	0글자	2글자	10 pt			
인용문	혼합	150%	2글자	0글자	2글자	9 pt			
각주	혼합	130%	0글자	0글자	2글자	9 pt			
머리말-홀수	오른쪽	150%	0글자	0글자	0글자	9 pt			
머리말-짝수	왼쪽	150%	0글자	0글자	0글자	9 pt			

*논문의 시작 쪽에서는 머리말 감추기를 하시오.

접수 제 호

(심사) 호

수정·보완 의뢰서

심사 위원 ()명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님의 논문을 『영어권문화연구』 제 ()호에 게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아래의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교정을 거쳐서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시 필수 기입 사항

1. 수정·보완 사항의 항목별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고쳤는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 수정·보완이 완료된 논문과 수정·보완 의뢰서를 영어권문화연구소 이메일 계정(esc8530@dongguk.edu)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력물의 우편송부는 편집시 그림이나 도표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한합니다.

년 월 일

영어권문화연구 편집위원장

수정·보완 확인서

논문 제목		
수정 및 보완 사항	논문 형식	
	논문 내용	

영어권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 및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와 진실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원 및 투고자는 학술연구자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증진되도록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는 학술연구 저작들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고 게재한다. 이에 따라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 저자 뿐 아니라 편집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의 연구윤리규정을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학술행사 발표문, 단행본, 영상물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과 출판물 및 심사행위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및 위 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forgery, 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alteration, falsification)는 참고문헌 등의 연구자료,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plagiarism)”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 및 연구결과물(비학술단체 발간물,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등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붙지 않는 발표물은 제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 및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제보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설치) 연구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조사, 심의, 판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2. 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장,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소 전임 연구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제보,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연구기관에 의해 인지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인지된 사안에 대한 조사의 적부 판단, 조사위원회의 설치,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설치)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과 외 부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활동을 시작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완결된 후 해산한다.
3.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으로 한다.
4. 연구소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의 의무와 자격정지)

1.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검증과정에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은 심의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4. 조사위원은 자신과 사안사이에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사위원의 연구 결과 혹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당사자는 즉시 해당 심의 안건의 조사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연구윤리의 검증

제10조(검증 시효)

1. 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 이상 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심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상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 혹은 사회적으로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

여야 한다.

제11조(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결과조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와 진실성 감증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위원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7.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의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며 조사위원회는 해산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제 제기가 허위이며 피조사자에 대한 의도적인 명예 훼손이라 판단될 경우 향후 연구소 활동을 제한하는 등 허위 제보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구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조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취하며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 혹은 연구결과물 게재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 삭제
2. 해당 지면을 통한 공개 사과
3. 논문 투고 금지
4. 연구소의 제반 간행물과 출판물 투고 및 연구소의 학술활동 참여 금지
5. 해당자의 회원자격 정지

제14조(후속조치)

1.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판정 및 조치가 확정되면 조속히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조치 후 그 결과는 인사비밀 문서화하여 연구소에 보존한다.
3. 필요한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결과조치를 통보한다.

제4장 기타

제15조(행정사항)

1.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권문화연구 *Th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2016년 12월 31일 / 31 December 2016

9권 3호 / Vol.9 No.3

발행인 한태식

편집인 김애주

발행처 영어권문화연구소/Official Publication by

Institute for English Cultural Studies

Pil dong 3-26, Chung gu,

Seoul, Korea (Zip Code: 100-715)

(우편번호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Tel 02-2260-8530

<http://site.dongguk.edu/user/culture>

E-mail: ajkim@dgu.edu

인쇄처: 동국대학교출판부

(우편번호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 2260-3482~3

팩스: (02) 2268-7852